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56.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e Translation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April 2025

Table of Contents

• Paper •

- [Kor.] Understanding Prophetic Perfect and Its Translation: Focusing on Isaiah 9:1-7[8:23-9:6]
----- Cholho Shin / 7
- [Kor.] A Reconstruction and Translation Proposal of the Siege Imagery in Ezekiel 4:2 and
21:22: An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Approach
----- MiYoung Im / 36
- [Kor.] Syntactic Structure of Daniel 3:17 and Its Translation ----- Yoo-ki Kim / 57
- [Kor.] A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regelles' Greek New Testament and Westcott and
Hort's Greek New Testament: In Concentration upon Matthew's Gospel
----- Hyung Dae Park / 78
- [Kor.] The Meaning of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in Mark 16:2 with Translation Suggestions
----- Sung-Min Jang / 98
- [Kor.] The Combat of Verbal Aspect Theories: What Makes Them Different?
----- Doosuk Kim / 126
- [Kor.] Changes in Archaic Connective Endings in the Korean Revised Version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Seonggyu Choi / 153
- [Kor.] Effectiveness of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Bible: Focusing on the Initial Law ----- An-Yong Lee / 184
- [Eng.] An Analysis of the Tense Usage of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and
Its Implications ----- Manse Rim / 216
- [Eng.] A Mystery Divergently Interpreted: Revelation 13:18 in Victorinus of Poetovio'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 Jonathon Lookadoo / 235

• Translated Paper •

- [Kor.] Regular and Irregular Variable Questions in New Testament Greek
----- Douglas Estes (Chul Heum Han, trans.) / 253

• Book Review •

- [Kor.] *300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n Bible: Histor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ong Ho Chong,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2022)
----- Kyo Seong Ahn / 270

성경원문연구

- 제 56 호 -

2025. 4.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제56호)

편집위원 채영삼(위원장) 유은걸(서기) 김정훈 김충연 박형대 배희숙 이영미 이용호
이윤경 주기철 한철흠 황선우 Jörg Frey, Julie Faith Parker, Willem van Peursen,
Jean-François Racine, Kristin Weingart

성경번역연구소 소장 이두희

편집 조지윤 최익삭 유은유 김도현 정혜인 정형석 조가히 오세진 이유림

영문 교정 Lisa Pak

표지 김소영

발행인 권의현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발행처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0673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02)2103-8783, 8784 Fax: 02)2103-8897

등록년월일 : 1962년 7월 20일

등록번호 : 제1-78

ISSN : 1226-5926 (print) / ISSN : 2586-2480 (online)

인쇄처 북토리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56.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e Translation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Editorial Board

Editors: Young Sam Chae (Baekseok Univ.), Eun-Geol Lyu (Hoseo Univ.),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 Chung-Yeon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 Hyung Dae Park (Chongshin Univ.), Hee Sook Bae (Presbyterian Univ. & Theological Seminary), Yeongmee Lee (Hanshin Univ.), Young Ho Lee (Seoul Theological Univ.), Yoon-Kyung Lee (Ewha Womans Univ.), Ki Cheol Joo (Kosin Global Univ.), Chul Heum Ha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 Sun-Woo Hwang (Chongshin Univ.), Jörg Frey (Univ. of Zürich), Julie Faith Parker (The General Theological Seminary), Willem van Peursen (Vrije Univ., Amsterdam), Jean-François Racine (Graduate Theological Union), Kristin Weingart (Ludwig Maximilians Uni., München).

Dean of the Institute for Bible Translation Research: Doo-Hee Lee

Editorial Staff of the KBS: Ji-Youn Cho, Yi Sak Choi, On-Yoo Yoo, Do-Hyun Kim, Hye In Jung, Hyoungseock Cheong, Ga-Hee Jo, Se-Jin Oh, Yu-Rim Lee.

English Proofreader: Lisa Pak

Cover Designer: So Young Kim

President of the KBS: Eui Hyun Kwon

The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is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e Translation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2569,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Korea. Phone: 82-(0)2-2103-8783, 2103-8784. Fax: 82-(0)2-2103-8897.

© Korean Bible Society, 2025

차 례

머리말	5
-----------	---

• 논문 •

예언적 완료의 이해와 그 번역 — 이사야 9:1-7[8:23-9:6]을 중심으로 —	신철호 / 7
에스겔 4:2와 21:22의 포위전쟁에 대한 모습 재현과 번역 제언 — 고고학적, 언어적 고찰을 바탕으로 —	임미영 / 36
다니엘 3:17의 통사 구조와 번역	김유기 / 57
트레겔레스 판과 웨스트코트 호트 판 차이점 연구 —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	박형대 / 78
마가복음 16:2의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함의와 번역 제언 ...	장성민 / 98
동사 상 대전(大戰) —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하는가? —	김두석 / 126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속 옛 말투 연결어미의 변화	최성규 / 153
성경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글 맞춤법 교육 효과 — 두음법칙을 중심으로 —	이안용 / 184
An Analysis of the Tense Usage of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and Its Implications	Manse Rim / 216
A Mystery Divergently Interpreted: Revelation 13:18 in Victorinus of Poetovio's <i>Commentarius in Apocalypsin</i> ...	Jonathon Lookadoo / 235

• 번역 논문 •

신약성서 그리스어의 규칙 및 불규칙 변수 질문	더글러스 에스테스(Douglas Estes), 한철흠 번역 / 253
------------------------------------	--

• 서평 •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정중호,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안교성 / 270

「성경원문연구」 논문 투고 규정 / 295

「성경원문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 324

「성경원문연구」 연구 윤리 규정 / 339

※표지: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이사야 9:1-7

※「성경원문연구」 표지 글자는 『성경전서』(1911년) 및 『성경 개역』(1938년)의 본문 글씨들을 집자(集字)하여 디자인한 글자임.

※뒷 표지 안쪽: <한글 성경 번역 계보도>

한국교회가 예배용 성경으로 읽어 온 『성경전서』(1911년), 『성경 개역』(1938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 그 외의 공인 역인 『공동번역 성서』(1977년)과 『공동번역 개정판』(1999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과 『성경전서 새번역』(2001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2004년부터 줄여서 부름)의 번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머리말

채영삼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장)

이번 「성경원문연구」 56호에는 10편의 논문과 1편의 번역 논문, 1편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신철호 선생은 “예언적 완료의 이해와 그 번역 — 이사야 9:1-7[8:23-9:6]을 중심으로 —”에서, 성서 히브리어의 매우 독특한 현상인 예언적 완료 현상에 대한 문법학자들의 논의를 추적하고 이사야 9:1-7 본문을 분석하여, 예언적 완료형 동사를 ‘틀림없이’, ‘분명히’, ‘반드시’, ‘참으로’ 등과 같은 확실성을 강조하는 수사적 장치를 활용하여 미래 시제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미영 교수는 “에스겔 4:2와 21:22의 포위전쟁에 대한 모습 재현과 번역 제언 — 고고학적, 언어적 고찰을 바탕으로 —”에서, 히브리어 성경 본문과 라기스 발굴을 포함한 최근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מַצּוֹר은 ‘벽을 쌓아 포위한 것’, קִיץ는 ‘군 주둔지용 포위 성벽’, הָלַח는 ‘돌, 흙, 나무 등을 쌓아 만든 인공 언덕’, כּר is ‘성문과 성벽을 부수는 무기’로 각각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유기 교수는 “다니엘 3:17의 통사 구조와 번역”에서, 다니엘 3:17 아람어 원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최근의 연구를 분석한 후, 다니엘 3:17을 1절로 시작하는 3개의 긍정 조건문으로 파악하고, 18절을 시작하는 조건절 לֹא יִהְיֶה와 대칭 구조를 확보하는 번역을 제시합니다.

박형대 교수는 “트레겔레스 판과 웨스트코트 호트 판 차이점 연구 —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에서, 두 판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점은 바티칸 사본의 읽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웨스트코트 호트 판이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며, 일부 차이는 시내산 사본의 읽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합니다. 장성민 교수는 “마가복음 16:2의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함의와 번역 제언”에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맥락적, 신학적, 문법적 차원을 고찰하고,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살리면서 속격 구문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둘로 나누어 “저 멀리 해가 떠올랐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두석 교수는 “동사 상대전(大戰) —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하는가? —”에서, 포터, 패닝, 캠벨 세 학자의 신약성경 그리스어 동사 상 이론에 대한 차이점을 소개하며, 그 핵심은 동사 상 이론에 대한 언어학적 체계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용례 혹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하고, 포터의 삼분적 구조 이론이

성경 해석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요한복음 20:1-10을 통해 제시합니다.

최성규 박사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속 옛 말투 연결어미의 변화”에서, 성경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옛 말투 연결어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그 변화의 특징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연결어미에 있어 『개역』 계통 성경의 예스러운 문체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서 조금 약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안용 교수는 “성경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글 맞춤법 교육 효과 — 두음법칙을 중심으로 —”에서, 남북한의 어문 규범 차이를 제시한 뒤, 남한어와 북한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성경을 활용한 원리 중심의 맞춤법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글 맞춤법 이해도 향상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논증합니다.

임만세 교수는 “An Analysis of the Tense Usage of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and Its Implications”에서, 칠십인역, 신약성경, 필로, 요세푸스에서 *κρίνω*의 비직설법 시제 사용을 살펴본 결과, 상(Aspect)과 어휘적 요소들이 시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그 시제는 시간과 관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동사와 전치사의 구성, 문맥적 단서, 화용론적 함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논합니다. Jonathon Lookadoo 교수는 “A Mystery Divergently Interpreted: Revelation 13:18 in Victorinus of Poetovio’s *Commentarius in Apocalypsin*”에서, 요한계시록 13:18의 ‘666’ 해석에 있어 빅토리누스는 ‘부활한 네로’를 지목하면서도 특정 이름 추측을 자제한 반면, 후대 필사자들은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는 상반된 접근을 취했으나, 양쪽 모두가 이레네우스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한철흠 교수는 더글러스 에스테스(Douglas Estes)의 논문 “Regular and Irregular Variable Questions in New Testament Greek”을 번역하면서,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나타나는 π -전향 직접 질문(약 94퍼센트)은 항상 영어의 wh-전향 구조로 번역해야 하며, 그 외의 불규칙 변수 질문은 다르게 번역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의도한 바를 드러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안교성 교수는 “<서평>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정중호,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에서, 성서신학자이자 아시아기독교학자인 저자가 한국 교회의 성경 번역사를 수용, 번역, 해석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통사적으로 조망하고 있다고 하며, 이 책이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사 연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성경원문연구」 56호에 옥고를 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구들이 성경 원문 이해에 의미 있는 공헌이 되며, 미래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적 완료의 이해와 그 번역 — 이사야 9:1-7[8:23-9:6]을 중심으로 —

신철호*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이른바 카탈(qatal)의 미래적 사용, 즉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¹⁾에 대한 연구이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예언적 완료에 대한 논의는 중세 시대 초기 히브리어 문법가들 때부터 시작되어 많은 문법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의 도전 과제였다.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²⁾ 많은 문법학자들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의 맥락에서 미래 상황을 말할 때 과거를 나타내는 카탈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했다. 아브라함 이븐 에스라(A. Ibn Ezra), 데이비드 킴히(D. Kimhi) 등과 같은 초기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은 특히 예언의 맥락에서 카탈의 미래 사용, 즉 예언적 완료를 성서 히브리어의 독특한 현상으로 간주했다. 실제로 예언적 완료는 다른 셈어 계열의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³⁾ 초기 문법학자들이 카탈이 미래적으로 사용된 것을 예언적 완료라는 용어로 부르지 않았지만, 내포된 의미로 볼 때 카탈의 미래 사용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예언적 완료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예언적 완료에 대한 재고는 지난 천년기부터 오늘날까지 문

* 현재 Bar-Ilan University 성서학(마소라 사본) 박사과정. flows74@gmail.com.

1) ‘카탈의 미래적 사용’은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 가능하나 이 논문에서는 예언적 맥락에서 살펴보므로 ‘예언적 완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M. F. Rogland, *Alleged Non-past Uses of Qatal in Classical Hebrew*,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4 (Leiden: Brill, 2003), 53.

3) 본 논문 14쪽을 참조하라.

법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향후 카탈의 사용에서 모호함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들은 예언적 완료를 문법적 범주로 분류하기보다 수사적 장치, 장르, 문체로 간주하여 예언적 완료의 존재를 거부했다. 특히 다니엘 E. 카버(D. E. Carver)는 그의 논문에서 예언적 완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 세기 동안 알려진 예언적 완료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사용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예언적 완료는 오랫동안 문법학자들이 관찰한 성서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현상이며 문법화된 현상이라는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1-7[8:23-9:6]의 분석을 통해 예언적 완료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제안할 것이다.

2. 예언적 완료에 대한 논의의 역사

카탈의 용도는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카탈의 미래적 사용, 즉 예언적 완료는 오랜 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언적 완료”라는 용어는 다양한 용어로 변주된다. ‘확신의 완료’(perfect of confidence),⁴⁾ ‘확실성의 완료’(perfect of certainty),⁵⁾ ‘예언적 카탈’(prophetic qatal),⁶⁾ ‘예언적 미래’(prophetic future),⁷⁾ ‘접미사 활용의 미래 시제 사용’(the future time use of the suffix conjugation)⁸⁾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들은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과거처럼 확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⁹⁾ 중세 유대인 히브리어 문법학자들

4) E. Kautzsch, ed., *Gesenius' Hebrew Grammar*, A. E. Cowley, trans. (Oxford: Clarendon Press, 1910), §106n.

5)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30.5.1e.

6) 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60.

7) S. Lee, *A Grammar of Hebrew Language*, 2nd ed. (London: James Duncan, 1832), 359.

8) D. E. Carver, “Reconsidering the So-Called Prophetic Perfect” (Boston: Institute for Biblical Research Annual Meeting, 2017.11.17.), 1. 이 논문은 2017년 11월 17일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the Institute for Biblical Research 연례 모임의 구약성서 신학 학술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9) 얀 주스텐(J. Joosten)은 “확신의 완료”와 “예언적 완료”의 의미를 구분한다. “확신의 완료”는 예상되는 사건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창 21:7; 30:13; 시 6:9; 20:7; 36:13; 37:38), “예언적 완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미래의 사건을 선포할 때 사용된다(민 24:17; 렘 28:2), J. Joosten,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A New Synthesis Elaborated on the Basis of Classical Prose*, Jerusalem Biblical Studies 10 (Jerusalem: Simor Ltd., 2012), 207을 보라.

은 이 카탈의 미래 용법을 발견했다. 중세 히브리어 문법가인 아브라함 이븐 에스라는 예언자들이 예언의 맥락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때 관습적으로 카탈 형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데이비드 김히는 그의 문법책에서 카탈의 미래 사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다.¹⁰⁾ 데이비드 김히는 카탈의 미래 사용을 ‘미래를 대신한 과거’(עבר במקום עתיד)라고 부른다. 그는 이것이 성서 히브리어에서 접두사가 있는 불완전한 미래형 대신 과거형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관습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예언서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언적 발화에서는 미래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¹⁾

그가 카탈의 미래 용법을 카탈의 문법적 범주로 간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를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법적 범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많은 문법학자들이 모순으로 보이는 카탈의 미래 용법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 중 일부, 특히 에발트(G. H. A. Ewald)는 히브리어 동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훗날 문법학자들이 접미사 활용(suffix conjugation)의 미래 용법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형성했다. 에발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행위의 시간 개념은 먼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미 행위가 완료되었거나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단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시간은 시간의 외부 영역, 즉 현재와 대조되는 추상적인 과거나 미래에 국한되지 않는다. … 과거와 미래라는 이름은 부적절하다. 이들을 완료와 미완료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¹²⁾

간단히 말해 카탈은 시제와 상관없이 화자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되는 완료된 행동이나 상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에발트는 성서 히브리어 동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적 접근이 아닌 상적(aspectual) 접근을 주장했고, 이후 히브리어 동사 체계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성서 히브리어 동사 체계에 새로운 시제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는데, 특히 사무엘 리(S. Lee)는 히브리어 동사 시제에 상대 시

10) W. Chomsky, *David Kimhi's Hebrew Grammar (Mikhlol): Systematically Presented and Critically Annotated* (New York: Bloch, 1952), 340-341.

11) Ibid., 340.

12) G. H. A. Ewald, *A Grammar of the Hebrew Language of the Old Testament*, J. Nicholson, trans., 2nd ed. (London: Whittaker and Co., 1836), §261.

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¹³⁾

드라이버(S. R. Driver)는 에발트의 상적 접근 방식에 리의 상대적 시제 이론을 추가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예언적 완료에 대해 설명했다.¹⁴⁾ 드라이버에 따르면 히브리어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가 이상적 관점(ideal standpoint)이라고 부르는 미래 시점으로 자신이 이동되어 미래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관점(real standpoint) 또는 발화 시점(speech time)에서 미래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마치 이미 완료된 것처럼 묘사한다. 예언자의 두 가지 관점을 포함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전한 예언적 메시지의 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카탈의 미래적 사용, 즉 예언적 완료형이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때때로 완료형(perfect)은 그 성취가 실제로는 미래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의지의 결정으로 인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결의, 약속 또는 법령, 특히 신적인 법령은 완료 시제로 매우 자주 선언된다. ... 그러나 마지막 관용어(신적인 법령)의 확장에 불과하지만, 이 시제의 가장 특별하고 주목할 만한 용도는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 예언적 완료는 미래에 대한 묘사에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현실감을 부여하고, 화자가 확신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가장 생생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확실성의 완료 또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modes)을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¹⁵⁾

드라이버는 예언적 완료를 동사 시제의 문법적인 측면에서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했다. 오늘날 예언적 완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거의 대부분 드라이버의 설명에 의존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드라이버의 예언적 완료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예언적 완료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이며, 완료(카탈)의 미래적 사용

13) S. Lee, *A Grammar of Hebrew Language*, 335-365. “그러므로 우선 자신의 내러티브를 시작하는 저자는 자신의 진술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를 말하게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이 시제를 고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제 사용을 절대 시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미 문맥에 도입된 다른 시기나 사건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시제의 상대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14) D. E. Carver, “Reconsidering the So-Called Prophetic Perfect”, 3.

15)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13-14.

16) Ibid.; D. E. Carver, “Reconsidering the So-Called Prophetic Perfect”, 2-3.

에 포함된다.

둘째, 따라서 예언적 완료는 별도의 문법적 표시는 없지만 문법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예언적 완료는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넷째, 예언적 완료는 절대 시제가 아니라 상대 시제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예언적 완료는 예언의 완전성과 확실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더 잘 설명하고 강화한다.

게제니우스(W. Gesenius)도 그의 문법책에서 예언적 완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예언적 완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임박한, 따라서 화자의 상상 속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 이러한 완료의 사용은 예언적 언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 예언자는 상상 속에서 자신을 미래로 옮겨(transports) 미래의 사건을 마치 자신이 이미 보았거나 들은 것처럼 묘사한다.¹⁷⁾

대부분의 다른 문법학자들은 예언적 완료를 인정하며 드라이버나 게제니우스와 같은 예언적 완료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 중요한 대부분의 문법책에는 예언적 완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나 게제니우스가 설명한 예언적 완료에 대한 개념이 녹아 있다.¹⁸⁾

일반적으로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 또한 시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문법학자들은 예언적 완료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언적 완료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을 최근의 논의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전통적인 논의와는 다른, 즉 시제가 아니라 상(aspect)이나 법(mood)의 측면 그리고 수사적 장치, 문체 또는 의미적 가치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2.1. 예언적 완료에 대한 다양한 언어학적 이해

이러한 최근의 논의는 예언적 완료가 문법적 범주냐 아니면 비문법적 범

17) E. Kautzsch, ed., *Gesenius' Hebrew Grammar*, §106n.

18) Ibid.;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2 vols., *Subsidia biblica* 14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6), §112h;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30.5.1e; 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146.

주냐의 논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문법적 논의 안에는 시, 상, 법에 대한 논의가 있고 비문법적 논의 안에는 수사적 장치나 문체나 의미적 가치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 중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윌키와 오코너(B. K. Waltke and M. O'Connor)는 “우연적 완료상(accidental perfective)을 사용하여 화자가 미래 상황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생생하고 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사용은 예언적 선포에서 특히 빈번하므로 ‘예언적 완료형’ 또는 ‘확신의 완료상’(perfective of confidence)이라고도 한다”¹⁹⁾고 주장하면서 예언적 완료를 시제뿐만 아니라 상으로 설명한다. 또한 주옹과 무라오카(P. Joüon and T. Muraoka)는 예언적 완료형이 “특별한 문법적 완료형이 아니라 수사적 기법”이라고 말한다.²⁰⁾ 메르웨와 누데, 크로체(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J. H. Kroeze)는 그들의 문법책에서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적 수단으로, 이러한 용도로 완료형을 종종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한다”고 말한다.²¹⁾ 위에서 언급했듯이 윌키와 오코너도 “생생하고 극적으로 미래의 상황을 표현한다”고 말하면서 문체적 특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는 일부 학자들이 예언적 완료를 법(mood)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카버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독특한 결론을 내린다. 그는 카탈에 속하는 예언적 완료형이 시제나 상이 아닌 인식론적이고 비현실적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주장했다.²²⁾ 나아가 그는 “지난 150년 동안 예언적 완료형으로 알려져 왔던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전에 이 범주에 묶어서 분류했던 예언적 완료형의 용법은 실제로는 다른 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²³⁾ 그의 견해를 따르는 일부 학자들은 예언적 완료형을 문법적 범주가 아닌 문학 장르나 문체로 간주한다.

에릭 하바넥스(E. Chabaneix)는 그의 논문에서 예언적 확실성은 맥락과 장르에 의해서 설득되는 것이지 언어의 형태론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예언적 완료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²⁴⁾

19)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30.5.1e.

20)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12h.

21) 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146.

22) D. E. Carver, “A Reconsideration of the Prophetic Perfect in Biblical Hebrew”,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17), 228; “Reconsidering the So-Called Prophetic Perfect”, 21.

23) D. E. Carver, “Reconsidering the So-Called Prophetic Perfect”, 21.

24) E. Chabaneix, “Isaiah 8:23-9:6: A Study of the ‘Prophetic Perfect’”, Th.M. Dissertation (The

위에서 논의했듯이 예언적 완료형을 설명하는 데 다양한 요소가 사용된다. 일부 학자는 문법적 특징에 호소하고, 일부 학자는 수사적 또는 장르적 특징에 호소하고, 일부 학자는 시제, 상, 법 또는 기타 의미적 매개변수에 호소한다. 이와 같이 예언적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예언적 완료에 대한 세부적인 견해를 달리할 뿐 ‘예언적 맥락에서 카탈이 미래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에는 대부분 인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학자들의 예언적 완료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표 1> 예언적 완료에 대한 학자들의 언어학적 이해²⁵⁾

	문법적 범주			비문법적 범주		
	시제	상	법	수사적 장치	문체	의미적 가치
A. Ibn Ezra	O					
D. Kimhi	O					
G. H. A. Ewald		O				
S. R. Driver	O					
W. Gesenius		O				

Master’s Seminary, 2009), 108.

- 25) M. F. Rogland, *Alleged Non-past Uses of Qatal in Classical Hebrew*, 53; G. H. A. Ewald, *A Grammar of the Hebrew Language of the Old Testament*, §261;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14; E. Kautzsch, ed., *Gesenius’ Hebrew Grammar*, §106n;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12h;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30.5.1e; 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146; R. Hendel, “TAM in Sam: the Tense-Aspect-Mood System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8, accessed 5 January 2025 from <https://berkeley.academia.edu/RonHendel>; G. L. Klein, “The ‘Prophetic Perfect’”,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16 (1990), 45-60; M. F. Rogland, *Alleged Non-past Uses of Qatal in Classical Hebrew*, 114; T. Notarius, *The Verb in Archaic Biblical Poetry: A Discursive, Typological,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Tense System*, *Studies in Semitic Languages and Linguistics* 68 (Leiden: Brill, 2013), 88; A. Andrason, “Future Values of the Qatal and Their Conceptual and Diachronic Logic: How to Chain Future Senses of the Qatal to the Core of Its Semantic Network”, *Hebrew Studies* 54 (2013), 37-38; D. E. Carver, “Reconsidering the So-Called Prophetic Perfect”, 21; J. A. Cook,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2), 223; B. T. Arnold and J.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68. 이 분류표는 본 연구에서 언급된 학자들만 포함했기 때문에 완전히 포괄적이지는 않다. 각 학자들의 연구에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문법적 범주			비문법적 범주		
	시제	상	법	수사적 장치	문체	의미적 가치
Joüon-Muraoka				O		
Waltke-O'Connor		O			O	
Merwe-Naudé-Kroeze				O		
R. Hendel						O
Zuber				O		
G. L. Klein						
M. F. Rogland					O	
T. Notarius					O	
A. Andrason						O
J. A. Cook				O		
Arnold-Choi				O		
D. E. Carver			O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문법학자들은 대체로 예언적 완료를 문법적 범주로 분류하는 반면, 최근의 학자들은 비문법적 범주로 분류한다.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언적 완료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카탈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예언적 완료와 비슷한 언어적 현상은 고전 아랍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동족 언어 심지어 성서 이후 시대 히브리어(Post-Biblical Hebrew)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성서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²⁶⁾ 예언적 완료를 이해하기 위해 성서 히브리어 카탈의 용례와 확장된 의미를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필자는 예언적 완료를 최신의 문법학자들처럼 비문법적 범주에 속하는 수사적 장치나 문체 또는 단지 의미적 가치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언적 완료형은 동사의 카탈형 또는 완료형에 포함되며 그렇기 때문에 접미사 활용(suffix conjugation)이라는 — 비록 그것이 형태론적으로 카탈에 포함되어 예언적 완료만의 별개의 형태론적 특징은 아니긴 하지만 — 형태론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수사적 장치나 문체, 의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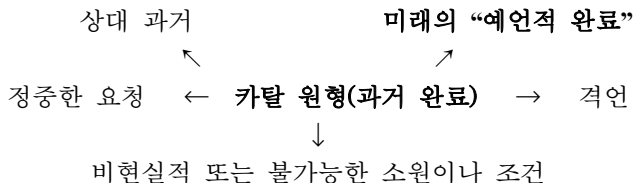
26) G. L. Klein, “The ‘Prophetic Perfect’”, 47; cf. M. F. Rogland, *Alleged Non-past Uses of Qatal in Classical Hebrew*, 56. “예언적 완료는 벤 시라, 쿨란 히브리어 또는 미쉬나 히브리어와 같은 성서 이후 시대 히브리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치는 형태론적으로는 전혀 표시가 되지 않으며 의미론적 요소일 뿐이다. 오히려 예언적 완료는 드라이버가 말한 것처럼 카탈의 미래적 사용 안에서 더욱 독특한 요소이기 때문에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는 문법화 현상에 더 가깝다. 이것은 로널드 헨델(R. Hendel)의 원형(prototype) 이론으로도 더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2.2. 로널드 헨델의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 이론

로널드 헨델의 원형 이론은 카탈의 의미가 원형적 의미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설명한다. 이 이론은 은유적 확장을 통해 카탈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원형 이론은 카탈의 문법적 형태와 구조가 중앙의 “원형”에서 바깥쪽으로 방사되는 의미의 계열을 표현할 수 있다. 원형은 중심적인 의미이며, 이는 방사형 의미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존 쿡(J. A. Cook)은 헨델의 원형 모델이 형태와 의미 사이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하지만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델의 모델은 의미와 관련하여 카탈의 시제(tense), 상(aspect), 법(mood)의 개념적 범주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헨델은 이 원형 이론을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에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보여 준다.

<그림 1> 로널드 헨델의 카탈 원형 이론²⁸⁾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 이론의 중심에 있는 것은 카탈의 중심 기능인 과거 완료이다. 카탈의 중심적 의미가 대체로 과거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의해 지지된다. 박철우는 “히브리어 동사형 중 카탈은 일반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²⁹⁾고 했고 안드라스(A.

27) J. A. Cook, *Time and the Hebrew Verb: The Expression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174.

28) R. Hendel, “TAM in Sam: the Tense-Aspect-Mood System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8.

29) 박철우, “한글성경 번역을 위한 희구법 카탈 적용의 필요성”, 『성경원문연구』 40 (2017), 71.

Andrason)은 “성서 히브리어의 접미사 활용 카탈은 일반적으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상 및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진 직설적 형태”³⁰⁾라고 했다.

수잔 플라이쉬만(S. Fleischman)의 “시간적 거리가 다른 언어적 의미로 은유적으로 변환된다”³¹⁾는 견해에 따라 카탈의 원형, 과거 완로의 “시간적 거리”는 정중한 요청의 “사회적 거리”와 비현실적인 소원과 조건의 “인식적 거리”로 은유적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카탈의 원형인 과거 완로의 ‘시간적 거리’는 다양한 의미로 변환되면서 다른 의미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그림의 왼쪽 중간의 ‘정중한 요청’과 아래쪽의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소원이나 조건’을 카탈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법(mood)의 영역이다. 이 두 법의 영역은 전형적인 과거 완로의 ‘시간적 거리’에서 정중한 요청의 ‘사회적 거리’와 비현실적인 소원 및 조건의 ‘인식론적 거리’로 변환된다.³²⁾ 가운데 오른쪽은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교훈인 ‘격언’을 묘사하는 현재적 시간으로 변환되고, 위 오른쪽의 ‘예언적 완료’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묘사하는 미래적 시간으로 변환된다.

헨델은 그의 원형 모델을 통해 카탈이 시제(과거, 현재, 미래), 상, 법을 모두 통합하고 카탈의 중심 의미가 어떻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지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언적 완료형을 단일하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헨델의 원형 이론은 예언적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특히, 예언적 완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인식론적이고 비현실적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카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헨델의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언적 완료와 비현실적 상황에 대한 표현은 모두 카탈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언적 완료형은 카탈과 형태론적(morphological)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언적 완료는 구체적인 독립된 시제는 아니지만 규칙적인 문법, 즉 접미사 활용에 미래의 가치가 적용되었다. 문법화가 어떤 단어나 형태소에 원래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가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³³⁾ 바로 예언적 완료가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카탈의 접미사는 과거를 나타내는 분명한 문법적 표시지만 단지 그러한 과거의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헨델의 원형 모델에서

30) A. Andrason, “An Optative Indicative? A Real Factual Past? Toward a Cognitive-Typological Approach to the Precative Qatal”,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3 (2013), 1.

31) S. Fleischman, “Temporal Distance: A Basic Linguistic Metaphor”, *Studies in Language* 13 (1989), 38.

32) R. Hendel, “TAM in Sam: the Tense-Aspect-Mood System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9.

33)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16), 21-22.

카탈 안에 이미 예언적 완료의 의미가 들어왔고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은 카탈 안에 예언적 완료가 문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성서 히브리어의 독특한 현상인 예언적 완료형이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번역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

3. 이사야 9:1-7[8:23-9:6]에서 예언적 완료와 번역의 문제³⁴⁾

우리는 예언적 완료의 번역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예언적 완료가 적용된 본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예언적 완료가 분명하게 적용된 본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렵다. 클라인(G. L. Klein)은 예언적 완료가 적용된 본문을 선택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본문이 건전해야 한다. 둘째, 본문이 직설법(indicative)이어야 한다. 셋째, 본문에서 사용된 완료형에서 분명한 미래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³⁵⁾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선별된 히브리어 본문들 중에서도 네 가지 이유로 인해 제외된 본문들을 따로 분류했다.³⁶⁾ 이것은 클라인의 기준이 명확한 선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³⁷⁾

그렇다면 예언적 완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언적 맥락의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예언적 맥락의 본문이란 예언자들이 비전과 이상에서 그들이 본 미래의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을 말한다. 따라서 필자는 ‘보다’ 또는 ‘환상’, ‘계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רָאָה 이나 חָזָן 가 사용된 본문을 통해 예언적 완료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너무 광범위하여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여러 문법학자들에 의해 예언적 맥락에서 예언적 완료가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인정받는 이사야 9:1-7[8:23-9:6]의 본문만을 조사할 것이다.³⁸⁾

34) E. Chabaneix, “Isaiah 8:23-9:6: A Study of the “prophetic perfect””, 63-78.

35) G. L. Klein, “The ‘Prophetic Perfect’”, 48.

36) Ibid., 58-59.

37) E. Chabaneix, “Isaiah 8:23-9:6: A Study of the “prophetic perfect””, 91. “클라인의 기준은 도움이 되지만, 예언적 완료에 대한 오래된 정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식별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38) G. L. Klein, “The ‘Prophetic Perfect’”, 53. “게제니우스(Gesenius), 베르크슈트라서(Bergstrasser), 드라이버(S. R. Driver), 주옹(Jouon)은 스킨너(Skinner)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9:1-7[8:23-9:6]의 완료형을 예언적 완료형으로 취급한다.” 이사야 9:1-7[8:23-9:6]이 환상이나 꿈에서 일어났다는 명확한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 본문이 예언적 맥락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부 예언서의 표제에는 명사 נָבִיא (사 1:1; 욥 1:1; 나 1:1)이나 동사 נָבִיא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포로기 이후의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한다.³⁹⁾ 따라서 이 본문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본문을 기원전 734-733 년으로 추정한다면⁴⁰⁾ 본문에서 사용된 완료형은 다가올 위대한 왕이, 메시아이든, 이상적인 메시아적 왕으로 여겨지는 히스기야이든 미래의 시간을 가리킬 것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동사의 시간적 뉘앙스와 분리될 수 없다. 이 본문에 사용된 완료 동사를 조사하고 그것이 본문과 예언적 배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절 단위로 살펴본 후, 영어 역본과 한글 역본에는 어떻게 예언적 완료형 동사가 번역되었는지 비교해 볼 것이다.

이사야 9:1[8:23]⁴¹⁾

כִּי לֹא מוֹעֵד לְאִשֶּׁר מוֹעֵד לָהּ כְּעֵת הָרִאשׁוֹן הִקְל אֲרֻצָּה וּבִלְוֹן וְאַרְצָה נִפְתָּלִי
וְהָאֲחֵרִיוֹן הַכְּבִיד יִרְדָּף הֵימָּן עֶבֶר תִּירְדֹּן גִּלְיָל הַגּוֹיִם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1[8:23]에 쓰인 동사는 두 가지이다. 문법 형태는 모두 완료형이다. הִקְל 은 히필 완료형으로 바로 앞에 나오는 시간의 구 הָרִאשׁוֹן(옛적에) 때문에 과거 시제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הִקְל 은 모든 역본에서 과거 시제로 번역되어 있다. 다음에 나오는 הַכְּבִיד 는 히필 완료형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앞의 부사 וְהָאֲחֵרִיוֹן(후에는) 때문에 미래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He will make glorious).

이사야 9:2[1]

הָעָם הַחֲלָכִים בְּחֹשֶׁךְ רָאוּ אֹרֶךְ יָמָיו יִשְׁבִּי בְּאֶרֶץ צְלָמוֹת אֹרֶךְ יָמָיו עָלֵיהֶם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암 1:1; 미 1:1; 합 1:1)가 포함되어 있어 명시적으로 예언적 본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지만 הָיָה 와 הָיָה 의 연장으로 다시 예언자가 예언적 발화를 시작할 때 그 단어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언 문학의 관습이다.

39)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146.

40) G. L. Klein, “The ‘Prophetic Perfect’”, 48;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147. “9:1b[8:23b]에 나열된 영토는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5-732년) 동안 황폐화되고 전쟁이 끝날 때(기원전 732년) 앗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앗시리아 속주로 합병한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한다.”

41) 이하 사용된 한글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이다.

이 구절에서 분사형 동사가 두 개 나온다. **וַיֵּשְׁבוּ**와 **וַיֵּלְכּוּ**이다. 모두 형용사적으로 사용되었다. ‘(흑암에) 행하던 …’(who walk),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who live).

완료형 동사 또한 두 개가 사용된다. **וַיֵּלֶךְ**(볼 것이다)와 **וַיֵּלֶךְ**(비칠 것이다)는 모두 심판(어둠)과 희망(빛)이 명확히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부터 미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사야는 완료형을 사용하여 미래의 희망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었고, 이는 9:6[5] 중간에 미완료 바브 연속형을 사용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사야 9:3[2]

הַרְבִּיתִּי הַגּוֹי (לא) [לֹא] הַגְדִּילָהּ הַשְּׂמֵחָה שְׂמֹחוּ לַפְּנִידָה כְּשִׂמְחַת בְּקִצִּיר כְּאֶשֶׁר
יִגִּילוּ בְּחֻלָּקָם שָׁלָ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3[2], 4[3]절의 동사의 주어는 2인칭 “당신”으로 표현되며 궁극적으로 7[6]절의 3인칭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로 절정에 이른다. 선지자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언급한다. 이 구절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미래 번영을 강조하는 두 개의 평행구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히필 완료형 **וַיֵּלֶךְ**와 **וַיֵּלֶךְ**는 미래에 여호와께서 성취하실 미래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동사는 예언적 완료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기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שִׂמְחָה**가 명사형 **הַשְּׂמֵחָה**와 동사형 **שְׂמֹחוּ** 형태로 반복해서 사용되면서 독자의 관심은 미래 국가의 기쁨에 집중된다. 따라서 **שְׂמֹחוּ**도 완료형이지만 미래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증가시킬 때 그들은 그에 상응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큰 기쁨은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된다. 수확의 기쁨과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다.

이사야 9:4[3]

כִּי אֶת־עַל סִבְלֹו וְאֵת מִטָּה שְׂכֵמוֹ שָׁכַט הַנֶּגֶשׁ בּוֹ הַחַתָּה כְּיוֹם מָדוֹן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
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것(삿 6-7장)을 예로 들어 이
스라엘의 구원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용
된 완료형 동사 הִחַתָּה(꺾다, 훔다)는 미래의 의미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
언 문학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사야 9:5[4]

כִּי כָל־סֶאוֹן סֶאוֹן פֶּרַעַשׁ וְשִׁמְלָה מְנוּלָּלָה בְּרָמִים וְהִיְתָה לְשֶׁרֶפָה מֵאַבְלָת אִשׁ

여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쏘 같이 살라지
리니

이 구절은 전장에 남은 것들을 태우면서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다. 따라서 완료형 הִיְתָה는 뒤에 전치사 ל가 오면 역동적이면서 미래의 의
미로 번역되어야 한다(will become).

이사야 9:6[5]

כִּי־יֵלֵךְ יִלְד־לָנוּ בֶן נֹתָן־לָנוּ וְהָיָה הַמְּשֻׁרָה עַל־שִׁכְמוֹ וְיִקְרָא שְׁמוֹ פֶּלֶא יִזְעַץ אֵל
גִּבּוֹר אֲבִיעֵד שְׂרֵ־שָׁלוֹם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은 이 본문의 절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슬픔과 절망에 빠
진 사람들을 원수에게서 구출하실까?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이다. 갈릴리의
영광(9:1[8:23]),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9:2[1]), 번영과 승리
의 시대(9:3-5[2-4])는 모두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절정에 이
른다. 이사야의 미래 희망에 대한 신탁은 의로운 다윗 왕으로 영원히 통치
할 아들의 탄생을 알리면서 절정에 이른다. 이 멸시받는 백성이 왜 그토록
기쁨과 승리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답이 나오
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소

개한다. 바로 한 아이의 탄생이다.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다. 푸알 완료형 **וַיֵּלֶךְ**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왕이 메시아든 히스기야든 메시아적인 이상적인 왕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이어서 나오는 니팔 완료형 **יָמַן**은 메시아 탄생을 통한 유다의(לְיָנִי) 구원을 또한 기대하게 한다. 이 두 완료형 동사는 미래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미래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개의 미완료 바브 연속형(vav consecutive imperfect) 동사 **וַיִּקְרָא**와 **וַיְהִי**는 앞에 나온 두 개의 완료형 동사와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연속적 의미를 갖는다. 네 개의 동사 모두가 3인칭 남성으로⁴²⁾ 되어 있어 “태어날”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본문의 핵심인 이 메시아 예언 구절은 여기서 사용된 네 개의 동사(앞의 두 개는 완료형, 뒤의 두 개는 바브 연속형) 모두가 미래의 의미를 가진다.

이사야 9:7[6]

לְמַרְבֵּהָ [לְמַרְבֵּהָ] הַמְּשִׁרָה וְלִשְׁלוֹם אֵין־קֵץ עַל־כִּפּוֹא דָוִד וְעַל־מַמְלַכְתּוֹ לְהָכִין
אֹתָהּ וְלִסְעָדָהּ בְּמִשְׁפָּט וּבְצִדְקָה מֵעַתָּה וְעַד־עוֹלָם קִנְיָתָ יְהוָה צְבָאוֹת תַּעֲשֶׂה־זֹאת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에는 논의의 중심이 되는 예언적 완료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분사형(participle)을 빼고 이 본문에 사용된 모든 동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사야 9:1-7[8:23-9:6]의 동사 유형⁴³⁾

9:1[8:23]	떨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הָקֵל (perfect)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הִכְבִּיר (perfect)
9:2[1]	보고	רָאָה (perfect)
	비치도다	יָנַח (perfect)

42) 이 3인칭 여성이나 실제 주어는 **עַל־שִׁכְמוֹ**에 있는 3인칭 남성 대명 접미사이다. 그리고 이 3인칭 남성 대명사는 바로 태어날 ‘아이’이다.

43) 한글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이다.

9:3[2]	창성하게 하시며	הָרַבִּית (perfect)
	더하게 하셨으므로	הִגְדִּילָהּ (perfect)
	즐거워하오니	שָׂמְחוּ (perfect)
	그들이 … 즐거워하오니	יָגִילוּ (imperfect)
	(탈취물을) 나눌 때의	בְּחֻלָּקָם (inf. const.)
9:4[3]	꺾으시되	הִחֲתֶה (perfect)
9:5[4]	없음(will be)	וְהָיְתָה (perfect)
9:6[5]	(우리에게) 났고	יָלַד (perfect)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נָתַן (perfect)
	없음(will be)	וְהָיָה (vav consecutive imperf.)
	(그의 이름은) … 할 것임이라	וַיִּקְרָא (vav consecutive imperf.)
9:7[6]	(나라를) … 세우고	לְהָכִין (inf. const.)
	(그것을) … 보존하실 것이라	וּלְסַעְדָּהּ (inf. const.)
	(이들) 이루시리라	תַּעֲשֶׂה (imperfect)

위의 도표에서 완료형 동사는 11개이며, 미완료 바브 연속형 동사가 2개, 그 외에 부정사형(infinitive)으로 사용된 동사가 3개, 미완료로 사용된 동사가 2개이다. 이 본문에서 분명한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הִקְלָה(멸시 당하게 하셨다)을 제외하고,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된 모든 동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사용된 10개의 완료형의 동사도 미래의 의미가 있다.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10개의 완료 동사, 즉 예언적 완료가 여러 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비교해 보자.

3.1. 이사야 9:1-7[8:23-9:6]의 완료 동사의 영어 번역본 비교⁴⁴⁾

<표 3> 이사야 9:1-7[8:23-9:6]의 영어 번역본 비교

NAS	NIV	ESV
1 But there will be no more gloom for her who was in anguish; in earlier	1 Nevertheless, there will be no more gloom for those who were in	1 But there will be no gloom for her who was in anguish. In the former

44) 사 9:1-7[8:23-9:6]이 관련된 단락이지만 마지막 절인 9:7[6]은 고려해야 할 예언적 완료 동사가 없기에 생략했다.

NAS	NIV	ESV
<p>times He treat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with contempt, but later on He <u>shall make it glorious</u>, by the way of the sea, on the other side of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p> <p>2 The people who walk in darkness <u>Will see</u> a great light; Those who live in a dark land, The light <u>will shine</u> on them.</p> <p>3 <u>You shall multiply</u> the nation, <u>You shall increase</u> their gladness; <u>They will be glad</u> in Your presence As with the gladness of harvest, As men rejoice when they divide the spoil.</p> <p>4 For <u>You shall break</u> the yoke of their burden and the staff on their shoulders, The rod of their oppressor, as at the battle of Midian.</p> <p>5 For every boot of the booted warrior in the battle tumult, And cloak rolled in blood, <u>will be</u> for burning, fuel for the fire.</p> <p>6 For a child <u>will be born</u> to us, a son <u>will be given</u> to us; And the government</p>	<p>distress. In the past he humbl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future <u>he will honor</u> Galilee of the Gentiles, by the way of the sea, along the Jordan-</p> <p>2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u>have seen</u>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u>has dawned</u>.</p> <p>3 <u>You have enlarged</u> the nation and <u>increased</u> their joy; <u>they rejoice</u> before you as people rejoice at the harvest, as men rejoice when dividing the plunder.</p> <p>4 For as in the day of Midian's defeat, <u>you have shattered</u> the yoke that burdens them, the bar across their shoulders, the rod of their oppressor.</p> <p>5 Every warrior's boot used in battle and every garment rolled in blood will be destined for burning, <u>will be</u> fuel for the fire.</p> <p>6 For to us a child <u>is born</u>, to us a son <u>is given</u>,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p>	<p>time he brought into contempt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latter time <u>he has made glorious</u> the way of the sea, the land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nations.</p> <p>2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u>have seen</u>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u>has light shone</u>.</p> <p>3 <u>You have multiplied</u> the nation; <u>you have increased</u> its joy; <u>they rejoice</u> before you as with joy at the harvest, as they are glad when they divide the spoil.</p> <p>4 For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for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u>you have broken</u> as on the day of Midian.</p> <p>5 For every boot of the tramping warrior in battle tumult and every garment rolled in blood <u>will be</u> burned as fuel for the fire.</p> <p>6 For to us a child <u>is born</u>, to us a son <u>is given</u>; and the government shall be</p>

NAS	NIV	ESV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KJV	NKJ	NRS
1 Nevertheless the dimness shall not be such as was in her vexation, when at the first he lightly afflict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and afterward <u>did more grievously afflict</u> her by the way of the sea, beyond Jordan, in Galilee of the nations.	1 Nevertheless the gloom will not be upon her who is distressed, As when at first He lightly esteem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And afterward <u>more heavily</u> <u>oppressed</u> her, By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In Galilee of the Gentiles.	1 But there will be no gloom for those who were in anguish. In the former time he brought into contempt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latter time <u>he will make glorious</u> the way of the sea, the land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nations.
2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 <u>have seen</u> a great light: they that dwell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u>hath</u> <u>the light shined</u> .	2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u>Have seen</u>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a light <u>has shined</u> .	2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u>have seen</u> a great light; those who lived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light <u>has shined</u> .
3 <u>Thou hast multiplied</u> the nation, and <u>not increased</u> the joy: <u>they joy</u> before thee according to the joy in harvest, and as men rejoice when they divide the spoil.	3 <u>You have multiplied</u> the nation And <u>increased</u> its joy; <u>They rejoice</u> before You According to the joy of harvest, As men rejoice when they divide the spoil.	3 You <u>have multiplied</u> the nation, you <u>have increased</u> its joy; <u>they rejoice</u> before you as with joy at the harvest, as people exult when dividing plunder.
4 For <u>thou hast broken</u>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of his shoulder,	4 For <u>You have broken</u>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of his shoulder,	4 For the yoke of their burden, and the bar across their shoulders, the rod of their oppressor, <u>you have</u>

KJV	NKJ	NRS
the rod of his oppressor, as in the day of Midian. 5 For every battle of the warrior is with confused noise, and garments rolled in blood; but this shall be with burning and fuel of fire. 6 For unto us a child is born , unto us a son is given ;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The rod of his oppressor, As in the day of Midian. 5 For every warrior's sandal from the noisy battle, And garments rolled in blood, Will be used for burning and fuel of fire. 6 For unto us a Child is born , Unto us a Son is given ;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broken as on the day of Midian. 5 For all the boots of the tramping warriors and all the garments rolled in blood shall be burned as fuel for the fire. 6 For a child has been born for us, a son given to us; authority rests upon his shoulders; and he is nam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1개의 완료형 동사 중 10개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완료 동사의 번역은 미래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에서 비교한 6가지 영어 역본 중에 10개의 완료형 동사를 일관되게 미래의 의미로 살려 번역한 역본은 NAS이다. 나머지는 모두 몇 가지 시제들이 혼재되어 있어 단지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에 의존하는 듯하다. 영어 번역자들 모두는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완료형에 시간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듯하고 번역자 모두 히브리어 동사 체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완료형, 미완료형, 부정사 구조의 사용, 바브 연속법 그리고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고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어 번역자들 사이에서 이사야 9:1-7[8:23-9:6]에서 완료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는 것 같다.

3.2. 이사야 9:1-7[8:23-9:6]의 완료 동사의 한글 번역본 비교

<표 4> 이사야 9:1-7[8:23-9:6]의 한글 번역본 비교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u>흑암이 없으리</u> 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u>영화롭게 하</u> <u>셨느니라</u> .	8:23 고통에 잠긴 곳이 어찌 캄캄하지 않으랴? 전에는 그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천대하셨으나 장차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외국인들의 지역을 <u>귀하게 여기실 날이 오리</u> 라.	1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건힐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u>영화롭게 하</u> <u>실 것이</u> <u>다</u> .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u>보고</u>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u>비치</u> <u>도</u> <u>다</u> .	9:1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u>볼 것</u> <u>입니다</u> .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u>비</u> <u>쳐</u> <u>올 것입니다</u> .	2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u>보</u> <u>았고</u>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u>비</u> <u>쳤다</u> .
3 주께서 이 나라를 <u>창성</u> <u>하게 하시며</u> 그 즐거움을 <u>더</u> <u>하게 하</u> <u>셨으므로</u>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u>즐거워</u> <u>하</u> <u>오</u> <u>니</u> .	2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u>즐거워</u> <u>할 것</u> <u>입니다</u> .	2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u>보</u> <u>았고</u>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u>비</u> <u>쳤다</u> .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u>꺾으</u> <u>시</u> <u>되</u>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3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u>혹사</u> <u>하는</u> 자의 채찍을 <u>꺾으</u> <u>실 것</u> <u>입니다</u> . 미디안을 쳐부수시던 날처럼, <u>꺾으</u> <u>실 것</u> <u>입니다</u> .	3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u>즐거워</u> <u>합</u> <u>니다</u> .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u>섞</u> <u>어</u> <u>져</u> <u> 사라</u> <u>지</u> <u>리</u> <u>니</u> .	4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u>사라</u> <u>질 것</u> <u>입니다</u> .	4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u>났</u> <u>고</u> 한 아들을	5 우리를 위하여 <u>태</u> <u>어</u> <u>날</u> 한 아기, 우리에게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우리에게 <u>주신 바 되었는데</u>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u>주시는</u>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u>꺾으셨기</u> 때문입니다. 5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떨감이 되어서, 불에 타 <u>없어질 것이기</u> 때문입니다.” 6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u>태어났다</u> . 우리가 한 아들을 <u>모셨다</u> .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새한글』
<p>1 (예언자) 그렇지만 빛이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있던 땅에는.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찮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 민족들의 갈릴래아를 <u>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u>.</p> <p>2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이 큰 빛을 <u>보았습니다</u>. 캄캄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위에 빛이 <u>비추었습니다</u>.</p> <p>3 주님이 이 겨레가 <u>불어나게 해 주셨습니다</u>. 겨레를 위해 기쁨이 <u>커지게 해 주셨습니다</u>. 그들이 주님 앞에서 <u>기뻐했습니다</u>.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기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리품을 나눌 때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p> <p>4 겨레에게 짐이 된 멍에와 겨레 어깨에 지워진 막대기와 겨레를 노동으로 내모는 사람의 몽둥이를 미디안의 날에 하신 것처럼 <u>깨뜨리셨기</u> 때문입니다.</p> <p>5 (예언자) 땅을 울리며 나아가던 군화마다, 피 가운데 뒹굴던 옷마다 불쏘시개처럼 <u>불타 버릴 것이기</u> 때문입니다.</p>

『새 한글』
6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 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 의 으뜸군주이십니다.

한글 번역본에서, 단지 시제의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완료형 동사에 미래적 의미를 가장 잘 부여한 번역본은 『공동개정』이다. 단순히 문법적인 번역이 아니라 예언의 미래 맥락을 살피 모든 완료형 동사에 미래 시간의 가치를 부여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동사의 문법적인 요소와 예언적 맥락을 살피기보다 자연스러운 한글 번역에 더 집중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혼재되어 있다. 번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이기에 단편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은 적어도 동사의 시제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카탈의 미래 사용, 즉 예언적 완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보인다. 전부 일괄적으로 완료형을 과거로 번역해 놓았다. 본문의 예언적 맥락, 미래적 맥락을 거의 살리지 못한 것 같다.

한글 번역본도 영어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완료형에 시간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듯하고 번역자 모두 히브리어 동사 체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사야 9:1-7[8:23-9:6]에서 완료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는 것 같다.

3.3. 예언적 완료가 적용된 본문의 번역 제안

예언적 완료형 동사를 번역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롭다. 예언적 완료는 동족어인 셈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성서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번역본에서는 그 특성이 사라진다. 사실 예언적 완료가 표현하는 예언의 확실성을 문법적인 요소로 번역할 수가 없다. 예언적 완료를 번역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하바닉스는 “예언적 완료형이 존재한다면 과거 시제로 번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⁴⁵⁾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예언적 완료가 담고 있는 미래의 확실성을 단언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사건을 과거로 번역한다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미래적 의미가 사라져 미래의

45) E. Chabaneix, “Isaiah 8:23-9:6: A Study of the “prophetic perfect””, 63-78.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왜곡된다. 이것은 예언적 완료가 담고 있는 문법적 의미와 번역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번역본들을 보면 모두 둘 사이의 충돌을 피해 가지 못했다.

예언적 완료형 동사의 시제와 예언의 확실성, 본문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목표 언어(target language)의 자연스러움 등을 모두 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한계 가운데 예언적 완료의 최선의 번역을 위해서 예언적 완료의 문법적 의미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수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제안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문법학자들은 예언적 완료를 예언적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적 기법으로 보았다. 주옹은 예언적 완료에 대해 “예언에서 미래의 사건은 때때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카탈을 사용한다. 이 예언적 완료형은 특별한 문법적 완료형이라기보다는 수사적 기법이다”라고 했다.⁴⁶⁾ 아놀드와 최(B. T. Arnold and J. H. Choi)는 그들의 문법책에서 이러한 완료형을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화자의 수사적 관점에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생생한 미래의 행동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⁷⁾ 즉 그들은 예언적 완료가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려는 수사적 기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예언적 완료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수사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예언적 완료형 동사를 최대한 미래적 가치와 번역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예언적 완료의 확실성을 위해 과거로 번역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한국어의 정서에 맞지 않다. 따라서 둘째, 기본적으로 예언적 완료형 동사는 미래 시제로 번역해야 하며, 셋째, 예언의 확실성을 위해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그 수사적 장치로 주로 ‘틀림없이’, ‘분명히’, ‘반드시’, ‘참으로’ 등과 같은 확실성을 강조하는 부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이사야 41:10하반⁴⁸⁾의 번역이다.⁴⁹⁾

46)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12h.

47) B. T. Arnold and J.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68.

48) J. 오스웰트, 『NIV 적용주석: 이사야』, 장세훈, 김홍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22, “이사야의 첫 번째 단락(1-39장)의 배경은 주전 740년에서 주전 700년에 이르는 이사야 당시의 시대이고, 이 구절을 포함하는 두 번째 단락(40-55장)은 주전 585년에서 540년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다 포로민들에게 전달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비록 전반부 두 단락보다 증거는 덜 명확하지만, 56-66장은 주전 539년 바빌론 포로귀환 이후의 유다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제1부 이사야는 심판의 선포, 제2부 이사야는 심판 이후의 회복, 제3부 이사야는 회복 이후에 남은 자의 결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2부 이사야는 심판 이후의 회복과 기쁨부음 받은 자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미래적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한정건, “사 40-48장: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목회와

이사야 41:10하반

אֲמַצְתִּיךָ אֶחָד־עֲזָרְתִּיךָ אֶחָד־תִּמְכָּתִיךָ בְּיָמִין צִדְקִי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모두 미래의 맥락에서 사용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 세 개의 동사는 완료형 동사 + 1인칭 주격 단수 + 2인칭 목적격 남성 단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여호와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אֲמַצְתִּיךָ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 주리라: עֲזָרְתִּיךָ

(나 여호와가) 너를 붙들리라: תִּמְכָּתִיךָ

이 세 개의 연속 동사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로 번역된다. 여기서 ‘참으로’는 번역자가 추가로 첨가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אֶחָד의 번역에 해당한다. 이 부사는 예언적 완료의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와 결합되어, 예언의 맥락에서 여호와 말씀의 확실성과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미래적 메시지 그리고 번역의 자연스러움을 잘 살려준다. 이 구절이 포함된 단락은 포로된 백성에게, 비록 포로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미래의 기름부음 받은 자(사 45:1; 53장)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단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으로’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분명하게 표현해 준다. 이 구절은 예언적 완료를 번역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 나가는 말

카탈의 미래적 사용, 즉 예언적 완료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히브리어 학자, 성서학자들에게는 거의 주목

신학 편집부 편, 『이사야2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주석 2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232-233, “이사야 40-48장의 말씀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문맥에서 주어진다. … 41-48장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을 알린다. 물론 이 단원에서도 미래의 메시아적 예언이 약간 주어진다.” 41:10하반-20은 일반 예언적 완료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언적 완료형과 단순 미래인 미완료형이 함께 섞여 있다.

49) 확신을 나타내는 부사와 미래 시제를 결합한 번역은 『개역개정』, 『새한글』, 『새번역』이다.

을 받지 못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학자가 저술한 히브리어 문법책에 예언적 완료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도 없다. 따라서 성서 번역에 있어서 예언적 완료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언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볼 때, 예언서에 적용된 예언적 완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을 위한 가이드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 성경 번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가 제안한 예언적 완료형 동사의 번역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모든 관련 본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은 본문의 문학적 장르, 수사학적 요소, 문맥과 문법, 삶의 자리 그리고 목표 언어(target language)의 자연스러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번역 기준을 세우는 것이 향후 예언적 완료의 좀 더 나은 번역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세계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동사이다.⁵⁰⁾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체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동사 분야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성서의 화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예언적 완료, 카탈의 미래적 사용, 히브리어 동사, 예언서 번역, 히브리어 문법.

Prophetic Perfect, Future Uses of Qatal, Hebrew Verbs, Translation for Prophets, Hebrew Grammar.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6일)

50) P. 주용, T. 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xxxiii. “지난 20년 동안 쏟아진 수많은 출판물들 가운데 텍스트 언어학 혹은 담화 문법이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이 연구물들은 거의 전적으로 히브리어 동사에 있어서 소위 시제 형태들의 분포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박철우, “한글성경 번역을 위한 희구법 카탈 적용의 필요성”, 「성경원문연구」 40 (2017), 71-94.
- 오스웰트, J., 『NIV 적용주석: 이사야』, 장세훈, 김홍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16.
- 주옹, P., 무라오까, T.,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한정건, “사 40~48장: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목회와신학 편집부 편, 『이사야 2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주석 2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Andrason, A., “An Optative Indicative? A Real Factual Past? Toward a Cognitive-Typological Approach to the Precative Qatal”,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3 (2013), 1-41.
- Andrason, A., “Future Values of the Qatal and Their Conceptual and Diachronic Logic: How to Chain Future Senses of the Qatal to the Core of Its Semantic Network”, *Hebrew Studies* 54 (2013), 7-38.
- Arnold, B. T. and Choi, J. H.,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Carver, D. E., “A Reconsideration of the Prophetic Perfect in Biblical Hebrew”,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17.
- Carver, D. E., “Reconsidering the So-Called Prophetic Perfect”, Boston: Institute for Biblical Research Annual Meeting, 2017.11.17.
- Chabaneix, E., “Isaiah 8:23-9:6: a study of the “prophetic perfect””, Th. M. Dissertation, The Master’s Seminary, 2009.
- Chomsky, W., *David Kimhi’s Hebrew Grammar (Mikhlol): Systematically Presented and Critically Annotated*, New York: Bloch, 1952.
- Cook, J. A.,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2.
- Cook, J. A.,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 Ewald, G. H. A., *A Grammar of the Hebrew Language of the Old Testament*, J. Nicholson, trans., 2nd ed., London: Whittaker and Co., 1836.
- Fleischman, S., “Temporal Distance: A Basic Linguistic Metaphor”, *Studies in Language* 13 (1989), 1-50.

- Hendel, R., “TAM in Sam: the Tense-Aspect-Mood System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accessed 5 January 2025 from <https://berkeley.academia.edu/RonHendel>.
- Joosten, J.,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A New Synthesis Elaborated on the Basis of Classical Prose*, Jerusalem Biblical Studies 10, Jerusalem: Simor Ltd., 2012.
- Joü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2 vols., Subsidia biblica 14,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6.
- Kautzsch, E., ed., *Gesenius' Hebrew Grammar*, A. E. Cowley, trans., Oxford: Clarendon Press, 1910.
- Klein, G. L., “The ‘Prophetic Perfect’”,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16 (1990), 45-60.
- Lee, S., *A Grammar of Hebrew Language*, 2nd ed., London: James Duncan, 1832.
- Notarius, T., *The Verb in Archaic Biblical Poetry: A Discursive, Typological,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Tense System*, Studies in Semitic Languages and Linguistics 68, Leiden: Brill, 2013.
- Roberts, J. J. M., *First Isaiah: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 Rogland, M. F., *Alleged Non-past Uses of Qatal in Classical Hebrew*,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4, Leiden: Brill, 2003.
- van der Merwe, C. H. J., Naudé, J. A., and Kroeze, J. H.,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Abstract>

**Understanding Prophetic Perfect and Its Translation:
Focusing on Isaiah 9:1-7[8:23-9:6]**

Cholho Shin
(Bar-Il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alleged future use of qatal, that is, the prophetic perfect. The future use of qatal can be used in many terms, but this paper uses the term “prophetic perfect” because it examines it in a prophetic context.

The discussion of the prophetic perfect in Biblical Hebrew has been a challenge for many grammarians and biblical scholars since the early Middle Ages, and it is still a controversial topic among scholars. Many grammarians have observed that in the prophetic literature, the prophets use the past tense qatal (perfect tense) to indicate future situations. Early Hebrew grammarians such as A. Ibn Ezra and D. Kimhi considered the future use of qatal, that is, the prophetic perfect,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prophecy, to be a unique phenomenon in Biblical Hebrew. In the prophetic literature, if the prophetic proclamations of the prophets were considered certain, they were considered to have already been fulfilled. Although grammarians did not call the future use of qatal the prophetic perfect, their explanation of the future use of qatal could be called the prophetic perfect, given its connotative meaning. However, a rethinking of the purported prophetic perfect has begun to appear among grammarians from the last millennium to the present. They recognized the ambiguity in the future use of qatal and proposed alternatives. Rather than categorizing the prophetic perfect as a grammatical category, they considered it to be a rhetorical device, genre, and mood, and they rejected the existence of the prophetic perfect. In particular, D. E. Carver has argued strongly in his paper that the prophetic perfect does not exist, and that the prophetic perfect known for centuries is in fact an unreal use without the suffix *we-*. In response, I will argue that the prophetic perfect is a grammatical phenomenon in Biblical Hebrew, especially in the prophetic literature. I will analyze the prophetic perfect used in the prophetic text of Isaiah to help understand the prophetic perfect in the context of the text and suggest how it should be translated.

To do this, first, I will explain the history of the discussion on how grammarians have understood and explained the future use of qatal. Second, since the prophetic perfect largely belongs to qatal, I will evaluate it in the larger context of the prophetic perfect through R. Handel's theory of the prototype. Finally, I will suggest how the prophetic perfect should be translated through the text of Isaiah 9:1-7[8:23-9:6].

에스겔 4:2와 21:22의 포위전쟁에 대한 모습 재현과 번역 제언

— 고고학적, 언어적 고찰을 바탕으로 —¹⁾

임미영*

1. 들어가는 말

열왕기하 18:9에서 아시리아의 임금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표현과 역대하 32:10에서 아시리아 임금 센나케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에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전쟁 방법을 대표하는 단어로 ‘공성전(攻城戰, siege assault)’을 언급해 왔다. ‘공성전’이란 ‘정복하고자 하는 도시를 둘러싸 포위하고 식량이나 병력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항복을 이끌어내는 전쟁’²⁾으로 성경에서만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니네베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 부조에서도 아시리아가 이 전쟁 방법을 얼마나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였는지 드러났다. 이 아시리아의 전쟁 방법을 답습하여 더 잔인한 전쟁을 치른 나라는 바빌로니아로 우리는 에스겔 4:1-3과 에스겔 21:21-22에서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에스겔 4:2는 여호와가 에스겔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포위로 인한 멸망을 생생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가올 형벌의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죄의 심각성과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

* Bar Ilan University, Israel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adiofpooh@hanmail.net.

1) 본 논문은 2024년 9월 대한성서공회가 진행 중인 『개역개정』 개정 분과 회의에서 제기된 번역 사안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최근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여 국가나 사람 이름을 『표준국어대사전』 번역에서 사용한 명칭으로 기술하였다.

2) “공성전”, <https://ko.wikipedia.org/공성전> (2025. 2. 28.).

렘을 포위했던 아시리아를 이미 경험한 유다 백성에게 곧 닥쳐올 전쟁은 공포를 불러왔을 것이다. 마침내 에스겔 21:21-22는 바빌로니아 임금(네부카드네자르 2세, 기원전 604~562년)이 앞서 언급된 예언을 그대로 실행하여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유다 백성이 본 전쟁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시리아와는 반대로 바빌로니아는 전쟁의 이미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언급한 아시리아의 벽 부조와 이스라엘 내, 특별히 최근 발표된 라기스의 발굴 결과 같은 고고학적 자료들을 사용해 이를 재현해 볼 수 있다. 또한 에스겔 4:2와 21:22[27]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용어를 구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는 것을 선행하면서 각 단어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살펴보고 전쟁 용어들에 대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히브리어 원문³⁾과 한국어 성경 번역 비교

에스겔 4:2

וְנִתְּתָה עָלֶיהָ מְצוֹר וּבְנִיתָ עָלֶיהָ דֵּיֶק וְשַׁפַּכְתָּ עָלֶיהָ סֵלָה וְנִתְּתָה עָלֶיהָ מַחֲנֹת
וְשִׁים־עָלֶיהָ כְּרִים קָבִים

『개역개정』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새번역』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공동개정』 그리고 그 바깥에 포위망을 새겨라. 또 감시탑을 세우고 옆에 돌더미로 축대를 쌓고 진을 둘러 치고 성벽을 허무는 쇠덩이를 사방에 늘어놓아라.

『새한글』 그 도시를 향해 포위망도 새겨서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해 포위 성벽도 만들어 세워라. 그 도시를 향해 흙언덕도 쌓고, 그 도시를 향해 군대도 배치해라. 그 도시를 향해 사방에 성벽을 부수는 무기들도 두어라.

에스겔 21:22[27]

בְּיָמֵינוּ הָיָה הַקָּסֶם יְרוּשָׁלַם לְשׁוֹם כְּרִים לִפְתָּח פֶּה בְּרֹצֶחַ לְהָרִים קוֹל בְּתַרְוֵעָה

3) 포위 전쟁에 해당하는 각 용어의 히브리어 의미와 어원은 *The Brown 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2007)에서 인용하였다.

לְשׁוֹם בָּרִים עַל־שָׁעָרִים לְשַׁפֵּךְ סִלְלָה לְבָנוֹת דָּיִק

『개역개정』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새번역』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팅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팅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공동개정』 점괘는 오른쪽 예루살렘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쇳덩이를 배치하고 돌로 축대를 쌓고 감시탑을 세우고는 도륙 명령을 내려 함성을 지르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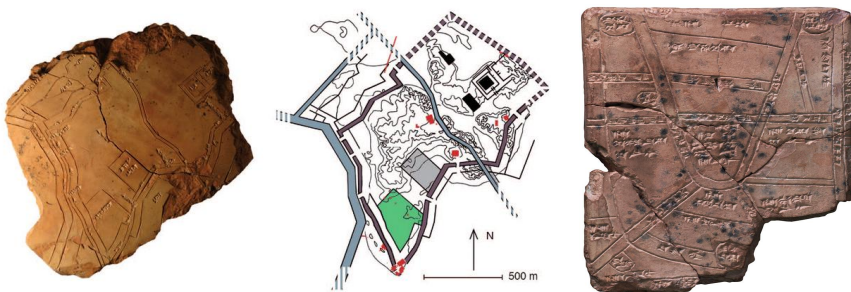
『새한글』 임금의 오른손에 예루살렘 길로 가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임금이 성벽을 부수는 무기들을 배치하고 입을 열어 학살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전쟁의 함성을 높이게 할 것이다. 성벽을 부수는 무기들을 성문들 맞은편에 둘 것이다. 흙언덕을 쌓고 포위벽을 세울 것이다.

3. 포위 전쟁

본 연구는 각주 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개역개정』 개정 분과 회의에서 제기된 번역 사안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것은 맞으나 최근 한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의 대화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룰’ 같은 전쟁을 다루는 컴퓨터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면 10대 청소년들에게 ‘공성전’이라는 단어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이해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성전’이라는 단어보다는 ‘포위 전쟁’이라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 전쟁을 묘사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위 전쟁에 사용된 단어들은 ‘마쭈르(מָצוֹר)’, ‘다예크(דָּיִק)’, ‘술렐라(סִלְלָה)’, ‘카르(כָּר)’로 여호와와 에스겔에게 이 무기들을 예루살렘 성읍 지도와 함께 ‘레베나(לִבְנָה)’에 그리라고 말씀하셨다(겔 4:1). 레베나의 어원은 흰색을 의미하는 ‘라반(לָבָן)’으로 이스라엘의 지질이 흰색 성질의 석회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흙을 다져 만든 것에서 유래한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레베나를 “흙벽돌”로, 『새한글』은 “벽돌”로 번역하였다. 물론 레베나를 벽돌로 번

역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석회석 진흙을 다져 평균 높이는 한 뼘(약 20cm), 길이는 세 뼘(이집트 단위 탈라테, 약 60cm) 정도의 거푸집에 넣어 다진 후 태양과 바람에 말려 직육면체의 형태로 사용했고⁴⁾ 이를 레베나라고 불렀다. 그러나 본문의 레베나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 곁에 세워질 포위 전쟁의 무기들을 덧붙여 그리기 위한 도구로 벽돌보다는 넓어 『개역개정』에서 사용한 “토판”이 보다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니푸르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으로 연대가 추정되는 두 고대 성읍 지도(<사진 1>)가 발견된 바 있는데 모두 납작한 형태의 토판에 그려져 있다. 이 지도들은 성내 행정 관리를 위해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성 안의 수로와 정원, 신전들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에스겔이 토판에 그린 예루살렘의 지도 역시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루살렘의 지도는 바빌로니아의 임금에게도 들려 있었을 수도 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센나케립(기원전 705~681년)의 공격에 대비해 건설한 성읍으로(사 22장, 대하 32장) 열왕기하 20:12-15에 의하면 바빌로니아의 브로닥발라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브로닥발라단은 돌아가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바빌로니아에 전수했을 수도 있다. 유다를 바빌로니아에게 주어 괴롭게 하기를 작정한 여호와와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지도를 바빌로니아 임금에게 허락했다(겔 21:19).

<사진 1> 이라크 니푸르에서 발견된 기원전 1500년경
토판 위에 그려진 고대 성읍 지도



출처: 좌 commons.wikimedia.org/wiki/File:Clay_tablet_containing_plan_of_Nippur.
우 www.penn.museum/collections/object/98408.

4) 고대 이스라엘의 흙벽돌을 만드는 과정은 BibleWalks 500+, “Mud Bricks”, <https://www.biblewalks.com/mudbricks> (2024. 12. 10.)를 참조하라.

3.1. 마쭈르(מִצּוֹ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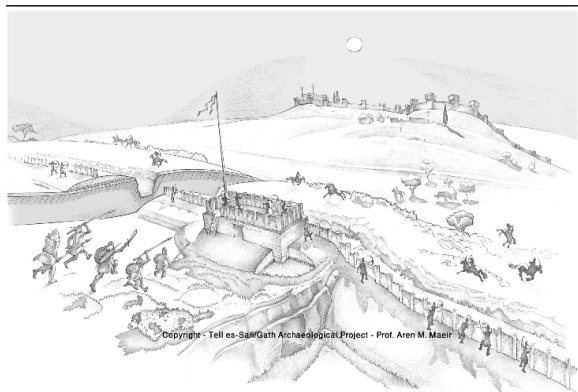
예루살렘 지도의 성벽에 더해진 포위 전쟁은 ‘마쭈르(מִצּוֹר)’로 시작된다. 명사 마쭈르는 ‘뭉다, 결박하다’를 의미하는 ‘짜라르(צָרַר)’가 어원으로 이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는 전쟁 중 ‘포위하다’라는 의미의 ‘쭈르(צוֹר)’와 ‘둘러싸다’ 혹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바짜르(בָּצַר)’가 있다. 마쭈르는 ‘둘러쌓아 완전히 봉쇄하다. 즉 벽을 쌓아 포위한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20:12, 19에서 짜라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성읍들을 ‘에워싸라 즉 봉쇄하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이 단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다만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암몬을 포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삼하 11:1; 20:15). 짜라르는 아시리아(왕하 19:32; 대하 32:1; 사 37:33)와의 전쟁에 보다 자주 언급되는데 아시리아는 벽을 쌓고 봉쇄하여 포위 공격을 하는 전쟁 기술에 뛰어났다.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군사들이 적군의 성 앞에 서서 성벽을 향해 다양하게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리아의 포위 공격 기술은 바빌로니아에게 전수되었는데 성경은 바빌로니아 역시 열왕기하 24:1; 25:2; 예레미야 32:2; 37:5; 39:1; 에스겔 4:2; 21:22에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포위 공격 기법을 우리는 사마리아를 에워싸기도 했던(왕상 20:1) 아람 임금 벤-하닷과 관련된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시리아의 진지르리(Zenjirli)에서 발견된 아람어 기록에 의하면 벤-하닷이 하맛을 공격했을 때 하맛의 임금 자쿠르는 “그들(아람인들)이 하드락(Hadrach, 하맛의 도시)의 성벽보다 더 높이 ‘짜라르’를 세웠고 그 앞에는 참호를 깊이 팠다(KAI 202, 10열)”고 말했다.⁵⁾ 이러한 아람의 포위에 대한 묘사 중 참호와 관련된 발굴이 최근 이스라엘의 텔 에-사피에서 발견된 바 있다. 텔 에-사피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한 블레셋의 도시 중 가드로 추정하고 있으며 바르일란 대학교의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기원전 9세기 층의 파괴 흔적이 드러나면서 열왕기하 12:17의 하사엘이 침략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앞서 언급된 아람 임금 벤-하닷을 죽이고 왕좌에 오른 자(왕하 8:15)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비록 성경은 하사엘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불에 탄 건물, 유골, 함께 쌓여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수없이 많은 토기 등 파괴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파괴의 흔적 가운데 아람인들이 판 것

5) J. Gibson, *Aramaic Inscriptions, Including Inscriptions in the Dialect of Zenjirli*, vol. 2 of *Textbook of Syrian Semitic Inscriptions* (Oxford: Clarendon, 1975), 8-9.

으로 보이는 참호가 있다(<사진 2>).

발굴 답사 초기 단계부터 가드를 찍은 항공사진에는 유적지 주변을 둘러싸고 2.5km 정도의 긴 흩선이 나타났었다. 이 선을 따라 발굴한 결과 현대가 아닌 고대에 누군가 3m 가까이 되는 깊은 웅덩이를 판다가 다시 흙으로 메꾼 사실을 알게 되었다(<사진 2> 좌). 고대 근동에서는 한 도시를 점령할 때, 공격군은 도시를 둘러싸고 깊은 참호를 판 후 반대편에 자신들의 군 주둔지를 세웠다(<사진 2> 우). 이 웅덩이는 도시를 포위한다는 의미와 함께 도시 민들이 성을 빠져나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여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드를 발굴한 메이르(A. Maeir)와 구르-아리에(Sh. Gur-Arieh)는 참호의 반대편 군 주둔지로 사용된 언덕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와 유적지 자체에서 발견된 파괴의 연대를 비교했을 때 이 참호를 판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시대의 것과 비교 연구하여 이 참호가 포위 공격 시스템 중 가장 오래된 적군의 참호라고 주장하고 있다.⁶⁾

<사진 2> 텔 에-사피(블레셋 가드) 포위공격용 웅덩이 발굴 모습(좌)과 포위 성벽 재현 그림(우)



출처: 텔 에-사피, 블레셋 발굴팀, 임미영 소장

바빌로니아 역시 아람군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 봉

6) 임미영, “기원전 10-9세기 블레셋 중심지, 가드: 최근 텔 에 사피(Tel es-Safit) 성벽발굴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 (2017), 217; A. Maeir and Sh. Gur-Arieh, “Comparative Aspects of the Aramean Siege System at Tell es-Safi/Gath”, I. Finkelstein and N. Na’aman, eds., *The Fire Signals of Lachish, Studies in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Israel in the Late Bronze Age, Iron Age and Persian Period in Honor of David Ussishkin*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Fig 4 참조.

쇄하였을 것이다. 성 안의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주둔하고 있는 바빌로니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포위 공격 시스템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에스겔 4:2의 마조르는 『개역개정』의 “에워싸되”의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봉쇄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새번역』, 『공동개정』, 그리고 『새한글』에서 사용한 “포위망”처럼 완전히 둘러쌌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조르는 바빌로니아의 임금이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된 모습을 묘사하는 에스겔 21:22에서는 언급이 없다. 대신 『개역개정』에서 공성퇴로 번역된 ‘카르(כַּר)’⁷⁾가 구절의 앞과 뒤에 두 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카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포위 전쟁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2. 다예크(דַּיֶּק)

메이르와 구르-아리에의 앞서 언급된 재현 그림(<사진 2> 우측)에 의하면 참호 반대편 적군 역시 군 주둔지의 벽을 쌓아 올리고 탑을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메이르와 구르-아리에에 이 벽을 열왕기하 25:1; 예레미야 52:4; 에스겔 4:2, 17:17, 21:22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포위 전쟁에 사용된 ‘다예크(דַּיֶּק)’로 보았다.⁸⁾ ‘다예크’의 어원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히브리어의 ‘부수다’라는 의미의 ‘두크(דוּק)’나 혹은 같은 의미의 아람어 ‘테카크(ܬܝܟܐܬܐ)’와 유사하나 그 의미는 다르다. 다예크는 항상 ‘바나(בָּנָה)’ 즉 ‘짓다, 만들다, 건설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포위 시스템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유대인 영어 성경인 JB는 다예크를 포위용 탑(siege tower)으로 번역했다. 포위용 탑은 아래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카르(כַּר, 『개역개정』 공성퇴)의 일부를 높게 성벽의 높이까지 쌓아 올린 탑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 의하면 이렇게 높은 탑으로 지은 카르는 아슈르나시르팔 2세(기원전 883~859년)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사진 3>)으로 기원전 8세기 이후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기원전 745~727년)를 비롯한 아시리아의 임금들은 이러한 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사진 6>). 6개(양쪽에 3개씩)의 바퀴로 움직이던 카르는 후대에 4개(양쪽에 2개씩)의 바퀴와 높은 탑이 없는 구조의 보다 가벼운 시스템으로 변화를 했다. 그러므로 훨씬 후대의 포위 시스템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다예크는 이 카르의 탑 부분으로 보아서는 안

7) ‘카르(כַּר)’의 번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토론할 것이다.

8) A. Maeir and Sh. Gur-Arieh, “Comparative Aspects of the Aramean Siege System at Tell es-Safi/Gath”, 231.

된다.

<사진 3> 기원전 865년경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와 포위전쟁 모습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다예크’를 사다리로 번역했다. 티글라트 필레 세르 3세 이후 아시리아 임금들의 벽 부조에서 우리는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군사들을 볼 수 있다(<사진 4>). 기원전 586년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 일부가 약 8미터에 도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⁹⁾ 이 사다리들의 길이 역시 상당히 긴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다리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다리 역시 동사 ‘바나’ 같은 ‘짓다, 만들다, 건축하다’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엄연히 ‘오르다’라는 의미의 ‘살랄(לָלַץ)’이 있고 여기서 파생한 사다리를 의미하는 명사 ‘술람(סֻלָּם)’이 있기 때문에 ‘다예크’를 사다리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구나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사다리에는 많은 군사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성안에서 밀어버리거나 불을 지피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어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없다. 사다리는 포위보다는 공격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에스겔 4:2; 17:17; 21:22에 등장하는 포위용 무기인 ‘다예크’의 번역과는 맞지 않다.

9) A. Nahman and G. Hillel,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 finds from areas A, W and X-2 : final report. Volume 2 of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사진 4> 좌: 기원전 720~738년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포위 전쟁 속의 사다리

우: 기원전 669~63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포위 전쟁 속의 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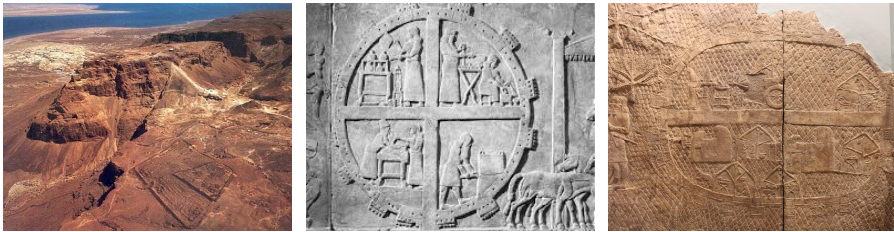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

그러므로 본고는 다예크가 앞서 아론과 구르-아리에의 의견처럼 적군이 포위 공격을 하기 위해 참호 반대편에 머물면서 만들어진 군 주둔지를 감싸는 성벽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예크가 ‘둘러싸다’라는 의미의 ‘사비브 (סָבִיב)’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포위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 주둔지 성벽의 예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같은 유적지에서 볼 수 있다. 기원후 70년 마지막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주변보다 400미터 높은 마사다에 모여 있었다. 로마 군사들은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마사다를 포위하면서 전쟁 기간 동안 머물 자신들의 요새를 주변에 지었다. 이때 요새를 위해 쌓은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사진 5> 좌). 또한 아시리아의 전쟁을 묘사한 벽 부조에서도 전쟁터의 한 켠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 군 주둔지가 있어 이곳에서 임금을 모시고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5> 중앙, 우).¹⁰⁾ 이 성벽에는 탑이 있어 감시와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성 안의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무기를 정비하면서 전쟁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전이 될 때 이러한 군 주둔지를

10) C. Uehlinger, “Clio in a World of Pictures-Another Look at the Lachish Reliefs from Sennacherib’s Southwest Palace at Nineveh”, L. Grabbe, ed., “*Like a Bird in a Cage*”: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701 BC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63, European Seminars in Historical Methodology 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221-305.

위한 성벽은 반드시 필요했다. 『공동개정』은 다예크를 감시탑으로 번역했는데 감시탑은 포위를 위한 성벽의 일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번역은 아니다. 다예크는 ‘군 주둔지용 포위 성벽’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사진 5> 좌: 기원후 70년경 이스라엘 마사다 앞에 건설된 로마 진영
 중앙: 기원전 865년경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아시리아군 주둔지
 우: 기원전 705~68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아시리아군 주둔지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

3.3. 솔렐라(סֻלְלָה)

<사진 6> 좌: 기원전 720~738년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
 우: 기원전 705~68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포위 전쟁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솔렐라(סֻלְלָה)’이다. 솔렐라는 ‘올라가도록 짓다’라는 의미의 ‘살랄(סָלַל)’이 어원으로 솔렐라는 다른 곳보다 높이 올려진 장소를 말한다. 솔렐라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단어는 앞서 등장하는 ‘쏟아붓다’라는 의미의 동사 ‘샤파크(שָׁפַק)’이다. 무엇을 쏟아부어 높이 올려진 장소일까?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모두 솔렐라를 “흙언덕”으로 번역했고 『공동개정』은 “돌 축대”로 번역했다. 솔렐라는 아시리아 임금들의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에사르하돈(기원전 681~669년)은 흙과 나무판 그리고 돌을 쌓아 인공으로 솔렐라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며¹¹⁾ 센나케립은 전쟁을 위해 성읍을 포위하고 석회석을 쌓아 언덕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그러므로 솔렐라는 흙으로만 혹은 돌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나무와 흙과 돌을 쏘아부어 만든 인공 언덕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언덕을 오른 것은 군사들이기도 했지만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바퀴가 달린 무기 ‘카르(כר, 아카드어 *kirru*)’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리아 전쟁 장면 중 기원전 9세기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시대의 카르는 평지에 서 있는데 앞부분이 높게 탑을 이루어 맞은편 성벽의 높이까지 닿아있다. 그러나 이후의 카르에서 탑은 사라지고 앞부분을 둥글려 카르 안쪽에 있는 군사들이 방패처럼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대신 이 카르는 성벽과 맞닿아 있는 언덕을 올라가 성문을 공격하고 있다(<사진 6> 좌). 그런데 열왕기하 18:9-19, 역대기하 32장, 이사야 36-37장에 등장하는 센나케립의 라기스 공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니네베의 벽 부조에서 우리는 성벽에 비스듬히 걸쳐 놓은 것 같은 널빤지 세켜 위에 카르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6> 우). 카르의 이층에는 이미 활을 쏘고 있는 군사 한 명과 카르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는 군사가 있다. 카르의 아래층에는 바퀴를 굴려 카르를 이동하는 2명 이상의 군사가 있었다. 또 다른 널빤지 위로는 활과 창을 든 군사 여러 명이 올라가고 있다. 카르와 군사들의 무게를 감안할 때 마치 널빤지처럼 보이는 이 구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 구조가 앞서 센나케립과 에사르하돈이 언급한 돌과 나무 그리고 흙 등을 쌓아 만든 인공 언덕이라고 보았다.¹³⁾

1973년 라기스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언덕을 보고 이갈 야딘(Y. Yadin)은 이곳이 센나케립의 인공 언덕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사진 7>)¹⁴⁾ 이곳을 발굴한 우시쉬킨(D. Ussishkin)과 텔아비브대학 발굴팀은 마침내 아시리아

11) R. Borger, *Die Inschriften Asahaddons, Königs von Assyrien* (Bissendorf: Osnabrück, Biblio-Verlag, 1956), 10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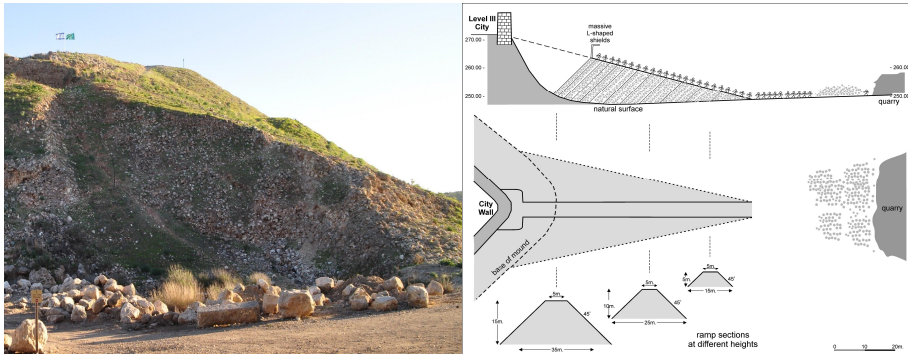
12) D. Luckenbill, *The Annals of Sennacherib*,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vol. II.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1924), 102:90.

13) G. E. Wright, “Judean Lachish”, *Biblical Archaeologist* 18 (1955), 11.

14) D. Ussishkin,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Monograph Series 22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004), 699; Y. Garfinkel et al., “Constructing the Assyrian Siege Ramp at Lachish: Texts, Iconography, Archaeology and Photogrammetr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40:4 (2021), 417-439에서 재인용.

인공 언덕의 유일한 예를 발견했다.¹⁵⁾ 50~75미터 길이의 언덕은 자연 언덕이 아닌 돌과 흙을 쌓아 만든 것이었다. 2013~2017년 사이 가펩켈(Y. Garfinkel)과 그의 발굴팀은 라기스를 발굴하면서 이 인공 언덕을 보다 세심하게 조사하여 그 형성 과정을 밝혔다.¹⁶⁾

<사진 7> 라기스에서 발견된 솔렐라와 구성도



출처: Y. Garfinkel et al., 2021, <Figure 7>.

라기스 주변에는 숲이 없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카르와 수많은 군사들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흙보다는 단단한 돌을 주로 사용하여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기스의 반대편에 위치한 언덕에서 돌을 채석한 후 바구니에 담아 이동하여 쌓았는데 “수백 명의 노동자가 석재 채석을 위해 하루 24시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참여했다.”¹⁷⁾ 아시리아의 벽부조에는 이러한 건축 현장에 동원된 포로들이 돌을 담은 주머니를 등에 지고 힘겹게 경사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사진 8>). 이 언덕을 쌓는데 사용된 돌은 약 300만 개로 가펩켈은 매일 약 16만 개의 돌을 옮겨 25일 만에 건축을 완성했다고 계산했다. 카르의 바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경사로는 충분히 흙을 덮고 나무판자를 깔아 평평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라기스의 부조에서 카르가 나무판 위를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경사 언덕 위에 깔았던 나무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기스가 아시리아에 의해 파괴된 이후 이 언덕은 다른 적

15)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1982), 49-58.

16) Y. Garfinkel et al., “Constructing the Assyrian Siege Ramp at Lachish: Texts, Iconography, Archaeology and Photogrammetry”, 417-439.

17) Ibid., 422.

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라기스 사람들에 의해 깎여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가뵈켈은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파괴되면서 이 언덕은 다시 돌과 흙을 쏟아부어 다져졌다고 주장했다.¹⁸⁾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언덕 위로 카르를 올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것이다.¹⁹⁾

<사진 8> 기원전 705~68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돌을 나르고 있는 포로들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

3.4. 카르(כַּרְ, 아카드어 *kirru*)

‘카르(כַּרְ)’의 어근은 불분명하지만 ‘통통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주로 ‘숫양’으로 번역되었다(사 16:1; 암 6:4 등). 그러나 본고에 다루고 있는 에스겔 4:2와 21:22의 포위 전쟁에 대한 묘사 속에 등장할 때는 무기로 번역된다. 영어로도 *battering-ram*으로 번역되어 숫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숫양이 화가 났을 때 뿔로 들이받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본다.²⁰⁾ 카르는 성벽을 포위하고 그 성벽을 부수기 위해 맞대어 세워진 무기를 부르는 명칭으로 에스겔 26:9에서는 ‘맞서다’라는 의미를 함유한 ‘코벨(כִּבֵּל)’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공성퇴(攻城槌)’로 번역했는데 ‘포위 공격’을 의미하는 ‘공성’과 ‘망치’라는 의미의 ‘퇴(槌)’가 합쳐진 단어이다. 이때 한자 되는 추로도 읽혀 공성추라고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공성

18) Ibid., 430.

19) Ibid., 430.

20) “כַּרְ”, <https://biblehub.com/hebrew/3733.htm> (2024. 12. 20.).

전'과 마찬가지로 '공성되'는 생소하며 더불어 망치라는 의미로는 카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기의 모습과 예를 좀 더 살펴보고 적당한 단어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사진 9> 이집트 베니하산의 벽화에 그려진
기원전 1900년경의 카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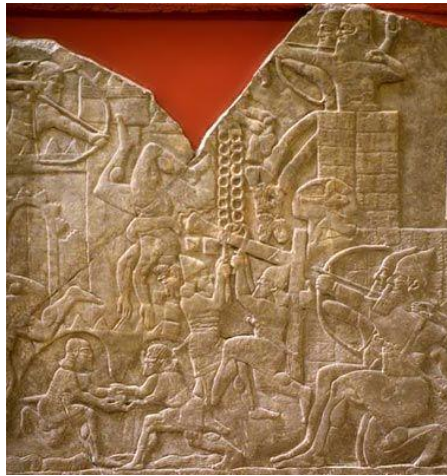
출처: wildfiregames.com.

카르의 예는 단순히 커다랗고 긴 통나무를 병사들이 직접 들고 성벽으로 돌격하는 것부터 바퀴를 달아 수레 형태로 만들어 밀고 가는 것이 있으며 더 발전한 단계는 수레를 타고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씌운 것이 있다. 카르의 가장 오래된 예는 이집트 베니하산에서 발견된 지방 귀족 케티의 무덤 벽화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기원전 1900년경의 벽화로 보고 있다(<사진 9>)²¹⁾. 아프리카의 한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이집트 병사들 가운데 세 명의 병사가 뾰족한 지붕이 있는 상자 형태의 구조물 아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성벽을 향해 긴 장대를 들고 있다. 이 벽화에서는 여러 사람이 장대나 큰 통나무를 들어 힘으로 반복하여 밀어붙여 성벽이나 성문을 훼손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병사들이 상모 모양의 구조물 안에 있는 이유는 성 안에서 화살을 쏘거나 불을 떨어뜨리는 방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 무기를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이들은 아시리아였다. 아시리아의 센나케립은 시리아와 가나안의 46개 도시를 점령하면서 카르(아카드어 *kirru*)를 사용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²²⁾ 또한 아시리아 임금들의 원정을 묘

21) History on the Net, "Ancient Siege Warfare", www.historyonthenet.com/ancient-siege-warfare (2024. 11. 10.); M. Woods and B. Woods, *Ancient Warfare: From Clubs to Catapults* (Minneapolis: Runestone Press, 2000).

사하고 있는 벽 부조에서 시대별로 변화하는 카르를 볼 수 있다. 이미 기원전 9세기경의 벽 부조에서도 이동에 용이하도록 4개 또는 6개의 바퀴가 달려 마치 전차처럼 보이는 카르가 성벽 앞에 묘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시대에는 앞쪽에 반대쪽 성벽만큼 높은 탑이 있고 탑의 꼭대기에는 궁수들이 타고 있다. 점차 탑은 지붕처럼 둥글어졌는데 궁수들을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단에는 뾰족한 대형 창이 꽂혀 있는데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지역의 성벽이 진흙을 쌓아 세워졌을 때는 나무로도 충분히 부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돌로 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나무보다 더 단단한 도구가 필요했고 카르에 꽂혀 있는 나무 창끝에는 금속을 씌웠다. 이 때문에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성벽을 허무는 쇠덩이 혹은 쇠망치”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0> 기원전 865년경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의 모습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

그러나 길고 두꺼운 창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도구를 쇠만으로 만들기기는 쉽지 않다. 아시리아의 벽 부조 가운데 이 대형 창을 빼내기 위해 성 안쪽의 군사들이 쇠사슬을 내려 창에 걸어서 위로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2) J. B. Geyer, “2 Kings XVIII 14-16 and the Annal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21:5 (1971), 604-606.

(<사진 10>). 이를 막기 위해 아시리아 군사들은 고리를 이용해 창에 걸어서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다. 이 대형 창이 무거운 금속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모습이 묘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 창끝에만 금속을 씌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나무로 만든 이 대형 창을 태우기 위해 성 안에서 횃불을 던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므로 나무로 만들고 끝에 금속을 씌웠던 도구를 쇳덩이로만 번역하거나 또한 긴 창 모양의 도구를 쇳망치로만 번역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8~7세기 이스라엘의 성벽들은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고 외벽의 경우 6미터 이상의 두께였다.²³⁾ 돌로 된 성벽을 계속해서 두드려 성벽을 부수는 과정은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보다 약한 성문을 부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서도 이 무기가 주로 마주하고 있는 곳은 성문인 것을 볼 수 있다. 『새한글』은 카르를 “성벽을 부수는 무기”로 “성문들 맞은편에 두었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카르의 쓰임새와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 표현된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번역이다.

4. 제언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문화를 현대 한국어로 읽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와 장소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하다. 고고학적 자료들과 함께 과거를 읽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소함을 좁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에스겔 4:2와 21:22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포위 전쟁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정리해 보면 ‘마쭌르(מִצְנֶר)’는 ‘둘러쌓아 완전한 봉쇄’를, ‘다예크(דַּיֵּק)’는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의 성벽’을, ‘솔렐라(סֻלְלָה)’는 ‘돌과 흙과 나무 등을 쌓아 만든 인공 언덕’을, 마지막으로 ‘카르(כָּר)’는 ‘성문과 성벽을 부수기 위한 무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읍이 그려진 토판에 에스겔은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의 성벽을 짓고 돌과 흙과 나무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둘러 세웠다(겔 4:2)”, 바빌로니아의 임금인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

23) A. Nahman and G. Hillel,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 finds from areas A, W and X-2 : final report. Volume 2 of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괘용 활을 뽑았으므로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설치하고 돌과 흙과 나무로 언덕을 쌓고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의 성벽을 세웠다(겔 21:22)”를 의미한다.

<주제어>(Keywords)

포위 전쟁, 포위,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 성벽, 돌과 흙과 나무로 쌓은 언덕, 성벽을 부수는 무기.

siege war, siege, siege wall, *solella*, battering-ram.

(투고 일자: 2025년 1월 17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8일)

<참고문헌>(References)

- “כֶּרֶךְ”, <https://biblehub.com/hebrew/3733.htm> (2024. 12. 20.).
- “공성전”, <https://ko.wikipedia.org/공성전> (2025. 2. 28.).
- 임미영, “기원전 10-9세기 블레셋 중심지, 가드: 최근 텔 에 사피(Tel es-Safit) 성벽발굴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 (2017), 208-229.
- BibleWalks 500+, “Mud Bricks”, <https://www.biblewalks.com/mudbricks> (2024. 12.10.).
- Bloch-Smith, E., “The Impact of Siege Warfare on Biblical Conceptualizations of YHW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1 (2018), 19-28.
- Borger, R., *Die Inschriften Asahaddons, Königs von Assyrien*, Bissendorf: Osnabrück, Biblio-Verlag, 1956.
- Garfinkel, Y., et al., “Constructing the Assyrian Siege Ramp at Lachish: Texts, Iconography, Archaeology and Photogrammetr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40:4 (2021), 417-439.
- Geyer, J. B., “2 Kings XVIII 14-16 and the Annal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21:5 (1971), 604-606.
- Gibson, J., *Aramaic Inscriptions, Including Inscriptions in the Dialect of Zenjirli*, vol. 2 of *Textbook of Syrian Semitic Inscriptions*, Oxford: Clarendon, 1975.
- History on the Net, “Ancient Siege Warfare”, <https://www.historyonthenet.com/ancient-siege-warfare> (2024. 11. 10.).
- Luckenbill, D., *The Annals of Sennacherib*,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vol. II.,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1924.
- Maier, A. and Gur-Arieh, Sh., “Comparative Aspects of the Aramean Siege System at Tell es-Safi/Gath”, I. Finkelstein and N. Na'aman, eds., *The Fire Signals of Lachish, Studies in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Israel in the Late Bronze Age, Iron Age and Persian Period in Honor of David Ussishkin*,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227-244.
- Nahman, A. and Hillel, G.,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 finds from areas A, W and X-2 : final report. Volume 2 of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 Penn Museum, “Tablet CBS13885”, <https://www.penn.museum/collections/object/98408> (2024. 11. 10.).
- The Brown 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2007.
- Uehlinger, C., “Clio in a World of Pictures-Another Look at the Lachish Reliefs from Sennacherib’s Southwest Palace at Nineveh”, L. Grabbe, ed., “*Like a Bird in a Cage*”: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701 BCE*, *Journal for the*

-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63, European Seminars in Historical Methodology 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221-305.
- Ussishkin, D.,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1982.
- Ussishkin, 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Monograph Series 22,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004.
- Wildfire Games, <https://wildfiregames.com> (2024. 12. 20.).
- Woods, M. and Woods, B., *Ancient Warfare: From Clubs to Catapults*, Minneapolis: Runestone Press, 2000.
- Wright, G. E., "Judean Lachish", *Biblical Archaeologist* 18 (1955), 9-17.

<Abstract>

**A Reconstruction and Translation Proposal of the Siege Imagery
in Ezekiel 4:2 and 21:22:
An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Approach**

MiYoung Im

(International Bible Museum / AnYang University)

In 2 Kings 18:9, when the Assyrian king Salmaneser ‘encircled’ Samaria, and in 2 Chronicles 32:10, when the Assyrian king Sennacherib ‘encircled’ Jerusalem, we read the term ‘siege assault’ used to describe the Assyrian tactic of warfare. A siege is ‘a war in which a conquering city is surrounded and besieged, and its surrender is forced by cutting off the supply of food or troops.’ In the Bible, as well as in wall reliefs discovered in the mid-19th century at Nineveh and other sites in the Middle East, the Assyrians used this method of warfare to demonstrate their power. The Babylonian Empire would follow after the Assyrians and emulate their “siege assault” warfare to wage an even more brutal war as we see in Ezekiel 4:1-3 and Ezekiel 21:21-22. In Ezekiel 4:2, YHWH directed Ezekiel to vividly describe the destruction caused by the impending siege of Jerusalem, using military imagery to convey the horror of the coming punishment and to emphasise the seriousness of sin and the consequences of disobedience to YHWH’s commands. The coming war must have struck fear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of Judah, as they had already experienced the Assyrians, who had destroye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laid siege to Jerusalem in the days of Hezekiah. Finally, Ezekiel 21:21-22 tells us that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604-562 BC) had laid siege to Jerusalem in fulfilment of the aforementioned prophecy. What did the war look like to the people of Judah at that time? Unlike Assyria, Babylonia did not leave behind images of war, however we can try to recreate it using archaeological sources such as the Assyrian wall reliefs mentioned earlier and the recently published excavations in Israel, especially at Lachish. Based on these sources, we can begin to understand the Babylonian descriptions in Ezekiel 4:2 and 21:22; the Hebrew words used for the Babylonian siege are mazor (מָצוֹר), which means ‘enclosure and complete blockade,’ dayek (דַּיֵּק), which

means ‘the wall of the monarch’s headquarters for the siege,’ solella (סֶלְלָה), which means ‘an artificial hill made of stones, earth, and wood,’ and finally, kar (כַּר), which means ‘a weapon for breaking down gates and walls (siege engine)’. Thus, on the tablet depicting the city of Jerusalem, Ezekiel writes, ‘They built the walls of the royal garrison for the siege, completely surrounding the city, and built hills of stone, earth, and wood, and encamped against it, and set up weapons for breaking down the walls (Eze 4:2)’, the king of Babylonia “drew in his right hand the bow of divination that was to go to Jerusalem, so he set up weapons of breaking down the walls, opening his mouth to kill and shouting with a loud voice, and he set up weapons of breaking down the walls against the gates of the city, and he built a hill of stone, earth, and wood, and he encamped against it, and he set up the walls of the garrison for the siege (Eze 21:22)”.

다니엘 3:17의 통사 구조와 번역

김유기*

1. 서론

다니엘서는 이야기(1-6장)와 환상(7-12장)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 부분에는 각 장별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이야기 여섯 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3장에는 궁정 안에서 벌어지는 대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¹⁾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신하들의 고발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금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예식을 거행하면서 전국의 관리들을 불러 모은다. 그 예식 가운데 금형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순서가 있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네부카드네자르가 경고한다. 그렇지만 지방 관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점성술사들이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하고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잡아 오게 한다.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ykim@swu.ac.kr.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2025-0032).

1) W. L. Humphreys, "A Life-Style for Diaspora: A Study of the Tales of Esther and Daniel", *JBL* 92 (1973), 219는 단 4, 5장의 이야기를 "궁정 경쟁 이야기(tales of court contest)"로 분류하고 단 3, 6장의 이야기를 "궁정 갈등 이야기(tales of court conflict)"로 분류한다. 궁정 경쟁 이야기에서는 궁정 관리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사람이 실패할 때 한 명의 영웅이 성공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데에 반해 궁정 갈등 이야기에서는 궁정 관리들의 갈등 구조 가운데서 한 분파가 다른 분파를 파괴하려 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왕은 이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왕은 그들이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묻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진다.

(1) 다니엘 3:14-15 (『개역개정』)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자 세 사람이 대답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은 3장 전체에서 여기에만 인용되어 나온다.

(2) 다니엘 3:16-18 (『개역개정』)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에 관해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번역의 바탕에는 원문의 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깔려 있다. 특별히 이 구절의 조건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번역자들과 학자들의 다양한 본문 이해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2장에서 다니엘 3:17의 아람어 원문이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피고, 3장에서 현대 번역본들이 이 문장의 통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번역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 구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고 일부 학자들의 새로운 의견도 들여다볼 것이다. 5장에서는 이 구절의 앞뒤에 나오는 진술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이 구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음, 6장에서는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며 글을 맺을 것이다.

2. 아람어 원문과 고대 번역본

아람어 원문에서 다니엘 3:17은 아래의 (3)으로 나온다.

(3) 다니엘 3:17 (MT)

הֵן אִתִּי אֱלֹהֵנָּא דִּי־אֲנַחְנָא פִּלְחִין יְכָל לְשִׁיבוֹתָנָּא
מִן־אֲתוֹן נוֹרָא יְקֻדָּתָא וּמִן־יָדְךָ מַלְכָּא יִשְׁיֹב:

고대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은 이 구절을 아래의 (4)로 옮긴다.

(4) 다니엘 3:17 (LXX)

ἔστι γὰρ θεὸς ἐν οὐρανοῖς εἷς κύριος ἡμῶν ὃν φοβούμεθα ὃς ἐστι δυνατὸς
ἐξελεῖσθαι ἡμᾶς ἐκ τῆς καμίνου τοῦ πυρός καὶ ἐκ τῶν χειρῶν σου βασιλεῦ
ἐξελεῖται ἡμᾶς

칠십인역의 한국어 번역: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
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임금님, 임금님의 손에서 우
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칠십인역은 이 구절을 “그리고(καί)”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절로 나누어 옮
긴다. 그러나 (2)에서 인용한 『개역개정』이 이 구절을 조건절과 주절로 이루
어진 조건문으로 옮긴 것과 달리, 칠십인역은 바로 앞 16절에서 대답할 필요
가 없다고 한 진술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옮긴다. 라틴어 번역인 불가
타도 이 구절을 조건문으로 옮기지 않는다.

(5) 다니엘 3:17 (VUL)

ecce enim Deus noster quem colimus potest eripere nos de camino ignis
ardentis et de manibus tuis rex liberare

불가타의 한국어 번역: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임금님, 임금님의 손에서 풀
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5)에서 볼 수 있듯이 불가타는 이 구절을, 대등하게 이어진 두 개의 부정사를 하나의 조동사가 지배하는 문장으로 옮긴다. 아람어 ܐܝܬܐ의 부정사형과 미완료형을 둘 다 라틴어의 부정사로 옮기면서 “potest”의 지배를 받게 한 것이다. 아람어 ܐܝܬܐ의 부정사형과 미완료형은 문맥에 맞추어 각각 “eripere”와 “liberare”로 다르게 옮긴다.

칠십인역과 불가타 모두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번역자들이 원문의 조건절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원문의 조건문이 지니는 신학적 함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문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했을 것이다. 이 번역들은 조건절로 번역할 경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고(“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면”)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을 번역하는 문제는 고대 번역본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 번역본들도 이 구절을 다양한 방식으로 옮기고 있으며 학자들도 이 구절의 구조와 의미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

3. 현대 번역본의 조건절 번역

3.1. 조건절 배제

(6) 조건문으로 옮기지 않는 번역본들

LB	Siehe, unser Gott, den wir verehren, kann uns erretten aus dem glühenden Feuerofen, und auch aus deiner Hand, o König, kann er erretten.
EIN	Siehe, unser Gott, dem wir dienen, er kann uns retten. Aus dem glühenden Feuerofen und aus deiner Hand, König, wird er uns retten.
NEG	Voici, notre Dieu que nous servons peut nous délivrer de la fournaise ardente, et il nous délivrera de ta main, ô roi.
Reina-Valera(1960)	He aquí nuestro Dios a quien servimos puede librarnos del horno de fuego ardiendo; y de tu mano, oh rey, nos librará.

최근 개정된 독일어 번역본 LB와 EIN은 \uparrow 을 “Siehe(보세요!)”로 옮긴다.²⁾ 프랑스어 번역본 NEG 역시 청자의 주의를 끄는 “Voici”로 옮기며 스페인어 번역본 Reina-Valera(1960) 역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He aquí”로 옮긴다. 이 번역본들은 아랍어 \uparrow 을,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표현으로 옮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칠십인역과 불가타의 전통을 어느 정도 잇는 번역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번역본들은 이 구절에 조건절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끌면서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는 장면으로 옮김으로써 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표현을 피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BB와 Reina-Valera(1995)는 마치 \uparrow 이 없는 것처럼 옮긴다.³⁾

3.2. 불타는 아궁이 안으로 던져지는 것을 가정하는 조건절

(7) 첫 두 단어를 조건절로 옮기는 번역본들

『개역한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표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새번역』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ESV⁴⁾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TNK for if so it must be,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save us from your power, O king.

EIN(1980) Wenn überhaupt jemand, so kann nur unser Gott, den wir verehren, uns erretten; auch aus dem glühenden Feuerofen und

2)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Lutherbibel(1984)과 Einheitsübersetzung(1980)은 둘 다 \uparrow 을 조건절을 이끄는 “Wenn(만약)”으로 옮기고 있다.

3) BB: “Unser Gott, den wir verehren, kann uns aus dem brennenden Ofen retten ...”; Reina-Valera(1995): “Nuestro Dios, a quien servimos, puede libramos del horno de fuego ardiente”.

4) KJV, RSV, NAS, NKJ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옮긴다.

aus deiner Hand, König, kann er uns retten.

이 번역본들은 אֵתִי הֵן을 조건절로 보면서, 15절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위협하면서 말한, 불타는 아궁이 안으로 던져지는 일을 אֵתִי의 생략된 주어로 본다. אֵתִי הֵן을 『개역한글』은 “만일 그럴 것이면”으로, 『표준』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으로, 『새번역』은 좀 더 명시적으로, “불 속에 던져져도”로 옮긴다. English Standard Version(2011) 역시 “If this be so”로 옮기며, TNK 역시 “if so it must be”로 17절을 시작한다. 이와 달리 Einheitsübersetzung(1980)은 אֵתִי הֵן을 완결된 조건절로 보면서도 אֵתִי의 주어를 정해지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Wenn überhaupt jemand”로 번역한다.

3.3.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는 조건절

(8)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는 조건절로 옮기는 번역본(『개역개정』)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개역개정』은 הֵן이 이끄는 조건절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조건절로 옮겨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한다. 로젠탈(F. Rosenthal)은 אֵתִי는 변하지 않는 형태로 쓰이면 ‘존재’를 표현하는데 대명접미사가 결합되면 계사(繫辭, copula)를 대신한다고 한다.⁵⁾ 이를 바탕으로 하트먼과 디 렐라(L. F. Hartman and A. A. Di Lella)는 다니엘 3:17의 אֵתִי에 대명접미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뒤에 명사구가 온 다음 분사가 오기 때문에 אֵתִי를 계사로 볼 수 없다고 한다.⁶⁾

아람어 אֵתִי는 히브리어 וְ와 같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존재사(存在詞)로 이해하고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 골딩게이(J. E. Goldingay) 역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15절에서 이미 제기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⁷⁾ 한편 LB(1984)는 “Wenn unser Gott, den wir verehren, will”이라고 옮겨서 אֵתִי가 주어의 존재가 아니라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

5) F.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PLO 5 (Wiesbaden: Harrassowitz, 1974), 41 (§ 95). ‘계사(繫辭, copula)’는 영어의 ‘be’ 동사처럼 필수적으로 보어를 지배하는 서술어를 가리킨다.

6) L. F. Hartman and A.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on Chapters 1-9*, AYB 23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58.

7) J. E. Goldingay, *Daniel*, N. L. deClaissé-Walford, ed., rev. ed., WBC 30 (Grand Rapids: Zondervan, 2019), 226.

데,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찾기 어렵다.

3.4. 하나님의 능력을 가정하는 조건절

이 분석에 따르면 **לְשִׁיבוֹתָנָא**와 **יָכֹל**이 함께 조건절의 서술어가 되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면”이라는 뜻이 된다. 명사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אֱלֹהֵינוּ**와 그 명사구 뒤에 있는 분사 **יָכֹל**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약 ... 할 수 있다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אֱלֹהֵינוּ**는 존재사가 아니라 계사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주어는 이 두 단어 사이에 있는 명사구 **דִּי־אַנְחָנָא פִּלְחִין**(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다.

부정사 **לְשִׁיבוֹתָנָא** 다음에는 **מִן**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둘이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이 부정사의 지배를 받고 어느 것이 미완료 **לְשִׁיב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조건절과 주절의 경계는 아래의 ㉠, ㉡, ㉢ 가운데 한 곳으로 볼 수 있다.

(9) 다니엘 3:17 조건문에서 주절과 조건절의 경계

㉠ **הֵן אֱלֹהֵינוּ דִּי־אַנְחָנָא פִּלְחִין יָכֹל לְשִׁיבוֹתָנָא**
 ㉡ **מִן־אַתָּון גּוֹרָא יְקָדְתָּא** ㉢ **וּמִן־יָדְךָ מַלְכָּא** ㉣ **יְשִׁיבוּ:**

3.4.1. 부정사가 전치사구를 지배하지 않음

(10) (9) ㉠ 앞을 조건절로 보는 번역본들

『공동개정』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새한글』 임금님,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내 주실 수 있다면, 불타는 아궁이에서나 임금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내 주실 것입니다.

JPS⁸⁾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He will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out of thy hand, O king.

NRS 각주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he will deliver us from the furnace of blazing fire and out of your hand, O

8) ESV는 JPS와 거의 같은 번역을 각주에 대안으로 제시한다.

	king.
ZB	Wenn der Gott, dem wir dienen, uns retten kann, wird er uns aus dem lodernden Feuerofen und aus deiner Hand, König, retten.
TOB	Si notre Dieu que nous servons peut nous délivrer, qu'il nous délivre de la fournaise de feu ardent et de ta main, ô roi !

이 번역본들은 위의 (9 ㉠)을 기준으로 조건절과 주절이 나뉘는 것으로 본다. 『공동개정』은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으로,⁹⁾ 『새한글』은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내 주실 수 있다면”으로 조건절을 옮긴다. NRS의 각주에서는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라는 대체 번역을 제시하는데 이 번역은 JPS의 번역과 똑같다. 독일어 번역본인 ZB의 “Wenn der Gott, dem wir dienen, uns retten kann”이나 TOB의 “Si notre Dieu que nous servons peut nous délivrer” 역시 같은 분석 결과를 번역으로 보여 주고 있다.

3.4.2. 부정사가 첫 번째 전치사구를 지배함

(9 ㉡)을 기준으로 주절과 조건절이 나뉘는 것으로 보는 번역이 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살펴본 현대 번역본들 가운데 이러한 번역을 찾을 수 없었다.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진술은 같은 말을 조건절과 주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9 ㉢)을 기준으로 절을 구분하는 번역은 흔히 볼 수 있다. 두 개의 전치사구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부정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것을 미완료형 정동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칠십인역과 불가타도 그렇고 3.1과 3.2에서 예로 든 대다수의 현대 번역본도 이런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9)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각각 기존의 『개역한글』 및 『표준』과 다르게 옮긴 데에 반해 『공동개정』은 『공동』의 문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 번역에서 וּמִן־הַמֶּלֶךְ를 어떻게 옮기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임금님께서 … 집어넣으셔도”로 돌려서 번역한 것 같다.

3.4.3. 부정사가 두 전치사구를 모두 지배함

(11) (9 ㉔) 앞을 조건절로 보는 번역본들

JB if our God, the one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from your power, O king, he will save us;

NRS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furnace of blazing fire and out of your hand, O king, let him deliver us.

JB와 NRS는 (9 ㉔)을 기준으로 조건절과 주절이 나뉘는 것으로 본다. 접속사로 연결된 두 전치사구가 그 앞에 나오는 부정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몽고메리(J. A. Montgomery) 역시 조건절의 범위로 이처럼 보는 번역을 제안한다.¹⁰⁾ 한편 NRS에서는 주절의 동사 יִשְׁׁלֵם 를 미완료가 아닌 지시법(jussive)으로 분석하고 원문에 없는 목적어를 넣어서 번역한다.¹¹⁾

4. 낱말들의 기능과 조건문의 구조

4.1. כִּי

히브리어의 כִּי 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감탄사로 기능하는 낱말이다. 그러나 아람어의 כִּי 은 히브리어의 כִּי 처럼 조건절을 이끌거나 간접의문문을 이끌 뿐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¹²⁾ 따라서 위의 3.1에서처럼 이 구절의 כִּי 을 청자의 주의를 끄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¹³⁾ 다니엘서에는 כִּי 이 아홉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3:17을 제외하고 여섯 번(2:5, 6, 9; 3:15하; 4:27[24]; 5:16)은 미완료 동사가 사용된

10) J.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ICC (Edinburgh: Clark, 1927), 206: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fiery burning furnace and from thy hand, O king, he will save (us); but if not, etc."

11) 앞서 3.4.1에서 보았던 TOB 역시 כִּי 를 지시법으로 분석하여 프랑스어의 접속법으로 옮기고 있다.

12) HALOT, 1861; C. L. Seow, *Daniel*, P. D. Miller and D. L. Bartlett, ed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56; J. E. Goldingay, *Daniel*, 226.

13) H. Bauer and P. Leander,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Hildesheim; New York: Georg Olms, 1969), 365 (§ 111b)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כִּי 을 "siehe"로 옮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절을 이끌고 있으며 1회(3:15상)는 분사가 사용된 절을 이끌고 있다. 나머지 한 번(3:18)은 부정어 לֹא 만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절의 나머지 부분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용례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부분(1-6장)에만 나온다. 이 낱말이 다니엘서 이야기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וְהָיָה 이 사용된 아홉 번 가운데 네 번(2:5, 9; 3:15하, 18)은 לֹא 가 포함된 부정 조건절이며 이 부정 조건절들은 긍정 조건절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2:5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점성술사들에게 자기가 꾸 꿈과 그 뜻을 함께 알려 주지 않으면(לֹא וְהָיָה) 과멸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6절에서는 그 꿈과 그 뜻을 풀어 주면(וְהָיָה) 상을 내리겠다고 그들을 회유한다. 점성술사들이 그 꿈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9절에서 왕은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꾸 꿈을 점성술사들이 자기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text{לֹא} \dots \text{וְהָיָה}$) 벌을 내리겠다고 다시 위협한다.

3:15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가 세운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날 때 형상에게 절한다면(וְהָיָה) 좋을 것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여기에서 조건절만 있고 주절이 없지만 문맥에서 주절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이어서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לֹא וְהָיָה)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5:16에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벽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자기에게 알려 줄 수 있다면(וְהָיָה) 명예와 지위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니엘이 길게 꿈풀이를 하는 단락(4:19-27[16-24])의 마지막인 4:27[24]에도 וְהָיָה 이 이끄는 절이 나온다. 다니엘은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죄를 뉘우치고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왕의 행복이 오래 지속되게 하려면($\text{וְהָיָה} \text{לְשִׁלוֹתְךָ}$) 그렇게 하라고 한다. 번역본들은 흔히 이 절을 조건절보다는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절로 옮긴다.¹⁴⁾ 웨셀리어스(J. W. Wesselius)는 이 절을 조건절로 보면서 주절과 조건절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한다.¹⁵⁾ 그러나 3:15에 주절이 생략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주절이 생략되었

14) 예를 들어, 『개역개정』은 이 절을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로 옮긴다. 마찬가지로 『새번역』은 וְהָיָה 을 “그렇게 하시면”으로, 『공동개정』은 “그리하면”으로, 『새한글』은 “그러면”으로 옮기고, LB도 “so wird es dir lange wohlgehen”처럼 결과를 나타내는 절로 옮긴다. ESV처럼 “that there may perhaps be a lengthening of your prosperity”처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옮기는 번역본도 있다. 물론 ZB처럼 “wenn dein Glück von Dauer sein soll”처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15) J. W. Wesselius,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II-VI”, *VT* 38 (1988), 207.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략된 주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죄를 뉘우치고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다니엘서에 הן 이 사용된 다른 곳과 달리 4:27[24]에서는 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다. 그러다 보니 위협하는 부정 조건절이 없이 설득하는 긍정 조건절만 나온다.

4.2. אִתִּי

토리(C. C. Torrey)는 הן אִתִּי 가 그 안에 조건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왕기하 10:15에 나오는 וַיֵּשׁ 와 똑같은 구조로 보면서, 이 표현을 “그것이 그러하다면(If it be so)”으로 번역하고 “만약 왕의 선고가 시행된다면”을 뜻한다고 설명한다.¹⁶⁾ 여기에 관해 바우어와 레안더(H. Bauer and P. Leander)는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한다.¹⁷⁾ 그러나 17절의 הן אִתִּי 에 관한 토리의 견해를 따른다면 18절의 וְהָן לֹא 는 “만약 왕의 선고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않더라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사실 וְהָן לֹא 는 왕이 명령이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않으시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보아야 한다.¹⁸⁾ 또 한 쿡(J. A. Cook)이 지적하듯이 אִתִּי 가 명시적인 주어 없이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성서 아람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¹⁹⁾ 따라서 위의 3.2와 같은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

앞의 3.4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현대 번역본들은 다니엘 3:17에 나오는 [אִתִּי + 명사구 + 분사]를 [אִתִּי + 대명접미사 + 분사]와 같은 구조로 이해한다. אִתִּי 를 “있다”를 뜻하는 존재사가 아니라 분사와 함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옹-무라오카(P. Joüon and T. Muraoka)는 성서 히브리어의 [שׁ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이 조건절이나 의문절에 나오는 경우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보거나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라고 한다.²⁰⁾ 무라오카(T. Muraoka)는 성서 아람어의 [אִתִּי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 역시 성서 히브리어의 [שׁ + 대명접미사 + 분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존재사인 אִתִּי 가 대명접미사와 결

16) C. C. Torrey, “Notes on the Aramaic Part of Daniel”, *The Transactions of the Connecticut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5 (1909), 263.

17) H. Bauer and P. Leander,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328-329 (§ 98h).

18) L. F. Hartman and A.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on Chapters 1-9*, 158.

19) J. A. Cook,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BBR* 28 (2018), 374.

20)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542. 여기에서 예로 제시되는 구절은 창 43:4; 신 13:4; 창 24:42; 삿 6:36이다.

합한 경우 어떤 진술이 참됨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²¹⁾ 그런데 그는 다니엘 3:17의 문법을 설명하면서, אִיתִי 다음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וַי가 원래 있었을 것인데 어쩌다가 떨어져 나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무라오카는 이곳의 וַי이 “아마도 주절이 없는 조건절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²²⁾ 접속사 וַי가 원래 있었다는 무라오카의 제안은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다니엘 3:17의 [אִיתִי + 명사구 + 분사]를 [אִיתִי + 대명접미사 + 분사]와 같은 구조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 조건문에 주절이 없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אִיתִי + 명사구 + 분사]는 [אִיתִי + 대명접미사 + 분사] 구조에서 대명접미사를 명사구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서 아람어에 [אִיתִי + 대명접미사 + 분사]는 몇 차례 나오지만 [אִיתִי + 명사구 + 분사]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콕슨(P. W. Coxon)은 다니엘서의 이야기 부분에 나오는 [אִיתִי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을 설명하면서 אִיתִי가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니엘 3:17의 [אִיתִי + 명사구 + 분사] 구문에서도 אִיתִי가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אִיתִי와 분사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주어를 도드라지게 한다고 본다.²³⁾ 로젠탈도 אִיתִי에 대명접미사가 결합된 것만으로도 이미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²⁴⁾ 그렇지만 왜 같은 강조의 기능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만 명사구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서만 אִיתִי가 명사구를 뛰어넘어 분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리(T. Li)는 다니엘 3:17의 이 구문이 אִיתִי에 분사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²⁵⁾ 그와 달리 골딩게이는 “계사와 분사를 분리하는 것은 성서 아람어에서는 유례가 없다”라고 한다.²⁶⁾ 성서 아람어의 자료 분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일 뿐이라

21) T. Muraoka, *A Biblical Aramaic Reader: With an Outline Grammar* (Leuven; Paris; Bristol, CT: Peeters, 2015), 29.

22) Ibid., 47.

23) P. W. Coxon, “Daniel III 17: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Problem”, *VT* 26 (1976), 407-408.

24) F.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41 (§ 95). 여기에서도 로젠탈이 말하는 ‘강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들과 달리, T. Li, *The Verbal System of the Aramaic of Daniel: An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Grammaticalization* (Leiden; Boston: Brill, 2009), 84는 [אִיתִי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이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가 가리키는 시제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현재 시제 표지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25) T. Li, *The Verbal System of the Aramaic of Daniel: An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Grammaticalization*, 85.

26) J. E. Goldingay, *Daniel*, 226.

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서 히브리어에도 이 구문에 상응하는 구문은 나오지 않는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שׁ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שׁ + 명사구 + 분사] 구문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שׁ + 명사구 + 전치사구]로 이루어진 절은 나온다(창 44:26; 사 6:3). 그러나 이 구문은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존재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고려한다면 אִיתִי와 분사로 이루어진 서술어의 주어는 אִיתִי에 결합된 대명접미사여야 하며 주격(독립) 인칭대명사나 명사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17을 “... 우리 하나님이 ... 하실 수 있다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위의 3.4.1-3.4.3과 같은 번역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3. שׁ의 부정사와 미완료

שׁ는 기원전 8세기나 그 이전에 신-아시리아 아카드어에서 빌려온 아람어 동사로서 직접목적어와 함께 나오며 선택적으로 מן 전치사구가 함께 오기도 한다.²⁷⁾ 성서 아람어에서 이 단어는 다니엘 3장과 7장에만 여덟 차례 나온다(3:15, 17[2회], 28; 6:17, 21, 28[2회]). 그 가운데 하나(6:28상)는 분사의 형태로서 수식어구나 목적어가 없지만 나머지 일곱 가운데 3:17하반에 나오는 미완료형 외에는 모두 직접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으며 מן 전치사구와 함께 나오는 경우는 3:17을 제외하고 세 번이다(3:15, 6:21, 28하).

다니엘서의 용례를 볼 때 3:17하반의 שׁ가 직접목적어나 מן 전치사구와 관련 없이 홀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3:17하반의 מן 전치사구도 שׁ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이 여덟 번의 용례 가운데 직접목적어 없이 מן 전치사구와 함께 쓰이는 곳은 3:17하반이 유일하다. 이 동사가 기본적으로 직접목적어를 지배하는 동사이므로 3:17하반에서 직접목적어가 암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암시된 직접목적어는 바로 앞 17상반절의 שׁ의 하펠 부정사형에 결합된 대명접미사 נָא (“우리를”)이다. 따라서 17절에 나오는 שׁ의 부정사와 미완료는 각각 직접목적어와 מן 전치사구를 지배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3.4에 제시된, 조건절과 주절을 구분하는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는 3.4.1의 번역본들처럼,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의 מן 전치사구가 모두 미완료형 동사 שׁ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

27) E. Lipiński, “שׁ šyzb”, H. Gzella,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6: *Aramaic Dictionary*, M. E. Biddle,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8), 757-758.

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쿡 역시, 마소라 본문에서 하나의 절을 두 개의 큰 의미 단위로 나누는 부호인 ‘아트나흐’가 לְשִׁיבוֹתָנָא의 부정사인 לְשִׁיבוֹתָנָא에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מִן이 이끄는 두 개의 전치사구가 모두 뒤에 나오는 미완료형 동사 וְשִׁיב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⁸⁾

4.4. 17상반절과 16하반절의 연결

웨셀리어스는 다니엘 3:17상반을, 뒤따르는 17하반절의 조건절이 아니라 16하반절의 조건절로 이해하려 한다. 성서 아람어에서는 보통 조건절이 주절보다 앞에 오지만 문학적인 목적을 위해 가끔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웨셀리어스에 따르면, 15절에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겠느냐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 내신다면(3:17상) 자신들이 여기에 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3:16하) 한다.²⁹⁾ 웨셀리어스는 הֵן이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절이 이 조건절의 앞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쿡은 문법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상반절을 17하반절의 조건절로 이해하지 않고 16절의 문장에 안긴 절로 본다. 다시 말해, 17상반절을 16하반절의 לְשִׁיבוֹתָנָא אֲנַחְנָה עַל־דְּנָה פִּתְנָם לְהַתְּבוּתָךְ의 서술어의 목적절, 곧 간접의문문으로 이해하고, 17상반절의 הֵן을 이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쿡에 따르면 세 사람이 16절부터 17상반절까지 한 말은 이렇게 옮길 수 있다. “네부카드네자르, 우리는 이 점에 관해 임금님께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라면요.”³⁰⁾

쿡에 따르면 16절의 부정사 לְהַתְּבוּתָךְ의 직접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17절의 הֵן이 이끄는 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³¹⁾ 그러나 לְהַתְּבוּתָךְ의 직접목적어는 바로 앞에 있는 ‘말/대답’의 뜻을 지닌 פִּתְנָם이다. הַתְּבוּתָךְ의 하펠 부정사형에 대명접미사 כִּי가 결합되어 있는 לְהַתְּבוּתָךְ가 바로 앞의 명사구 פִּתְנָם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목적절을 지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더 나아가, 웨셀리우스나 쿡의 제안은 다니엘 3:15,

28) J. A. Cook,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376.

29) J. W. Wesselius,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II-VI”, 207-208.

30) J. A. Cook,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377.

31) Ibid., 373.

17-18의 “... וְהָן ... לֹא”의 구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의 5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5. 조건절의 범위

바우어와 레안더는 다니엘 3:17, 18의 비대칭 구조를 지적한다. “어떻든 וְהָן(18절)는 אִתִּי(17절)와 평행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לֹא 뒤에 יָשִׁיב가 보충되어야 한다.”³²⁾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 사람을 건져 낼 수 있으실 것을 가정하는 조건절이 17절에 나온다면 18절에 나오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실 것을 가정하는 조건절이어야 하는데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7절에서 각각 אִתִּי와 כֻּלָּם과 첫 번째 מִן으로 시작하는 세 절 가운데 한두 절이 조건을 나타내고 나머지 절(들)이 그 결과를 표현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조건문은 맥락에 잘 맞지 않는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앞선 질문이나 세 사람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초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계셔서 건져내실 수 있다면 건져내실 것이라는 조건문 역시 비슷한 내용을 조건절과 주절에 반복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이 세 절을 모두 서로 이어진 조건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절이 생략된 조건문은 다니엘서 이야기에서 낯설지 않다. 앞서 4.1에서 살펴보았듯이, 3:15 역시 조건절만 있고 주절이 생략된 조건문이며 4:27[24] 역시 비슷한 구조를 지닌 문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17절은 구조적으로 아래의 (12)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2) 세 조건절로 이루어진 다니엘 3:17

וְהָן	접속사
אִתִּי אֱלֹהֵנָּה דִּי־אַנְחָנָּה פְּלַחִין	조건절 1
כֻּלָּם לְשִׁיבוֹתָנָּה	조건절 2
מִן־אַתּוֹן נוֹרָא יְקָרְתָּא וּמִן־יֶדֶךְ מַלְכָּא יִשְׁיִב:	조건절 3

17절 전체를 세 개의 조건절로 해석하면 18절과의 비대칭 문제도 사라진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32) H. Bauer and P. Leander,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365 (§ 111b).

건져내실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여기서 “וְהָן לֹא”(그렇지 않더라도)”는 17절의 가정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그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수 없는 상황이다. 아래의 (13)에서 볼 수 있듯이, 15절의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이 “וְהָן לֹא … הָן”의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17-18절의 세 사람의 대답도 “וְהָן לֹא … הָן”의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다.

(13) 다니엘 3:15와 3:17-18의 구조

- | | |
|-------------|----------------------------------|
| … הָן | “…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옆드려 절한다면” (15절) |
| … וְהָן לֹא | “바로 절하지 않는다면” (15절) |
| … הָן | “… 계셔서, … 하실 수 있고, 건져내신다면” (17절) |
| … וְהָן לֹא |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18절) |

17절 전체를 조건절로 본다면 위의 (13)에 나오는 네 조건문 가운데 15절과 17절의 긍정 조건문은 둘 다 주절 없이 조건절로만 이루어져 있고 15절과 18절의 부정 조건문은 둘 다 조건절과 주절을 갖추고 있다.

17절 전체를 조건절로 분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17절과 18절은 대화의 상대방인 네부카드네자르에 맞서 세 사람이 자신들의 결심을 표명하는 진술이다. 인용문 가운데 등장하는 호칭어의 사용이 이를 잘 보여 준다. 17절과 18절 모두 “임금님(מֶלֶךְ)”이라고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가 등장하다. 이 표현은 흔히 왕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로 사용된다. 그런데 앞서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대답하면서 “네부카드네자르(נְבוֹכַדְנֶצַּר)”라고 대화 상대를 이름으로 부른다.³³⁾ 세 사람이 왕과 당당히 맞서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17-18절에 사용된 מֶלֶךְ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보다는 단순히 직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왕이 섬기는 신들과 세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

33) BHS는 MT에서 לְמֶלֶךְ에 있는 아트나흐를 바로 뒤의 단어인 נְבוֹכַדְנֶצַּר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읽으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말했다”로 되어 “네부카드네자르”가 인용문이 아니라 이야기 틀 안에 있게 된다. J. E. Goldingay, *Daniel*, 223은 MT의 표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 BHS의 제안을 따른다. C. L. Seow, *Daniel*, 55-56 역시 이렇게 고쳐 읽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원문대로 읽을 경우 이 호칭어에 함의된 무례함은 다니엘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MT를 따를 때 문맥 안에서 저자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18절의 진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세 사람의 굳은 결심을 표현한다.³⁴⁾ 그들은 어떤 신이 왕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16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건져 주신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에서 표현하면서(17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부카드네자르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드러낸다(18절).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네부카드네자르의 화를 돋웠을 것이다(19절).

6.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3:17의 고대 및 현대 번역본들의 이해와 최근 연구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이 구절의 통사 구조가 어떠한지 밝히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π 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면서도 여기에 들어 있는 세 개의 절을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지 않고 이 세 절을 모두 조건절로 파악함으로써 문장 전체를 주절이 생략된 조건문으로 보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분석할 경우, 조건절과 주절을 나눔으로써 생겨나는 의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절을 시작하는 조건절 “ $\text{לֹא נִשְׁתַּחֲוֶה$ ”와 대칭되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3:17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발언에 나오는 긍정 조건문에 주절이 없는 것은 3:15의 네부카드네자르의 발언에 나오는, 주절이 없는 긍정 조건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 장치를 사용해서 저자는 왕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는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 3:17-18은 아래의 (14)처럼 옮길 수 있다.

(14) 다니엘 3:17-18의 번역

17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불타는 아궁이에서, 그리고 임금님,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면!

18 그렇지 하지 않으셔도, 임금님, 임금님은 아셔야 합니다. 임금님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리라는 것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형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어요.

34) P. W. Coxon, “Daniel III 17: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Problem”, 408은 “여기에서 의심을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한다.

<주제어>(Keywords)

다니엘 3:17, 조건절, 성서 아람어, 헨, 이타이.

Daniel 3:17, conditional clauses, Biblical Aramaic, *hēn*, *'itay*.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3일)

<참고문헌>(References)

- Bauer, H. and Leander, P.,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Hildesheim; New York: Georg Olms, 1969.
- Cook, J. A.,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BBR* 28 (2018), 367-380.
- Coxon, P. W., “Daniel III 17: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Problem”, *VT* 26 (1976), 400-409.
- Goldingay, J. E., *Daniel*, N. L. deClaissé-Walford, ed., rev. ed., WBC 30, Grand Rapids: Zondervan, 2019.
- Hartman, L. F. and DiLella, A. 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on Chapters 1-9*, AYB 23,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Humphreys, W. L., “A Life-Style for Diaspora: A Study of the Tales of Esther and Daniel”, *JBL* 92 (1973), 211-223.
- Joü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 E. J. Richardson, trans. and ed.,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1. (*HALOT*)
- Li, T., *The Verbal System of the Aramaic of Daniel: An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Grammaticalization*, Leiden; Boston: Brill, 2009.
- Lipiński, E., “שִׁיבִי šyzb”, H. Gzella,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6: *Aramaic Dictionary*, M. E. Biddle, trans., Grand Rapids: Eerdmans, 2018, 757-759.
- Montgomery, J.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ICC, Edinburgh: Clark, 1927.
- Muraoka, T., *A Biblical Aramaic Reader: With an Outline Grammar*, Leuven; Paris; Bristol: Peeters, 2015.
- Rosenthal, F.,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PLO 5, Wiesbaden: Harrassowitz, 1974.
- Seow, C. L., *Daniel*, P. D. Miller and D. L. Bartlett, ed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Torrey, C. C., “Notes on the Aramaic Part of Daniel”, *The Transactions of the Connecticut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5 (1909), 241-282.
- Wesselius, J. W.,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II-VI”, *VT* 38 (1988), 194-209.

<Abstract>

Syntactic Structure of Daniel 3:17 and Its Translation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Daniel 3:17 has been translated in various ways across both ancient and modern versions. The Greek Septuagint, the Latin Vulgate, and some modern translations do not render the verse as a conditional sentence, often interpreting the particle *hēn* as an interjection rather than as an indicator of a condition. Among modern translations that do treat the sentence as conditional, there is no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the protasis. Some translations limit it to the particle *hēn* and the first word *'itay* without an explicit subject, making the condition the act of being thrown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Others extend it to include the noun phrase “the God whom we serve,” making the condition instead the existence of God. Still others incorporate the participle followed by an infinitive — “able to deliver us” — making the condition God’s ability to save the speakers from their impending fate. To avoid the implication that the speakers question either God’s existence or His power, some scholars link the protasis to the last sentence of the previous vers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unlike the Hebrew *hēn*, which often functions as an interjection, the Aramaic *hēn* introduces a protasis or an embedded question. Moreover, *'itay* cannot serve as a predicate without an explicit subject. Even if the following noun phrase is taken as the subject, the resulting conditional clause would not form a strong or balanced parallel with the following negative conditional clause in the next verse. Additionally, there is no attested case in Biblical Aramaic where *'itay* serves as a copular predicate linking a noun phrase to a following participle. Instead, *'itay* in this verse is better understood as an existential rather than a copular predicate, meaning that it denote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rather than linking the subject to its complement.

We propose that the conditional sentence in Daniel 3:17 consists of *hēn* followed by three conditional clauses without an apodosis, a construction that influences how the verse should be interpreted. This structure creates a deliberate parallel between the conditional clauses in verse 17a and in verse 18a,

reinforcing a contrast between different possibilities. By identifying this structural parallel,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passage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Our analysis also finds support in a conditional sentence with a missing apodosis in verse 15 and possibly in Daniel 4:27[24], demonstrating a recurring pattern in the Aramaic portions of Daniel.

트레겔레스 판과 웨스트코트 호트 판 차이점 연구 —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

박형대*

1. 서론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으로 알려진 구약성경 사전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¹⁾ 사무엘 프리독스 트레겔레스(S. P. Tregelles, 1813년 1월 30일~1875년 4월 24일)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신약성경 사본 비교와 원문 추정을 위해 보냈는데, 그의 비평본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비잔틴 본문 유형 비평본’과 ‘SBL 비평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틴데일하우스에서는 트레겔레스의 비평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평본을 2017년에 출판하였다.²⁾

트레겔레스 비평본은 출판 당시 스크리브너(F. H. A. Scrivener) 비평본에서 꾸준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다.³⁾ 또한 스크리브너는 1881년에 옥스퍼드

* London School of Theolog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약학 부교수. hdpark@chongshin.ac.kr.

- 1) W. Gesenius,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S. P. Tregelles, trans. (Grand Rapids: Baker, 1979 [1847]). 트레겔레스(S. P. Tregelles)는 1846년 2월 24일 로마에서 이 사전을 번역했다.
- 2) 장동수, “<서평>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Dirk Jongkind, Peter J. Williams, Peter M. Head, and Patrick James, eds.,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266-283과 박형대, “틴데일하우스 신약성경 비평본과 트레겔레스의 신약성경 비평본의 차이점 연구”, 「신약연구」 75 (2024. 9.), 553-554 참고.
- 3) F. H. A. Scrivener, *H KAINH ΔΙΑΘΗΚΗ Novum Testamentum: Textus Stephanici A.D. 1550, cum Variis Lectionibus Editionum Bezae, Elzeniri, Lachmanni, Tischendorfii, Tregellesii, Westcott-Hortii, Versionis Anglicanae Emendatorum*, 4th ed. (Londini: Cantabrigiae, 1906), x쪽

에서 출판된 ‘팔머판’ 출판에 도움을 주었고, 팔머(E. Palmer)는 트레겔레스 비평본을 중요하게 언급한다.⁴⁾ ‘팔머판’은 한국어 최초 번역 성경인 『예수 성교누가복음전서』의 저본이었고, 이후 ‘구역’의 일부가 된 1906년 『신약전서』의 저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⁵⁾ 그런데 ‘팔머판’과 같은 해에 케임브리지에서 출판된 웨스트코트 호트판과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트(F. J. A. Hort)의 저서에는 트레겔레스 비평본을 사용했다는 언급이 없다.

2.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연구 방법

트레겔레스 신약 비평본은 1879년에 최종판[‘T 판’으로 표기]이 출판되었다.⁶⁾ 웨스트코트 호트 신약 비평본[‘WH 판’으로 표기]은 1881년에 출판되었다.⁷⁾ T 판은 런던에서, WH 판은 케임브리지에서 출판되었고, 트레겔레스 전기를 쓴 스텐트(T. C. F. Stunt)에 따르면, 웨스트코트와 호트는 “그의 작업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트레겔레스”와 잘 지냈다.⁸⁾ 한편, 호트는 1855년 10월에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트레겔레스를 ‘신약 그리스어 성경 복구에 전 생애를 완전히 바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 기쁘고 편지를 몇 번 주고받았음’을 언급한다.⁹⁾

을 보라. 스크리브너(F. H. A. Scrivener) 초판은 1859년, 2판은 1876년, 3판은 1886년, 4판은 1906년에 출판되었는데, 스크리브너는 트레겔레스가 여백에 기록한 읽기도 고려하였다.

- 4) E. Palmer, *H KAINH ΔΙΑΘΗΚΗ: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and with References in the Margin to Parallel Passages of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 and Stock, 2016 [1882]), vi-viii.
- 5)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8 (2010), 114-115;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전서』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32 (2013), 683-684;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72-73;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85, 100과 이복우, “『신약전서』(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그리스어 저본(底本) 사용연구”, 『신학정론』 30:2 (2012), 574, 599 참고.
- 6) S. P. Tregelles, *The Greek New Testament, Edited from Ancient Authorities, with Their Various Readings in Full, and the Latin Version of Jerome*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1857-1879).
- 7) B. F. Westcott and F. J. A. Hort, eds.,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881]).
- 8) T. C. F. Stunt, *The Life and Times of Samuel Prideaux Tregelles: A Forgotten Scholar, Christianities in the Trans-Atlantic World*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20), 170.
- 9) A. F. Hort,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I* (London: Macmillan, 1896), 314. 또한, T. C. F. Stunt, *The Life and Times of Samuel Prideaux Tregelles*, 169도 보라.

한편, 웨스트코트와 호트에 대한 트레겔레스의 견해가 1857년 4월 17일에 뉴튼(B.W. Newton)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 있는데 다음과 같다.

웨스트코트와 호트가 그리스어 성경 개정을 광고했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나는 그들 둘을 압니다. 그들은 좋은 학자들이죠. 그러나 나는 그들의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나오기 전에 내 것의 일부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사본들을 그들 스스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부들의 인용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습니다.¹⁰⁾

스툰트가 볼 때, 트레겔레스는 웨스트코트 및 호트와 ‘경쟁 가능성(some potential for rivalry)’을 생각했다.¹¹⁾ 한편, 모든 사본을 직접 읽으며 비교하던 트레겔레스가 볼 때, 웨스트코트와 호트는 사본을 대조하며 연구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WH 판을 보면, 본문 확정과 관련된 지지 사본이 언급되지 않는다. 본문과 몇 개의 이문이 난외에 언급되었을 뿐이다. 또한 트레겔레스는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연구가 교부들의 글에 치중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855년에 출판되고 1881년에 5판이 나온 *A General Survey of the History of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²⁾

WH 판 끝머리에 추가된 설명에 따르면,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사본 이해의 틀은 트레겔레스의 것보다 간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트레겔레스는 모든 사본을 비교하면서 고대 사본을 존중하면서도 소수 사본에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¹³⁾ 그러다 보니, ‘수용 본문, 서방 유형 사본’도 무시하지 않았고, 바티칸 사본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면서도¹⁴⁾ 절대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의 영인본을 곁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없었기에, 바티칸 사본 세 인쇄본(Bentley, Birch, Bartolucci)을 사용했다. 그런데, 인쇄본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바티칸 사본을 본문 확정

10) T. C. F. Stunt, *The Life and Times of Samuel Prideaux Tregelles*, 169 (“Westcott and Hort have advertized a revision of the Greek Test. now in preparation: I know them both - they are good scholars — but I want to issue part of mine before any of theirs appears. They have collated no MSS themselves — but they have paid much attention to the Patristic citations.”), 169 n. 28 (“SPT [17 April 1857, Plymouth] to B.W. Newton [Manchester/JRUL/CBA 7181 (10)]”).

11) T. C. F. Stunt, *The Life and Times of Samuel Prideaux Tregelles*, 169.

12) B. F. Westcott, *A General Survey of the History of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5th ed. (Cambridge; London: Macmillan, 1881).

13) S. P. Tregelles, *An Account of the Printed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with Remarks on Its Revision upon Critical Principles together with A Collation of the Critical Texts of Griesbach, Scholz, Lachmann, and Tischendorf, with That in Common Use*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1854), 106, 175.

14) Ibid., 156.

에 반영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웨스트코트와 호트는 내적 증거보다 외적 증거를 중시하면서, 외적 증거를 수량화하기 어렵기에 사본들 사이의 관계, 특히 사본 사이의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보았다.¹⁵⁾ 사본을 ‘안디옥 혹은 시리아 본문, 서방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으로 구분한 그들은 4세기 이전에 본문 변화가 있었는데,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면서 ‘안디옥 혹은 시리아 본문’이 득세하여 수용 본문이 되었다고 추정하였다.¹⁶⁾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사본은 “중간 혹은 중립적인 위치(a middle or neutral position)”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에 속한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었다.¹⁷⁾

웨스트코트와 호트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만이 시리아 본문 유형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지하는 사본의 숫자와 관계없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이 함께 지지하는 읽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¹⁸⁾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이 다른 경우에는 바티칸 사본을 신뢰하면서, 이때 시내산 사본의 읽기를 “부주의함 내지 대담함(either carelessness or boldness)”으로 이해했다.¹⁹⁾ 그런데, 바티칸 사본과 다른 시내산 사본의 읽기를 WH 판이 선택한 경우들이 마태복음에 꽤 있다. 그래서 용례를 고려하여 WH 판의 실제 원문 추정 기준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해 보았다.

T 판과 WH 판을 비교하면서, ‘WH 판은 수용 본문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중시한다는 점만 밝히는데, 과연 T 판은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첫째 이유는 ‘WH 판의 읽기’와 ‘T 판의 읽기’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의 대부분이 바티칸 사본의 읽기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의 거의 모든 부분이 T 판의 난하주에서²⁰⁾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두 비평본 사이의 차이 대부분이 ‘트레겔레스가 취하지 않은 바티칸 사본의 읽기’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이유는 WH 판에서 선택한 읽기가 바티칸 사본과는 일치하고 T 판과는 다른 경우 가운데, CNTTS(Center for New Testament Textual Studies)²¹⁾ 기준으로 바티칸 사본만 취하는 읽기를 WH 판에서 선택한 경우들과 관련된다. 이 외에도 WH 판이 T 판을 출발점으로 삼

15) B. F. Westcott and F. J. A. Hort, eds.,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2, 542-545.

16) *Ibid.*, 546-551.

17) *Ibid.*, 556-559.

18) *Ibid.*, 556-557.

19) *Ibid.*, 557.

20) ‘난하주’를 ‘비판장치’라고도 부른다.

21) *The Center for New Testament Textual Studies NT Critical Apparatus*(revised edition)는 Accordance 버전을 사용하였다.

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데 WH 판 및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책을 보면, 트레겔레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특히, 1882년에 출판된 그들의 책에는 WH 판의 역사(History of this edition)가 소개되는데, 라흐만(K. Lachmann)과 티셴도르프(C. Tischendorf)만 언급된다.²²⁾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책에서 트레겔레스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트의 아들이 편집한 ‘호트의 삶과 편지’에 관한 책에 따르면, 호트는 트레겔레스와 여러 해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트레겔레스의 사본 대조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트레겔레스가 소천한 후에는 트레겔레스의 사본 대조 자료를 “큰 박스(a large box of his collations)”로 전달받기까지 하였으며 T 판 최종판(1879년)의 서문을 작성했다.²³⁾ 이러한 호트 말아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WH 판은 그들 비평본과 관련하여 ‘트레겔레스의 기여’나 ‘T 판과의 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²⁴⁾

WH 판과 영어 번역이 함께 출판된 WH 미국 판(American Edition)에 실린 샤프(P. Schaff)의 서문에는 T 판을 WH 판 직전에 소개한다.²⁵⁾ 그러나 트레겔레스의 수고는 고평가하면서도, T 판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분위기이고, T 판과 WH 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호트가 T의 최종판(1879년)의 서문을 쓴 것만 언급한다.

이에, WH 판과 T 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두 비평본 사이에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말해, T 판이 WH 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22) B. F. Westcott and F. J. A.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The Text Revised by Brooke Foss Westcott and Fenton John Anthony Hort, Introduction and Appendix by the Editor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82), 16.

23) A. F. Hort,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II, 235. 호트 아들의 증언으로 트레겔레스 최종판 prolegomena에 있는 F. J. A. Hort가 호트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성의 첫 글자가 그리스어 Π로 되어 있어서 ‘포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호트’였다. 왜 이름을 달리 표기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24) 한편, A. F. Hort,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II, 236-237에 소개된 로빈슨(J. A. Robinson)의 평가는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로빈슨은 “Hort must have verified practically the whole of Tregelles’ work, besides adding very largely to the presentation of the patristic testimony.”라며 T 최종판에 호트가 크게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지만, 트레겔레스 생전에 출판된 1870년판과 호트가 서문을 쓴 최종판 1879년판을 비교할 때, 호트의 기여는 서문을 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싶다. 그리고 그 서문이라는 것도 트레겔레스가 그의 책 *An Account of the Printed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with Remarks on Its Revision upon Critical Principles together with A Collation of the Critical Texts of Griesbach, Scholz, Lachmann, and Tischendorf, with That in Common Use*에서 얘기한 것 가운데 일부만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25) B. F. Westcott and F. J. A.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The Text Revised by Brooke Foss Westcott and Fenton John Anthony Hort, Introduction and Appendix by the Editors*, American ed.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85), lxxxiv-lxxxv.

성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²⁶⁾ 논증의 기본 의의는 THGNT에서 밝히듯,²⁷⁾ T 판이 무시된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의의만 있지는 않다. NTG²⁸⁾에서 새로 선택한 읽기 가운데 열 개가 T 판에서 선택된 것과, NTG²⁷⁾과 NTG²⁸⁾의 읽기가 모두 T 판의 난하주에서 고려된 걸 보면서, T 판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NTG²⁸⁾의 서문에는 NTG²⁷⁾과 다른 곳으로 서른세 표현이 소개된다. 그런데 T 판의 이 부분을 보면, 열 개가 NTG²⁸⁾의 읽기와 같다.²⁸⁾ 그리고 이 열 개 가운데 아홉 개와²⁹⁾ 관련하여 난하주에 NTG²⁷⁾의 읽기와 지지하는 증거를 매우 자세하게 소개한다.³⁰⁾ 또한 NTG²⁷⁾과 같은 읽기를 취한 스물둘 표현과 관련해서도 거의 NTG²⁸⁾의 읽기를 지지 증거와 함께 매우 자세하게 소개한다.³¹⁾ T 판이 NTG²⁷⁾ 및 NTG²⁸⁾과 다른 표현을 가지는 경우는 유다서 5절에 하나 있는데, NTG²⁸⁾의 표현에 가깝다.³²⁾

그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T 판과 WH 판의 차이점 비교를 통한 두 판의 관계를 연구해 보자. T 판을 앞세운 이유는 T 판이 먼저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처음 책이기 때문이다. 먼저, 마태복음을 통해 두 비평본을 비교해 본 뒤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연구를 통해 비교하려 한다. 호트가 1858년 1월 4일에 맥밀란(A. Macmillan)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웨스트코트가

26) 참고로, 헨드릭슨에서는 WH 1885년판 본문에 NTG²⁷⁾ 및 로빈슨피에폰(Robinson-Pierpont)의 비잔틴 본문의 다른 읽기를 난하주에 소개한 비평본을 출판하였다(B. F. Westcott and F. J. A. Hort, *The Greek New Testament with Comparative Apparatus Showing Variations from the Nestle-Aland and Robinson-Pierpont Edition, with Greek Dictionary revised and expanded from A Pocket Lexicon to the Greek New Testament by Alexander Souter, Foreword by Eldon Jay Epp* [Peabody: Hendrickson, 2007]).

27) D. Jongkind, ed.,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Cambridge* (Wheaton: Crossway, 2017), 505. 틴데일하우스 비평본을 용킨트(D. Jongkind, *An Introduction to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Cambridge* [Wheaton: Crossway, 2019])의 제안을 따라 THGNT로 표기하였다.

28) 벵전 1:16의 ὅτι 생략과 εἰμι 생략, 2:5의 τῷ 생략, 벵후 2:6의 ἀσεβεῖν, 2:11의 παρὰ κυρίῳ (다만, 꺾쇠 묶음 안에 παρὰ κυρίῳ와 같이 표기), 2:15의 καταλιπόντες, 2:20의 ἡμῶν 생략, 요일 5:10의 ἐν αὐτῷ, 요이 12절의 ἡ πεπληρωμένη, 유 18절의 τοῦ 생략이다.

29) NTG²⁷⁾의 읽기(παρὰ κυρίου)가 난하주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벵후 2:11의 παρὰ κυρίῳ이다.

30) 다만, 벵후 2: 6과 관련하여서는 변칙자음 누가 빠진 형태로 “ασεβεσι B”와 같이 소개한다.

31) T 판의 읽기가 NTG²⁷⁾과 같으면서 난하주에 NTG²⁸⁾의 읽기가 소개되지 않은 표현은 벵후 3:10의 οὐχ, 요일 1:7의 ἔς 생략 뿐이다.

32) 유 5절의 NTG²⁷⁾ 읽기는 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ἄπαξ이고, NTG²⁸⁾의 읽기는 ἄ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이고, T 판의 읽기는 ἄπαξ πάντα ὅτι κύριος이다. 트레겔레스는 난하주에 단어별로 다루어 NTG²⁷⁾과 NTG²⁸⁾의 읽기를 소개한다. 예로, NTG²⁷⁾의 읽기 가운데 ἄπαξ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ante ὅτι K”로 표기한다.

작업한 부분일 수 있다.³³⁾

두 비평본의 차이는 먼저, 바티칸 사본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과 시내산 사본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의 견지에서 정리한다. ‘시내산 사본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의 경우,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읽기가 다르다. 다시 말해, WH 판이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따르지 않고 시내산 사본의 읽기를 따른 경우이다. 이어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경우를 정리한다. 차이점을 다룰 때, 지면 절약을 위해 ‘장절(T 판의 읽기, WH 판의 읽기)’의 형식으로 용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대문자 사본에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 즉, 띄어쓰기, 악센트, 기식, 이오타, 분음기호를 다룬다. 비평본에 비교 대상인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기한다. 단어가 홀로 있더라도, 본문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악센트를 그레이브에서 애큐트로 바꾸지 않는다. 고유명사의 경우, 처음에 나오는 용례만 소개한다(예. 예루살렘). 한편, 고유명사 음역 등과 관련하여 ‘오타’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WH 1890년판과의³⁴⁾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

3. 바티칸 사본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³⁵⁾

T 판과 WH 판의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곳이 바티칸 사본의 읽기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특히, CNTTS 기준으로 바티칸 사본만이 취하는 읽기를 WH 판이 선택한 경우를 통해 WH 판이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더불어, WH 판이 T 판과 달리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취한 대부분은 T 판의 난하주에 바티칸 사본의 읽기가 소개되어 있다. T 판의 난하주만 봐도, 트레겔레스가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의 세 인쇄본(Bentley, Birch, Bartolucci)을 사용했는데, 인쇄본이 서로 다를 때가 있었기에,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의 읽기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의 세 인쇄본이 다른 경우에는 B.Btly., B.Bch., B.Blc.와 같이 근거 인쇄본을 난하주에 제공한다.

그럼, T 판과 WH 판의 읽기를 바티칸 사본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첫

33) A. F. Hort,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I* (London: Macmillan, 1896), 392.

34) B. F. Westcott and F. J. A. Hort, eds.,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Text* (Cambridge; London: Macmillan, 1890). 단순 오타인 경우는 10:9(ὅμων, ὠμών)가 있다.

35) T 판 12:29 ἀρπάσαι의 약한 습표는 난하주를 고려할 때 오타로 보인다.

째, WH 판이 선택한 바티칸 사본의 읽기에 대해 T 판이 난하주에 소개한 경우, 둘째, WH 판이 선택한 바티칸 사본의 읽기에 대해 T 판이 난하주에 소개하지 않은 경우, 셋째, WH 판이 바티칸 사본만 그러한 읽기를 가진 경우, 다시 말해, CNTTS 기준으로 지지하는 사본이 바티칸 사본만 있는 읽기를 WH 판이 선택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3.1. WH 판이 선택한 바티칸 사본의 읽기에 대해 T 판이 난하주에 소개한 경우³⁶⁾

고유명사 음역과 관련하여 1:5(Βοὸς, Βοῆς), 2:23(Ναζαρέθ, Ναζαρέτ), 11:4(Ἰωάννη, Ἰωάνει), 11:21(Βηθσαιῖδά, Βηθσαιδάν)³⁷⁾, 27:61(Μαρία, Μαριάμ)이 있다.

ει와 ι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26:25(ῥαββί, ῥαββεί), 26:49(ῥαββί, ῥαββεί)가 있다.

어형변화와 관련하여 12:4(ἔφαγεν, ἔφαγον), 17:5(ἠὺδόκησα, εὐδόκησα)가 있다.

순서와 관련하여, T 판은 5:5에서 4절로 본문이 배열되고, WH 판은 5:4에서 5절로 본문이 배열된다. 또한 순서와 관련하여 11:26(ἐγένετο εὐδοκία, εὐδοκία ἐγένετο), 14:28(αὐτῷ ὁ Πέτρος εἶπεν, ὁ Πέτρος εἶπεν αὐτῷ), 24:33(ταῦτα πάντα, πάντα ταῦτα), 24:40(οὗο ἔσονται, ἔσονται οὗο)이 있다.

신명과 관련하여 9:12([Ἰησοῦς], 없음)가 있다.

그 외에는 2:22([ἐπὶ], 없음), 3:2([καὶ], 없음), 3:7([αὐτοῦ], 없음), 3:14(Ἰωάννης, 없음), 3:15(πρὸς αὐτόν, αὐτῷ), 3:16(ἀνεῳχθησαν, ἠνεῳχθησαν), 3:16(αὐτῷ, 없음), 3:16(τὸ πνεῦμα τοῦ θεοῦ, πνεῦμα θεοῦ), 3:16([καὶ], 없음), 4:23([ὁ Ἰησοῦς], 없음), 5:25([σε παραδῶ], 없음), 5:46(οὕτως, τὸ αὐτὸ), 6:8(없음, [ὁ θεός]), 6:22(ἀπλοῦς ἦ, ἦ ... ἀπλοῦς), 8:7([καὶ] ... [ὁ Ἰησοῦς], 없음)³⁸⁾, 8:9(없음, [τασσόμενος]), 8:13([καὶ], 없음), 9:14(πολλά, 없음), 9:18(εἰς ἐλθὼν, [εἰς] προσελθὼν), 9:27([αὐτῷ], 없음), 9:32([ἄνθρωπον], 없음), 9:36(ὥς, ὥσει), 10:2(Ἰάκωβος, καὶ Ἰάκωβος), 10:13(πρὸς, ἐφ'), 10:15(Γομόρρας, Γομόρρων), 10:28(φοβεῖσθε, φοβηθῆτε, φοβεῖσθε), 11:8(εἰσίν, 없음), 11:9(ιδεῖν; προφήτην; προφήτην ιδεῖν), 11:10([γάρ], 없음), 11:15([ἀκούειν], 없음), 12:11(없음, [ἔσται]), 12:15([ὄχλοι], 없음), 12:18(ἐν ᾧ, ὅν), 13:4(ἦλθον τὰ πετεινὰ καὶ, ἐλθόντα τὰ πετεινὰ), 13:9, 43([ἀκούειν], 없음), 13:7(ἔσπειρες, ἔσπειρας), 13:28

36) 이 용례에는 바티칸 사본과 함께 소수의 사본만 지지하는 경우,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의 읽기가 다른 경우,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만 지지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37) 이 경우는 분음기호화도 연관된다.

38) T 판은 수용 본문에 있는 표현을 조심스레 빼려 했지만, WH 판은 과감하게 뺐다.

(δούλοι, ㄹㅇ), 13:40(καίεται, κατκαίεται), 13:45(ἀνθρώπω, ㄹㅇ), 14:19(ἠυλόγησεν, εὐλόγησεν), 14:26(καὶ ἰδόντες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οἱ δὲ μαθηταὶ ἰδόντες αὐτὸν), 14:27(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ὁ Ἰησοῦς] αὐτοῖς), 14:29(ἐλθεῖν, καὶ ἦλθεν), 14:33(ἐλθοντες, ㄹㅇ), 15:6(ἢ τὴν μητέρα αὐτοῦ, ㄹㅇ), 15:12(αὐτοῦ, ㄹㅇ), 15:33([αὐτοῦ], ㄹㅇ), 15:36([αὐτοῦ], ㄹㅇ), 16:8(ἐλάβετε, ἔχετε), 16:20(διεστείλατο, ἐπετίμησεν), 16:21([ὁ] Ἰησοῦς, Ἰησοῦς Χριστὸς), 16:28(ㄹㅇ, ὅτι), 17:3(συλλαλοῦντες, συνλαλοῦντες)³⁹⁾, 17:4(ποιήσωμεν, ποιήσω), 17:7(ἦψατο αὐτῶν καὶ, ἀψάμενος αὐτῶν), 17:8(τὸν Ἰησοῦν, αὐτὸν Ἰησοῦν), 17:21 전체⁴⁰⁾, 18:5(ἄν, ἐάν), 18:5(τοιούτων, τοιούτο), 18:8(χωλὸν ἢ κυλλόν, κυλλὸν ἢ χωλόν), 18:15(εἰς σέ, ㄹㅇ), 18:18([τῷ], ㄹㅇ), 18:18([τῷ], ㄹㅇ)⁴¹⁾, 18:24(αὐτῷ εἰς, εἰς αὐτῷ), 18:25(αὐτοῦ, ㄹㅇ), 18:26(ἐμέ, ἐμοί), 18:29(ἐμέ, ἐμοί), 19:3(ἀνθρώπω, ㄹㅇ), 19:10(αὐτοῦ, ㄹㅇ), 19:11(τοῦτον, ㄹㅇ), 19:18(εἰπεὶ ἔφη), 19:24 (τρυπήματος, τρήματος), 19:28(αὐτοὶ, ὑμεῖς), 19:29(τοῦ ὀνόματός μου, τοῦ ἐμοῦ ὀνόματος), 20:9(καὶ ἐλθόντες, ἐλθόντες δέ), 20:16([πολλοὶ γὰρ εἰσιν κλητοί, ὀλίγοι δὲ ἐκλεκτοί], ㄹㅇ), 20:17(ㄹㅇ, [μαθητὰς]), 20:21(δεξιῶν σου, δεξιῶν), 21:19(ㄹㅇ, οὐ), 22:27([καὶ], ㄹㅇ), 23:3(ἄν, ἐάν), 23:21(κατοικήσαντι, κατοικοῦντι), 23:38(ἔρημος, ㄹㅇ), 24:36(ㄹㅇ, οὐδὲ ὁ υἱός), 25:6(αὐτοῦ, ㄹㅇ), 25:16([δὲ], ㄹㅇ), 25:22(δὲ, ㄹㅇ), 25:27(τὸ ἀργύριον, τὰ ἀργύρια), 25:42(ㄹㅇ, [καὶ]), 26:28(καινῆς, ㄹㅇ), 26:44(ㄹㅇ, πάλιν), 26:45([τὸ], ㄹㅇ), 26:55([πρὸς ὑμᾶς], ㄹㅇ), 26:71(καὶ, ㄹㅇ), 27:24([τοῦ δικαίου], ㄹㅇ), 27:43([αὐτὸν], ㄹㅇ), 27:49(ㄹㅇ, [ἄλλος ... αἴμα]), 28:6([ὁ κύριος], ㄹㅇ), 28:14([αὐτὸν], ㄹㅇ)가 있다.

3.2. WH 판이 선택한 바티칸 사본의 읽기에 대해 T 판이 난하주에 소개하지 않은 경우

고유명사 음역과 관련하여 3:1(Ἰωάννης, Ἰωάνης)이 있다.

ει와 ι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5:42(δανείσασθαι, δανίσασθαι), 11:14(Ἠλίας, Ἡλείας)⁴²⁾, 13:2(εἰστήκει, ἰστήκει)⁴³⁾, 20:29(Ἰεριχὼ, Ἱερείχῳ)⁴⁴⁾, 25:27(τραπεζίταις, τραπεζίταις)이 있다.

39)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이 본인 읽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바티칸 사본의 수정 읽기가 지지한다.

40) T 판에는 수용 본문에 있던 17:21이 꺾쇠묶음 안에 있고, WH 판에는 없다.

41) 18:18에는 [τῷ], ㄹㅇ이 2회 나온다.

42) 이 경우는 기식의 차이와도 관계된다.

43) WH 판은 바티칸 사본의 원 읽기를, T 판은 바티칸 사본의 수정 읽기를 따랐다.

44) 이 경우는 기식의 차이와도 관계된다.

자음동화와 관련하여 19:28(παλιγγενεσια, παλινγενεσία)이 있다.

변칙자음 누와 관련하여 6:5(ἀπέχουσιν, ἀπέχουσι), 6:25(ἐστιν, ἐστι), 7:15(ἐνδύμασιν, ἐνδύμασι), 18:10(βλέπουσιν, βλέπουσι), 20:12(βαστάσασιν, βαστάσασι), 23:5(πλατύνουσιν, πλατύνουσι), 23:5(μεγαλύνουσιν, μεγαλύνουσι), 23:6(φιλοῦσιν, φιλοῦσι), 23:20(πᾶσιν, πᾶσι), 28:2(ἀπεκύλισεν, ἀπεκύλισε)가 있다. 변칙자음 시그마와 관련하여 3:15(οὕτως, οὕτω)가 있다.⁴⁵⁾

후기 철자법 사용과 관련하여 4:18(ἄλειψ, ἄλειψ)이 있다.

순서 관련하여 19:29(οἰκίας의 위치가 구절 끝에 있음, οἰκίας의 위치가 구절 맨 앞에 있음)가 있다.

그 외에는 5:18(κεράια, κερέα), 5:20(ἡ δικαιοσύνη ὑμῶν, ὑμῶν ἡ δικαιοσύνη), 6:34(ἐαυτῆς, αὐτῆς)⁴⁷⁾, 7:14(τί, ὅτι)⁴⁸⁾, 7:15(δὲ, 없음), 14:30(ἰσχυρὸν, 없음)⁴⁹⁾, 16:19(καὶ δώσω, δώσω), 16:19(ὃ ἂν, ὃ ἐὰν)⁵⁰⁾, 18:18(ἂν, ἐὰν)⁵¹⁾, 19:28(καθήσεσθε, καθήσεσθε), 21:18(ἐπανάγων, ἐπαναγαγὼν)⁵²⁾, 22:10(ὄσους, οὓς)⁵³⁾, 22:10(γάμος, νυμφῶν), 26:9(ἡδύνατο, ἐδύνατο), 26:10(εἰργάσατο, ἡργάσατο)⁵⁴⁾, 26:59(θανατώσουσιν, θανατώσωσιν), 27:4(ἄθῶον, δίκαιον)⁵⁵⁾, 27:41([δὲ], 없음)이 있다.

3.3. WH 판이 바티칸 사본만 그러한 읽기를 가진 경우를 선택한 경우

7:18(ποιεῖν, ἐνεγκεῖν), 8:18(πολλοὺς ὄχλους, ὄχλον), 12:22(προσηνέχθη … κωφός, προσήνεγκαν … κωφόν), 13:44(πάντα, 없음), 14:4(αὐτῷ ὁ Ἰωάννης, ὁ Ἰωάννης αὐτῷ), 15:30(τυφλοὺς κωφοὺς κυλλοὺς, κυλλούς, τυφλοὺς, κωφοὺς), 19:22(없음, [τοῦτον]), 20:17(καὶ ἀναβαίνων ὁ Ἰησοῦς, Μέλλων δὲ ἀναβαίνειν Ἰησοῦς), 21:29(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Ἐγώ,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45) 5:12를 고려할 때 T 판은 일관성 있게 οὕτως가 쓰였고, WH 판은 이 구절에만 οὕτω를 썼다.

46) 이 경우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이 ἄλειψ를 취한 것을 몰랐던 것 같다.

47) 이 경우 바티칸 사본의 원 기록자가 ΑΥΤΗΣ 형태를 갖는다.

48) 이 경우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의 원 기록과 수정 읽기가 다르다. WH 판은 원 기록의 읽기를 따랐다.

49) 바티칸 사본 수정 읽기는 ισχυρον이다.

50)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곳의 표현은 두 번째 것이다.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이 본인의 읽기를 지지한다고 여겼다.

51) 트레겔레스는 Bentley의 바티칸 사본 인쇄본이 ἂν으로 읽은 것을 고려했다.

52) WH 판은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원 읽기를 따랐다.

53)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모른다. 그럼에도 T 판은 바티칸 사본의 수정 읽기를, T 판은 바티칸 사본의 원 읽기를 취했다.

54) WH 판은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원 읽기를 따랐다.

55) 이 경우 WH 판은 바티칸 사본의 여백에 있는 표현을 따랐다.

21:30(Ἐγώ,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27:17(없음, [τὸν])이 있다.

WH 판이 바티칸 사본만 그러한 읽기를 가진 경우를 선택한 위의 경우는, WH 판이 바티칸 사본을 지나치게 신뢰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위 용례 가운데 15:30만 제외하고는 모두 ‘WH 판이 선택한 바티칸 사본의 읽기에 대해 T 판이 난하주에 소개한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옥스퍼드에서 출판된 ‘팔머판’을 보면, 위 경우 모두 T 판과 같이 읽는다. 변칙자음 뉘와 관련해서만 차이가 있다. 21:29, 30의 마지막 단어가 ἀπῆλθε로 되어 있다. ‘팔머판’은 변칙자음 뉘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원칙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⁵⁶⁾ ‘팔머판’은 고유명사 음역도 독자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만,⁵⁷⁾ T 판과 WH 판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T 판과 같이 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레겔레스 비평본에 대한 옥스퍼드 교수들의 입장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트레겔레스 비평본이 1857년에 처음 나왔을 때, 옥스퍼드 쪽에서는 수용하고 인정했으나 케임브리지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⁵⁸⁾

4. 시내산 사본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

WH 판이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시내산 사본의 읽기를 따른 경우이다. ‘음역 및 철자법과 관련된 용례, 음역 및 철자법 이외의 용례, WH 판이 시내산 사본만 그러한 읽기를 가진 경우를 선택한 경우’의 순으로 살펴본다.

4.1. 음역 및 철자법과 관련된 용례

고유명사 음역과 관련해서는 1:9(Ἄχαζ, Ἀχαζ)가 있다.

ει와 ι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6:22(φωτεινὸν, φωτινὸν), 6:23(σκοτεινὸν, σκοτινὸν), 12:46(εἰστήκεισαι, ἰστήκεισαν)⁵⁹⁾, 16:13(Καισαρείας, Καισαρίας),

56) 추가적인 예로, 마 26:59의 θανατώσουσι가 있다. 참고로, “3.2. WH 판이 선택한 바티칸 사본의 읽기에 대해 T 판이 난하주에 소개하지 않은 경우”의 ‘변칙자음 뉘’와 ‘변칙자음 시그마’의 경우(마 3:15; 6:5, 25; 7:15; 18:10; 20:12; 23:5[2회], 6, 20; 28:2), ‘팔머판’은 WH 판과 같이 읽는다.

57) 예로, 마 1:5의 Βοὸς와 11:21의 Βηθσαϊδάν, 11:14의 Ἠλίας가 있다.

58) T. C. F. Stunt, *The Life and Times of Samuel Prideaux Tregelles*, 167-168.

59) 이 경우, 시내산 사본은 ἰστηκεισαν으로 읽고, 바티칸 사본의 원 읽기는 ἰστηκεισαν이고 수

18:27(δάνειον, δάνιον)이 있다.

자음동화와 관련해서는 13:22(συμπνίγει, συνπνίγει), 15:30(ἔρριψαν, ἔριψαν)이 있다.

변칙자음 뉘와 관련해서는 2:16(πᾶσιν, πᾶσι), 19:11(χωροῦσιν, χωροῦσι)이 있다. 변칙자음 시그마와 관련해서는 7:17(οὕτως, οὔτω)이 있다.

이 외로는 14:1(τετράρχης, τετραάρχης)이 있다.

4.2. 음역 및 철자법 이외의 용례

어형변화와 관련해서는 4:3(εἰπέ, εἰπὸν)⁶⁰, 5:21(ἐρρήθη, ἐρρέθη), 6:10(ἐλθέτω, ἐλθάτω), 17:19(εἶπον, εἶπαν), 18:17(εἰπέ, εἰπὸν), 21:27(εἶπον, εἶπαν), 26:61(εἶπον, εἶπαν), 26:66(εἶπον, εἶπαν)⁶¹)이 있다.

순서와 관련해서는 2:13(κατ' ὄναρ φαίνεται, φαίνεται κατ' ὄναρ), 20:13(εἶπεν ἐνὶ αὐτῶν, ἐνὶ αὐτῶν εἶπεν)이 있다.

신명과 관련해서는 1:18(Χριστοῦ, [ΙΗΣΟΥ] ΧΡΙΣΤΟΥ)⁶², 6:33(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βασιλείαν)이 있다.

그 외에는 3:12(ἀποθήκην αὐτοῦ, ἀποθήκην), 6:28(κοπιοῦσιν, κοπιῶσιν), 7:8(ἀνοίγεται, ἀνοιγίσσεται)⁶³, 7:12(ἄν, ἐάν), 7:13(ἡ πύλη, ἄ음)⁶⁴, 9:27(υἱός, υἱέ), 12:44(σεσαρωμένον, [καὶ] σεσαρωμένον), 14:7(ἄν, ἐάν), 15:31(τοὺς ὄχλους, τὸν ὄχλον), 15:31(κυλλοὺς ὑγίεις, ἄ음), 16:19(ὁ ἄν, ὁ ἐάν)⁶⁵, 19:9(ἄ음, ὅτι), 19:9([καὶ ὁ ἀποκελυμένην γαμήσας μοιξᾶται], ἄ음), 19:24([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ῶν οὐρανῶ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20:8([αὐτοῖς], ἄ음), 20:12(ἡμῖν αὐτοὺς, αὐτοὺς ἡμῖν), 21:2(ἄγετε, ἀγάγετε), 21:28(καὶ προσελθὼν, προσελθὼν)⁶⁶, 23:27(ὁμοιάζετε, παρομοιάζετε), 24:31(φωνῆς, ἄ음), 24:38(ἐγκαμίζοντες, γαμίζοντες), 25:32(ἄφοριεῖ, ἄφορισεῖ), 26:20(ἄ음, [μαθητῶν]), 27:46(Ἥλὶ Ἥλί, Ἐλωί ἐλωί)⁶⁷, 28:14(ὑπὸ, ἐπὶ), 28:19(βαπτίσαντες, βαπτίζοντες)가 있다.

정 읽기는 εἰσθηκεισαν이다.

60) 이 구절의 경우 시내산 사본의 수정 읽기(01c)를 취했다.

61) WH 판은 시내산 사본의 원 읽기를 신뢰했다.

62) 이 경우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여백에 소개한다.

63) WH 1890년 판의 ἀνοιγίσσεται를 고려할 때, 오타가 있다.

64) WH 판은 시내산 사본의 원 기록자를 따랐다.

65)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곳의 표현은 처음 것이다.

66) WH 판은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원 읽기를 따랐다.

67) 바티칸 사본은 ελωει ελωει로 읽는다.

WH 1881판에 제시된 원칙과 달리, 바티칸 사본이 아니라 시내산 사본의 읽기를 따른 경우들이 꽤 많다.

4.3. WH 판이 시내산 사본만 그러한 읽기를 가진 경우를 선택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7:27(ἡλθον, ἦλθαν), 14:7(μεθ', μετὰ)뿐이다. WH 판이 철자법 및 어형변화와 관련하여 시내산 사본을 고려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5. 두 사본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2:14, 21(παρέλαβεν, παρέλαβε)을 고려할 때, ‘변칙자음 뒤’의 경우, 표기 원칙을 따르는 듯하다.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 모두 παρέλαβεν을 가지기 때문이다. 17:5(φωτεινῇ, φωτινῇ)에서도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 모두 T 판의 읽기를 따른다. 이처럼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의 읽기를 따르지 않는 용례로는 23:7(ῥαββί, ῥρααεί)이 있다.

이 외에도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대문자 사본 019번과 소문자 사본 1, 118, 1582 등이 지지하는 23:4([καὶ δυοβάστακτα], 없음)가 있다. 대문자 사본 019, 028번과 소문자 사본 1, 33, 1582, f¹만 지지하는 24:3(Εἰπέ, Εἰπὸν)이 있다. 대문자 사본 019번과 소문자 사본 33만 지지하는 22:17(εἰπέ, εἰπὸν)이 있다. 대문자 사본 032번만 지지하는 26:65(διέρρηξεν, διέρηξεν)가 있다. 소문자 사본 33번만 지지하는 21:23(προσηλθον, προσήλθαν)이 있다. 소문자 사본 579번만 지지하는 27:58([τὸ σώμα], 없음)이 있다.⁶⁸⁾

지지하는 사본이 없는 읽기가 WH 판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14:34(ἡλθον, ἦλθαν)은 문법 사항에 대한 임의 결정으로 보인다. 27:54(υἱὸς θεοῦ, θεοῦ υἱὸς)도 그렇다.

68) 트레겔레스는 바티칸 사본이 τὸ σώμα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웨스트코트와 호트는 앞뒤에 τὸ σώμα가 나오니 반복을 피하고 싶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지하는 사본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의심스럽다.

6. 띄어쓰기, 악센트, 기식, 이오타, 분음기호의 경우

띄어쓰기와 연관된 구절은 6:1(μή γε, μή-γε), 7:20(ἄρα γε, ἄραγε), 12:23(Μή τι, Μήτι), 17:26(Ἄρα γε, Ἀραγε), 25:9(Μή ποτε, Μήποτε), 27:46(ἰνατί, ἰνατί)이다.

악센트와 연관된 구절은 1:9(Ἰωάθαμ, Ἰωαθάμ), 10:20(ἔστε, ἐστὲ), 10:23(ἕτεραν, ἐτέραν), 11:27(τίς, τις), 12:38(τινες, τινές), 22:30(εἰσιν, εἰσίν), 26:36(Γεθσημανεῖ, Γεθσημανεῖ), 26:52(Ἀπόστρεψόν, Ἀπόστρεψον), 26:52(μάχαιραν, μάχαιράν)이다.

기식과 연관된 구절은 1:3(Ἐσρώμ, Ἐσμώμ)⁶⁹), 2:1(Ἱεροσόλυμα, Ἱεροσόλυμα), 2:17(Ἱερεμίου, Ἱερεμίου), 13:23(ὁ μὲν … ὁ δὲ … ὁ δὲ, ὁ μὲν … ὁ δὲ … ὁ δὲ)⁷⁰), 23:35(Ἀβελ, Ἀβελ)이다.

이오타 하기와 연관된 구절은 1:19(λάθρα, λάθρα), 2:3(Ἡρώδης, Ἡρωδης), 16:22(ἐπιτιμᾶν, ἐπιτιμᾶν), 21:13(ληστῶν, ληστῶν), 27:52(ἡγέρθησαν, ἡγέρθησαν)이다.

분음기호와 연관되는 구절로 23:24(διυλίζοντες, διυλίζοντες), 26:57(Καῖάφαν, Καῖάφαν)이 있다.

악센트, 기식, 이오타가 모두 관계된 구절로 22:39(αὐτῇ, αὕτη)가 있다. 기식 및 분음기호와 연관된 구절은 3:3(Ἡσαίου, Ἡσαίου)이다.

7. 결론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T 판과 WH 판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대체로 바티칸 사본의 읽기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것도 T 판에서 바티칸 사본의 읽기와 다른 읽기를 선택했다고 표현된 곳에서 WH 판이 바티칸 사본의 읽기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되지 않는 곳은 트레겔레스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철자법’과 관계된 곳이 많았다.⁷¹⁾ 더불어 시내산 사본의 읽기로 차이점을 설명할 수

69) WH 1881년 판의 읽기인 Ἐσμώμ에서 가운데 μ는 오타로 보인다. WH 1890년 판에 Ἐσρώμ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70) WH 판의 ὁ는 1890판의 읽기(δ)를 고려할 때 오타로 보인다.

71) S. P. Tregelles, *An Account of the Printed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with Remarks on Its Revision upon Critical Principles together with A Collation of the Critical Texts of Griesbach, Scholz, Lachmann, and Tischendorf, with That in Common Use*, 207, 210-211 참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다. 반면, 두 사본의 읽기에 근거하지 않은 WH 판의 읽기도 많았다.

WH 판이 독자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출판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T 판과 WH 판의 차이점에 대해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의 읽기로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에, 더구나 바티칸 사본만이 취하는 읽기가 WH 판에 선택된 경우들로 인해, WH 판이 T 판을 참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더불어, 바티칸 사본 및 시내산 사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가운데 CNTTS 기준으로 지지하는 사본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로 인해, WH 판이 스스로 제시한 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WH 판이 T 판을 참조하고 사용했을 가능성’과 ‘WH 판이 준수한 실제 원칙’에 대해서는 WH 판과 T 판 전체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겠다. ‘전체 비교’ 부분은 향후 연구로 남겨 둔다.

한편, T 판과 WH 판 비교를 통해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다. 트레겔레스는 시내산 사본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⁷²⁾ 그런데 왜 그의 비평본 난하주에 시내산 사본을 언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시내산 사본에 대한 트레겔레스의 입장이 T 판과 WH 판의 차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레겔레스 비평본과 티셴도르프 비평본을 비교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T 판과 ‘팔머판’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다. ‘팔머판’이 독자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트레겔레스의 원문 추정 원칙과 그의 비평본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팔머판’이 우리나라 초기 역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기에, T 판과 ‘팔머판’ 사이의 관계 연구는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38년에 출판된 『성경 개역』의 저본으로 네스틀레 12판이 선택된 이후,⁷³⁾ 한국어 성경의 저본이 네스틀레-알란트 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트레겔레스 비평본의 견지에서 보면, 한국어 성경이 트레겔레스를 인정하는 저본에서 그렇지 않은 저본 쪽으로 바뀐 것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

72) 박형대, “틴데일하우스 신약성경 비평본과 트레겔레스의 신약성경 비평본의 차이점 연구”, 556 참고.

73)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75.

<주제어>(Keywords)

트레겔레스 신약성경 비평본, 웨스트코트 호트 신약성경 비평본, 원문비평, 원문 추정 원칙, 정서법.

Tregelles Greek New Testament edition, Westcott and Hort Greek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Principles on Textual Criticism, Orthography.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전서』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32 (2013), 677-705.
- 박형대, “틴데일하우스 신약성경 비평본과 트레겔레스의 신약성경 비평본의 차이점 연구”, 「신약연구」 75 (2024. 9.), 551-590.
- 이복우, “『신약전서』 (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그리스어 저본(底本) 사용연구”, 「신학정론」 30:2 (2012), 571-600.
- 장동수, “<서평>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Dirk Jongkind, Peter J. Williams, Peter M. Head, and Patrick James, eds.,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266-283.
-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65-92.
- 조병수, “『신약전서』 (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83-104.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8 (2010), 99-132.
- Gesenius, W.,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Samuel Prideaux Tregelles, trans., Grand Rapids: Baker, 1979 [1847].
- Hort, A. F.,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I-II*, London: Macmillan, 1896.
- Jongkind, D., *An Introduction to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Cambridge*, Wheaton: Crossway, 2019.
- Jongkind, D., ed.,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Cambridge*, Wheaton: Crossway, 2017.
- Palmer, E., *H KAINH ΔΙΑΘΗΚΗ: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and with References in the Margin to Parallel Passages of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 and Stock, 2016 [1882].
- Scrivener, F. H. A., *H KAINH ΔΙΑΘΗΚΗ Novum Testamentum: Textûs Stephanici A.D. 1550, cum Variis Lectionibus Editionum Bezae, Elzeniri, Lachmanni, Tischendorfii, Tregellesii, Westcott-Hortii, Versionis Anglicanae Emendatorum*, 4th ed., Londini: Cantabrigiae, 1906.
- Stunt, T. C. F., *The Life and Times of Samuel Prideaux Tregelles: A Forgotten Scholar*, Christianities in the Trans-Atlantic World,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20.

The Center for New Testament Textual Studies NT Critical Apparatus (revised edition)은 Accordance 버전.

Tregelles, S. P., *An Account of the Printed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with Remarks on Its Revision upon Critical Principles together with A Collation of the Critical Texts of Griesbach, Scholz, Lachmann, and Tischendorf, with That in Common Use*,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1854.

Tregelles, S. P., *The Greek New Testament, Edited from Ancient Authorities, with Their Various Readings in Full, and the Latin Version of Jerome*,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1857-1879.

Westcott, B. F., *A General Survey of the History of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5th ed. Cambridge; London: Macmillan, 1881.

Westcott, B. F.,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The Text Revised by Brooke Foss Westcott and Fenton John Anthony Hort, Introduction and Appendix by the Editor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82.

Westcott, B. F.,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The Text Revised by Brooke Foss Westcott and Fenton John Anthony Hort, Introduction and Appendix by the Editors*, American ed.,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85.

Westcott, B. F.,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Text*, Cambridge; London: Macmillan, 1890.

Westcott, B. F., *The Greek New Testament with Comparative Apparatus Showing Variations from the Nestle-Aland and Robinson-Pierpont Edition, with Greek Dictionary revised and expanded from A Pocket Lexicon to the Greek New Testament by Alexander Souter, Foreword by Eldon Jay Epp*, Peabody: Hendrickson, 2007.

Westcott, B. F. and Hort, F. J. A., eds.,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881].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regelles' Greek New Testament and Westcott and Hort's Greek New Testament:
In Concentration upon Matthew's Gospel**

Hyung Dae Park
(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ameul Prideux Tregelles' Greek New Testament was published in 1879 after his death in 1875. At the prolegomena of the book, we find "the Rev. F. J. A. Hort, D.D., Pulsean Professor of Divinity" as an editor. The editor is a co-editor of the Westcott-Hort version, namely Fenton John Anthony Hort, and his son, Arthor Fenton Hort, gives evidence, "He [Hort] had been in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regelles for many years past, and freely used for his own work his collations and those of other scholars." In addition, Timothy C. F. Stunt, who wrote the biography of S. P. Tregelles,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egelles and F. J. A. Hort.

Based on the evidence above, we may think a relationship between Tregelles' GNT and Westcott and Hort's GNT existed. Nevertheless, it is hard to find any mention of Tregelles' version within both Westcott's and Hort's writings. Interestingly, Tregelles' GNT is primarily used by both the Scrivener's edition and the Palmer's edition which were published in Oxford in 1881, the same year of the Westcott and Hort's edition.

Hence, after examining Matthew's Gospel in both versions, this study shows, first,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versions can be primarily explained in terms of the Vatican manuscript. In particular, some readings in Westcott and Hort's GNT are supported only by the Vatican manuscript based on CNTTS. In relation to these Westcott and Hort's readings, the Palmer's edition (1881) stands side by side with the Tregelles' edition. Secondly, some differences can be explained by the Sinaiticus manuscript. Thirdly, some readings in Westcott and Hort's GNT are supported by a few manuscripts which do not include the Sinaiticus and Vatican manuscripts.

Through this study, we think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regelles' GNT was used by Westcott and Hort's Greek New Testament, and further, that

Tregelles' GNT was welcomed by the scholars in Oxford but rejected by those in Cambridge. Furthermore, we suggest that the Tregelles' edition influenced, even indirectly, the earliest Korean translations from 1882 to 1911 that supposedly relied solely on the Palmer's edition.

Hence, this study suggests a need to fully compare and examine the Tregelles' edition not only with the Westcott and Hort's GNT, but also with the Palmer's edition.

마가복음 16:2의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합의와 번역 제안

장성민*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문론적으로 마가복음 16:2(καὶ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오른쪽 말미’(right-periphery)를 형성하는 속격 독립 구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신학적 함의를 살펴보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는 것이다. 아래의 번역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이 어구는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left-periphery)인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연계되어 통상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뜰 때” 정도로 번역된다. 본 절의 좌우 말미는 주문장을 중심으로 엄연히 좌우에 나뉘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인 채 그저 주문장인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그들이 무덤에 갔다)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째’ 번역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몇 가지 난점 탓에 문장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이 어구를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문장 내의 위치, 마가의 독특한 문체(중복 표현), 어구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16:2의 오른쪽 말미인

*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동 대학교 성서학연구원 특별 연구원. hefzibar0813@gmail.com.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0421).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는 마가복음 청자/독자에게 “말씀으로 인한 억압이나 박해 상황”(4:6, 17)을 상기시키는 ‘독자적 표현’(register)으로 읽고 그 함의에 걸맞게 번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구문적, 문체적, 내용적 차별성에 근거하여 이 어구가 왼쪽 말미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이거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리고 나서 이 어구를 번역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맥락적, 신학적, 문법적 고려 사항들을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이 어구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제시한다.

2. 본론

2.1. 기존 번역 현황과 평가

먼저 16:2를 번역한 기존의 현황을 살펴보자. 당연히 모든 번역을 총망라할 수는 없겠으나, 국내외의 주요 역본과 저자 고유의 번역을 제시하는 주석서들에서 추려낸 몇몇 번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마가복음 16:2의 번역 현황

역본/역자 (시리즈명)	번역
『개역개정』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새번역』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공동개정』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200주년 신약성서』	그들은 주간 첫날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새한글』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NIV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i>just after sunrise</i> ,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NRS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i>when the sun had risen</i> , they went to the tomb.

역본/역자 (시리즈명)	번역
NAS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i>when the sun had risen</i> .
NJB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went to the tomb <i>when the sun had risen</i> .
LB	Und sie kamen zum Grab am ersten Tag der Woche, sehr früh, <i>als die Sonne aufging</i> .
ZB	Und sehr früh am ersten Tag der Woche kommen sie zum Grab, <i>eben als die Sonne aufging</i> .
BFC	Très tôt le dimanche matin, <i>au lever du soleil</i> , elles se rendirent au tombeau.
TOB	Et de grand matin, le premier jour de la semaine, elles vont à la tombe, <i>le soleil étant levé</i> .
Marcus (AYB)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i>after the sun had risen</i> .
Collins (Hermeneia)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went to the tomb, <i>when the sun had risen</i> .
Gnilka (EKK)	Und am frühen Morgen, am ersten (Tag) der Woche, kommen sie zum Grab, <i>als die Sonne aufgeht</i> .
Focant (CBNT)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i>as the sun had risen</i> .

이 번역들은 뚜렷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여 준다. 먼저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여러 번역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번역어를 그리스어 어순에 충실하게 번역문의 제일 마지막에 두느냐(『새한글』, NAS, NJB, LB, ZB, TOB, Marcus, Collins, Gnilka, Focant), 아니면 원문의 어순과 무관하게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묶어 통째 번역하느냐(『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NIV, NRS, BFC)로 양분된다. 추정컨대 이러한 차이는 출발어의 어순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도착어의 자연스러움을 우선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듯 보인다. 차이점 외에 눈여겨볼 만한 공통점도 감지된다. 그것은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예외 없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구로 간주하여 때를 표현하는 종속절이나 부사구(전치사구)로 옮겼다는 것이다(『새한글』은 유일하게 별도의 독립된 문장으로 옮겼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예로 든 모든 번역이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역할을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

미인 λίαν πρῶτῃ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을 부연하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다소 도식적이긴 하지만, 위의 번역 현황에 비추어 보면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번역하는 방식에는 어순과 의미에 있어서 각각 상반된 선택지가 존재한다. 1) 어순에 관하여, “왼쪽 말미와 연계하여 통째 번역할 것이냐,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살려서 번역할 것이냐?” 2) 이 어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할 것이냐, 다른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냐?”

본고는 아래에서 상술할 몇 가지 난점을 고려할 때 각각 앞선 두 가지 선택지, 즉 좌우 말미를 통째 번역하되 오른쪽 말미 역시 시간 배경을 지시한다고 간주하는 방식을 옹호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나머지 두 가지 선택지, 즉 어순을 살리되 다른 의미를 지시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본고는 마가가 이 어구를 활용하여 그저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의 의미를 부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복음서 청자/독자에게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상기시키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상술할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구문적 독특성과 신학적 함의 등을 고려하면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살리면서도 마가복음 내에서 이 어구가 지닌 독특한 함의를 적절하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번역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앞의 두 가지 선택지를 옹호하기 어렵게 만드는 난점들을 지적하고, 나머지 두 가지 선택지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타진한 후,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함의와 번역을 제안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2.2.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차별성

먼저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ῶτῃ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연계하여 통째로 번역하거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옮기는 데 걸림이 되는 난점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그것은 이 구문이 지닌 복합적인 차별성이며, 이러한 차별성은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이완의 형식, 문장 내의 위치, 마가 특유의 중복 표현 여부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2.2.1. 이완의 형식으로서 속격 독립 구문

간결함을 미덕으로 삼는 경우가 아니라면 흔히 그렇듯, 고대 그리스어 문장에서도 종종 주문장 그 자체에서 벗어난 요소들이 주된 정보에 선행하거나 후행한다. 이 요소들은 주문장의 앞(즉, 해당 문장의 맨 왼쪽)에 자리하면서 주로 배경(settings)이나 주제(themes)를 언급하는 ‘왼쪽 말미’와 주

문장의 뒤(즉, 해당 문장의 맨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대개 주문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연하거나 정교화하는 ‘오른쪽 말미’로 대별(大別)된다.¹⁾ 이 좌우 말미들은 수려하고 완미한 문체를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될지언정 문법적으로 온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필수 요소는 아니며, 오히려 주문장에 덧붙여져 문장을 다채롭게 만드는 부사적 부가어(adverbial adjunct) 역할을 담당한다.²⁾ 고대 그리스어에서 좌우 말미를 구성하는 형식은 각종 종속절, 전치사구, 분사구, 부정사구 따위로 제법 다양하지만, 논의의 목적상 16:8과의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형식만을 간략히 살펴보자.

예1) 마가복음 1:14-15상반

μετὰ δὲ τὸ παραδοθῆναι τὸν Ἰωάννην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κηρύσσω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Θεοῦ καὶ λέγων ὅτι … (요한이 넘겨진 후에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위 문장에서 부정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인 μετὰ τὸ παραδοθῆναι τὸν Ἰωάννην(요한이 넘겨진 후에)은 주문장인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 앞에 위치하여 주문장이 언급하는 상황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이다. 널리 인정되듯이,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이 요한의 체포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3:22 이하 참조), 요한의 운명과 예수의 운명을 연결하는 한편 요한의 때와 예수의 때를 명확히 구분한다.³⁾

예2) 마가복음 1:5

καὶ ἐβαπτίζοντο ὑπ’ αὐτοῦ ἐν τῷ Ἰορδάνῃ ποταμῷ ἐξομολογούμενοι τὰς ἁμαρτίας αὐτῶν.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에서 그[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죄들을 고백했다.)

위의 예에서 ἐξομολογούμενοι τὰς ἁμαρτίας αὐτῶν(자기 죄들을 고백했다)은

1)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60.31.

2) 부사적 부가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19), 455-466(§259)을 보라.

3) W. Marxsen, *Mark the Evangelist: Studies on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Gospel*, J. Boyce, et al., tr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9), 40-42; E.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rk*, D. H. Madvig,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44-45; J. Gnli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EKK II/1 (Zürich: Neukirchener Verlag, 1978), 65; J. Marcus,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 (New York: Doubleday, 2000), 175 등.

‘연접어 분사’(participium coniunctum)가 이끄는 분사구로서,⁴⁾ 주문장이 지시하는 상황과 함께 벌어진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오른쪽 말미이다. 이 문장은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거주민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주된 상황을 보도하면서, 수세자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부대 상황을 ‘결들여’ 언급한다. 결들였다고 표현했듯이, 여기서 마가는 ἐβαπτίζοντο … καὶ ἐξωμολογοῦντο … (그들은 … 세례를 받았다 … 그리고 … 고백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수세와 죄 고백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동등하게 병렬하지 않는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동안 요단강 일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거나(ἐπερωτῶτων, 눅 3:10, 14)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도 했겠으나(διαλογιζομένων, 눅 3:15), 마가는 수세라는 주된 상황에 죄 고백이라는 상황만을 선별하여 부속시킨다. 말하자면 마가는 나름의 의도를 발휘하여 죄를 고백하는 상황이라는 단 하나의 ‘펜던트’(pendant)를 매달고 수세라는 주된 상황을 단출하게 장식한 셈이다.⁵⁾

이처럼 주문장 앞뒤에 위치하는 말미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주문장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으면서 주문장이 전달하는 정보의 배경이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주문장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연한다. 가용한 말미 형식이 다양함에도 그리스 문인들은 “분사 애호가들”(φιλομέτοχοι)⁶⁾ 주된 정보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유독 분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 가운데 속격 독립 구문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속격’(genitivus absolutus)은 형식상 나머지 말미들(특히 연접어로 쓰이는 분사)과 분명하게 구별되며, 주문장으로부터 ‘이완’의 정도도 여타 말미 형식들과 사뭇 다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예3) 마가복음 4:17

εἶτα γενομένης θλίψεως ἢ διωγμοῦ διὰ τὸν λόγον εὐθὺς σκανδαλίζονται. (그런

4) ‘연접’(conjunction, ‘접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이란 문장이나 구, 문장의 각 요소 따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등위로 접속된(conjoining) 연결 관계를 말한다. 연접어(conjunct)란 연접된 각 요소를 지칭하며, 연접어로 쓰이는 분사는 연결되는 요소(주동사에 내포된 주어[주격] 등)와 등위로 접속되어 다양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부가어(adjunct) 역할을 한다. J. 라이언스, 『의미론 I: 의미 연구의 기초』, 강범모 역,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701 (서울: 한국문화사, 2011), 224-225의 설명 참조.

5) 모울(C. F. D. Moule)은 분사의 주된 역할이 주동사에 달린 ‘펜던트’와 같은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99.

6) A. N. Jannaris, *A Historical Greek Grammar* (London: The Macmillan Co., 1897), 505;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1098에서 재인용.

다음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넘어진다.)

전치사구나 연결어 분사구를 좌우 말미로 활용하여 주문장을 ‘부사적으로’ 꾸미는 예1)이나 예2)와 달리, 예3)에서 왼쪽 말미로 활용된 속격 독립 구문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주문장으로부터 이완되어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⁷⁾ 속격 독립 구문을 구성하는 속격 분사와 속격 (대)명사는 연결어로 쓰이는 분사와 다르게 주문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주문장과 종속문의 주종관계가 뚜렷한 복문(matrix clause)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절대적 속격’이라는 문법 명칭이 암시하듯이 속격 독립 구문을 구성하는 분사구와 주절 구문(superordinate construction)은 ‘문법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속격 분사는 그 자체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 채 주문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absolutus[detached])’.⁸⁾ 예3)의 왼쪽 말미이자 속격 독립 구문인 γενομένης θλίψεως ἡ διωγμοῦ διὰ τὸν λόγον은 별개의 문장은 아니지만(즉, 엄연히 한 문장의 일부지만), 주문장으로부터도 느슨하게 이완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즉, 주문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본고가 살피려는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즉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는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지극히 ‘독립적인’ 말미 형식이며, 번역 과정에는 가능하면 이와 같은 이완 상황을 살려야 한다. 문제는 우리말 어법상 왼쪽 말미로 쓰이는 속격 독립 구문과 주문장이야 한 문장으로 옮겨도 이러한 이완 상황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만(위의 예3)처럼 주로 종속문으로 번역된다), 오른쪽 말미로 쓰이는 속격 독립 구문과 주문장은 별개의 문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옮기는 한 오른쪽 말미가 주문장으로부터 ‘이완’되어 있는 상황을 번역문에 반영할 묘안이 없다는 점이

7) 속격 독립 구문의 구문론적 특징은 동일한 정보(정보 1.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발생하였다; 정보 2. 그들이 넘어진다)를 전달함에도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여 주는 다음의 두 문장과 비교할 때 더 명확해진다: εἴτα ἐὰν γένηται θλίψις ἡ διωγμός διὰ τὸν λόγον, εὐθὺς σκανδαλίζονται(그런 다음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곧 넘어진다); εἴτα ἐγένετο θλίψις ἡ διωγμός διὰ τὸν λόγον, καὶ εὐθὺς σκανδαλίζονται(그런 다음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겼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넘어진다). 예3)은 앞의 두 문장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정보 1과 정보 2와의 상관관계는 꽤 다르다. 종속절로 연결된 앞 문장에서는 정보 1과 정보 2의 관계가 조건적이지만, 병렬식으로 연결된 다음 문장에서는 정보 1과 정보 2의 관계를 오로지 맥락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달리 예3)에서 정보 1과 정보 2의 관계는 훨씬 더 미묘하다.

8) H. von Sie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88(§230d);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1131. 예외적으로 주동사와 속격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막 6:22 참조), 이 경우도 속격 분사로 표현되는 동작이 각별히 강조된다. H. W. Smyth,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460(§2073).

다(위 『새번역』의 번역[“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참조). 따라서 속격 독립 구문 형식을 활용하는 오른쪽 말미를 왼쪽 말미와 묶어 통째 번역해 버리면 이 형식의 독립성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ῶτῃ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연계하여 ‘통째’ 번역하면 오른쪽 말미의 구문적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2.2.2. 문장 내의 위치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는 속격 독립 구문으로서 주문장으로부터 이완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문장 내의 위치, 즉 어순이다. 좌우 말미를 고루 갖춘 본 절의 경우 어순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마가복음에는 속격 독립 구문이 최소 33회 나타나는데(1:32; 4:17, 35; 5:2, 18, 21, 35; 6:2, 21, 35, 47; 8:1[×2]; 9:9, 28; 10:17, 46; 11:11, 12, 27; 13:1, 3; 14:3[×2], 17, 18, 22, 43, 66; 15:33, 42; 16:1, 2),⁹⁾ 4:35와 16:2를 제외하면 모두 왼쪽 말미로서 해당 문장의 주동사 ‘앞에’ 자리한다. 프라이케(E. J. Pryke)에 따르면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형식은 마가가 이전 단락과 새로운 단락을 연결하기 위해 즐겨 활용하는 문체상의 특징인데,¹⁰⁾ 대부분 새로 시작하는 단락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¹¹⁾ 속격 독립 구문을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다른 신약성경 저자들과 비교할 때,¹²⁾ 마가는 이 형식을 거의 배타적으로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즉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문장의 서두)로만 활용하는 것이다.¹³⁾

더욱이 4:35와 16:2는 오른쪽 말미로 속격 독립 구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9) 주동사와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같은 6:22(καὶ εἰσελθούσης τῆς θυγατρὸς αὐτοῦ Ἡρωδιάδος καὶ ὀρχησαμένης ἤρεσεν τῷ Ἡρώδῃ καὶ τοῖς συναισθημένοις)를 포함하면 총 35회다.

10) E. J. Pryke, *Redactional Style in the Marcan Gospel*, SNTSMS 3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62-67.

11)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423 (이하 BDF로 약기[略記]).

12) BDF, §423;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1130-1131.

13) 월리스(D. B. Wallace)에 따르면 의미론적으로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고 구문론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는 점은 속격 독립 구문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이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654-655. 이런 점에서 BDF, §423은 4:35와 16:2에 나오는 속격 독립 구문의 예외적인 위치에 주목한다.

동일하지만, 16:2와 달리 4:35에는 때를 표현하는 중복 표현이 연이어 나타난다(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ὁπίας γενομένης[그리고 그는 바로 그날, 곧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했다]). 이와 달리 16:2에는 때를 표현하는 왼쪽 말미와 속격 독립 구문인 오른쪽 말미가 주문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포(散布)되어 있다. 그러니 16:2의 어순은 마가복음 내 그 어느 속격 독립 구문의 어순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왼쪽 말미 - 주문장 - 속격 독립 구문 형식의 오른쪽 말미”라는 어순을 보여 주는 구절은 본 절이 유일하다. 이처럼 어순 상 16:2는 주목할 만한 예외이며, 해당 절에 이미 때에 관한 언급(λίαν πρῶτῃ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한다고 예단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마가는 본 절에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속격 독립 구문을 나머지 예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통상의 방식과 사뭇 다르게 활용한다. 말하자면 그는 시간적 배경을 먼저 언급한 이후 주문장만으로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곧바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독립적인 말미를 오른쪽에 ‘덧붙였으며’, 여기에는 얼핏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의 독특한 어순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서 그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좌우 말미를 하나로 묶어 통째 번역하기보다는 『새한글』 등과 같이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2.2.3. 중복 표현에 속하는가?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이완의 형식과 극히 예외적인 어순을 고려하여 번역문에서 원문의 어순을 살리더라도, 이 어구가 여전히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달리 추정할 단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중복 표현’(duplicate expression)을 즐겨 사용하는 마가의 문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짐작하건대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ῶτῃ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묶어서 통째 옮긴 번역문들은 좌우 말미를 일종의 ‘중복 표현’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¹⁴⁾ ‘마가 우선설’로 대변되는 자료 비평과 그것에 기초한 편집 비평이 한창이던 20세기 초중반에도 마가복음을 편집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선행하는 문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마태복음

14) 마가의 특징적 문체로서 중복 표현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은 F. Neirynck, *Duality in Mark: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BETL 3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참조. 실제로 네이링크(F. Neirynck)는 이 구절을 중복 표현의 하나로 간주한다. Ibid., 48.

이나 누가복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밀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러한 까닭에 보상적으로 마가의 특징적인 문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⁵⁾

일찍이 학자들은 ‘중복 표현’을 마가의 독특한 문체적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주목해 왔는데,¹⁶⁾ 실제로 마가는 시간이나 장소를 중복해서 묘사하거나(1:28, 32, 35, 38, 45; 2:20; 4:35; 5:1, 11; 6:3, 45; 8:4; 10:30; 11:4; 13:3, 24; 14:3, 12, 54, 66, 68; 15:42), 이중 질문(3:4; 11:28; 12:14; 13:4), 반제 형식의 병행문(1:45; 5:19, 26; 6:52) 등 일견 장황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중 표현(duality)을 꽤 자주 사용한다. 네이링크(F. Neirynck)는 이것들 가운데 상당수를 그저 용어법(pleonasm)이나 과잉 표현(redundancy)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마가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간주하여 그 섬세한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복 표현 가운데 앞선 것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언급을, 뒤따르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¹⁷⁾ 예를 들어 1:32(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 ὅτε ἔδω ὁ ἥλιος[저녁이 되었을 때, 곧 해가 저물었을 때]), 1:35(πρῶτῃ ἑννυχᾷ λίαν[일찍, 곧 어두움이 짙을 때]), 14:12(τῇ πρώτῃ ἡμέρᾳ τῶν ἁζύμων, ὅτε τὸ πάσχα ἔθουον[무교절의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을 때]), 15:42(ἥδη 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 ἐπεὶ ἦν παρασκευὴ ὃ ἐστὶν προσάββατον[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곧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었을 때]) 등에 나오는 중복 표현은 모두 일반적인 언급 다음에 구체적인 묘사나 부연이 뒤따른다. 특히 속격 독립 구문이 중복 표현과 나란히 사용될 경우, 앞선 속격 독립 구문이 일반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이어지는 중복 표현이 상세한 때나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1:32; 6:21; 13:3; 14:66; 15:42).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 중복 표현이 늘 ‘연이어’ 나온다는 사실이다(위의 예들을 보라). 앞서 확인했듯이, 심지어 16:2처럼 예외적으로 속격 독립 구문을 오른쪽 말미로 활용하는 4:35조차 때를 표현하는 중복 표현은 나란히 병치한다(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그리고 그는 바로 그날, 곧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했다]). 이에 반해 16:2의 독특한 형식, 곧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왼쪽 말미 - 주문장 - 속격 독립 구문 형식의 오른쪽 말미’라는 어순은 마가가 사용하는 중복 표현의 일

15) 예컨대, J. K. Elliott, ed., *The Language and Style of the Gospel of Mark: An Edition of C. H. Turner's "Notes on Marcan Usage" together with Other Comparable Studies*, NovTSup 71 (Leiden: Brill, 1993[orig. 1924-28]); F. Neirynck, *Duality in Mark*; E. J. Pryke, *Redactional Style in the Marcan Gospel*.

16) F. Neirynck, *Duality in Mark*, 14-72; J. W. Voelz, *Mark 1:1-8:26*,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3), 2-9.

17) F. Neirynck, *Duality in Mark*, 71.

반적 양상을 완전히 벗어난다. 16:2에는 때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들은 주문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포(散布)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마가 특유의 중복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기 위한 중복 표현의 일종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마가는 ‘자기가 늘 하던 방식을 따라’(κατὰ τὸ εἰωθὸς αὐτοῦ, 눅 4:17 참조), λίαν πρωὶ, ὅτε ἀνέτειλεν ὁ ἥλιος,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곧 해가 뜰 때) 정도로 표현했을 것이다(4:6 참조). 이로 보건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단순히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에 이어지는 중복 표현으로 간주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앞서 언급된 시간적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한다고 볼 필요도 없다. 마가는 중복 표현의 통상적 의도, 곧 앞선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별개의 함의를 추가로 전달하거나 암시하기 위해 이 어구를 덧붙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 어구를 마가 특유의 중복 표현으로 간주하면 다른 예들처럼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통째 번역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이완의 형식 및 예외적 어순이라는 난점으로 다시금 회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성적으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을 부연하는 중복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지 않을 다른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

2.2.4.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함의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하는 난점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상황 묘사가 무엇을 함의하느냐이다. 빈 무덤 이야기를 전하는 네 복음서의 각 단락은 예외 없이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한 때가 “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시간”이었다고 전한다: 마태복음 28:1(τῇ ἐπιφωσκούσῃ εἰς μίαν σαββάτων[한 주간의 첫날을 향해 동이 틀 때]), 마가복음 16:2(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그 주간의 첫날 매우 일찍]), 누가복음 24:1(τῇ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ὀρθρου βαθέως[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요한복음 20:1(τῇ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 πρωὶ σκοτίας ἔτι οὔσης[그 주의 첫날 … 일찍 아직 어두울 때]). 그러나 마가복음을 제외하면 빈 무덤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 어디에도 당일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해가 떠올랐다”는 언급은 없다. 마태가 “동이 틀 때”(τῇ ἐπιφωσκούσῃ)라고 언급하여 마치 해가 떠오를 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나오는 ὁπὲρ σαββάτων(안식일이 지나고)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외려 그는 안식일이 끝난 일몰 시점(즉 토요일 저녁)을 염

두에 둔 듯하다(눅 23:54도 참조).¹⁸⁾ 그러니 “해가 떠올랐다”라는 마가의 언급은 네 복음서를 통틀어도 빈 무덤 이야기에서 유독 생경하고 두드러진다.

더군다나 “해가 떠올랐다”라는 표현은 내용상 앞선 “매우 일찍”(λίαν πρωῒ)이라는 언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¹⁹⁾ 부사 πρωῒ가 정확히 언제를 뜻하는지 적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마가의 용례(13:35)를 볼 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πρωῒ는 밤 사경인 새벽(3~6시)을 뜻하는 듯하며 이때는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두울 때다(요 20:1도 참조).²⁰⁾ 좌우 말미가 모두 때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지시하는 시간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두 표현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각종 이문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사본이나 역본에 따라 λίαν(D. W. sy^{sp})이나 λίαν πρωῒ를 생략하기도 하며(it^c), 부정과거 분사인 ἀνατείλαντος를 현재 분사인 ἀνατέλλοντος로 수정하여 난점을 완화하기도 한다(D. it^c, n, q, T. Augustine).²¹⁾ 우리말 성경인 『새번역』과 『새한글성경』이 원문에 없는 “막”(‘이제 금방’)이라는 부사어를 추가한 것도 이러한 난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로 보건대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왼쪽 말미의 의미를 부연하기보다 ‘때’와

18) E.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D. E. Green,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523; W. D. Davies and D. C. Allison, *Matthew: A Shorter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04), 540; G. R. Osborne, *The Resurrection Narratives: A Redactional Stud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76. 또한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는 눅 23:54(σάββατον ἐπέφωσκεν)에 관한 다음의 논의도 보라: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8A (New York: Doubleday, 1964), 1529; I. H. Marshall, *Commentary on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881.

19)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795;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677; C. Focant,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A Commentary*, L. R. Keylock, trans.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2), 664; 흥미로운 점은 G. R. Osborne, *The Resurrection Narratives*, 47, F. Neirynck, *Duality in Mark*, 48이 16:2를 중복 표현의 예로 포함하지만, “λίαν πρωῒ[매우 일찍]는 해가 떴다는 사실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Das λίαν πρωῒ wird dadurch einigermaßen beschränkt, dass die Sonne schon aufgegangen war)”라는 바이쓰(B. Weiss, *Markusevangelium*, 509)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의미상 난점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20) 마가의 예수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면서 집주인이 귀환할 수 있는 때를 ἢ ὅψε ἢ μεσονύκτιον ἢ ἀλεκτοροφωνίας ἢ πρωῒ(저녁이나 한밤중, 닭이 울 때, 또는 새벽)로 구별한다(13:35). BDAG, s.v. “πρωῒ”, 892.

21)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101;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103;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670.

무관한 다른 함의를 가진 것은 아닐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렇듯 오른쪽 말미로 사용된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독특한 형식, 어색하고 극히 예외적인 어순, 중복 표현의 상궤를 벗어나는 생경한 구조, 이 어구가 지시하는 시간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볼 때 번역 과정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선택지(통째로 번역하는 것과 시간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를 관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마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한 때를 이미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이라고 적시한 후, 무슨 이유로 “해가 떠올랐다”라는 어색한 표현을 뒷문으로 슬그머니 덧붙였을까? 이 독특한 속격 독립 구문의 역할은 무엇이고, 마가가 이 오른쪽 말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함의는 무엇인가?

2.3. 번역 과정에 고려할 요소들

이제까지 나는 서두에서 구분한 두 가지 선택지의 난점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논의를 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번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는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때를 지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마가복음 청자/독자에게 “말씀으로 인한 억압이나 박해 상황”(4:6, 17)을 상기시키는 ‘독자적 표현’(register)으로 읽어야 하며,²²⁾ 아울러 오른쪽 말미로 사용된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어순과 형식에 걸맞게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해 맥락, 신학, 문법의 차원에서 고려할 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에 대한 대안적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2.3.1. 맥락적 고려

가장 먼저 고려할 차원은 맥락이다. 소쉬르(F. de Saussure)가 이른바 구조주의 언어학을 개진한 이래 무릇 단어나 어구의 의미는 그 자체의 어의(語義)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구조)에서의 쓰임과 다른 단어나 어구와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해가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²³⁾ 그러

22) register는 언어학에서 통상 ‘사용역’으로 번역되지만, 구술전승 관련 논의에서는 전승의 전달과 소통 과정에 특정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전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언어’를 말한다. 상세한 정의와 설명을 위해서는 R. 로드리게즈, 『구술전승과 신약성서』, 김선용역 (서울: 감은사, 2024), 49-50, 64를 보라.

23) 널리 알려져 있듯이, 소쉬르(F. de Saussure)는 서양장기인 체스를 예로 들어 체스의 말[馬]들이 지니는 가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스판의 형제 내에서 이들이 갖는 위치에 의존하듯, 언어에 있어서 각 사항은 그 자체의 고유한 어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항과의 차이와 대립에 의해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설명한다. F.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역

니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구체적 함의를 파악하려면 이 어구가 가진 어휘적 의미를 넘어 단락 전체, 심지어 마가복음 서사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표현은 그것이 속한 빈 무덤 이야기(막 16:1-8) 내에서, 나아가 마가복음 서사 전체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다수의 학자가 본 절의 ‘일출’을 그저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는 추가적인 언급이라고 해석하면서 때를 언급하는 왼쪽 말미와의 조화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²⁴⁾ 마커스(J. Marcus)는 구약과 유대교 문헌의 여러 용례(창 19:27-29; 민 24:17; 삿 6:28; 삼상 5:4; 삼하 23:1-4; 사 37:36; 시 30:5; 1QS 10:1)에 기대어 이 ‘일출’이 십자가 처형 당시 엄습한 어두움을 역전시키는 부활과 메시아적 약속을 나타내는 은유라고 설명한다.²⁵⁾ 물론 πρῶτῃ, ἀνατέλλω, ἥλιος의 어의(語義)나 구약성서 등에서 그것들의 쓰임을 살펴 16:2의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겠으나, 이 단어들은 Ἰησοῦς, Πέτρος 등과 달리 그 자체로 온전히 지시적이지 않다. 비지시적인 형용사인 ‘아름답다’처럼 해당 단어들이 지시하는 현실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을 포함한 특정한 문헌 군(구약성서, 1세기 전후 유대교 문헌 등)에서 ‘일출’이 늘 명확한 의미 범주에 귀속된다고 입증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²⁶⁾ 그러니 다른 본문에서 ‘일출’이 이러저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니 본 절에서도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마커스의 해석은 이 구절이 속한 단락 전체의 어조와 어울리지 않는다. 맥락과 조화를 이루기 힘든 함의인 셈이다. 사본 증거에 따라 본래의 서사가 16:8의 ἐφοβοῦντο γάρ(두려웠던 것이다)로 종결된다는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마가는 부활 이후 예수의 현현과 제자들의 회복, 파송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서둘러 예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마가가 자신의 예수 이야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한 데에는 관련 전승을 몰라서라기보다 권면과 위로의 차원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부각하려는 분명한 신학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²⁷⁾ 같은 사건을 전하는 병행 본문들(마 28:1-8; 눅 24:1-12; 요 20:1-10)과 비

(서울: 민음사, 2006), 122-124; ‘구조주의’(structuralism)라는 용어는 철학, 문학, 인류학 등에서 저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므로 혼동의 여지가 있다. 언어학적 체계에 적용되는 구조주의의 개념과 주장에 대한 유용한 설명으로는 J. 라이언스, 『의미론 1』, 367-527을 보라.

24) 앞의 각주 19를 보라.

25) J. Marcus,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7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1083-1084.

26) 성경에 나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의 외연(denotation)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M. 실바, 『성경 어휘와 그 의미: 어휘의미론 서론』, 김정우, 차영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60-168을 보라.

27) W. R. Telford,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rk*, New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37-151.

교하더라도 마가가 전하는 빈 무덤 이야기의 어조는 극도로 부정적이다.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에 휩싸여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μετὰ φόβου καὶ χαρᾶς μεγάλης ἔδραμον ἀπαγγεῖλα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마 28:8])거나, “(부활에 관한) 예수 말씀들을 기억하고 … 모든 일을 열한 명의 제자 등에게 알리지”(ἐμνήσθησαν τῶν ῥημάτων αὐτοῦ … ἀπήγγειλαν ταῦτα πάντα τοῖς ἑνδεκα καὶ … [눅 24:8-9]) 않는다. 16:4에 따르면 외려 이들은 ‘우리러보면서’(ἀναβλέψασαι)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 치워져 있는 것을 ‘목도하지만’(θεωροῦσιν), 마치 벧새다의 시각장애인처럼(8:24-25 참조)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한 채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도망칠 뿐이다(14:50 참조). 급기야 이들은 빈 무덤에서 조우한 청년의 지시를 무시한 채 두려운 나머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16:8). 단락 전체가 철저한 침묵과 도피로 암울하게 마무리되는 것이다.²⁸⁾ 이와 같은 부정적 어조를 고려할 때, 마가복음의 결론부는 부활절 아침 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재현하기보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 제자들의 실패라는 특정한 주제를 각별히 부각하는 단락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언급은 부활 등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함의보다는 단락의 전반적인 기조에 부합되게 부정적인 함의를 가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단락의 부정적 어조에 비추어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도 부정적인 함의를 지녔으리라고 추정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가가 특정한 내용을 언급한 후 이후에 전개되는 서사에서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사 서두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더 강한 자”(ὁ ἰσχυρότερός)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1:7), 이어지는 서사에서 예수는 자신이 “강한 자”(ὁ ἰσχυρός)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라고 자임한다(3:27).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αὐτὸς βαπτίσει …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이라고 예고하고(1:8), 예수는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받을 잔과 함께 받을 세례”(τὸ ποτήριον … καὶ τὸ βάπτισμα)를 언급한다(10:39).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들이 “찢어진”(σχιζομένους) 것처럼(1:10), 그가 운명하자 하늘을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도 “찢어져”(ἐσχίσθη) 돌이 된다(15:38).²⁹⁾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

28) E. S. Malbon, “Fallible Followers: Women and Men in the Gospel of Mark”, *Semeia* 28 (1983), 29-48.

29) 요세푸스의 언급(*Bell.* 5.212-14, 219)을 중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하늘’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관련 논의에 관해서는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656-657; A. Y. Collins, *Mark*, 759-760 등을 보라.

고”(ἐπὶ τῇ παρώσει τῆς καρδίας αὐτῶν) 애석함을 숨기지 않은 예수(3:5)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냐?”(πεπωρωμένην ἔχετε τὴν καρδίαν ὑμῶν;)라고 묻는다(8:17). 벧새다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우리러보았으나”(ἀναβλέψας) 온전히 보지 못한 것처럼(8:24),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우리러보았으나”(ἀναβλέψασαι) 상황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16:4).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ἄρατω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8:34),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그[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ἵνα ἄρῃ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강제한다(15:21).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ἐκ δεξιῶν καὶ … ἐξ ἄριστερῶν)를 요구했지만(10:37) 예수는 자신의 “오른쪽이나 왼쪽”(ἐκ δεξιῶν … ἢ ἐξ εὐωνύμων)에 누군가를 앉힐 권한이 없다고 사양하고(10:40), 이후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ἐκ δεξιῶν καὶ … ἐξ εὐωνύμων)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가 달린다(15:27). 이처럼 마가는 이후에 전개될 서사의 주요 내용을 예고하거나 미리 암시한 후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전 서사를 상기하고 재차 언급된 내용을 앞서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음미하도록 유도한다.³⁰⁾ 동일한 내용이나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나중에 언급되는 것의 의미를 이미 언급된 것에 비추어 숙고하고 간파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마가복음 서사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의 동일한 표현이 쓰여지는 비유(4:3-9)의 일부인 4:6에서 이미 사용되었고(ὅτε ἀνέτειλεν ὁ ἥλιος[해가 뜨자]), 이것이 뒤이은 해설(4:13-20)에서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기는 시기”(γενομένης θλίψεως ἢ διωγμοῦ διὰ τὸν λόγον)를 뜻한다고 적시된다(4:16-17)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서사 전반에 걸쳐 반복 표현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을 보고 이전의 표현을 상기함으로써 재차 등장한 표현의 의미를 숙고해온 청자/독자들이라면, 16:2의 오른쪽 ㄱ트머리에 첨부된 이 독특한 표현을 접했을 때 앞선 4장의 비유를 떠올렸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16:2에서 이 어구를 접한 청자/독자들은 4:6에 나온 동일한 표현을 상기하면서, 이 생경한 표현이 자신들이 겪고 있던 실질적인 억압과 박해를 넘어서 지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일출’이 메시아적 희망이나 십자가 처형과 매장이라는 어두운 분위기의 역전

30) 마가가 이야기를 전개할 때 활용하는 반복 패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D. Rhoads, et al.,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47-54와 거기에 언급된 문헌들을 보라.

이 아니라 억압이나 박해를 암시하는 복선이라는 추정은 이 단락의 부정적인 어조와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자면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는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기보다 청자/독자를 예수 이야기라는 과거로부터 억압과 박해라는 현실로 복귀시키는 문학적 장치인 셈이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굳이 청자/독자들에게 억압과 박해라는 부정적 함의를 상기시키려 하였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아마도 본 단락이 보여 주는 극도로 부정적인 어조와 충격적인 마무리 방식은 청중/독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이렇듯 마가가 제시하는 형태의 빈 무덤 이야기가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을 보여 준다는 점은 이 단락, 나아가 마가복음 전체가 “특정 지점에서 독자들의 생각에 의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어도 다른 전승을 경시하면서 특정 전승을 강조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음을 암시한다.³²⁾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서둘러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이완의 형식인 속격 독립 구문을 활용하여 ‘느슨하게’ 덧붙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복선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우리의 시선을 마가의 신학으로 이끈다.

2.3.2. 신학적 고려

마가의 신학, 요한의 신학, 바울의 신학 따위의 표현은 흔히 해당 저자의 고유한 신학 사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한 저자의 ‘신학’을 묻는 것은 그의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본고는 ‘마가의 신학’을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하면서 염두에 둔 신학적 관심이나 해석학적 지평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복음서 이전 전승의 실제적 내용과 성격, 전수 과정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과 주장이 경합하고 있지만, 마가가 자기 복음서에 수록된 내용을 온전히 창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전 전승을 이러저러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은 널리 인정된다.³³⁾ 그러므로 마가가

31) S. Huebenthal,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Grand Rapids: Eerdmans, 2020), 251, 255-261; D. Rhoads, et al., *Mark as Story*, 142-144; H. K. 본드, 『예수의 첫 번째 전기: 마가복음의 장르와 의미』, 이형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291-292.

32) H. 본드, 『예수의 첫 번째 전기』, 208-209.

33) 예컨대, G. Theissen,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in the Synoptic Tradition*,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E. 이브, 『예수에서 복음서까지: 구술로 전해진 예수 자료는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나?』, 박규태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M. F. 버드, 『주예수의 복음: 초기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신지철 역 (서울: 새물결

자신만의 ‘편집본’을 구성할 때 특정한 신학적 관심이나 해석학적 지평을 지녔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말하자면 마가는 예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과거를 ‘재현’했다기보다 자신과 당대의 신학적 관심 또는 해석학적 지평에 더 잡은 채 과거를 ‘재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는 자신만의 예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어떤 신학적 관심 또는 해석학적 지평을 지니고 있었는가? 이는 “마가는 무슨 목적으로 복음서를 구성하였나?”라는 질문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신학적 관심, 해석학적 지평, 복음서 기록 목적 등을 한 가지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마가는 다양한 신학적 관심과 목적에 따라 이전 전승을 재해석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 전승과 융합된 그의 해석학적 지평도 꽤 복잡하고 다채로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가가 십자가 추종의 제자도를 부각하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직면한 고난과 박해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마가복음은 유대 전쟁이 한창이던 주후 7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복음서의 수신 공동체는 이 처참한 당대의 비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실질적인 고난과 박해에 직면했을 것이다.³⁴⁾ 마가는 고난과 박해라는 현실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주로 논증 형식을 활용하여 공동체 내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 바울과 달리 청자/독자들이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신앙적 결단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그 길이 “상상력을 통과하기를”³⁵⁾ 기대하였다. 말하자면 ‘예수 이야기’라는 문학적인 우회로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듯 이야기라는 우회로를 택한 마가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반응을 예로 제시함으로써(14:27; 16:8) 청자/독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할 뿐이다. 말하자면 마가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이란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플러스, 2017) 등을 보라.

34) 접근법이 사뭇 다름에도 학자들 사이에는 이 점에 큰 이견이 없다. H. 본드, 『예수의 첫 번째 전기』, 37-38; 295-297(고대 전기); D. Rhoads, et al., *Mark as Story*, 144-146(서사비평); B. B. Thurston, *Maverick Mark: The Untamed First Gospe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1-14(개괄적 접근); J. Marcus, *Mark 1-8*, 28-29(편집비평); S. Huebenthal,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248-253(사회적 기억). 다만 휴벤탈(S. Huebenthal)은 구체적인 정치적, 종교적 사건과 연계된 고난이나 박해보다는 청자/독자가 처한 ‘위기’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35) A. N. Wilder, *The Language of the Gospel: Early Christian Rhetoric*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1), 60.

이라는 정공법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마가복음 전반에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경고와 예고가 반복해서 언급되고(6:48; 8:35; 10:30; 13:7-13),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실패한 제자들처럼 도피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권고가 이어진다(8:31-38; 13:28-37; 14:32-42, 50-52; 15:21).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마가가 복음서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신학적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본문을 넘어’(beyond the text) 청자/독자를 직접 향하는 경고의 표지를 결들인다는 것이다(10:30[λάβη ... μετὰ διωγμῶν, “박해를 견하여 받을 것이다”]; 13:14[ὁ ἀναγινώσκων νοεῖτω, “읽는 자는 깨달아라”], 37[ὁ δὲ ὑμῖν λέγω πᾶσιν λέγω,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³⁶⁾ 마가가 빈 무덤 이야기로 자신의 예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억압과 박해를 암시하는 표현을 ‘느슨하게’ 덧붙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고의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일출’이 말씀으로 인한 억압과 박해 상황을 상징하는 은유(4:6, 16-17)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본문이 언급하는 ‘일출’도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가는 시점이 고난과 박해의 때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해석은 마가의 신학적 관심과 정확히 공명한다. 이렇게 보자면 여인들(제자들)의 실패는 한낱 지나가 버린 옛일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은 채 현재와 은밀한 약속을 맺고 있는 과거이며, 이미 종결되어 버린 실패를 재차 반복할 위기에 직면한 청자/독자들이 신앙적 결단을 통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환해야 할 미완의 과제다.

2.3.3. 문법적 고려

이 어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마지막 논점은 문법적인 차원으로서, ἀνατείλαιντος라는 속격 분사의 시제다. ἀνατείλαιντος는 대개 “떠오르다”(to rise, come up)라는 뜻으로 쓰이는 ἀνατέλλω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로서, 최근 ‘동사상 이론’(verbal aspect theory)을 중심으로 전개된 고대 그리스어 시제 관련 논의에 비추어 보면 담론 구성상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근래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동사상 이론’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어 시제는 “특정 종류의 담론 구성에 있어서 그리스어의 동사상(verbal aspect)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³⁷⁾ 그 이유는 저자가 어떤 시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

36) S. Huebenthal,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260; A. Y. Collins, *Mark*, 619; J. Marcus, *Mark 8-16*, 922.

37) B. Fanning, “Porter and Fanning on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Retrospect and Pro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당 동작이나 상황의 상적 가치(aspectual value)가 달라지고, 결국 저자가 그 동작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방식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aspect)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어 시제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최근의 흐름에 따르면, 문법 범주로서 상은 “화자/저자가 시간상의 전개와 관련하여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을 바라보고 제시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³⁸⁾ 어떤 동작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저자의 관점은 크게 외부에서 ‘전체’(complete whole)로 보느냐(부정과거 시제/완결상[perfective aspect]), 내부에서 해당 동작이나 상황이 지닌 ‘모종의 특성’(certain characteristic)에 주목하느냐(현재와 미완료 시제/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로 나뉜다.³⁹⁾ 이처럼 고대 그리스어의 시제는 일차적으로 시간/때를 구별하기보다 해당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제시하느냐를 변별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에 따라 동일한 동작이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된다. 이에 따라 고대 그리스어 시제는 자연스럽게 시제별 두드러짐(prominence)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⁴⁰⁾ 이러한 이해를 서사문에 대입하여 극화(劇化)하자면, 부정과거 시제에 의해 ‘통째로’ 묘사되는 동작이나 상황은 시공간적으로 먼 느낌이고, 현재나 미완료 시제에 의해 ‘특정한 측면’이 부각된 동작이나 상황은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⁴¹⁾ 마치 카메라 감독이 줌인(zoom-in)했다가 줌아웃(zoom-out)하는 행위를 적절하게 교차함으로써 각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1.

38)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5(§192c); ‘문법 범주’로서 상(grammatical aspect)은 화자/저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방식을 지칭하지만, ‘어휘적 특성’으로서 상(lexical aspect)은 “동사의 의미에 내재한 구체적 동작의 시간 구조”(telic/atelic 등)를 가리킨다.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8(§33.8).

39)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5(§33.4). 학자에 따라 ‘결과상’(resultative aspect)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 자세한 설명은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8-314(§194)를 보라.

40) ‘두드러짐’(prominence)의 차이는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라 외부/내부라는 관점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서사문의 경우 서사의 골격(storyline)을 이끌어가는 기본 설정 시제(default tense)가 부정과거 시제이며, 서사 전개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나 완료 시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관련 용어와 세부 개념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27-431(§33.48-56);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8(§194);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rev. ed. (Nashville: B&H Academic, 2020), 236-237 등의 조심스러운 설명을 참조하라.

41)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38.

변주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시제가 지닌 상적 가치는 아무런 두드러짐이 드러나지 않아 극도로 난해한 글이 아니라 굴곡과 거리감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담론을 구성한다.

이러한 이해를 부정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번갈아 사용되는 본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마가복음 1:16(καὶ παράγων παρὰ τὴν θάλασσαν τῆς Γαλιλαίας εἶδεν Σίμωνα καὶ Ἀνδρέαν τὸν ἀδελφὸν Σίμωνος ἀμφιβάλλοντας ἐν τῇ θαλάσῃ)에는 현재 분사 - 부정과거 주동사 - 현재 분사가 차례로 사용된다. 이를 카메라의 관점에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면, 본 절은 예수가 호숫가를 거니는 모습(παράγων)은 줌인하여 가까이 보여 주다가 예수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는 장면(εἶδεν)은 줌아웃하여 전체를 보여 주고, 그들이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모습(ἀμφιβάλλοντας)은 다시 두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겨 줌인함으로써 생생하게 보여 주는 느낌을 전달한다. 각 시제의 상적 가치에 따라서 장면별로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본문인 καὶ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도 마찬가지다. 현재 시제가 사용된 주문장(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과 부정과거 시제가 활용된 오른쪽 말미(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사이에는 각 상황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 차이가 확인되고, 이에 따라 두 상황 간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형성된다. 말하자면 마가는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장면은 가까이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해가 뜨는 장면은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카메라의 관점에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면, 본 절은 그 주간의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처음 장면은 마치 여인들과 동행하듯 생동감 있게 보여 주다가 이어지는 장면에서 카메라를 서서히 줌아웃함으로써 여인들의 발걸음을 ‘일출’이라는 전체 광경의 일부로 제시하는 셈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려면 주절과 오른쪽 말미 사이의 거리감 차이를 적절하게 담아낼 부사어를 번역문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2.4.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번역 제안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가복음 16:2, καὶ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번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그들은 그 무덤으로 갔다. 저 멀리 해가 떠올랐다.” 이 번역문은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살리되, 속격 독립 구문인 오른쪽 말미의 형식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둘로 나누었고,

시간적 의미보다는 ‘일출’이라는 상황을 지시하기 위해 때를 나타내는 부사어나 접속사를 배제하였으며, 주문장의 시제와 분사의 시제 차이가 자아내는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저 멀리’라는 부사를 추가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명확해졌기를 바라지만, 물론 이 번역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요지는 이 이완의 형식이 청자/독자들에게 4:6이 이미 언급한 ‘일출’을 되돌리고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마가 특유의 문학적 기법이라는 점이다.

3. 결론을 대신하여: 시작(詩作)을 통한 재현

앞서 본고는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난점들과 이 어구의 맥락적, 신학적, 문법적 차원을 차례로 살피고 대안적인 번역을 제시해 보았다. 긴 논의를 거쳐 도달한 결론이지만, 원문에는 없는 부사어까지 첨가한 번역문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느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작위(作爲)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떨쳐 내고 그 말뜻을 되새기면, 모든 번역은 하나의 해석이며 무릇 해석이란 작위, 곧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일견 작위적으로 보이는 번역이 실상은 마가복음 서사를 면밀하게 독해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억견일까? 이쯤에서는 장황한 변명보다 “그러니까 번역자 역시 시작(詩作)을 함으로써 재현(wiedergeben)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⁴²⁾라는 벤야민(W. Benjamin)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점만 밝혀 두겠다.

그럼에도 제안된 번역대로 본문을 읽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구절을 접하면서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여인들의 뒷모습 위로 저 멀리 해가 떠오르는 의미심장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전술했듯이 이야기에 몰두한 청자/독자들이라면 서사가 마무리되는 이 장면에 이르러 한 세대 전에 전개된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불현듯 억압과 박해라는 현실로 되돌아오는 ‘타임슬립’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생경하고 한껏 도드라진 이완의 형식을 접한 청자/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치 마가의 예수가 감람산에 올라 장차 있을 고난과 박해에 관한 긴 강화를 들려준 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으

42) W.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6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122(강조는 추가한 것).

라!”(ὁ δὲ ὑμῖν λέγω πᾶσιν λέγω; γρηγορεῖτε)라는 경고를 덧붙였듯이(13:37), 마가 역시 긴 서론이 붙은 수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인들의 실패로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는 그저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과거가 아니라 청자/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며, 지금은 비록 말씀으로 인해 억압과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일출’의 때라고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

<주제어>(Keywords)

마가복음 16:2, 고대 그리스어 시제, 동사상, 좌우 말미, 속격 독립 구문.
Mark 16:2, ancient Greek tense, verbal aspect, right- and left-periphery, genitive absolute.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드 소쉬르, F.,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서울: 민음사, 2006.
- 라이언스, J., 『의미론 I: 의미 연구의 기초』, 강범모 역,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701,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로드리게즈, R., 『구술전승과 신약성서』, 김선용 역, 서울: 감은사, 2024.
- 버드, M. F., 『주 예수의 복음: 초기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신지철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벤야민, W., “번역자의 과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6,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121-142.
- 본드, H. K., 『예수의 첫 번째 전기: 마가복음의 장르와 의미』, 이형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 실바, M., 『성경 어휘와 그 의미: 어휘의미론 서론』, 김정우, 차영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이브, E., 『예수에서 복음서까지: 구술로 전해진 예수 자료는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나?』, 박규태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as, E. van Emde.,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Campbell, C. R.,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Davies, W. D. and Allison, D. C., *Matthew: A Shorter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04.
- Elliott, J. K., ed., *The Language and Style of the Gospel of Mark: An Edition of C. H. Turner's "Notes on Marcan Usage" together with Other Comparable Studies*, NovTSup, 71, Leiden: Brill, 1993(orig. 1924-28).
- Fanning, B., “Porter and Fanning on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Retrospect and Pro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7-12.
-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8A, New York: Doubleday, 1964.

- Focant, C.,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A Commentary*, L. R. Keylock, trans.,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2.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Gnilka, J.,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EKK II/1, Zürich: Neukirchener Verlag, 1978.
- Huebenthal, S.,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Grand Rapids: Eerdmans, 2020.
- Jannaris, A. N., *A Historical Greek Grammar*, London: The Macmillan Co., 1897.
- Köstenberger, A. J.,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rev. ed., Nashville: B&H Academic, 2020.
- Malbon, E. S., "Fallible Followers: Women and Men in the Gospel of Mark", *Semeia* 28 (1983), 29-48.
- Marcus, J.,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7, New York: Doubleday, 2000.
- Marcus, J.,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7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Marshall, I. H., *Commentary on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 Marxsen, W., *Mark the Evangelist: Studies on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Gospel*, J. Boyce, et al., tr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9.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Moule, C. F. D.,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Neirynck, F., *Duality in Mark: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BETL 3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 Omanson, R. L.,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Osborne, G. R., *The Resurrection Narratives: A Redactional Stud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 Pryke, E. J., *Redactional Style in the Marcan Gospel*, SNTSMS 3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Rhoads, D., et al.,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 Schweizer, E.,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rk*, D. H. Madvig,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 Schweizer, E.,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D. E. Green,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 Smyth, H. W.,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 Telford, W. R.,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rk*, New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Theissen, G.,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in the Synoptic Tradition*,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Thurston, B. B., *Maverick Mark: The Untamed First Gospe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 Voelz, J. W., *Mark 1:1-8:26*,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3.
- von Siebenthal, H.,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19.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ilder, A. N., *The Language of the Gospel: Early Christian Rhetoric*,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1.

<Abstract>

The Meaning of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in Mark 16:2 with Translation Suggestions

Sung-Min Jang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right-periphery”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in Mark 16:2 and to propose a new translation. In the most translations, this phrase is linked to the “left-periphery” of the main clause,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which expresses the temporal setting of the main clause, and is usually translated as something like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sun had risen.” Although the left- and right-peripheries of the verse are centered around the main clause, they are lumped together as a single semantic unit for no particular reason or rationale, and are translated as a whole to indicate the temporal setting of the main clause.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due to several difficulties, the right-periphery of the sentence,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should not be directly linked to the left-periphery, λίαν πρω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and, more importantly,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indication of temporal setting. Rather, given its position in the sentence, Mark’s unique redactional style (redundancy), and the implications of the phrase,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should be read as a register reminding Mark’s listeners and readers of “a situation of oppression or persecution because of the word” (4:6, 17) and translated accordingly.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argues, based on the syntactic, stylistic, and contextual uniqueness of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that the phrase is neither tied to the left-periphery as a part of single semantic unit nor indicating a temporal setting. The paper then explores contextual, theological, and grammatical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kept in mind when translating this phrase, and concludes with a new translation of the phrase. In conclusion, this paper insists that just as Jesus warns at the end of his long teaching on the Mount of Olives about suffering and persecution, “What I tell you, I tell everyone, stay awake!(ὃ δὲ ὑμῖν λέγω πᾶσιν λέγω; γρηγορεῖτε, 13:37)”, Mark, in telling the story of Jesus, also warns that this story is not just the past that has

passed, but an unfinished story that is relevant to all of his listeners and readers, and that this is a time of “sunrise” for them to stay awake so that they will not fail in their discipleship, even if oppression and persecution arise because of the word.

동사 상 대전(大戰) —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하는가? —

김두석*

1. 서론

그리스어 동사 상(verbal aspect)은 그리스어 동사 시제 형태의 의미론에 관한 논쟁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신약성경 그리스어 동사 상 논쟁은 맥케이(K. L. McKay)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1989년 포터(S. E. Porter)와 1990년 패닝(B. M. Fanning)이 각각 독립적인 입장을 개진하면서 신약성경 연구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¹⁾ 포터 스스로도 동사 상 연구가 신약성경 그리스어 문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해당 연구는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를 보는 관점의 지평을 확장시켰다.²⁾ 또한 신약 본문의 주해와 의미를 제안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법적 요소로 고려될 만큼 이 연구는 신약학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중요한

* 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광신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jclife2004@gmail.com.

1) 그리스어 동사의 상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74년 맥케이(K. L. McKay, *Greek Grammar for Students: A Concise Grammar of Classical Attic with Special Reference to Aspect in the Verb*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74])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그 이듬해인 1975년 J. P. Louw, “Verbal Aspect in the First Letter of John”, *Neotestamentica* 9 (1975), 98-104에서도 다루어졌다. 하지만 논의의 대중성은 1989년 포터(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Biblical Greek I* [New York: P. Lang, 1989])를 시작으로 1990년 패닝(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26-28.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학자들도 동사 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³⁾

다수의 국내외 학자들이 동사 상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동사 상의 분류와 정의 그리고 기능과 의미에 대한 합의점은 묘연하다.⁴⁾ 특히 국내 학자들의 동사 상 연구의 결과물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⁵⁾ 첫 번째 문제점은 기울어진 지형도이다. 맥케이 이후로 포터(1989)와 패닝(1990)은 1년의 간격을 두고 동사 상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 콘스탄틴 캠펔(C. R. Campbell, 2007)은 그들보다 약 20년 후에 그의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포터와 캠펔 사이에 많은 학자들이 동사 상 논쟁에 참전했고 캠펔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뛰어들었다.⁶⁾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포터, 패닝, 캠펔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는 —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 패닝과 캠펔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예상 가능한 이유가 있다. 먼저 그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포터의 견해는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스어 시

-
- 3)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언”, 『신약연구』 10:4 (2011), 789-823;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신약연구』 10:4 (2011), 941-976; 박윤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Prominence Markers)”, 『신약연구』 9:2 (2010), 309-334; 우상혁,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경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0 (2011), 59-83;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비추어 본 마가복음의 서사 구조”, 『신약논단』 28:3 (2021), 501-534;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언”, 『신약논단』 29:1 (2022), 1-30; 장성민, “마가복음의 부사적 분사 번역 제언: 마가복음 1:1-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2 (2019), 301-342; 장성민, 『중급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언”, 『성경원문연구』 54 (2024), 210-244;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연구: 요한1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4 (2024), 189-209.
- 4) 사실 절대적인 연구물의 숫자를 봐도 이 분야의 연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언어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대어 문법에 대한 깊은 고찰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 5) 국내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장성민의 소논문이 잘 지적하고 있다.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언”, 213-216.
- 6) R. J. Decker, *Temporal Deixis of the Greek Verb in the Gospel of Mark with Reference to Verbal Aspect*, Studies in Biblical Greek 10 (New York: Peter Lang, 2001)과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3 (New York: Peter Lang, 2007)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M. B. Olsen,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7); D. L. Mathewson,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eiden: Brill, 2010); D. S. Huffman, *Verbal Aspect Theory and the Prohibitio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6 (New York: Peter Lang, 2014); F. G. H. Pang, *Revisiting Aspect and Aktionsart a Corpus Approach to Koine Greek Event Typology*, LBS 14 (Leiden: Brill, 2016)를 참고하라.

제 형태에 시간적 의미가 전혀 없다는 포터의 이론은 그리스어 동사 시제의 전통적인 해석을 모두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포터의 이론이 언어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언어학적 방식은 성서학 연구에서 비교적 생소한 접근법이다. 이와 같은 언어학적 배경은 학자들이 포터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혹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받게 하였다.

필자가 발견한 두 번째 문제점은 국내 연구가 포터, 패닝, 캠벨의 이론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그들 사이에, 특히 포터와 그를 비판하는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⁷⁾ 대신 다수의 국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적용과 해석, 번역에 관한 부분이다.⁸⁾ 예를 들어, 고병찬과 김주한의 논문은 그리스어 동사 상의 국내 연구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포터, 패닝, 캠벨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탁월한 논문이다. 하지만 학자들 간의 다양성을 소개한 후 동사 상을 주석적 차원에서 적용할 때 이론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더 집중하자는 말과 함께 요한복음 프롤로그의 해석으로 곧바로 넘어간다.⁹⁾ 그리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포터의 입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¹⁰⁾ 논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의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인지 제안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완료시제에 있어서는 포터, 패닝, 캠벨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에 집중한다는 말은 세 가지 동사의 상 중 문제가 되는 시제 형태의 논의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성민은 그의 최근 논문에서 국내 선행연구들이 이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보다는 활용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것이 장성민의 논문의 강점이자 최고의 기여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서는 본고도 동일한 관점을 보인다. 하지만 장성민 역시 문제가 되는 완료시제 형태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 상태상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완료상과 미완료상에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패닝의 회고를 기초로 논지를 전개하는데, 사실 패닝은 완료시제 형태를 완료상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장성민은 완료상을 설명할 때 부정과거시제 형태만을 언급하고 있다.¹¹⁾

7)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역시 기호로서의 언어와 의미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언어학적 이해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각주 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들의 연구를 참고하라.

9)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802.

10) 물론 고병찬과 김주한은 포터의 현저성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사 상의 분류에 있어서는 포터의 삼분적 구조를 따른다. Ibid., 805를 보라.

11)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210-244.

박윤만은 빌레몬서의 동사 상과 현저성에 대한 논의에서 동사 상과 개별 단어를 넘어 담화의 범주에서 동사 상이 갖는 기능과 담화 구조에서의 역할을 탁월하게 제한한다. 박윤만은 캠벨의 관점을 동사 상에는 시간적 개념이 전혀 없다는 포터의 무시간적(atemporal) 주장과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패닝 사이의 중립적인 관점으로 평가한다.¹²⁾ 이를 위해 캠벨의 의미론과 화용론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다.¹³⁾ 캠벨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만약 동사 상을 의미론적 범주로 정의한다면 화용론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시간적 의미를 동사 상 논쟁에 포함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캠벨이 잘 설명하듯이 — 포터도 동의하는 바 — 동사의 시간적 의미는 문맥에서 결정되는 화용론의 영역인 데 반해, 동사 상 논쟁의 핵심은 동사 시제 형태가 부호화되어 동사 상의 의미 범주를 규정하는 의미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캠벨은 포터와 패닝 사이의 절충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과 화용론을 동사 상 논쟁에 모두 포함시키는 자신만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캠벨의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제안한 박윤만이 실제 그의 분석에서는 포터의 삼분적 구조를 적용한다.¹⁴⁾ 캠벨과 포터 사이에 상호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양쪽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정창욱 역시 완료시제에 대한 학자들 간의 상이한 이해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의 논문에서는 시제 형태의 번역에만 집중하고 있다.¹⁵⁾ 하지만 동사 상 이론과 번역은 매우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번역은 동사 상 분석을 통한 의미를 파악한 후 제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시제 형태의 번역에는 문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상 자체만으로 번역의 원리를 제안할 수는 없다. 즉, 정창욱의 논문은 동사 상의 논쟁이라기보다 완료시제 형태의 번역에 집중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판은 사실 캠벨에게도 적용 가능한 비판이다. 왜냐하면 캠벨 자신이 동사 상 번역을 중심으로 완료시제 형태의 의미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동사 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신약성경 그리스어 동사 상 이론의 주요 학자들 간의 차이점을 잘 설명했지만 왜 그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은 포터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이 캠벨과 패닝과 다른 근본적인 요인을 설명한다. 그것은

12)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945.

13)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19-20.

14)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946.

15)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연구”, 189-209.

첫째, 언어의 체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둘째, 동사 상 연구를 담화의 범주까지 확대하여 담화 내에서 동사 상의 분포와 의미에 집중한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2. 동사 상 대전: 그리스어 동사 상의 핵심 논쟁

동사 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인 개념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그것은 동사 상이 동사의 시제 형태의 의미론에 관한 것으로, 동사의 행위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문법적 선택이라는 인식이다.¹⁷⁾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 동사 시제는 동사 행위의 실제 발생 시점(과거, 현재, 미래 등)이나 동작의 종류(단회적, 지속적 등)를 나타내지 않고 동사의 행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계열체적(paradigmatic) 선택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동사 상 논쟁은 첫째,

16) 사실 이 부분이 동사 상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캠벨과 패닝 그리고 윌라스(D. B. Wallace)와 같은 학자들은 포터의 동사 상 이론을 비판하며 시제 형태에 관한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런데 그들의 비판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미론적 관점의 의미와 화용론적 관점의 의미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17) 그리스어 동사 상 연구의 선구자인 맥케이는 동사 상을 “저자가 각각의 행위와 사건을 문맥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나타내는 동사 시스템의 범주”라고 정의한다. K. L. McKay,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SBG 5 (New York: Peter Lang, 1994), 27. 포터는 “동사 상은 시제 체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루는 데 사용하는 종합적 의미 범주로, 동사의 행위/사건의 개념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선택을 문법화한다”고 정의한다.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88. 포터에 따르면 동사 상은 그리스어 동사 시제 형태에 의하여 부호화된 의미론적 특징으로 다양한 법(mood)— 심지어 부정사와 분사를 포함한 —에 걸쳐 사용되며 시간적 의미와 동작류(Aktionsart)와는 구별된다. S. E. Porter, “Three Arguments Regarding Aspect and Temporality”, *Linguistic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84. 패닝 역시 동사 상을 동사의 문법의 영역으로 정의하며 동사의 행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동사 상은 내재적으로 동사 행위의 시간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저자가 특정 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선택하여 표현하는 주관적 범주이다.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84. 캠벨 또한 동일하게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동사 상은 저자가 동사의 행동, 사건, 혹은 상태를 외부자적 관점 혹은 내부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론적 범주이다.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37.

18) S. E. Porter, “In Defence of Verbal Aspect”,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Theory and Practice*, *Studies in Biblical Greek* 6 (New York: Peter Lang, 1996), 37;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88. 이와 같은 이해는 그리스어 문법에 언어학적 접근을 도입한 개념이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동사 상 이론은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동사 상의 구조, 둘째, 동사 상의 의미론과 시간성의 관계, 셋째, 동사 상과 의미적 현저성(prominence) 등의 세 가지 영역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현저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연구에서 다룰 것으로 기약하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동사 상 구조와 시간성의 관계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완료시제(현재완료, 과거완료)이다. 완료시제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그리스어 동사 상의 구조와 의미를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포터는 동사 상의 구조를 삼분적 구조(tripartite structure)로 제안한다. 포터에 따르면 동사의 완료상(perfective aspect)은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표현되고,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은 현재와 미완료시제 형태로, 그리고 상태상(stative aspect)은 현재완료와 과거완료시제 형태로 표현된다. 포터에 따르면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부호화된 완료상은 멀리 떨어진 관찰자적 관점을 나타낸다. 즉, 동사의 행위를 원거리에서 스냅샷을 찍듯이 표현하

전환을 가져왔다. 그리스어 동사 시제에 관한 문법의 흐름과 발전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체계화된 그리스어 동사의 문법적 요소를 제시한 사람은 디오니시우스 트락스(D. Thrax)였다. 그는 동사의 문법적 요소를 법(mood), 태(voice), 종류, 형태, 수, 인칭, 시제, 활용의 8가지 요소로 제안한다. 그는 동사의 시제 형태를 시간적 의미로 판단하였다. D. Thrax, *Ars Grammatica*, Gustavus Uhlig, ed. (Lipsiae: B. G. Tuebneri, 1883), 46-48. 두 번째 시대는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로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어 문법학자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책처럼 그리스어 문법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지 와이너(G. B. Winer)의 문법이(1822년)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법책이다. G. B. Winer, *A Treatise on the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Regarded as a Sure Basis for New Testament Exegesis*, W. F. Moulton,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82). 이 당시의 문법은 라틴어 문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와이너 역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실제 동사 행위의 시간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시대는 비교문헌학의 시대로서 19세기 말의 그리스어 문법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언어 사이의 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모계 언어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는 문법의 체계에 큰 발전을 일으켰으며 명사의 격과 동사의 시제와 같은 문법적 요소의 체계를 세우게 된다. 게오르크 커티우스(G. Curtius)가 그와 같은 시도를 최초로 한 문법가였다. G. Curtius, *The Greek Verb: Its Structure and Development*, A. S. Wikins and E. B. England, trans. (London: John Murray, 1880). 하지만 이 시기에 괄목할 만한 진일보를 가져온 문법학자는 칼 부르크만(K. Brugmann), 몰튼(J. H. Moulton), 프리드리히 블라스(F. Blass)와 로버트슨(A. T. Robertson)이다. K. Brugmann and B. Delbrück,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2nd ed., 5 parts in 9 vols., Strasburg: Trübner, 1897-1916, Reprint (Berlin: de Gruyter, 1967); F. Blass,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 J. H. Moulton,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Prolegomena* (Edinburgh: T. & T. Clark, 1908);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14); E. Schwyzer, *Griechische Grammatik auf der Grundlage von Karl Brugmanns "Griechischer Grammatik"*, 4 vols., HA 2/1 (Munich: Beck, 1939-1971). 이들의 가장 큰 업적은 동작류(Aktionsart)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는 것으로, 이는 행위가 정적이며 완결된 상태처럼 묘사하는 것이다. 미완료상은 현재시제와 미완료 시제로 부호화되는데, 이것은 내부자적 관점으로 동사의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 함께 있는 관점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상태상은 완료시제로 부호화되는데, 이는 동사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저자의 관점이라고 설명한다.¹⁹⁾ 즉, 상태상에서 ‘상태’란 동작류에서 이야기하는 동사 자체의 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연관되는 동사의 행동을 저자가 상태적(*stative, not as a state*)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포터에 따르면 담화 안에서 각각의 상은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데, 완료상은 배경(*background*)과 같은 역할을 하며 미완료상은 전경(*foreground*), 그리고 상태상은 가장 도드라지는 최전경(*frontground*)의 역할을 한다. 또한 동일한 동사 상을 부호화하는 두 가지 다른 시제 형태는 원근성(*remoteness*)을 통하여 구별한다.

패닝과 캠벨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이분적 구조(*bipartite structure*)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분적 구조를 주장하는 패닝과 캠벨 사이에도 불일치가 존재한다. 패닝은 완료시제를 완료상에 포함시키며 동작류, 시간적 의미, 그리고 동사 상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고 제안한다.²⁰⁾ 그에 따르면 완료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적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패닝은 완료시제가 동사 상에서는 완료상에 해당되며, 시제적 의미에서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동작류에 있어서는 상태적이라고 설명한다.²¹⁾ 패닝에 따르면 완료시제는 동사의 행위가 시작되는 과거 시점과 그것이 완료된 현재의 상태를 모두 보여 준다.²²⁾

완료시제의 동작류에 관해서 패닝은 그의 주장의 많은 부분을 철학자 제

19)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9-39; S. E. Porter, “The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The Meaning of the Greek Perfect Tense-Form in the Greek Verbal System”, *Linguistics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98, 211; D. L. Mathewson and E. E. Ballantine,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113.

20)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12-120.

21) Ibid., 116-117. 올슨(M. B. Olsen)과 크렐린(R. Crellin)은 패닝의 입장을 지지하며 완료시제를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한 시간적 의미와 동사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R. Crellin, “The Semantics of the Perf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2016), 430-454. 크렐린 역시 동사 상의 구조를 양자 구조로 판단하며 캠벨의 제안보다는 패닝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한다. 즉, 완료시제는 행위의 종결 시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R. Crellin,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JSNT* 35:2 (2012), 202.

22)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16-117.

노 벤들러(Z. Vendler)가 제안하는 4가지 형태의 행위 이론에 의존한다.²³⁾ 그중 하나가 바로 상태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벤들러의 설명에서 동사의 상태는 반드시 동작류나 혹은 어휘적 요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또한 패닝의 상태에 대한 동작류적 이해는 동작류의 상태(state)와 동사 상의 상태상(stative aspect)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동작류의 상태는 동사의 실제 행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동사 상의 상태상은 동사의 행위를 상태로 인식하는 화자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사 상에 관하여 패닝은 완료시제를 완료상에 위치시키는데 그 이유는 완료시제가 행위의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패닝의 주장은 언어학적 접근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 접근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문법의 체계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과 용례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동사 상 이론이 언어학적 문법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패닝은 언어학에 대한 설명이나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화용론적 관점에 국한된 설명을 한다.

완료시제에 시간적 의미를 포함한 패닝과 달리 캠벨은 공간성(spatiality) 이론을 통해 동사 상을 설명한다. 캠벨에 따르면 완료상은 저자의 관점이 동사의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미완료상은 근접거리에 있다. 캠벨은 서술형식의 글에서는 완료시제가 현재시제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완료시제는 미완료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²⁴⁾ 그리고 완료시제와 미완료시제의 구분을 강화된 근접성(hightened proximity)으로 설명한다. 즉, 완료시제와 현재시제는 모두 미완료상이지만 완료시제가 현재시제보다 근접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²⁵⁾ 특히 캠벨은 완료시제 형태를 동사 상 자체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 특히 번역의 요소와 문맥적 관점을 접목함으로써 동사 상의 논의를 벗어난 확장된 영역에서 완료시제를 정의한다.²⁶⁾ 그는 완료시제와 현재시제가 번역상의 차이점이 없으므로 완료시제는 미완료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²⁷⁾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또한 동사 상의 의미론적 체계가 아닌 화용론적 관점에서 완료시제 형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23) Z. Vendler,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1957), 143-160.

24)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187.

25) Ibid., 197.

26) 캠벨은 포터가 제안하듯이 완료시제를 상태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90%에는 적절할지라도 10%의 경우에는 번역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무결한 이론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C. R. Campbell, "Breaking Perfect Rule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Greek Perfect", S. E. Runge, ed., *Discourse Studie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A Festschrift in Honor of Stephen H. Levinsohn*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1), 139-155.

27)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193-194.

다. 포터의 상태상을 비판하면서 캠벨은 동사의 상태성(stativity)은 동작류에 관한 것이지 동사 상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수의 언어학자가 상태성을 동사 상에 위치시키고 있다.²⁸⁾ 더욱이, 포터에 따르면 동사 상에서의 상태상은 동작류에서 이야기하는 동사의 실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사의 행위가 주어에 일어난 상태를 저자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으로 동사 자체의 상태와 무관한 것이다.²⁹⁾

정리하자면 동사 상 이론의 구조에 있어서 완료시제의 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가장 첨예한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터는 상태상, 패닝은 완료상, 그리고 캠벨은 미완료상에 각각 완료시제 형태를 배치한다. 이를 시각화하여 간략하게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동사상 구조의 차이

	포터	패닝	캠벨
구조	삼분적 구조 (완료상, 미완료상, 상태상)	이분적 구조 (완료상, 미완료상)	이분적 구조 (완료상, 미완료상)
시간의미	없음	있음	없음, 공간적 의미 포함
완료시제	상태상에 포함	완료상에 포함	미완료상에 포함
설명	1. 부정과거시제는 완료상에 2. 현재시제, 미완료시제는 미완료상에 포함되지만 미완료상은 현재시제에 비해 원근성을 가짐. 3. 현재완료시제,	1. 부정과거시제와 완료시제를 완료상에 포함. 2. 미완료, 현재시제를 미완료상에 포함. 3. 완료시제가 동사 상, 시간적 의미, 동작류	1. 부정과거시제는 완료상에 2. 현재, 미완료, 현재완료, 과거완료 모두 미완료상에 포함. 3. 미완료상 안에서 현재시제와 완료시제는 평행을

28) 모두 나열할 수 없기에 몇 명의 제안만 예를 들어보자면, 코헨(D. Cohen)은 그리스어에는 세 개의 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완료시제를 독립적인 상으로 분류한다. D. Cohen, *L'aspect Verbal*, L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67, 110-111. 포터 이전에 그리스어 동사 상에 관한 이론에 기여했던 로우(J. P. Louw) 역시 완료시제 형태를 상태적으로 설명하였다. J. P. Louw, “Verbale Aspek in Grieks”, *Taalfasette* 15 (1971), 13-26.

29)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07.

	포터	패닝	캠벨
	과거완료시제는 상태상에 포함되지만 현재완료는 과거완료에 비해 원근성을 가짐.	모두를 포함한다고 주장.	이루고 미완료시제와 과거완료시제가 평행을 이룸. 4. 미완료상에 포함된 네 개의 시제는 근접성의 차이로 구분 가능함. 과거완료→미완료 →현재→현재완료 순으로 근접성이 더해짐.

3.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3.1. 의미론 체계와 화용론의 차이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드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터는 자신의 그리스어 문법에 대한 언어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그것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일부분인 형태적 체계기능 문법(formal systemic functional grammar)이다.³⁰⁾ 이 문법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형태(form)를 통하여 의미(meaning)를 전달하는 기호이다. 하지만 형태와 의미의 관계는 자칫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미론(semantics)은 반드시 체계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근대 언어학의 기초를 놓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F. de Saussure)의 구조주의적 언어학적 개념과 맥을 함께한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둘 사이를 연결하는 랑그(Langue) 즉,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파롤(Parole)은 주어진 체계 안에서 화자와 저자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³¹⁾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어의 체계를 의미하

30) 형태적 체계기능문법은 M. Berry, ed., *Meaning and Form: Systemic Functional Interpretations*, ADP 57 (Norwood, NJ: Ablex, 1996)을 참고하라.

31) F.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 Baskin, trans. (London: Peter Owen, 1974)를 참고하라.

는 랑그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무작위로 사용된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문법적 체계 안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언어의 체계(예, 동사 상 체계)안에서 문법적 선택(완료상, 미완료상, 상태상 중 선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계열체 안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의미론적 대조를 통해 강화된다. 동사 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자가 완료상을 선택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완료상이 아닌 다른 상들의 의미론적 대조 속에서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태적 체계기능문법은 문법을 하나의 의미 형성 체계로 보며 그 체계 안에서 저자는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문법적 선택을 한다.³²⁾

이와 같은 언어학적 배경에서 포터는 그의 동사 상 이론을 설명할 때 의미론의 체계를 강조한다. 언어의 용례를 파악하여 모든 용례적 의미를 포괄하는 최대주의적(maximalism) 관점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kernel)이고 기초가 되는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론(semantics)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³³⁾ 바꾸어 말하자면, 문법적 체계 안에서 동사 시제 형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동사 상은 화용론이 아닌 의미론(semantics)과 연결되어 있다.³⁴⁾ 그렇다면 의미론과 화용론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앤드류 나셀리(A. D. Naselli)의 간결하고도 정확한 설명을 참고하면, “동사 상 이론은 시제 형태의 의미론과 화용론을 구분한다. 의미론이란 탈문맥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제 형태 자체가 문맥과 상관없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말한다. 화용론이란 문맥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사 시제의 형태가 특정 문맥에서 이해되는 의미를 지칭한다.”³⁵⁾ 다시 말해서 의미(meaning)와 의미론(semantics)은

32) M. A. K. Halliday,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Baltimore, MD: University Park Press, 1978), 19. 이는 문법적 요소가 확고한 법칙으로 작용하여 언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촘스키(N. Chomsky)의 생성문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할리데이(M. A. K. Halliday)에 의하여 제안된 체계기능언어학은 촘스키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과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을 기초로 한 형식언어학(formal linguistics)의 이론에 반대한다. 촘스키의 언어학은 인간이 보편적인 문법체계를 선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할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은 인간은 각각의 사회작용 속에서 언어를 배우며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Ibid., 27-31.

33) 언어학적 관점으로 그리스어 문법에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는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 J. Decker, *Reading Koine Greek: An Introduction and Integrated Workbook*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D. L. Mathewson and E. E. Ballantine, *Intermediate Greek Grammar*; D. L. Mathewson, *Voice and Mood: A Linguistic Approach* (Grand Rapids: Baker, 2021) 등이 있다.

34) S. E. Porter, “In Defence of Verbal Aspect”,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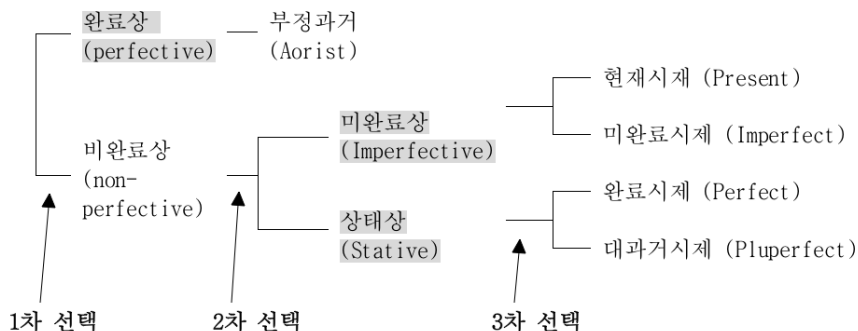
35) A. D. Naselli, “A Brief Introduction to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DBSJ* 12 (2007), 18.

동의어가 아니다. 의미는 어휘, 언어의 형태, 체계, 문맥에 모두 존재한다.³⁶⁾ 반면 의미론은 한 문법요소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유하고 핵심적인 의미에 관한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동사 상의 의미론을 위하여 포터는 랑그 즉, 체계를 세운다. 동사 시제 형태를 어간에 따라 부정과거, 현재, 완료 형태로 구별하며, 그 3가지가 동사 시제의 체계를 구성한다.³⁷⁾ 즉, 형태학적으로 동사의 시제 형태가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는 동사 상 체계를 구축하므로 3가지 동사의 상이 형성된다. 따라서 완료시제는 독립적인 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포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어 동사 체계에서 형태적 의미론은 담화의 문맥 안에서 그것이 다양하게 적용되도록 확장되기 전에 먼저 형성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해석자는 완료시제 형태 자체의 의미를 들여다보기 전에 문맥 안에서 그 시제 형태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먼저 관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다.”³⁸⁾

이와 같은 언어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포터는 아래와 같은 동사 상의 의미론적 체계를 제안한다.

<표 2> 스탠리 E. 포터의 동사 상 체계



위의 표는 그리스어 동사 상의 체계와 선택에 따른 의미 잠재성(meaning potential)을 보여 준다. 즉, 저자가 동사의 시제 형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일차적으로 완료상과 비완료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완료상을 선택하는 것은 부정과거시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며, 비완료상은 그 외에 다른 시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화자가 비완료

36) J. Lyons, *Semantic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4.

37)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언”, 216-219를 참고하라.

38)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14.

상으로 표현하기 원하면 이차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하나는 미완료상이며 현재시제 형태와 미완료시제 형태로 표현된다. 만약 미완료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는 상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료시제 형태와 과거완료시제 형태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시제 형태와 미완료시제 형태 그리고 완료시제 형태와 대과거시제 형태 사이의 선택은 화자가 동사의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접성을 나타낸다. 즉, 현재시제 형태는 미완료시제 형태보다 사건을 근접거리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묘사할 때 사용하는 시제이며 과거완료시제 형태 또한 완료시제 형태보다 근접성을 갖는다.³⁹⁾

포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미론의 체계에서 저자의 계열체적 선택은 그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들에 비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저자가 부정과거시제 형태를 선택한다면, 현재시제 형태나 완료시제 형태보다 부정과거시제 형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료시제 형태의 선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자가 현재시제 형태가 아닌 완료시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시제 형태가 드러내지 못하는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⁴⁰⁾ 이와 같은 설명은 완료시제 형태가 현재시제 형태와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상태상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캠벨의 주장에 대한 대답이 된다.

포터에 따르면, 완료시제 형태를 부정과거시제 형태와 동일한 동사상에 위치시키는 패닝과 미완료상에 위치시키는 캠벨의 이론은 언어학적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사 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⁴¹⁾ 마지막으로 포터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동사 상의 의미보다 번역의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번역은 동사 상의 의미가 결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체계 안에서 동사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기보다 번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방법론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⁴²⁾

안타깝게도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동사 상을 설명할 때 의미론과 화용론

39)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197.

40)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07.

41) Ibid., 203-209.

42) S. E. Porter, "Tense Terminology and Greek Language Study",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6 (New York: Peter Lang, 1996), 43;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05. 포터의 이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비평가들의 핵심은 포터가 완료시제를 때로는 현재형과 같이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형과 같이 번역한다고 제안한다.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WUNT 167 (Tübingen: Mohr Siebeck, 2004), 316-336; C. R. Campbell, "Breaking Perfect Rules", 139-155.

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부정과거가 매번 요약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과거는 어휘 혹은 문맥과 같은 다른 언어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요약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⁴³⁾

문법적인 범주는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모든 맥락에서 하나의 요소로부터 단일한 중심 메시지를 발견할 필요는 없다.⁴⁴⁾

비록 헬라어 동사의 상이 발생된 사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사건 묘사를 위해 사용된 특정 상이 사건에 대한 저자의 강조점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저자가 의식적으로 상의 선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우리는 상의 선택적 사용과 배열의 분석으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특정 상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경우, 발생된 사건이나 문맥 또는 저자 자신이 선택한 진술 방식 등에 의해 동사의 시제 형태들이 선택의 제한을 받는다.⁴⁵⁾

위 동사 상의 설명에서 공통점은 문맥을 통해 동사의 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다. 문맥에서 결정되는 것은 의미론이 아닌 화용론에서 발견되는 의미이다. 언어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들의 자율적 체계이기에 각 구조는 그 자체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물론 의미론과 화용론은 연결되어 있다. 소쉬르 역시 랑그와 파를을 떼어내어 의미의 분리 혹은 고립을 의도하지 않았고, 문맥적 의미와 단어의 의미(예, 동일한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 쓰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차이) 혹은 문법의 의미와 문법 사용의 의미(예, 의문법이 문맥에 따라 때로는 명령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사 상의 의미론적 접근은 일차적으로 시제의 체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저자의 시제 형태 선택이 특정 문맥과 상황에서 어떤 의미

43)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556.

44) C. J. Thompson,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 o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Bellingham: Lexham, 20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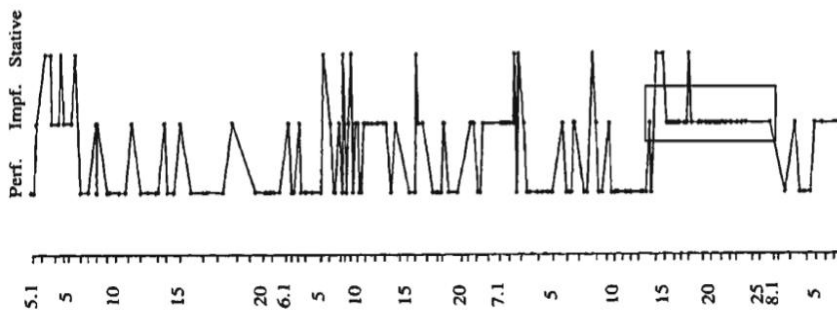
45)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언", 791.

로 전달되는가는 그다음의 문제이다. 포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 사용자의 선택이 … 해당 언어의 동사 체계 구조에 의해 제시되거나 요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⁴⁶⁾ 다시 말해서 저자의 선택은 문법적 체계에 제한된다. 문법적 체계를 벗어난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터의 이론은 형태와 의미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동사 상의 삼분적 구조라는 의미론적 체계를 형태론에 기초하여 제안한 것으로 동사 상의 활용이나 번역을 중심으로 완료시제를 이해하는 패닝이나 캠벨보다 더 언어학적 이론에 기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담화의 범주까지 확대된 동사 상 연구

이제까지 설명한 언어학적 이론의 차이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담화의 범위에서 동사 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포터의 이론을 비판하는 캠벨은 그의 비판 근거를 번역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사 상을 특정 단어 혹은 문장의 시제 형태에서만 논한다. 하지만 포터에 따르면 동사 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문맥에서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사 상의 분포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을 사용하는 저자의 언어적 기법을 분석하는 것은 동사 상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의 표는 로마서 5-7장의 동사 상의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표3> 로마서 5-7장의 동사 상 분포도⁴⁷⁾



위 그래프에서 박스로 표기한 곳은 로마서 7:14-25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46) S. E. Porter, “In Defence of Verbal Aspect”, 27.

47) S. E. Porter and M. B. O'Donnell. “Semantics and Patterns of Argumentation in the Book of Romans: Definitions, Proposals, Data and Experiments”, S. E. Porter, ed., *Diglossia and Other Topics in New Testament Linguistic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0), 195.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는 완료상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미완료상과 상태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완료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로마서 5장은 아담으로 인한 죄의 유입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죽음 등의 사건이 설명되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바울은 주로 완료상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완결되어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에 반하여 로마서 7:14-25는 곤고한 자의 요동치는 내적 갈등을 묘사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바울은 현재시제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현재시제 형태는 저자가 동사의 행위와 사건 자체 혹은 사건의 연속성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할 때 사용한다.⁴⁸⁾ 그렇기에 현재시제 형태는 전경(foreground)에 해당하는 시제로서 등장인물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참조 사항이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바울은 동사의 행위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근접거리에서 바라보듯이 진술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근접 문맥인 로마서 7:7-13에서 바울은 죄의 유입을 설명할 때 완료상을 주된 동사 상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사건을 더 이상 추가적인 행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료된 것으로 묘사하여 완료상을 사용한 후, 그 죄의 유입이 ‘나’라는 사람에게 미친 결과를 설명할 때 미완료상을 사용하여 아직 완결되지 않은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 로마서 5-7장에서 죄의 유입은 배경으로 기능하는 반면, 그 죄에 대하여 씨름하고 있는 ‘나’는 전경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문장 단위에서 동사 시제 형태에 따른 동사 상의 의미와 번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안에서 동사 상의 분포의 분석을 통하여 의미를 제안하는 것이다.

4. 적용 사례: 동사 상 이론의 삼분적 구조를 적용할 때 해석상의 이점

마지막으로 동사 상 이론의 삼분적 구조에 따라 신약성경을 이해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해석상의 이점을 요한복음 20:1-10의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삼분적 구조 이론을 따르면 완료상의 부정과거시제 형태는 주된 스토리라인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담화의 배경적 기능을 감당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큰 틀을 형성한다. 미완료상의 미완료시제 형태는

48)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196.

주된 스토리라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진술을 할 때 그리고 보충적이고 보조적인 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한다. 현재시제 형태는 중요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가오는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상태상의 완료시제 형태는 담화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는 시제 형태이며 형태론적으로도 다른 시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형을 보인다. 즉, 의미의 무게감이 다른 시제 형태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⁴⁹⁾ 그리고 미완료상의 두 시제 형태(현재와 미완료) 그리고 상태상의 두 시제 형태(현재완료와 과거완료)는 각각 원근성과 근접성의 관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삼분적 구조는 담화의 입체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또한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1-10의 동사 상 사용은 아래와 같다.⁵⁰⁾

- 1 Τῇ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ὴ {έρχεται} πρῶτὴ σκοτίας ἔτι οὐση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βλέπει} τὸν λίθον ἡρμέν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 2 {τρέχει} οὖν καὶ {έρχεται}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καὶ πρὸς τὸν ἄλλον μαθητὴν ὃν <ἐφίλει>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Ἦραν τὸν κύρι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καὶ οὐκ οἶδαμεν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3 Ἐξήλθεν οὖν ὁ Πέτρος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καὶ <ἤρχοντο>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4 <ἔτρεχον> δὲ οἱ δύο ὁμοῦ·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προέδραμεν τάχιον τοῦ Πέτρου καὶ ἦλθε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5 καὶ παρακύψας {βλέπει} κείμενα τὰ ὀθόνια, οὐ μέντοι εἰσῆλθεν.
- 6 {έρχεται} οὖν καὶ Σίμων Πέτρος ἀκολουθῶν αὐτῷ καὶ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θεωρεῖ} τὰ ὀθόνια κείμενα,
- 7 καὶ τὸ σουδάριον, ὃ <ἦ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αὐτοῦ, οὐ μετὰ τῶν ὀθονίων κείμενον ἀλλὰ χωρὶς ἐντετυλιγμένον εἰς ἓνα τόπον.
- 8 τότε οὖν εἰσῆλθεν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ὁ ἐλθὼ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πίστευσεν·
- 9 οὐδέπω γὰρ ᾔδεισαν τὴν γραφὴν ὅτι {δεῖ}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ἀναστῆναι.
- 10 ἀπῆλθον οὖν πάλιν πρὸς αὐτοὺς οἱ μαθηταί.

1 안식일 후 첫 번째 날에 마리아 막달라가 새벽에 일찍이 무덤이 있는 곳을 {갔다}. 그리고 그녀는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49) cf. D. L. Mathewson and E. E. Ballantine, *Intermediate Greek Grammar*, 115.

50) 그리스어 번역은 저자의 것이다.

- 2 그러므로 그녀는 {달렸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주님을 무덤으로부터 가져갔다. 그들이 그를 어디에 놓았는지 우리 가 알지 못한다.
- 3 그러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왔다. 그리고 무덤으로 <갔다>.
- 4 둘은 <뛰었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는 베드로를 앞질러 뛰어가 먼저 무덤으로 갔다.
- 5 그리고 몸을 숙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 6 그리고 시몬이 그를 따라 {왔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이 놓인 것을 {보았다}.
- 7 그리고 머리에 <있었던> 수건이 옷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쪽에 접혀서 놓여 있었다.
- 8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보았고 믿었다.
- 9 그들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아직 이해 하지 못했다.
- 10 그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요한복음 20:1-10을 보면 부정과거(밈줄), 현재(중괄호), 미완료(화살괄호), 완료 및 과거완료(굵은글씨 & 물결밈줄) 시제 형태가 혼용되고 있다.⁵¹⁾ 동일한 사건을 묘사할 때 이토록 혼합된 시제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어 동사 시제가 행위의 실제적인 발생 지점(시간적 의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간 것은(1절, 현재시제 형태) 현재 일어난 사건인데, 마리아가 무덤으로 간 것보다 뒤에 발생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 행위는(3절, 부정과거시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내러티브가 연속적인 현재시제 동사(1절, 2절의 ἔρχεται, βλέπει, τρέχει, λέγει)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동사 상의 사용은 장면의 전환을 암시한다. 앞선 요한복음 19장은 그들이 예수를 새 무덤에 두었다(부정과거시제)는 기록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면서 현재시제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즉, 예수가 무덤 안에 놓인 사건은 외부자적 관점으로 더 이상 어떤 행위의 변형이 끼어들 수 없는 완결적 관점으로 묘사한 후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 마리아의 행동을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묘사한다. 즉,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행위,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51) 본디 동사 상 이론은 비정형동사에도 적용되지만 제공한 예시에서는 정형동사만 분석한다. 단, ἡμῶν은 논문의 논지를 위해 포함시켰다.

것을 보는 행위,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행위가 저자의 기록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저자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부여한다.

2절에서는 미완료시제 형태 동사를 추가한다. 그런데 미완료시제 형태 동사 앞뒤로 현재시제 형태 동사가 둘러싼다. 미완료시제 형태는 현재시제 형태와 함께 미완료상에 포함되는데, 둘 사이는 원근감을 통하여 구별한다.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한 것은 마리아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말하는 행위가 현재시제 형태를 통하여 전경으로 드러나는 반면 제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하여 미완료시제 형태를 사용하여 약간 떨어진 관점을 제공한다. 즉, 마리아가 달려가 소식을 알린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묘사를 미완료시제 형태 ἐφίλει를 통해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절에서 저자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이 예수를 데려갔다. 그들이 어디에 예수를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삼인칭 복수(그들)가 예수에게 행한 행위(가져감, 시신을 둠)는 모두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묘사된 반면 마리아의 행위는 완료시제 형태로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시간적으로는 모든 행위(가져가고, 두고, 알고)가 과거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에 다른 시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배경적 기능을 부여한 반면,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강한 현저성이 있는 완료시제를 사용하여 최전경(frontground)에 위치시킨다. 즉, 저자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으며 최초의 목격자인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도드라지는 관점으로 표현한다. 이는 시신의 부재를 최전방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절에서도 저자는 완료시제 분사를 사용하여 돌이 움직여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묘사할 때 모두 상태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3-6절의 동사 상 사용도 흥미로운 패턴을 제공한다. 베드로가 일어나 나온 것은 완료상,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보충적인 행동인 무덤을 향해 가는 행위는 미완료상(미완료시제 형태), 두 제자가 뛰는 행위는 미완료상(미완료시제 형태), 다른 제자(요한)가 달려가는 모습은 완료상(부정과거시제 형태)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모두 미완료

상(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한다. 여기에서도 입체감이 드러난다. 베드로가 일어나 나오는 것은 완결된 행위로 전체적인 묘사를 제공하지만, 그들이 뛰는 행위는 진행되고 있는 관점과 완료된 관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그런 후 두 제자가 무덤에 도착하여 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천을 바라보는 것은 모두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하여 더 근접거리의 관점으로 묘사한다. 즉,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시작하여 미완료시제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시제 형태를 통해 저자의 관점이 먼 곳에서부터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상태상(과거완료시제 형태)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는 저자의 관점을 강조한다. 캠벨의 이론에 따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위는 가장 원거리에서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두 제자의 상태에 대한 강조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들이 무덤까지 갔고(부정과거시제 형태), 그들이 예수가 거기에 없는 것을 보았다(현재시제 형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었지만(현재시제 형태),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과거완료시제 형태) 있다는 것이다. 즉, 부정과거, 현재, 그리고 과거완료로 점차 옮겨가면서 저자의 관점이 배경, 전경, 최전방으로 카메라가 줌인(Zoom-in)하듯이 제자들의 행동(가고, 보고, 알지 못함)을 차례차례 비추고 있다.

이 담화에서 마리아의 행위와 제자들의 행위는 중복되는 것이 많다. 주로 ‘가고’ ‘보는’ 행위가 중첩된다. 그리고 해당 동사들은 주로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설명하는 동사들, 즉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돌이 옮겨져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모두 공통으로 상태상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사 시제의 다양한 사용과 담화에 입체감을 더하고 부활을 묘사하는 그의 관점과 강조점에 색채를 더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동사 상 논쟁이 발생하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삼분적 구조가 주는 해석적 유익을 제시하였다. 동사 상 논쟁의 핵심은 동사 상 이론에 대한 언어학적 체계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용례 혹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의 차이에 있다. 포터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고 동사 상의 의미론을 체계(system, langue)안에서 규정한 후 동사 상 시제의 시간적 의미와 동작류의 의미를 화용론적 관점으로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패닝과 캠벨에 비해 가장 언어학적 이론에 기초한 동사 상을 제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²⁾ 동사 상을 연구할 때 체계에 기초한 의미론에서 시작하여 특정 시제 형태가 문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반대로 용례나 문맥에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동사 상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역방향적인 접근으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패닝의 이론은 완료시제에 시간성, 동작류, 동사 상을 혼합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완료시제가 등장할 때마다 문맥 안에서 이것이 시간적 의미인지, 동작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동사 상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한다. 캠벨은 번역상의 이유로 현재시제와 완료시제를 모두 미완료상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를 근접성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태적 차이(세 종류의 어간)를 간과하는 모델이며 문법적 의미와 언어의 번역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삼분적 구조는 어간의 차이 즉, 형태의 차이에 따른 계열체적 시스템을 통하여 동사 상의 의미를 제안한다. 즉, 언어의 형태와 의미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한다. 더욱이 삼분적 구조는 담화 범위에서 동사 상을 분석할 때 입체감과 의미의 역동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삼분적 구조 접근이 신약성경을 해석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준다.

<주제어>(Keywords)

동사 상, 시제 형태, 구조주의 언어학, 체계기능문법, 담화분석.

Verbal Aspect, Tense-form, Structural Linguistic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Discourse Analysis.

(투고 일자: 2025년 1월 27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0일)

52) 실제로 포터 자신도 캠벨과 패닝의 이론에 대한 비평을 여러 곳에서 제안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언어학적 이해 혹은 이론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동사 상의 그리스어 문법의 언어학 시대에 대두된 이론임을 감안할 때 포터의 비평은 매우 적절하다. 캠벨과 패닝에 대한 포터의 비판은 S. E. Porter, "Three Arguments", 175-194;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195-218.

<참고문헌>(References)

-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신약연구」 10 (2011), 789-823.
-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답화처리”, 「신약연구」 10 (2011), 941-976.
- 박윤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Prominence Markers)”, 「신약연구」 9 (2010), 309-334.
- 우상혁,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경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0 (2011), 59-83.
-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성경원문연구」 54 (2024), 210-244.
-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비추어 본 마가복음의 서사 구조”, 「신약논단」 28 (2021), 501-534.
-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신약논단」 29 (2022), 1-30.
- 장성민, “마가복음의 부사적 분사 번역 제안 — 마가복음 1:1-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 (2019), 301-342.
- 장성민, 『중급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연구: 요한1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4 (2024), 189-209.
- Berry, M., ed., *Meaning and Form: Systemic Functional Interpretations*, ADP 57, Norwood: Ablex, 1996.
- Blass,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
- Brugmann, K. and Delbrück, B.,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2nd ed., 5 parts in 9 vols., Strasburg: Trübner, 1897-1916, Reprint, Berlin: de Gruyter, 1967.
- Campbell, C. R.,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Campbell, C. R., “Breaking Perfect Rule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Greek Perfect”, S. E. Runge, ed., *Discourse Studie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A Festschrift in Honor of Stephen H. Levinsohn*,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1, 139-155.
- Campbell, C. R.,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3, New York: Peter Lang, 2007.
- Caragounis, C. C.,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WUNT 167,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Cohen, D., *L'aspect Verbal*, L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 Crellin, R., "The Semantics of the Perf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2016, 430-454.
- Curtius, G., *The Greek Verb: Its Structure and Development*, A. S. Wikins and E. B. England, trans., London: John Murray, 1880.
- Decker, R. J., *Reading Koine Greek: An Introduction and Integrated Workbook*,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 Decker, R. J., *Temporal Deixis of the Greek Verb in the Gospel of Mark with Reference to Verbal Aspect*, Studies in Biblical Greek 10, New York: Peter Lang, 2001.
- De Saussure, F.,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ade Baskin trans., London: Peter Owen, 1974.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Halliday, M. A. K.,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78.
- Huffman, D. S., *Verbal Aspect Theory and the Prohibitio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6, New York: Peter Lang, 2014.
- Louw, J. P., "Verbal Aspect in the First Letter of John", *Neotestamentica* 9 (1975), 98-104.
- Louw, J. P., "Verbale Aspek in Grieks", *Taalfasette* 15 (1971), 13-26.
- Lyons, J., *Semantic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Mathewson, D. L.,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inguistic Biblical Studies 4, Leiden: Brill, 2010.
- Mathewson, D. L., *Voice and Mood: A Linguistic Approach*, Grand Rapids: Baker, 2021.
- Mathewson, D. L. and Ballantine, E. E.,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 McKay, K. L.,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SBG 5, New York: Peter Lang, 1994.
- McKay, K. L., *Greek Grammar for Students: A Concise Grammar of Classical Attic with Special Reference to Aspect in the Verb*,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74.

- Moulton, J. H.,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Prolegomena*, Edinburgh: T. & T. Clark, 1908.
- Naselli, A. D., "A Brief Introduction to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DBSJ* 12 (2007), 17-28.
- Olsen, M. B.,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7.
- Pang, F. G. H., *Revisiting Aspect and Aktionsart a Corpus Approach to Koine Greek Event Typology*, Linguistic Biblical Studies 14, Leiden: Brill, 2016.
-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 Porter, S. E.,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Theory and Practice*, Studies in Biblical Greek 6, New York: Peter Lang, 1996.
- Porter, S. E., "The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The Meaning of the Greek Perfect Tense-Form in the Greek Verbal System", *Linguistics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95-215.
- Porter, S. E., "Three Arguments Regarding Aspect and Temporality", *Linguistic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75-194.
- Porter, S. E.,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 Lang, 1989.
- Porter, S. E. and O'Donnell, M. B., "Semantics and Patterns of Argumentation in the Book of Romans: Definitions, Proposals, Data and Experiments", S. E. Porter, ed., *Diglossia and Other Topics in New Testament Linguistic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0, 154-204.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14.
- Schwyzler, E., *Griechische Grammatik auf der Grundlage von Karl Brugmanns "Griechischer Grammatik"*, 4 vols., HA 2/1, Munich: Beck, 1939-71.
- Thompson, C. J.,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 o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Bellingham: Lexham, 2016, 13-80.
- Thracis, D., *Ars Grammatica*, Gustavus Uhlig, ed., Lipsiae: B. G. Tuebneri, 1883.
- Vendler, Z.,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 (1957), 143-160.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iner, G. B., *A Treatise on the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Regarded as a*

Sure Basis for New Testament Exegesis, W. F. Moulton,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82.

<Abstract>

The Combat of Verbal Aspect Theories: What Makes Them Different?

Doosuk Kim
(Kwangshin University)

The verbal aspect in Greek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the semantics of Greek verb tense forms. It also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both Greek grammar and New Testament exegesis. Since Stanley E. Porter's seminal work in 1989, numerous grammarians have contributed to this debate. However, a consensus remains elusive, as most studies reaffirm the fundamental disagreements among Porter, Fanning, and Campbell. Despite extensive research on the Greek verbal aspect, there has been a notable absence of robust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se divergent viewpoints. Instead, many preceding studies merely adopted one of the three (Porter, Fanning, and Campbell) models without further explo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clarification of what makes them different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The current paper argues that the core debate of verbal aspect theory stems from two primary factors: (1)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language itself, and (2) disagreement over whether verbal aspect analysis should extend to the discourse level.

First, the conflict between the three main figures regarding the Greek verbal aspect occurs due to the different approaches and notions of language. Of the three, this article argues that Porter's model is the most consistent and theoretically sound from a linguistic standpoint. Unlike the others, Porter provides a clear semantic system that explains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tense form and meaning, whereas Fanning situates the perfect tense form in three different meaning categories, i.e., time, type of action, and aspect, Porter defines it as a stative aspect. Moreover, according to Campbell, when it comes to the translation, there is no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and perfect tense form, leading him to include the perfect tense form in imperfective aspect. In contrast, Porter rightly points out that translation cannot be a decisive factor for the semantics of verb tense form. Second, the advantage of Porter's model is that he expands the scope of analysis from the word or sentence level to the

discourse level. This approach is beneficial because observing the overall use of the verbal aspect in a discourse can help interpreters comprehend how the author employs the language and what function each verb tense form plays in the discourse. Following this line of thought, the present paper research argues that verbal aspect theory should transcend both translation issues and sentence-level analysis, maintaining its relevance at the discourse level.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study concludes with a verbal aspect analysis of John 20:1-10 as a test case.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속 옛 말투 연결어미의 변화

최성규*

1. 머리말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1911년 판 『성경전서』(흔히 『구역』으로 알려짐)과 1938년 판 『성경 개역』(이하 『개역』)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역 성경이다. 한국 교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권위를 인정받아 온 중요한 역본이자, 한 세기가 넘는 역사가 담긴 만큼 고풍스러운 표현이 많다는 특징을 지닌 역본이다.

고풍스러운 표현은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진지하고 품위 있는 문체를 형성한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새번역』(예전의 『표준』)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개역개정』이 여전히 교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¹⁾ 새로 작사·작곡되는 기독교 음악(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가사에서 하소서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고풍스러운 표현이 지닌 특유의 기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역』 계통의 역본에서 고풍스러운 문체를 이루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동사의 옛 말투 활용어미(conjugation ending)이다. 교착어

* 서울대학교에서 국어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선임
편찬원. ginparam@nate.com.

1) 물론 『새번역』과 『개역개정』의 차이를 문제 하나로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교단에서 예배용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교계에서 논란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이 글에서 그러한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인 국어에서 활용어미는 거의 모든 문장마다 들어가므로 성경 전체로는 수백 수천 번씩 나타난다. 물론 일부 옛 어휘도 고풍스러운 문체를 이루는 요소가 되기는 하겠으나, 활용어미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활용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는 상황이 같지 않다. 『개역』 계통의 역본에서 종결어미 ‘하소서’를 ‘하십시오’로 고치거나 ‘하느니라’를 ‘한다’로 고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²⁾ 그러나 연결어미 ‘하신대’를 ‘하시니’로 고친 것은 『개역개정』이 종전의 『개역한글』보다 나아진 점으로 소개된 바 있다.³⁾

이 글에서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속 옛 말투 연결어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본문 전체(창세기~요한계시록)를 대상으로 연결어미의 수량 변화를 정리하고, 그러한 변화의 특징도 짚어보기로 한다.

2. 논의 대상과 용례 수

‘옛 말투’ 또는 의고체(擬古體, archaism)는 옛날에 쓰던 말의 방식이나 어조 등을 가리킨다. 그 기본 개념은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만한 것이나, 어디까지가 옛 말투에 속하는지 경계선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마다 예스럽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뜻풀이 안에 ‘예스러운/예스럽게’, ‘근엄한/근엄하게’, ‘장중한/장중하게’, ‘옛 말투’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⁴⁾ 그에 덧붙여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서 ‘옛말’ 자격으로 분류한 것들⁵⁾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사전에는 여러 어미들의 이형태(allomorph)를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실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형태 관계에 놓인 항목들은 사실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예컨대 ‘-르진대’와 ‘-을진대’는 문법 기능이 똑같은 어미이며,

2) 종결어미를 현대어 ‘다’로 바꾸면 외면이나 반발이 있으리라는 예측이 있다. 전무용, “『개역개정』 성경 개정을 위한 문제 논의”, 『성경원문연구』 50 (2022), 228.

3) 민영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57.

4) 두 사전 중에 어느 한 쪽이라도 그러한 뜻풀이를 넣었다면 논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예컨대 ‘나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만 ‘근엄하게’라고 풀이하였고, ‘-(으)매’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만 ‘옛 말투’라고 풀이하였다.

5) 『표준국어대사전』의 초판(1999)에는 옛말로 실려 있었으나, 2019년에 사전을 개편하면서 옛말, 방언, 북한어를 제외하였다. 제외된 말들은 『우리말샘』으로 옮겨졌다.

출현 환경만 다를 뿐이다.⁶⁾ 또한 『개역한글』에서는 이들이 ‘-르진대’, ‘-을진대’로 적히기도 하였으나 이들 또한 표기만 다를 뿐 동일한 어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하나의 형태소(morpheme)로 묶어서 처리하였다.

또한, 원래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였으나 현대 사전에서는 등재 여부가 갈리는 일도 있다. 예컨대 ‘-거늘’과 ‘-어늘’은 15세기 국어에서 이형태 관계에 있던 어미였다.⁷⁾ 그러나 ‘-어늘’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빠져 『우리말샘』에서만 ‘옛말’ 자격으로 실리게 되었고, ‘-거늘’만 현대 사전에 남게 되었다.⁸⁾ 현대 사전의 처리를 따른다면 이들 둘은 별개로 갈라야 하겠으나, 『개역』 계통의 역본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쓰이므로 ‘-어늘’만을 사어(死語)처럼 떼어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옛말에서 이형태 관계였던 경우도 하나의 형태소로 묶어 처리하되, 구별이 필요할 때에만 설명을 붙이기로 한다.

그 밖에, 연결어미 앞에 선어말어미가 붙은 것을 사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실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러니’와 ‘-(으)러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따로따로 실려 있다. ‘-(으)러니’는 15세기 국어에서 ‘-(으)리러니’였던 것인데, 이는 ‘-러니’ 앞에 선어말어미 ‘-(으)리-’가 더 붙은 것이므로 결국 ‘-러니’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함께 묶어 처리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옛 말투 연결어미를 정리하고 용례 수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개역한글』의 옛 말투 연결어미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거늘	346	어늘	37	(으)리어늘, 여늘	5	388
거니와	253	어니와	19	(으)리어니와, 여니와	1	273

6) ‘-르진대’는 ‘이다’의 어간, 받침이 없거나 ‘ㄹ’인 용언의 어간, 어미 ‘-(으)시-’ 뒤에 붙는다. ‘-을진대’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어미 ‘-었-’ 뒤에 붙는다.

7) 본래는 [확인] 기능의 선어말어미 ‘-거/어/나-’가 들어있던 것이다. 이 선어말어미는 자동사 및 형용사 뒤에 ‘-거-’, 타동사 뒤에 ‘-어-’, ‘오다’ 뒤에 ‘-나-’가 붙는 식으로 출현 환경이 구분되었다. 그 밖에, ‘-거-’는 [j]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나 [l]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어-’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기문,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1998), 174;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서울: 집문당, 2020), 300-301.

8) 『표준국어대사전』의 ‘-거늘’ 뜻풀이에는 옛 말투 관련 내용이 없으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옛 말투’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관데	0	관대	34			34
나니	1,032					1,032
노니	606					606
러니	3			(으)르러니	2	5
어든	9			(으)려든	0	9
(으)ㄴ대	95					95
(으)ㄴ죽	876					876
(으)되	5,270			로되	50	5,320
(으)르새	4	(으)르쎄	122			126
(으)르지나	0	(으)르찌나	1			1
(으)르지니	17	(으)르찌니	299			316
(으)르진대	4	(으)르쨌대	64			68
(으)매	1,616					1,616
(으)사	912					912
합계						11,677

<표 2> 『개역개정』의 옛 말투 연결어미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거늘	369	어늘	3	(으)리어늘, 여늘	0	372
거니와	267	어니와	1	(으)리어니와, 여니와	0	268
관데	0	관대	0			0
나니	990					990
노니	591					591
러니	1			(으)르러니	0	1
어든	5			(으)려든	0	5
(으)ㄴ대	39					39
(으)ㄴ죽	819					819
(으)되	5,962			로되	50	6,012
(으)르새	122	(으)르쎄	0			122
(으)르지나	1	(으)르찌나	0			1
(으)르지니	308	(으)르찌니	0			308
(으)르진대	61	(으)르쨌대	0			61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으)매	1,578					1,578
(으)사	867					867
합계						12,034

『개역한글』에는 16가지 옛 말투 어미가 나타나며, 전체 용례 수 합계는 11,677개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종류가 하나 줄어들어 15가지 옛 말투 어미가 나타나는데, 전체 용례 수 합계는 조금 늘어나서 12,034개이다. 전체 합계만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개역개정』에서 고평스러움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이는 아래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 표에는 들어가지 않은 옛 말투 어미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실려 있더라도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한 이유로 제외한 어미는 총 18가지이며, 각각 다음과 같다. ‘-거니/어니’, ‘-거드면’, ‘-고저’⁹⁾, ‘-노라니’, ‘-노라니까’, ‘-노라면’, ‘-도소니’, ‘-런들’, ‘-어드란’, ‘-언마는’, ‘-오리니(1인칭 주어와 호응)’¹⁰⁾, ‘-(으)ㄴ댄’, ‘-(으)ㄴ즉슨’, ‘-(으)ㄴ사’, ‘-(으)ㄴ시’, ‘-(으)ㄴ작시면’, ‘-(으)ㄴ지면’, ‘-(으)ㄴ진들’. 또한, 사전에는 연결어미로 나와 있으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 사실상 종결어미로 쓰인 ‘-ㄴ지라’는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¹⁾

다음 3, 4, 5장에서는 각 연결어미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수량이 늘어난 어미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수량 변화가 적은 어미, 5장에서는 수량이 크게 줄어든 어미를 살펴보겠다.

9) ‘-고저’의 현대 표준형인 ‘-고자’는 『개역한글』에서 280회, 『개역개정』에서 298회 나타나므로, 단순히 사라졌다고만 할 수는 없다. 참고로 『개역』(1938)에서는 “일즉이 니러나 썬 나^{고저} 하매”(삿 19:8) “네게 꾸^{고저} 하는 자의게”(마 5:42), “네가 낫^{고저} 하나냐”(요 5:6) 등 ‘-고저’가 여러 곳에서 쓰인 바 있다.

10) [공손] 기능의 선어말어미 ‘-(으)오-’에 연결어미 ‘-(으)리니’가 결합하여 생긴 ‘-오리니’와는 다른 어미이다.

11) 일부 사례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중 어느 쪽으로 보나 문맥상 자연스럽다. 다만 이 글에서는 확실히 연결어미로 쓰인 것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3. 수량이 늘어난 어미: -(으)되

이 글의 논의 대상 가운데 수량이 늘어난 연결어미는 ‘-(으)되’ 하나뿐이다. 이 어미의 용례 수는 5,320개에서 6,012개로 692개나 늘어났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더 오래된 옛말 ‘가라사대’가 ‘이르시되’로 바뀐 결과이다.¹²⁾ 따라서 고풍스러운 말투가 더 강화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역한글』에서 ‘가라사대’는 총 782회(각주 제외) 나타났었다. ‘가라사대→이르시되’의 변화를 제외하면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이다.

연결어미 ‘-(으)되’가 겪은 변화는 크게 인용 구문과 그 밖의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1. 인용 구문의 ‘-(으)되’

연결어미 ‘-(으)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는 인용 구문에 쓰인 용례가 특별히 많다. 인용 구문은 대부분 [인용동사+인용구+‘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용동사의 끝에는 ‘-(으)되’가 가장 많이 쓰인다. 물론 ‘-기를’¹³⁾처럼 예스럽지 않은 표현도 상당수 쓰인다. 따라서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인용 구문에서 ‘-(으)되’의 수량과 ‘-기를’의 수량을 세어보면 변화의 경향을 어느 정도 짚을 수 있다.

인용동사에 속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용례 수가 100개 이상이었던 ‘말하다’, ‘말씀하다’, ‘이르(시)다’, ‘대답하다’, ‘고하다’ 및 ‘가라사대’, ‘가로되’까지 포함한 일곱 단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인용동사에 쓰인 연결어미(각주에 쓰인 것은 제외)

어휘 (활용형)	수량		어휘 (활용형)	수량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가라사대	782	0	-	0	0

12) 『개역한글』의 ‘가라사대’는 대부분 ‘이르시되’로 바뀌었으나, ‘말씀하시되’(암 1:3 등 20회), ‘...의 말씀이니라’(렘 16:14 등 14회)로 바뀐 사례도 있다. 드물게는 ‘이르시기를’(출 33:21 등), ‘말씀하시기를’(행 2:17 등)로 바뀌었다.

13) ‘-기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는 않다. 명사형 전성어미 ‘-기’에 목적격조사 ‘를’이 붙은 결합체이다.

어휘 (활용형)	수량		어휘 (활용형)	수량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가로되	1,912	0	-	0	0
이르되	997	2,869	이르기를	630	613
이르시되	495	1,223	이르시기를	84	82
말하되	213	286	말하기를	345	380
말씀하시되	138	160	말씀하시기를	69	101
대답하되	171	163	대답하기를	18	18
고하되	99	2	고하기를	38	2
합계	4,807	4,703	합계	1,184	1,196

‘-(으)되’ 등은 100개 남짓한 용례가 줄어들었고, ‘-기를’은 미미하게나마 용례가 늘어났다.¹⁴⁾ 따라서 옛 말투 어미의 전체 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짚을 수 있다. 물론 전체 수량에서는 여전히 ‘-(으)되’가 ‘-기를’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위의 도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바꾸어 문장을 끊은 사례가 몇몇 있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① ㄱ.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개역한글』, 행 21:40)
 ㄴ.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개역개정』, 행 21:40)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바꾼 것은 옛 말투 유무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①ㄴ의 종결어미 ‘-니라’는 옛 말투이므로 일단은 예스러움이 유지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15세기 국어에서는 한 문장의 길이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길었으므로,¹⁵⁾ 그 점을 생각하면 문장이 짧아질수록 옛말의 특성에서 멀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문장 차원의 개정 사유가 문체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경우에는 문장을 끊어야 하겠으나, 그것이 문체에 영

14) 어휘 차원의 변화는 <표 3>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컨대 『개역한글』 ‘고하되’는 ‘고하기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아뢰되’로 가장 많이 바뀌었고(삼하 9:3 등), 그 밖에 ‘말하되’(왕상 18:43 등), ‘아뢰어’(수 10:12) 등으로 바뀌었다.

15) “중세국어에서 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單文은 주로 夾注에만 쓰였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없으며 重文과 複文이 서로 뒤얹힌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 안병희, 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1990), 330-331.

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2. 인용 구문 이외의 ‘-(으)되’

인용 구문 이외의 ‘-(으)되’가 겪은 변화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옛 말투가 약화된 것(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뀜, 어미 전체가 사라짐), 두 번째는 옛 말투가 유지된 것(다른 옛 말투 어미로 바뀜), 세 번째는 옛 말투가 강화된 것(새로 나타난 것 등)이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 중에서 다른 어미로 바뀐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② ㄱ.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개역한글』, 마 19:26)
 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개역개정』, 마 19:26)
- ③ ㄱ. 여호와와 말씀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개역한글』, 암 8:12)
 ㄴ. 여호와와 말씀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개역개정』, 암 8:12)

예문 ②와 ③은 ‘-(으)되’가 예스럽지 않은 연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②처럼 어미만 바뀌기도 하고 ③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기도 하였다. ‘-(으)되’는 ‘-(으)나’ 또는 ‘-(으)니’(수 19:49 등)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아/어’(욥 4:5 등)나 ‘-는데도’(합 1:13), ‘-다가’(레 14:22)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 중에서 어휘 전체가 사라진 사례도 있다.

- ④ ㄱ. 오호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개역한글』, 전 4:1)
 ㄴ.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개역개정』, 전 4:1)
- ⑤ ㄱ. 또 여호와와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와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개역한글』, 왕하 16:14)
 ㄴ. 또 여호와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와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개역개정』, 왕하 16:14)

예문 ④ㄱ의 ‘홀리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으나 문맥상 첨가했던 말이었고, ⑤ㄱ의 ‘옴기되’는 두 번 번역된 말이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면서 어미 ‘-(으)되’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어휘 차원의 사안이 어미의 적절성 여부보다 더 중요했던 개정 사례로 보이나, 어휘 개정이 어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컨대 ④에서는 옛 말투 종결어미인 ‘-로다’가 새로 나타났으므로 절 전체에서는 예스러움이 유지된 셈이다.

다음은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이다.

- ⑥ ㄱ.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개역한글』, 민 31:28)
 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개역개정』, 민 31:28)

예문 ⑥은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기는 하였으나(앞의 3.1. 예문 ① 및 관련 설명 참조), 여기서는 일단 옛 말투가 유지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 — 전에 없었던 ‘-(으)되’가 새로 생겨난 사례 — 몇몇은 다음과 같다.

- ⑦ ㄱ.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개역한글』, 잠 23:23)
 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개역개정』, 잠 23:23)
 ⑧ ㄱ.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홀히 여기라(『개역한글』, 유 1:23)
 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홀히 여기라(『개역개정』, 유 1:23)

예문 ⑦은 어미만 바뀐 예이고, ⑧은 어휘 전체가 바뀐 예이다. 위의 예문 외에도 ‘-(으)니’가 ‘-로되’로 바뀌는(고전 1:17) 등의 사례가 더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았으나, 문맥에 맞는다면 옛 말투 어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곳에서 옛 말투 어미가 사라지는 일이 많으므로, 이처럼 새로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면 『개역』 계통의 문체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수량 변화가 적은 어미

4장에서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수량 변화가 적은 어미를 살펴보겠다. 수량이 늘어난 어미는 3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이곳에서 다루는 어미는 모두 수량이 줄어든 어미이다. 그러나 줄어든 비율이 10% 이하인 어미들을 여기서 살펴보겠다. 한편, 전체 용례 수가 100개 미만인 것은 변화 비율보다 절대 수량이 적다는 점이 더 중요하므로 그러한 어미들은 5장에서 살펴보겠다. 요컨대, 옛 말투라도 쓰임새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어미들을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속하는 어미는 ‘-거늘/어늘’, ‘-거니와/어니와’, ‘-나니’, ‘-노니’, ‘-(으)느죽’, ‘-(으)르새’, ‘-(으)르지니’, ‘-(으)때’, ‘-(으)사’까지 아홉 종류이다.

각 어미들의 변화 양상은 앞서 3.2.에서 본 것처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옛 말투가 약화된 것(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뀜, 어미 전체가 사라짐), 두 번째는 옛 말투가 유지된 것(다른 옛 말투 어미로 바뀜), 세 번째는 옛 말투가 강화된 것(평범한 어미가 예스러운 어미로 바뀜, 예스러운 어미가 새로 나타남)이다.

4.1. ‘-거늘/어늘’

‘-거늘/어늘’은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388개에서 373개로 약 4%쯤 줄었다. ‘-거늘’만으로는 346개에서 369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그 이형태인 ‘-어늘’은 대부분 ‘-거늘’로 바뀌면서¹⁶⁾ 42개에서 3개로 줄었으므로, 이형태를 아우른 전체 수량은 줄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 또는 유지로만 나타난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찾지 못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⑨ ㄱ.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개역한글』, 욥 10:8)
 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개역개정』, 욥 10:8)
- ⑩ ㄱ.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개역한글』, 사 51:12)

16) 다르게 바뀐 경우도 있다. 연결어미 ‘-(으)며’(호 9:8)로 바뀌기도 하고, 종결어미로 바뀌어 문장이 끝나기도 했다(욥 6:14).

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 (『개역개정』, 사 51:12)

예문 ⑨는 예스럽지 않은 연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위에 보인 것 외에도 ‘-(으)며’(삿 5:17), ‘-(으)면서’(수 9:22), ‘-거든’(렘 49:12)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⑩은 어미 전체가 사라진 사례이다.

한편,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⑪ ㄱ.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므로 양식이 짧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개역한글』, 잠 13:23)

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짧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개역개정』, 잠 13:23)

⑫ ㄱ.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어늘(『개역한글』, 욥 6:14)

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개역개정』, 욥 6:14)

위의 ⑪은 옛 말투 연결어미로, ⑫는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⑪과 같은 사례는 『개역』 계통 역본의 고풍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문맥에 맞는 더 좋은 연결어미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개역』의 문체를 계승하는 개정 작업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 ‘-거니와/어니와’

‘-거니와/어니와’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273개에서 268개로 미미하게 줄었다. ‘-거니와’만 보면 253개에서 267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그 이형태인 ‘-어니와’는 대부분 ‘-거니와’로 바뀌면서¹⁷⁾ 19개에서 1개로 사라졌으므로, 이형태를 아우른 전체 수량은 조금 줄었다.

전체 수량의 변화는 미미하나 변화 양상은 다양하다. 옛 말투의 약화, 유지, 강화로 보이는 사례가 모두 보인다. 각각의 변화 수량은 적지 않았으나, 줄어든 수량과 늘어난 수량이 비슷한 까닭에 전체 수량은 예전과 비슷하게 되었다.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 종결어미 ‘-느니라’로 바뀌어 문장이 끝나기도 했다(속 8:10).

- ⑬ ㄱ.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넉쳤거니와(『개역한글』, 시 78:20)
 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넉쳤으나(『개역개정』, 시 78:20)
- ⑭ ㄱ.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개역한글』, 렘 42:2)
 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개역개정』, 렘 42:2)

예스럽지 않은 어미 중에서는 ⑬처럼 ‘-(으)나’로 바뀐 것이 가장 많았으며, ‘-지만’(전 2:14 등)으로 바뀐 것도 있었다. ⑭처럼 연결어미 전체가 사라진 사례에는 어휘 또는 문장 차원의 중요한 개정 사유가 있었겠으나, 그 결과 문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편,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 몇몇은 다음과 같다.

- ⑮ ㄱ.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개역한글』, 삼상 26:10)
 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개역개정』, 삼상 26:10)
- ⑯ ㄱ.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개역한글』, 잠 12:1)
 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개역개정』, 잠 12:1)

예문 ⑮는 ‘-거니와’가 ‘-노니’로, 예문 ⑯는 ‘-나니’가 ‘-거니와’로 바뀐 사례이다. ⑮에서는 앞쪽 구절이 상당히 달라졌으나 예스러운 다른 어미를 써서 『개역』 계통의 문체를 유지하였다. ⑯에서는 어간은 그대로 두고 어미만 바뀌었다. 문맥상 ‘-거니와’가 더 알맞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¹⁸⁾ 그 밖에 앞서 4.1.에서 보았듯 ‘-거늘’이 ‘-거니와’로 바뀐 것 또한 예스러운 어미들 안에서 서로 바뀐 사례에 속한다.

끝으로,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8) ‘-노니’, ‘-나니’와 ‘-거니와’가 서로 바뀐 사례는 위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17개에 이른다. 거니와→노니: 삼상 20:21; 26:10, 16; 28:10; 29:6, 삼하 2:27; 렘 38:16. 거니와→나니: 사 31:1. 나니→거니와: 느 5:10; 잠 12:1, 3; 13:12. 노니→거니와: 겔 20:3; 행 20:26; 고전 11:18; 고후 5:11; 계 2:9.

- ⑰ ㄱ.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대로 할찌라(『개역한글』, 왕상 13:23)
 ㄴ.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개역개정』, 왕상 13:23)
- ⑱ ㄱ. 여호와와 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처 넘어지리라(『개역한글』, 호 14:9)
 ㄴ. 여호와와 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개역개정』, 호 14:9)

예문 ⑰은 평범한 ‘-고’가 예스러운 ‘-거니와’로 바뀐 사례이다. 예문 ⑱에서는 끊어져 있던 문장을 이으면서 ‘-거니와’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옛 말투 연결어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¹⁹⁾

4.3. ‘-나니’

‘-나니’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1,032개에서 990개로 약 4% 쪼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⑲ ㄱ.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
 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개역한글』, 전 4:8)
 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
 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개역개정』, 전 4:8)

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뀐 사례 중에는 ‘-(으)니’(욥 5:7 등)로 바뀐 것이 가장 많았으나, ‘-지만’(전 2:26), ‘-아/어’(사 45:4), ‘-(으)며’(고후 5:18)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 중에서 ‘-거니와’와 서로 바뀐 예는 앞서 ⑬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종결어미로 바뀐 예문 일부만 보인다.

- ⑳ ㄱ.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
 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개역한글』, 사 28:20)

19) ‘-거니와’의 변화가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는 것은, 개정에 참여한 이들이 이 어미의 기능을 친숙하게 여겨 적극 활용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거니와’의 뜻풀이에 옛 말투라는 표현이 없다.

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개역개정』, 사 28:20)

다른 옛 말투 연결어미와 비교하여, ‘-나니’는 특별히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가 많았다. 위의 ㉑처럼 ‘-느니라’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도다’(겔 7:6)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㉑ ㄱ.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개역한글』, 시 77:2)
 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개역개정』, 시 77:2)
- ㉒ ㄱ.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개역한글』, 렘 20:16)
 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종을 뵈하였나니(『개역개정』, 렘 20:16)

㉑에서는 평범한 어미 ‘-(으)며’가 예스러운 어미로 바뀌었고, ㉒에서는 어휘가 새로 첨가되면서 ‘-나니’가 함께 생겨났다. 그 밖에 ‘-(으)니’가 ‘-나니’로 바뀐 사례가 있었다(신 22:7; 요 13:16 등).

4.4. ‘-노니’

‘-노니’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606개에서 591개로 약 2% 남짓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㉓ ㄱ.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개역한글』, 수 8:1)
 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개역개정』, 수 8:1)
- ㉔ ㄱ.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개역한글』, 행 20:35)
 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개역개정』, 행 20:35)

예스럽지 않은 연결어미로는 ‘-(으)니’로 바뀐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위의 ㉔처럼 옛 말투 연결어미가 사라지고 다른 표현으로 바뀐 것도 옛 말투의 약화 사례에 속한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㉕ ㄱ. 십 사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개역한글』, 갈 2:1)
 ㄴ.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개역개정』, 갈 2:1)
- ㉖ ㄱ.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개역한글』, 몬 1:9)
 ㄴ.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개역개정』, 몬 1:9)

㉕는 연결어미 ‘-나니’로 바뀐 사례이며, 그 밖에 ‘-거니와’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각주 18번 참조).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따르면 ‘-노니’는 ‘-나니’보다 엄숙한 말투로 쓰이므로,²⁰⁾ ‘-나니’로 바뀐 것을 덜 엄숙하게 되었다고 본다면 옛 말투의 약화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한편 ㉖은 옛 말투 종결어미 ‘-노라’로 바뀐 사례이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㉗ ㄱ.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개역한글』, 암 9:8)
 ㄴ. 보라 주 여호와와 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개역개정』, 암 9:8)
- ㉘ ㄱ.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개역한글』, 롬 14:14)
 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개역개정』, 롬 14:14)

위의 ㉗은 평범한 연결어미 ‘-아/어’가 옛 말투 ‘-노니’로 바뀐 사례이다. ㉘는 연결어미가 없었던 구조에서 ‘-노니’가 새로 생긴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드문 편이나, 옛 말투 연결어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20) 15세기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이나 화자일 때(‘의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함) 선어말어미 ‘-오’가 붙었다. 따라서 ‘-노니’와 ‘-나니’는 원래 문법 기능이 서로 달랐다.

4.5. ‘-(으)ㄴ 즉’

‘-(으)ㄴ 즉’은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876개에서 819개로 약 6% 남짓 줄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가 약화된 것이 대부분이며 옛 말투의 유지나 강화에 속하는 것은 드물게 보인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㉞ ㄱ.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개역한글』, 겔 47:7)
 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개역개정』, 겔 47:7)

‘-(으)ㄴ 즉’은 위의 ㉞처럼 ‘-(으)니’로 바뀌거나 ‘-(으)면’(롬 2:25 등)으로 바뀐 사례가 많았으며, ‘-아/어’(슥 8:3), ‘-(으)므로’(삿 6:32)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옛 말투의 유지 및 강화에 속하는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㉟ ㄱ.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은즉(『개역한글』, 슥 9:3)
 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개역개정』, 슥 9:3)
 ㊱ ㄱ.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개역한글』, 삼하 7:22)
 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개역개정』, 삼하 7:22)
 ㊲ ㄱ.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개역한글』, 욥 37:21)
 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아지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개역개정』, 욥 37:21)

㉟은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뀌어 예스러움을 유지한 사례이다. 다른 종결어미인 ‘-느니라’로 바뀐 사례(신 26:18)도 있었다. ㊱은 평범한 어미 ‘-(으)므로’에서 예스러운 어미 ‘-(으)ㄴ 즉’으로 바뀐 사례이고, ㊲는 단어 전체가 새로 생긴 사례이다. 다만 이처럼 새로 생겨난 사례는 접속부사처럼 쓰이는 ‘그런즉’뿐이었으므로, 연결어미보다는 거의 어휘화한 ‘그런즉’²¹⁾에 국

2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런즉’은 ‘그러한즉’이 줄어든 말로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면’ 같은 정식 단어는 아니지만, 사전의 한 항목으로 올라 있는 상태이다.

한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4.6. ‘-(으)ㄴ새’

‘-(으)ㄴ새’는²²⁾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126개에서 122개로 3% 쪼 줄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 및 유지에 속하는 것만 보이며, 강화에 속하는 것은 찾지 못했다. 이 어미는 4장에서 다루는 연결어미 중에서는 가장 적게 쓰였다.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 ㉓ ㄱ. 다메섹에서 아레다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개역한글』, 고후 11:32)
 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
 으나(『개역개정』, 고후 11:32)
- ㉔ ㄱ. 그 후 삼년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와 함께 십 오일을 유할새(『개역한글』, 갈 1:18)
 ㄴ.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개역개정』, 갈 1:18)
- ㉕ ㄱ. 선지자 예레미야가 …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
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 같이 하옵소서(『개역
한글』, 렘 28:5-6)
 ㄴ. 선지자 예레미야가 …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
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
옵소서(『개역개정』, 렘 28:5-6)

예문 ㉓과 ㉔는 앞서 다루었던 옛 말투 약화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 한편, 예문 ㉕는 옛 말투 종결어미 ‘-니라’로 바뀌었는데, 바로 다음 문장의 가까운 곳에 ‘말하니라’가 또 나와서 동어 반복처럼 되었다. 동어 반복을 피한다면 더 매끄러울 것이다.

4.7. ‘-(으)ㄴ지니’

‘-(으)ㄴ지니’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316개에서 308개로 미미하게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2) 이 어미는 원래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의존명사 ‘스’, 특이처격조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전제나 원인을 가리키는 기능은 처격(처소부사격)과 관련된다.

㉞ ㄱ.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찌니 정하려니와
(『개역한글』, 레 23:37)

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
니와(『개역개정』, 레 23:37)

예문 ㉞에서는 ‘-(으)르지니’가 평범한 연결어미 ‘-아서’로 바뀌었다. 또한 어미는 아니지만 현대식 표현인 ‘-(으)르 것이요’(계 11:5) 등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고, 명령형 종결어미 ‘-라’(수 18:6 등)로 바뀐 사례도 몇몇 있었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㉟ ㄱ. 그들이 …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찌니(『개역한글』, 레 25:45)

ㄴ. 그들이 …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개역개정』, 레 25:45)

예문 ㉟은 옛 말투 종결어미 ‘-(으)르지니라’로 바뀐 사례이다. 그 밖에, 어미는 아니지만 옛 말투를 포함한 ‘-(으)르 것이니라’(민 29:16 등)로 바뀐 사례가 있었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 몇몇은 다음과 같다.

㊱ ㄱ.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개역한글』, 막 10:43)

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개역개정』, 막 10:43)

㊱ ㄱ.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
집가고자 함이니(『개역한글』, 딤펢 5:11)

ㄴ.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개역개정』, 딤펢 5:11)

예문 ㊱은 평범한 연결어미 ‘-(으)니’가 ‘-(으)르지니’로 바뀐 사례이다. 예문 ㊱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연결어미로 바꾸면서 ‘-(으)르지니’가 나타난 사례이다.

‘-(으)르지니’는 옛 말투의 약화로 볼 만한 사례가 적었고, 다른 어미로 바뀌더라도 옛 말투를 유지한 사례가 많았다. 명령에 가까울 만큼 강한 당위를 뜻하는 이 어미의 특성을, 개정에 참여한 이들이 중요하게 다룬 결과로 보인다.

4.8. ‘-(으)매’

‘-(으)매’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1,616개에서 1,578개로 약 2% 남짓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④① ㄱ. 저희가 …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개역한글』, 눅 24:41-43)
ㄴ. 그들이 …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개역개정』, 눅 24:41-43)
- ④① ㄱ.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개역한글』, 요 8:46)
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개역개정』, 요 8:46)

예문 ④①, ④①은 다른 연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으)매’는 ‘-(으)니’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④①에서는 한 문장 안에 ‘-(으)니’가 두 번 나오게 되었다. 동어반복을 피해서 다양한 어미를 겹치지 않게 쓴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아래 5.4. 참조). 그 밖에, ‘-(으)므로’(왕상 4:24), ‘-고’(속 2:3), ‘-아/어’(시 107:17) 등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으며, 어미는 아니지만 다른 현대식 표현인 ‘-르 때에’(고전 10:27)로 바뀌기도 하였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④② ㄱ.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개역한글』, 렘 52:3)
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개역개정』, 렘 52:3)

위의 ④②는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끝으로,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④③ ㄱ.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개역한글』, 대상 7:23)
ㄴ.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개역개정』, 대상 7:23)

예문 ④③은 ‘-(으)매’로 바뀐 결과 ‘-(으)니’가 가까운 곳에 반복되었던 어

색함이 개선된 사례이다. 옛 말투 어미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문장이 단조로워지거나 동어 반복 표현이 생기기 쉬워진다. 적절한 곳에서는 옛 말투 어미를 새로 넣음으로써 더욱 매끄러운 표현으로 다듬을 수 있겠다.

4.9. ‘-(으)사’

‘-(으)사’는 본래 선어말어미 ‘-(으)시-’와 연결어미 ‘-아/어’가 결합한 것이다. 구성 요소 각각은 현대어에도 널리 쓰이는 것이나, 그것이 결합한 결과는 예스러운 느낌을 지닌다.

『개역한글』에서는 예스러운 결합형인 ‘-(으)사’만이 쓰였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현대어에 가까운 ‘-(으)시어’가 새롭게 11회 나타났다. 이것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²³⁾

‘-(으)사’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912개에서 867개로 5% 가까이 줄었다. 옛 말투의 약화 및 유지로 보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④④ ㄱ.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개역한글』, 신 10:18)
 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개역개정』, 신 10:18)
- ④⑤ ㄱ.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개역한글』, 시 80:14)
 ㄴ.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개역개정』, 시 80:14)

④④는 옛 말투의 약화 사례이다. 예스럽지 않은 어미로는 ‘-(으)시’가 빠진 ‘-아/어’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으)시고’(시 31:7), ‘-(으)시니’(삿 6:8), ‘-(으)시어’(창 28:20)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으)사’가 사라진 문장은 구조 전반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④⑤는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뀌어 예스러움이 유지된 사례이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④⑥ ㄱ.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23) ‘-(으)시어’도 조금 예스러운 느낌이 없지는 않다. 현대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형태는 ‘-(으)셔서’이다.

(『개역한글』, 삼상 1:11)

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
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을 주시면(『개역개정』, 삼상 1:11)

예문 ④6은 ‘-시고’가 ‘-사’로 바뀐 부분과 ‘-사’가 ‘-시고’로 바뀐 부분이 함
께 들어 있는 문장이다. 『개역한글』에서 ‘돌아보시고’와 ‘생각하시고’가 가
까워서 동어 반복처럼 보이던 구조가 더 자연스럽게 되었다. 절 전체로 보면
옛 말투의 강화와 약화가 모두 나타났으므로 예스러움을 유지한 셈이다.

5. 수량이 적거나 대폭 줄어든 어미

5장에서는 총 수량이 100개 미만이거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
에서 수량이 대폭 줄어든 어미를 살펴보겠다. 요컨대, 쓰이는 범위가 좁아
보이는 어미들을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속하는 어미는 ‘-관대’, ‘-러
니’, ‘-어든’, ‘-(으)ㄴ대’, ‘-(으)ㄴ지나’, ‘-(으)ㄴ진대’까지 여섯 종류이다.

5.1. ‘-관대’

‘-관대’는 『개역한글』에서 34회 쓰였으나 『개역개정』에서는 완전히 없
어졌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에 속하는 것만 나타나며, 옛 말투의 유
지나 강화에 속하는 것은 없었다. 옛 말투의 약화를 보여 주는 개정 사례 몇
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④7 ㄱ.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
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개역한글』, 시 8:4)

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
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개역개정』, 시 8:4)

④8 ㄱ.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
게 떡을 주겠느냐(『개역한글』, 사 8:6)

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나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개역개정』, 사 8:6)

④9 ㄱ.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개역한글』, 욥 15:14)

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개역개정』, 욥 15:14)

‘-관대’는 예문 ④7과 같이 대부분 ‘-기에’로 바뀌었다. 그 밖에 예문 ④8와 같이 예스럽지 않은 종결어미 ‘-냐’로 바뀌기도 하였고, 예문 ④9와 같이 다른 어휘로 바뀌기도 하였다.

지금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예스러운 어미의 표준형으로 ‘-관대’만이 올라가 있고, ‘-관대’는 사라진 옛말로써 『우리말샘』에만 들어있다. 원래 ‘-관대’와 ‘-관대’는 별개의 어미가 아니며 15세기의 ‘-관딤’에서 이어진 것이다. 현대 사전의 처리를 따른다면 표기만 ‘-관대’로 고칠 수도 있었겠으나,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²⁴⁾

5.2. ‘-러니’

‘-러니’는 『개역한글』에서 5회 쓰였으나 『개역개정』에서는 1회만 남게 되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와 유지에 속하는 것이 보인다. 먼저, 옛 말투의 약화에 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㉞ ㄱ.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개역한글』, 민 26:9)
- ㄴ.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개역개정』, 민 26:9)
- ㉟ ㄱ. 시온의 아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고(『개역한글』, 애 4:2)
- 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이 어찌 그리 …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고(『개역개정』, 애 4:2)

예문 ㉞은 ‘-(으)니’로 바뀐 사례이고, 예문 ㉟은 연결어미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바뀐 사례이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표현인 ‘-러(더)-’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²⁵⁾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24)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 계획’의 문어(文語) 말뭉치에서는 ‘-관대’가 15회, ‘-관대’가 5회 나타난다. 표준형으로 사전에 오른 ‘-관대’가 독자들에게 오히려 더 낯설거나 어색하다면 『개역개정』에 쓰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 25) ‘회상’ 기능이 있는 ‘-러니’를 ‘-(으)니’로 고친 경우, 의미 면에서 ‘회상’ 기능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문체 면에서는 예스럽던 어미가 보통의 어미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의미와 문체가 동시에 바뀌는 변화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문체에 집중하여 연결어미의 예스러움이 약화되었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선어말어미로 분석되었던 ‘-러(<더)-’의 문제이다.

- ⑤2 ㄱ.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개역한글』, 삼하 1:23)
 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개역개정』, 삼하 1:23)

예문 ⑤2는 『개역개정』에서 ‘-러니’가 쓰인 유일한 예이다. ‘-러니’는 본래 ‘-더니’의 이형태이므로,²⁶⁾ 이곳 또한 ‘-더니’로 바꿀 수 있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서 ‘-러니’가 ‘-더니’로 바뀐 사례는 전혀 없었다.

5.3. ‘-어든’

‘-어든’은 15세기 국어에서 ‘-거든’의 이형태였다. 그러나 현대 사전의 ‘-거든’ 뜻풀이에는 옛 말투라는 설명이 없으며, 오늘날의 ‘-거든’은 새로운 용법(자랑하는 느낌의 종결어미)이 생길 만큼 널리 쓰이는 어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거든’을 옛 말투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든’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어든’은 『개역한글』에서 9회 쓰였으나 『개역개정』에서는 5회만 남게 되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와 유지에 속하는 것이 보인다. 먼저, 옛 말투의 약화에 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⑤3 ㄱ.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어든 여호와와 친히 별하시옵소서(『개역한글』, 수 22:23)
 ㄴ.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와 친히 별하시옵소서(『개역개정』, 수 22:23)
 ⑤4 ㄱ.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개역한글』, 눅 23:37)
 ㄴ.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개역개정』, 눅 23:37)

예문 ⑤3은 ‘-거든’으로 바뀐 사례이고, 예문 ⑤4는 ‘-면’으로 바뀐 사례이다. ‘-어든’을 ‘-거든’으로 고친 ⑤3은 기원이 닿는 표현으로 개정된 것이므

26) 15세기 국어에서는 서술격조사 ‘이-’, 선어말어미 ‘-(으)리-’ 뒤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 있었다. ‘-더니’가 ‘-러니’로 바뀐 것도 그러한 예이다. ‘-(으)러니’는 기원상 ‘-(으)리러니’에서 온 것이다.

로, 옛 말투의 단순 소멸로만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⑤4는 옛 말투 ‘-어든’이 명실공히 사라진 사례이다.

옛 말투의 유지에 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⑤3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개역한글』=『개역개정』, 눅 4:9)

예문 ⑤3는 ‘-어든’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이다. 『개역개정』에서 ‘-어든’이 쓰인 곳은 모두 ‘아들이어든’이었다. 국어의 음운 및 문법 면에서는 앞의 ⑤3, ⑤4와 그리 다를 바가 없다. ‘아들이어든’을 특별히 그대로 둔 까닭은 국어 방면 외의 문제로 보인다.

5.4. ‘-(으)ㄴ대’

‘-(으)ㄴ대’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95개에서 39개로 59% 가까이 줄어들었다. 10개 미만의 극소수 어미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하게 줄어든 어미이다. 그 결과 『개역개정』에서는 ‘-(으)ㄴ진대’와 순위가 바뀌어 그보다 더 적게 나타난 어미가 되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 유지, 강화에 가까운 것이 모두 보인다. 먼저 옛 말투의 약화 및 유지에 속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⑤6 ㄱ.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개역한글』, 눅 8:32)
 ㄴ.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개역개정』, 눅 8:32)
- ⑤7 ㄱ.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개역한글』, 출 14:21)
 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개역개정』, 출 14:21)

예문 ⑤6에 보인 것처럼, ‘-(으)ㄴ대’는 거의 모두 ‘-(으)니’로 바뀌었다.²⁷⁾ 개정된 부분만 본다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으)니’는 『개역』 계통 역본에서 흔히 쓰이는 어미이므로, 일부 문맥에서는 가까운 곳에 ‘-(으)니’가 또 쓰이는 동어반복이 생길 수도 있다(위 4.8. 참조).²⁸⁾ 원문의

27) ‘-(으)ㄴ대’가 개정된 58개 사례 중에서 57개 사례가 ‘-(으)니’ 및 ‘-더니’(창 17:3)로 바뀌었다.

반영과 이해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 다른 어미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예문 ⑤7은 옛 말투 어미인 ‘-(으)매’로 바뀐 사례이다. 옛 말투 안에서 바뀌었으므로 예스러운 문체가 유지된 사례이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⑤8 ㄱ.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개역한글』, 마 19:20)
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개역개정』, 마 19:20)

예문 ⑤8은 어미 ‘-(으)니’가 ‘-(으)ㄴ대’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마 19:27에도 한 예가 더 있음), 옛 말투 어미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5.5. ‘-(으)ㄴ지나’

‘-(으)ㄴ지나’는 『개역한글』 및 『개역개정』에서 단 1회만 쓰인 연결어미이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

- ⑤9 ㄱ.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개역한글』, 레 2:12)
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개역개정』, 레 2:12)

한글 맞춤법 규정(제53항)을 따라 ‘ㅉ’을 ‘ㅈ’으로 고친 것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개정 참여자들이 보기에 이 어미의 기능이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판단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극소수 어미가 사라지지 않은 독특한 사례이다.

28) ‘-(으)니’는 옛 말투 연결어미를 평범한 연결어미로 바꾼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어미였다. 글쓴이가 찾기로는, ㉠나니→(으)니: 창 27:42; 욥 5:7; 앰 2:8 등 10여 회, ㉡노니→(으)니: 수 8:1; 행 28:20; 고전 4:17 등 6회, ㉢(으)ㄴ대→(으)니: 창 17:3; 마 8:3; 눅 8:32 등 50여 회, ㉣(으)ㄴ즉→(으)니: 창 44:29; 겔 47:7; 롬 5:1 등 10여 회, ㉤(으)매→(으)니: 창 1:3; 숙 1:21; 눅 24:42 등 30여 회의 용례가 있었다.

5.6. ‘-(으)ㄴ진대’

‘-(으)ㄴ진대’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68개에서 61개로 10% 남짓 줄어들었다. 이 어미는 전체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대폭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 결과 『개역개정』에서는 ‘-(으)ㄴ대’와 순위가 바뀌어 그보다 더 많이 나타난 어미가 되었다. 5장에서 다루는 연결어미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인 어미이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가 약화된 것(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뀐 것) 한 가지 뿐이다. 새로 나타나는 등등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㉞ ㄱ.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개역한글』, 렘 33:25)
 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개역개정』, 렘 33:25)
- ㉟ ㄱ.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개역한글』, 대하 18:27)
 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개역개정』, 대하 18:27)
 ㄷ.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개역개정』, 왕상 22:28)

예문 ㉞에서는 ‘-(으)ㄴ진대’가 ‘-다면’으로 바뀌었다.²⁹⁾ ‘-(으)ㄴ진대’는 주로 앞 절의 일을 인정하는 맥락에 쓰이는 반면 ‘-다면’은 주로 사실성이 약한 가정에 쓰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비록 예스러움이 약화되더라도 고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예문 ㉟은 거의 같은 구문의 개정 결과가 서로 다른 사례이다. 역대하 18:27에서는 ‘될진대’가 ‘된다면’으로 바뀌었으나, 열왕기상 22:28에서는 그대로 남았다. 연결어미의 일관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이다.

『개역개정』에서 ‘-(으)ㄴ진대’가 늘어난 사례는 없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따르면 ‘-(으)ㄴ진대’는 예스러운 뿐만 아니라 장중한 어감

29) ‘-(으)ㄴ진대’ 대부분은 ‘-다면/라면’으로 바뀌었으나, ‘-려면’(마 8:31)으로 바뀌기도 하고 ‘-르지라도’(욥 17:14)로 바뀌기도 하였다.

을 띤다. 전체 수량이 적은 편이라도 독특한 어감이 있기에 고유의 가치가 있다. 앞 절의 내용이 강한 사실성을 지니면서 장중한 느낌이 어울리는 곳이라면³⁰⁾ 평범한 ‘-(으)면’ 대신 ‘-(으)르진대’가 더욱 어울릴 수도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개역한글』이 『개역개정』으로 개정되면서, 옛 말투 연결어미의 종류는 16가지에서 15가지로 전보다 줄어들었다. 전체 수량은 단순히 계산하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가라사대→이르시되’의 변화를 제외하면 사실상 줄어들었다. 연결어미에 관한 한, 『개역』 계통 역본의 예스러운 문체는 조금 약화된 셈이다.

물론 여러 연결어미들이 개정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평범한 연결어미가 옛 말투 연결어미로 바뀜으로써 예스러운 표현이 늘어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적은 편이다.

옛 말투 어미의 쓰임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둔다면, 적재적소의 문맥에서는 그러한 어미를 써 주는 것이 『개역』 계통의 문체를 잘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옛 말투 어미가 지닌 장중하고 근엄한 분위기는, 하나님의 주권, 영광, 위엄 등을 표현하는 데에 더욱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연결어미가 줄었다는 것은 동어반복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현대 구어체 느낌이 짙은 어미는 기존 문체와 어긋나기에 쉽사리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스러운 어미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수가 줄어든다면, 문장 속에 쓰이는 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어려워진다. 자칫하면 어색하거나 단조로운 문장이 될 수도 있다.³¹⁾

물론 『개역』 계통의 성경이 국어사(國語史) 자료의 박물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옛 말투를 무조건 그대로 보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옛 말투가 젊은 세대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스러운 말이 모두 사어(死語)가 아니라면, 어떤 표현을 계

30) 국어에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이 여럿 있으며, 그 기능은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 ‘-(으)면’, ‘-거든’과 함께 예스럽거나 특수한 어미 ‘-(으)르진대’, ‘-던들’까지 비교한 연구로는 윤평현,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 1989), 12-35 참조.

31) 예전의 개정 결과가 국어 면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바 있다.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승하고 어떤 표현을 고칠 것인지 일관성과 타당성 있는 판단 위에서 질서 있게 조정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개역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역』 계통의 역본에 들어있는 옛 말투 연결어미는 지금까지 그리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다. 연결어미를 비롯하여 고풍스러운 문체와 관련된 여러 방면의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국역 성경, 의고체, 고어, 활용어미, 문체.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archaism, archaic, conjugation ending, style.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전3권,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고영근,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서울: 집문당, 2020.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 민영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안병희, 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1990.
- 윤평현,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1989.
- 이기문,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1998.
- 전무용, “『개역개정』 성경 개정을 위한 문체 논의”, 『성경원문연구』 50 (2022), 202-233.

<Abstract>

Changes in Archaic Connective Endings in the Korean Revised Version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eonggyu Choi

(GyeongseongKeunsajeon Committee)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hanges of archaic connective endings between the KRV (Korean Revised Version) and NKRV (New Korean Revised Version) for the entire text of the KRV and NKRV (from Genesis to Revelation).

As the KRV was revised to the NKRV, the kinds of archaic connective endings decreased from 16 to 15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The 16 connecting endings are ‘-geoneul(거늘)’, ‘-geoniwa(거니와)’, ‘-gwande(관데)/gwandae(관대)’, ‘-nani(나니)’, ‘-noni(노니)’, ‘-reoni(러니)’, ‘-eodeun(어든)’, ‘-ndae(ㄴ대)’, ‘-njeuk(ㄴ죽)’, ‘-doe(되)’, ‘-lsae(르새)’, ‘-ljina(르지나)’, ‘-ljini(르지니)’, ‘-ljindae(르진대)’, ‘-mae(매)’, and ‘-sa(사)’. Among them, ‘-gwande/gwandae’ disappeared from NKRV.

The total quantity seems to have increased by simple calculation, but it has actually decreased except for the change of ‘garasadae(가라사대) → ireusido(이르시되)’. In some details, there was also some examples changed to archaic expressions from ordinary expressions, but the quantity of such examples are small. Overall, as far as the connective ending is concerned, the antique style of the translation of the KRV filiation has slightly weakened.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the use of archaic conjugation endings, using such endings in the right context is also a way to make good use of the style of KRV filiation. The stately and solemn atmosphere of the archaic conjugation ending may be better suited to expressing God’s sovereignty, glory, and dignity.

The decrease of connective conjugation endings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of repetition of the same word. In a situation where an ending with a strong modern colloquial feel cannot be easily introduced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 existing style, and if the archaic ending is reduced due to insufficient utilization, it can makes awkward or monotonous sentences.

Of course, not all archaic expression are necessarily preserved and translators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that many archaic expressions feel

difficult to the younger generation. However, if not all of the archaic words are dead,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djust the expressions in an orderly manner based on consistent and appropriate judgment on which expressions to inherit as it is and revise as necessary.

Currently, the Korean Bible Society is working on revising the NKRV. The archaic connective endings in the translation of the KRV filiatio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If the review of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archaic style, including the connective ending, is faithfully conducted, better results can be achieved.

성경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글 맞춤법 교육 효과 - 두음법칙을 중심으로 -

이안용*

1. 서론

2024년 7월 14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정착, 역량 강화, 화합을 통한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에 심리적, 정신적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다.¹⁾ 또한 남북한의 이질성을 느끼는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의 98%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언어 문제와 결부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40.7%가 말씨로 인해 차별,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 실질적인 소통에서 발음, 억양, 어휘의 차이는 물론 어문규범의 차이와 말투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립국어원과 하나센터, 그리고 지역 유관 기관이 연계하여 전문적인 강사를 중심으로 발음과 억양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³⁾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 인하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어교육학 강사. anyong@inha.ac.kr.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4, 5장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1) 임순희, 성민주, 이승엽,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23), 3-5.

2) 박종선 외,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6), 120-130.

3) 조위수 외,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태이며,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⁴⁾ 교육 내용에서도 발음과 억양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 예절교육과 어문규범 교육의 보충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 우인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 교재와 TV 방송에 출연하는 이들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어문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남북한의 어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두음법칙, 외래어, 한자어 등이 있다.⁵⁾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을 위해 한글 맞춤법 항목들을 선정하고 재배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맞춤법에는 많은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안에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단순한 암기보다는 원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학습할 때 효과적이다.⁶⁾ 『한글 맞춤법』⁷⁾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한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의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총칙에서 제시한 ‘형태주의적 원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다른 원리들로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규범집』⁸⁾의 세부 항목들을 세분하여 대조 분석하고 규정적 차이를 나타낸 항목과 어휘적 차이의 항목들을 나누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⁹⁾ 다음으로 문법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요소를 선정하고 위계적으로 구성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¹⁰⁾ 그러나 남북한 맞춤법 원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제언하는 실증적인 연구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구」 4 (2019), 180-183.

4)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연계 방안”, 『현대북한연구』 21 (2018), 108.

5) 우인혜, “북한이탈주민 교재 보완을 위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49 (2018), 129.

6) 구본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2008), 206-208.

7)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맞춤법』 (2017).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 규범집』 (2010).

9)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콘텐츠연구』 36 (2021), 363-372.

10) S. Deng,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량 표현 교육 위계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35; 모홍월, “중국인 학습자를 통해서 본 문화교육의 위계화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 (2020), 147-152.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핵심 내용에 어휘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에게 낮설거나 난이도가 높은 두음법칙 규정의 예시어를 친숙하고 쉬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함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다.¹¹⁾

둘째, 교육 내용은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¹²⁾ 이에 남북한어 성경을 대조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며 창의력을 개발하는 두음법칙 교육 활동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¹³⁾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사회 적응과정에서 관계의 욕구에 의해 적응하고 있으며, 이에 종교, 사회단체 소속을 제한한 바 있다.¹⁴⁾ 이에 본고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교회에 방문교육 형태로 남북한어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남북한의 한글 맞춤법 원리

남한의 『한글 맞춤법』 제1장 제1항에서 말을 글로 적는 두 가지 원리는 크게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이 두 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2010)의 총칙에는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것”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그리고 “관습에 따라 허용하는 것”의 세 가지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소리대로 적는다”는 북한의 “소리 나는

11)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8 (2011), 371-372; 신명선 외,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집필 지침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0), 12-17.

12)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층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국어교육연구』 76 (2021), 118; 구본관, 신명선,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2011), 270-271.

13) 박덕유, 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5 (2019), 195-196.

14) 박이석,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25 (2015), 15-17; 김혜윤, 한정범,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과정 기초 설계를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118 (2019), 184-186.

대로 적는다”와 같으며, 남한의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는 규정을 북한에서는 “단어의 뜻을 가진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남한 『한글 맞춤법』(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 『조선말 규범집』(2010 총칙): 조선말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총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표기법과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 표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단어의 뜻을 가진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표기법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의 두 가지 원리가 북한의 ‘원칙대로’의 원리와 서로 대립적인 차이를 보이는 측면과 일치하는 측면이 나타난다. 구현정 외의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남북한 어문 규범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들로 ‘총칙, 자모의 이름, 모음, 두음법칙, 사이시옷, ㅂ, ㅎ 덧나는 소리, 의문형 어미, 부사형 어미, 띄어쓰기, 표준어와 문화어,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법’으로 조사되었다.¹⁵⁾ 또한 임현열은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규범집』(2010)의 규정을 최소 규정 단위로 나누어 총 106개 세부 항목을 대조 분석하였다.¹⁶⁾ 그 결과 남북한의 규정이 동일한 경우는 64개 항목, 규정은 유사하지만 예시가 다른 경우 14개 항목, 다소 다른 항목은 5개 항목, 남북한의 규정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는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만 있고 남한에는 없는 항목은 18개 항이며 북한에는 없고 남한에만 있는 항목은 13개 항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규정적 차이가 나는 항목은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어휘적 차이가 나는 항목은 ‘ㅂ’, ‘ㅅ’ 소리 덧나기, 우연한 공백으로는 구개음화 등 1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중 두음법칙 항목의 경우,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¹⁷⁾에는 남북한어 모두 단어 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조선어 신철자법』(1948)¹⁸⁾이후부터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15) 구현정 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서울: 국립국어원, 2008), 147.

16)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358-378.

17)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18)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 신철자법』(1948).

2.2.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한글 맞춤법』에는 수많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는 주시경이 논의한 ‘본음(本音)’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잡한 세부 규정들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표기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문법’이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또한 ‘원리’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행위의 규범’으로 인간이 의사소통의 활동을 할 때 언어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문법으로 정의한다.¹⁹⁾ 이러한 정의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해 본다면 문법의 원리가 이들의 언어생활에 적용 가능해야 하며 학습능력이나 수준,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원리도 지식의 일종으로 탐구 학습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원리는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탐구 학습의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원리를 제공할 경우 학생들이 그 원리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규칙들을 보다 쉽게 탐구할 수 있다.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의 예시로 제3장 제11항의 일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1항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룽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射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真理)

두음법칙 ‘제11항’에 따라 남한어의 표준말에서는 ‘ㄱ, ㅋ, ㆁ, ㆅ, ㄷ, ㅌ’ 앞에 ‘ㄹ’이 올 수 없다. 이에 ‘량심’의 ‘ㄹ’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없다. 이

19) 구본관, 신명선,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270-271.

에 ‘良心’의 표기와 발음은 ‘량심’이지만, ‘어법에 맞도록’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양심’으로 표기하며 발음 역시 ‘ㅇ’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북한어의 경우 『조선말 규범집』(2010) ‘제25항’에서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발음 역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良心’의 ‘좋을 량’을 한자음 그대로 표기한다면 ‘량심’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어와 달리 ‘ㄹ’ 발음이 된다.

한편, ‘제10항 붙임1’과 ‘제11항 붙임1’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의 원칙은 ‘소리대로’가 잘 드러난 항목이다. ‘남녀(男女)’의 ‘녀’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본래 형태의 ‘녀’로 남아 실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적는다. 이는 북한어의 ‘한자말은 한자음대로 적는다’는 원칙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항목은 북한이탈주민의 말과 일치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가 대립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동일하게 일치를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차이와 같음의 원리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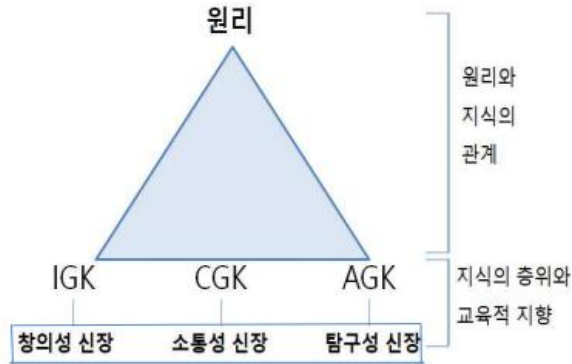
지식의 진화 과정에서 지식의 획득, 저장, 산출, 그리고 평가에 메타 지식이 개입하면서 지식활동의 모든 순간을 모니터링하며 이런 순환과 진화 과정의 반복에 의해서 축적된다.²⁰⁾ 개인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지식인 암묵지(compiled knowledge)와 새로 알게 된 명시지(articulated knowledge)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의 개념을 생성하고 이를 모델링화(modelling knowledge)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지식은 암묵지화 된다.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형태로 이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 내에 존재하는 지식과 상충하여 새로운 모형의 지식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지식의 층위를 개인적 문법 지식(Individual Grammatical Knowledge), 일반적 문법 지식(Common Grammatical Knowledge), 추상적 문법 지식(Abstract Grammatical Knowledge)으로 나누어 세 층위의 문법 지식들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의 구도를 설계하고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다.²¹⁾ 개인적 문법 지식(IGK)은 교육의 시작점이며, 일반적인 문법 지식(CGK)이 개인적 문법 지식(IGK)과 추상적 문법 지식(AGK)의 매개체가 되어 개인적 문법 지식(IGK) 성찰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추상적 문법 지식(AGK)은 언어 공동체의 논리적 실체로 지향하면서 탐구와 성찰의 과정을 거쳐 다시

20) 김흥기, “지식경영에 있어서 지식의 표현과 메타지식의 역할”, 『산업공학』 13 (2000), 10-16.

21)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층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117-125.

개인적 문법 지식(IGK)으로 도착하는 원리 중심 문법 교육 구도를 명료화하고 있다. 이에 구본관, 신명선이 개발한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구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²⁾

<그림 1> 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구도



교육의 시작이 학습자 개인적 문법 지식(IGK)으로 출발하지만 이는 비명시적이며 개별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실행이 어렵다. 이에 명시적으로 학습한 일반적 문법 지식(CGK)이 기준점이 되어 학습자가 이를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언어 공동체의 내재하고 있는 공통의 언어 운용, 구성 원리인 추상적 문법 지식(AGK)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일반성과 객관성을 지닌 일반적 문법 지식(CGK)을 참조하여 학습자의 문법 지식의 한계와 오류를 파악하고 추상적 문법 지식(AGK)을 탐구하여 다시 개인적 문법 지식(IGK)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통해 문법 지식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변환과 순환 과정이 학습자의 창의성, 소통성, 탐구성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남북한어의 맞춤법에 나타난 원리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2.3. 남북한 맞춤법의 위계적 구성

남북한의 맞춤법 항목들을 비교하면 남한에는 없고 북한에만 존재하는 항목과 반대로 구개음화, 사이시옷, 두음법칙 등과 같이 남한에는 있지만

22)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층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118.

북한에는 없는 항목들이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분야 중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신명선 외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은 국어교육용 교재와는 다르다고 논의하며,²³⁾ 임현열은 남북한의 맞춤법 항목들은 규정적, 어휘적 차이가 크기에 교육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재배열이 필요하다고 한다.²⁴⁾ 또한 이안용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 동향에서 국어교육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²⁵⁾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북한어의 대조 분석 가설을 바탕으로 교육용 항목을 선정하고 재배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외국어 교육에서 목표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클수록 학습자의 어려움은 커지며 이에 문법의 난이도에 대한 위계적 구성의 교육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두 언어의 규칙에 대한 대조 분석 가설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라도(R. Lado), 버너시(B. H. Banathy), 트레이거(B. C. Trager), 워들(C. D. Waddle), 클리퍼드 프레이터(C. Prator) 등이 있다.²⁶⁾ 프레이터는 음운과 문법의 난이도 위계를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총 6단계로 제시한다.²⁷⁾ 남북한 맞춤법의 항목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의 난이도 위계에 적용하여 구성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맞춤법의 난이도 위계

단계	구분	내용
0단계	전이 (transfer)	북한어와 남한어의 음운규칙 간의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1단계	융합 (coalescence)	북한어 음운규칙 중 두 항목의 규칙이 남한어에서 한 항목의 규칙으로 합쳐지는 경우
2단계	구별부족	북한어에 있는 규칙인데 남한어 규칙에는

23) 신명선 외,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집필 지침서』, 1.

24)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372.

25) 이안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 27 (2020), 232.

26) R.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51-74; B. H. Banathy, B. C. Trager, and C. D. Waddle,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A. Valdman, 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35-56; C. Prator, *Hierarchy of Difficulty*,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7), 42-63.

27) C. Prator, *Hierarchy of Difficulty*, 42-63; X. Jin, “한국어 교육용 음운규칙 내용 선정 및 위계화 연구: 중국 대학 한국어전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18-20에서 재인용.

단계	구분	내용
	(under differentiation)	없는 경우
3단계	재해석 (reinterpretation)	북한어에 존재하는 항목이 남한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4단계	과잉구별 (over differentiation)	북한어에는 없거나 유사점이 없는 규칙이 남한어에는 있는 경우
5단계	분리 (split)	북한어에서는 하나이던 규칙이 남한어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이 중에서 0단계와 1단계는 남북한의 규정이 거의 일치하며, 규정이 같지만 예시만 다른 경우이다. 또한 2단계의 경우, 남한어에는 없고 북한어에만 있는 규정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글 맞춤법』 내용은 3단계부터 5단계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3단계의 세부 항목으로는 홀자음의 명칭(제4항 본1), 쌍자음의 명칭(제4항 붙임1), 자모의 제시 순서(제4항 붙임2), 모음 ‘-’의 한자어와 고유어의 차이(제9항 본) 등이 있다. 4단계의 세부 항목은 구개음화(제6항), 사이시옷(제30항), 겹쳐나는 소리(제13항 뒤), 연결형의 ‘-이요’, 덧붙이는 조사 ‘요’(제17항), ‘말다’의 활용(제18항 붙임1), ‘ㅂ’ 불규칙 동사 활용(제18항 6 다만), ‘ㅂ’ 소리 덧나는 것(제31항 1), ‘ㅎ’ 소리 덧나는 것(제31항 2), 의문형 어미의 된소리(제53항 다만), 접미사의 된소리(제54항) 그리고 어휘의 차이(제55항~57항) 등이 남한어에는 있으나 북한어에는 없는 항목이다. 마지막 5단계 분리(split)는 북한어에서는 하나이던 규칙이 남한어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로 가장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항목은 두 음법칙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0명, 대조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2021년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 2회, 90분씩 총 9회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조집단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 3회, 90분씩 총 9회기의 수

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면담 내용은 녹음 및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교육 장소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하였으며, 언어적응 교육의 경험이 없는 주부집단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실험집단		대조집단	
내용	분류	빈도	%	빈도	%
성별	여자	9	90%	9	90%
	남자	1	10%	1	10%
재북 출신 지역	함경북도	7	70%	6	60%
	양강도	1	10%	2	20%
	평양	0	0	1	10%
	강원도	2	20%	1	10%
종교	기독교	9	90%	9	90%
	무교	1	10%	1	10%
합계		10	100.0%	10	100.0%
연령		M=42, S.D=12.9, min=20, max=60		M=39, S.D=12.9, min=20, max=50	
거주기간		M=76.7, S.D=52.2, min=7, max=168		M=83, S.D=42.5, min=24, max=159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0%를 차지하였으며,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18명이며 무교가 2명으로 종교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집단의 평균 연령은 42세(S.D=12.9), 대조집단은 평균 39세(S.D=12.9)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남한 거주기간은 7개월에서 최대 169개월(14년)까지로 평균 기간은 76.7개월(S.D=52.2)로 나타났다. 대조집단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59개월이며 평균 83개월(S.D=42.5)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두음법칙 교수·학습 방안 구성

3.2.1. 두음법칙 교육내용 구성

두음법칙은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제5절에 관한 항목으로 ‘제10항(붙임1, 붙임2, 붙임3), 제11항(붙임1, 붙임1 다만,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제12항(붙임1, 붙임2)’이 있다. 반면 『조선말 규범집』(2010)의 발음에 관한 규정 ‘제5항’에서 “<ㄹ>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5항 [추가]’에서 “그러나 한자말에서 <렬, 룰>은 편의상 모음 뒤에서는 [열]과 [울]로,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는 [널], [눌]로 발음한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분렬, 규룰’의 경우 우리의 ‘분열, 규율’과 표기의 차이를 보이지만 발음은 동일하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 세부항목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나타내며, 본고에서는 두음법칙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어문규범에 제시된 어려운 예시어 외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용 어휘를 북한어 문헌에서 추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어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 런대기 성경』(2008)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목회학 박사 1명과 북한이탈주민 출신 안보 교육 강사 4명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용 어휘 목록을 1차 선정하였으며, 국어교육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검증을 한 후 교수학습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표 3> 북한어 문헌의 두음법칙 관련 항목별 어휘

세부 항목	남한어	북한어
제10항	여동생, 여왕, 여인, 여자, 여중, 염려, 여사, 여성, 여선생	녀동생, 녀왕, 녀인, 녀자, 녀중, 녀려, 녀사, 녀성, 녀선생
제10항 [붙임1]	금년, 기념, 남녀, 소녀, 자녀, 손녀, 처녀, 청년, 하녀	금년, 기념, 남녀, 소녀, 자녀, 손녀, 처녀, 청년, 하녀
제10항 [붙임2]	근로여성, 가두여성	근로녀성, 가두녀성
제11항	양식, 영주, 영혼, 영, 예물, 예배, 육로, 육지, 율법, 율법학자, 이유, 이자, 이혼, 양강도, 연상, 연인, 약탈, 양쪽, 여관, 여행, 연못, 영리, 예년, 예복, 예식, 유하다, 유행, 이익	량식, 령주, 령혼, 령, 레물, 레배, 룡로, 룡지, 룰법, 룰법학자, 리유, 리자, 리혼, 량강도, 련상, 련인, 락탈, 량쪽, 러관, 러행, 련못, 령리, 레년, 레복, 레식, 류하다, 류황, 리익

세부 항목	남한어	북한어
	예의법절, 예년, 유학생, 유형	례의법절, 례년, 류학생, 류형
제11항 [붙임1]	관례, 동료, 세리, 십리, 형리, 장례, 차례, 향료, 도리, 명령, 무례, 법률, 성령, 전례, 행렬, 호령, 경련, 궁리, 권력, 규례, 분량, 신량, 치료, 할례, 경례, 능력, 선량, 세례, 시련, 음료, 진리	관례, 동료, 세리, 십리, 형리, 장례, 차례, 향료, 도리, 명령, 무례, 법률, 성령, 전례, 행렬, 호령, 경련, 궁리, 권력, 규례, 분량, 신량, 치료, 할례, 경례, 능력, 선량, 세례, 시련, 음료, 진리
제11항 [붙임1]-다만	분열, 규율	분렬, 규률
제11항 [붙임4]	정결예식, 오색영룡, 기술역량, 현대역사, 건설역사, 사상이론	정결례식, 오색령룡, 기술력량, 현대력사, 건설력사, 사상리론
제12항	낙원, 낙타, 난리, 낭비, 내새, 논쟁, 누명, 내일, 냉수, 노고, 냉동창고, 노동신문	락원, 락타, 란리, 랑비, 래새, 론쟁, 루명, 래일, 랭수, 로고, 랭동창고, 로동신문
제12항 [붙임1]	거래, 기록, 내란, 반란, 본래, 소란, 원로, 희룡, 위로, 촌락, 쾌락, 포로, 향로, 허락	거래, 기록, 내란, 반란, 본래, 소란, 원로, 희룡, 위로, 촌락, 쾌락, 포로, 향로, 허락
제12항 [붙임2]	지상낙원, 여성노동자	지상락원, 녀성로동자

선정된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31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박덕유가 개발한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난이도, 예시의 사용빈도’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²⁸⁾ 항목은 ‘제10항, 붙임1, 붙임2, 제11항, 붙임1, 붙임1-다만, 붙임4, 제12항, 붙임1, 붙임2’의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 수는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문규범 예시 10문항, 북한어 문헌에서 추출한 어휘 10문항으로 총 20문항과 예시의 난이도와 사용빈도는 각각 어문규범 50문항, 북한어 문헌의 어휘 50문항씩으로 총 200문항이다. 두음법칙 예시어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서 어휘의 난이도는 ‘매우 어렵다’부터 ‘매우 쉽다’까지 5점 척도, 사용빈도는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자주 사용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두음법칙 세부 항목의 이해도 조사는 객관식 질문 유형으로 실시하였다.

기초조사의 분석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28)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368-369.

구범의 예시어(M=3.38)보다 북한어 성경에서 출현하는 어휘(M=3.96)를 더 쉽게 인식하였다. T-test 분석 결과, $t=-5.019(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어문구범에 제시된 예시어(M=2.63)보다 북한어 성경에서 출현한 어휘(M=3.28)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T-test 분석 결과, $t=4.242(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세부항목의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 평균 인원은 31명 중에서 15.8명(51%)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남북한 규정에서 차이가 없는 항목은 제12항 불임1(20명), 제11항 불임1(19명), 제10항 불임1(17.5명)으로 정답자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10항(15명), 제11항(17명), 제12항(17명)이며, 그 외 항목들은 제11항 불임4(15.5명), 제10항 불임2(14명), 제12항 불임2(13명), 제11항 불임1 다만(1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법의 난이도와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반영하여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위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세부항목 위계 구성

순서	세부항목	맞춤법 원리
1단계	제10항 불임1, 제11항 불임1, 제12항 불임1	소리대로
2단계	제10항, 제11항, 제12항	어법에 맞도록
3단계	제10항 불임2, 제11항 불임1 다만, 제11항 불임4, 제12항 불임2	어법에 맞도록

이에 남북한어의 차이가 없는 가장 쉬운 1단계는 ‘제10항 불임1, 제11항 불임1, 제12항 불임1’ 항목으로 ‘소리대로’의 원리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남북한어의 두음법칙 규정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항목은 ‘제10항’, ‘제11항’, ‘제12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10항 불임2, 제11항 불임1 다만, 불임4, 제12항 불임2’에서는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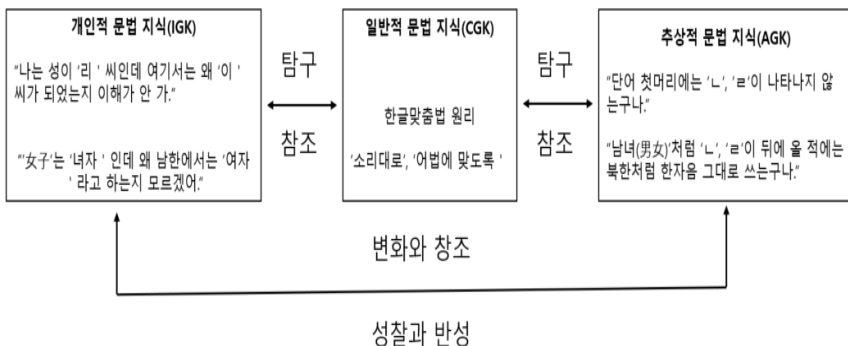
3.2.2. 두음법칙 교수·학습 방안

앞에서 제시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난이도, 사용빈도에 대한 단계별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맞춤법이 대립적으로 차이를 보이면서 동시에 일치점을 보이는 두 원리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발견하는 활동1(이형동의어, 동형동의어, 동형

이의어 찾기)과 활동2(역할극)를 통해서 학습자가 개인적 문법지식(IGK)에 직면하게 되며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고향에서 성이 ‘리’ 씨인데 남한에서는 왜 ‘이’ 씨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와 같이 남북한 원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험한 개인적 문법 지식은 추상적인 단계이다. 이에 교수자는 두음법칙 제11항 규정과 표기, 발음에 관한 원리를 소통성을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한 일반적 문법 지식(CGK)은 개인적 문법 지식(IGK)을 수정, 교정하면서 명시화하게 된다. 또한 활동3(어법에 맞게 표기하기), 활동4(소리대로 발음 연습하기), 활동5(북한어를 표준어로 변환하기)를 통해 “단어 첫머리에는 ‘ㄴ’, ‘ㄹ’이 나타나지 않는구나.”와 같이 추상적 문법 지식(AGK)의 문법 원리 차이를 탐색 및 참조하여 자신의 한국어 생활을 돌이켜 보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 연습함으로써 학습한 어휘 사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의 변화와 창조, 탐색과 비판적 검토가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두음법칙 지식 순환 예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두음법칙 지식의 순환



지금까지 기초조사 결과와 한글 맞춤법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1단계 항목들은 남북한 어휘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교수 원리는 ‘소리대로’의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학습한다. 2단계와 3단계 항목들의 어휘 형태는 남북한의 원칙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어법에 맞도록’에 해당하는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학습한다.

원리 발견 활동1은 남북한 어휘 대응을 통한 이형동의어 및 동형동의어의 어휘를 찾고, 활동2는 두음법칙 규정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출판한 『공동개정』과 이를 북한의 문화어 맞춤법에 맞게 교정하여 평양에서 출간한 성경을 다시 출간한 『조선어 련대기 성경』(2008)의 대조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다음은 『조선어 련대기 성경』 요한복음 4장의 텍스트 예시이다.

사마리아**녀자**: 당신은 유대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녀자**인데 어떻게 저 더러 물을 달라하십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희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녀자**: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드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물을 떠다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사마리아**녀자**: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레베**드렸는데 선생님은 **레베**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 내 말을 믿으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레베**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저 산이다 하고 구태여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진실하게 **레베**하는 사람들이 **령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레베**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활동1은 도입 부분으로 남북한어 성경의 대조 텍스트를 통해서 ‘녀자’, ‘녀인’, ‘넘려’ 등의 두음법칙 제10항을 미적용한 어휘와 ‘레베’, ‘령적’ 등의 제11항을 미적용한 어휘들을 학습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드레박(두레박)’, ‘원쭉(원수)’, ‘안해(아내)’ 등과 같이 이형동의어 형태의 어휘들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2의 성경 텍스트의 상황을 제시하고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북한어로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남북한어 규정의 차이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습자가 교재에 제시된 문법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두음법칙 세부항목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두음법칙 항목의 원리들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활동3을 통해 ‘어법에 맞도록’ 표기 연습을 하고, 활동4의 ‘어법에 맞도록’ 발음하기 연습을 진행한다. 활동5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 역할극을 통해 북한어를 표준어로 바꿔서 대화하기 연습을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된 어휘 사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수업시간에 학습한 핵심 문법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에 배울 어휘를 제시한다.

3.3. 측정 도구 구성

먼저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두음법칙 세부항목 규정의 이해 10문항과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표기 10문항, 발음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이며 개인적 배경은 4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로 총 2회 실시하였다. 두음법칙 항목별 이해도 평가는 객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두음법칙 표기와 발음에 대한 평가는 괄호 넣기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표기, 발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채택하였다. 조사 방법으로 배준영은 ‘문장 읽기 조사, 괄호 넣기 조사, 선택지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²⁹⁾ 구현정 외에서는 ‘괄호 넣기, 선택지, 문장 읽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³⁰⁾ 이호영의 『새터민 대상 표준 발음 교실』에서는 ‘괄호 넣기, OX 넣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³¹⁾ 이에 본고에서는 박덕유가 개발한 이해도, 난이도, 사용빈도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세부항목은 ‘제10항, 제10항 붙임1, 제10항 붙임2, 제11항, 제11항 붙임1, 제11항 붙임1 다만, 제11항 붙임4, 제12항, 제12항 붙임1, 제12항 붙임2’ 등이다.³²⁾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표기의 요인들의 계수는 0.7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발음에 대한 값은 0.667로 나타나 신뢰도 분석 상세결과 내적합치도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도구의 신뢰도 산출 결과

요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이해도	10	.779
표기	10	.775
발음	10	.667

다음으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시별 FGI를 실시하였다. FGI

29) 배준영, “대구지역 새터민의 언어적응 양상 연구: 음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22-23.

30) 구현정 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5-6.

31) 이호영,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서울: 국립국어원, 2009), 41-42.

32)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368-369.

분석의 목적은 통계 분석 결과와 더불어 실험 참여자들로부터 남북한어의 이질화와 언어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³³⁾

면담을 위한 질문지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남북한 두음법칙 규정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어 적응에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³⁴⁾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³⁵⁾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지역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³⁶⁾

넷째, 성경을 활용한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³⁷⁾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분석 방법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녹음 및 전사하여 텍스트 문서로 수집하였으며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주요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6> 차시별 FGI 질문지 내용 구성

연구 문제	차시	세부 내용
H1.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어 적응에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2	남북한 두음법칙 규정의 차이가 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H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국립국어원이나 하나재단, 지역 유관 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3) T. L. Ghoris,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2007), 203-205; S. A. Lederman, and A. Paxton, “Maternal Reporting of Prepregnancy Weight and Birth Outcome: Consistency and Completeness Compared with the Clinical Record”,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2:2 (1998), 123-126.

34) 박종선 외,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120-130;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371-372.

35)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센터 초기 집중교육 연계 방안”, 108; 우인혜, “북한이탈주민 교재 보안을 위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129.

36) 박이석,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15-17; 김혜윤, 한정범,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과정 기초 설계를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184-186.

37) 구분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층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131-132.

연구 문제	차시	세부 내용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4	언어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십니까?
	5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H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지역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때 효과적인 것이다.	6	종교단체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어 적응 교육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7	매주 방문 수업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4.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 중심으로 교육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글 맞춤법 이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8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 즐겁게 공부하셨습니까? 두음법칙 규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9	다음에도 어문규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배우고 싶은 어문규범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3.4. 실험 방법 및 절차

3.4.1. 실험 방법

실험집단은 성경을 활용한 원리 중심 교육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대조집단은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교육을 실시한다. 두음법칙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도, 표기, 발음 능력에 대한 교육 이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실험 대상자가 20명으로 통계적인 검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다. 면담 내용은 녹음 및 전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표 7> 실험 설계 모형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₁	O ₃
대조집단	O ₂	X ₂	O ₄

O₁, O₂: 사전검사/ O₃, O₄: 사후검사

X₁: 실험처치/ X₂: 일반처치

3.4.2. 분석 절차

한글 맞춤법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도구는 t-test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보한다.

둘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넷째,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다섯째, FG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다.

4. 연구 결과

4.1. 사전집단의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요인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문항별 10점 기준으로 총 30문항에 대한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두음법칙 ‘이해도, 표기, 발음’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가 유의수준 $p>.05$ 로 측정됨으로써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두음법칙 세부 규정에 대한 이해도는 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발음은 4.5점, 표기는 5.7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8> 사전집단의 동질성 검사

요인	Group	N	Mean	SD	df	t	p
이해도	실험집단	10	4.1	2.37	18	0.11	0.915
	대조집단	10	4	1.70			
표기	실험집단	10	5.8	2.09	18	0.08	0.931
	대조집단	10	5.7	2.94			
발음	실험집단	10	4.6	1.26	18	0.39	0.70
	대조집단	10	4.4	0.97			

* $p<.05$ ** $p<.01$

4.2.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사후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

저 성경을 활용한 교육을 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음법칙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도, 표기, 발음’ 모든 영역에서 유의수준 ($p<.001^{***}$)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전점수 대비 사후점수에서 이해도 5.2점, 표기 3.7점, 발음 4.3점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 효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점수는 표기가 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해도가 9.3점, 발음이 8.9점으로 나타났다.

<표 9>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요인	시점	N	Mean	SD	MD	t	p
이해도	사전	10	4.1	2.37	-5.2	-6.5	0.0001***
	사후	10	9.3	1.05			
표기	사전	10	5.8	2.09	-3.7	-4.95	0.0007***
	사후	10	9.5	0.70			
발음	사전	10	4.6	1.26	-4.3	-6.6	0.0001***
	사후	10	8.9	1.19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교육을 실시한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전점수 대비 사후점수에서 세부항목 규정의 이해도가 3.9점 상승하여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며, 표기는 3.2점, 발음은 3.0점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한어의 원리 차이를 통한 교육에서도 그 효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요인	시점	N	Mean	SD	MD	t	p
이해도	사전	10	4.0	1.70	-3.9	-4.52	0.001***
	사후	10	7.9	1.60			
표기	사전	10	5.7	2.94	-3.2	-2.69	0.025*
	사후	10	8.9	1.65			
발음	사전	10	4.4	0.97	-3.0	-3.61	0.006**
	사후	10	7.4	2.0			

* $p<.05$ ** $p<.01$ *** $p<.001$

4.3. 사후집단 간 차이 검증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을 한 실험집단과 원리 중심 교육의 대조집단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해도는 실험집단에서 $t=2.31(p=.034^*)$ 로 유의수준 $p<.05$ 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기와 발음에서는 유의수준 $p>.05$ 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두음법칙 교육이 두 집단 모두에서 ‘이해도, 표기, 발음’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을 실행한 실험집단이 전체 평균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법에 대한 이해도에서 대조집단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1> 사후집단의 차이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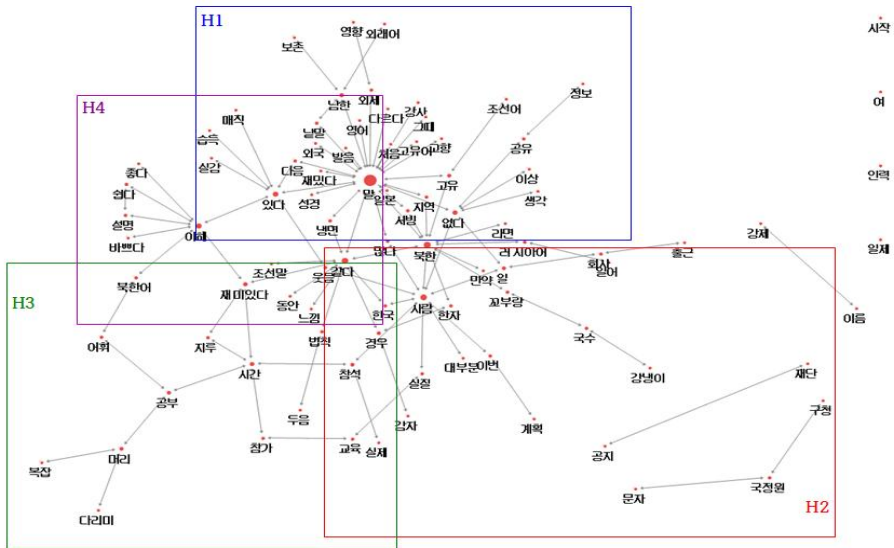
요인	Group	N	Mean	SD	df	t
이해도	실험집단	10	9.3	1.05	2.31	0.034*
	대조집단	10	7.9	1.60		
표기	실험집단	10	9.5	0.70	1.05	0.314
	대조집단	10	8.9	1.65		
발음	실험집단	10	8.9	1.19	2.02	0.060
	대조집단	10	7.4	2.0		

* $p<.05$ ** $p<.01$ *** $p<.001$

4.4. FGI 분석 결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면담 내용을 녹음 및 전사하여 수집한 텍스트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핵심어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빈도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명사 어휘는 ‘말’이며, 다음으로 ‘북한’, ‘사람’, ‘이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용사는 ‘좋다’, ‘없다’, ‘같다’ 등의 형용사 어휘들이 상위에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재미있다’, ‘쉽다’, ‘많다’ 등의 어휘도 출현하였다.

<그림 3> FGI 중심성 분석 시각화



언어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많은 어휘들과 연결(Link)을 맺고 있는 주요 핵심어를 분석하는 중심성 분석 결과, 명사 어휘는 ‘말’, ‘북한’, ‘사람’, ‘공부’, ‘고유어’, ‘북한어’ 등이 상위에 나타났으며, 형용사 어휘는 ‘재미있다’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었다. 언어 네트워크의 시각화에서 ‘말’을 중심으로 먼저 파란색 그룹(H1)에서는 ‘고유어’, ‘외래어’, ‘조선어’, ‘날말’, ‘발음’ 등의 어휘들과 연결되어 있다.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에 관한 어휘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붉은색 그룹(H2)에서는 ‘국정원’, ‘재단’, ‘공지’ 등으로 언어적응 교육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연결되어 있다. 초록색 그룹(H3)에서는 ‘교육’, ‘어휘’, ‘공부’, ‘두음법칙’ 등으로 교육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 보라색 그룹(H4)에서는 ‘웃음’, ‘재미있다’, ‘성경’, ‘쉽다’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파란색 그룹(H1)의 언어적인 문제와 함께 지도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의 효과는 어떠한지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차시별 심층면접 질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1. 남북한의 어문규범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언어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1) 남북한의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분석 결과,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와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소를 갔단 말이예요. 인력소에서 왔는데 나를 보고 갑자기 오늘 서빙하러 가라고 해요. 근데 서빙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영어말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서빙이라는 말이 없고 우리는 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빙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해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그때는 가르쳐주더라. 근데 식당 가니까 진짜 처음에 말 때문에 ... 그때는 진짜 같은 조선말을 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할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거주기간이 길어도) 그래도 저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투리가 하는데 한국말이라도 또 ... 물론 말을 듣는다고 해도 있잖아요. 요새는 더군다나 애들이 또 다 반토막(줄임말) 말을 하잖아요. 더 모르는 게 더 있더라니까요. 신조어가 생기니까 가뜰이나 어려운데...

2) 남북한 두음법칙 규정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북한의 규정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성씨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이해가 안 된 게 나는 ‘림’ 씨인데 왜 ‘임’이가 되었나? 그거 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그게 두음법칙 때문에 그랬는데 차라리 북한처럼 생긴 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한자 그대로 적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는데 말입니다.

‘리’ 이거를 ‘이’로 바꿔놓으니까 왜 남의 성까지 바꿔놓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일제 때 이름을 강제로 고치라고 하니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말할 때는 ‘려’자인데 쓸 때는 ‘여’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바쁘거든요.

H2.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1) 국립국어원이나 하나재단,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어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간의 소통이 주요한 정보 전달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몰라요. 구청이나 국정원에서 문자로 오는데 그런 문자를 봐도 교육에 참가할 시간이 안 돼요. 특히 저희도 탈북민들 아니면 공유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방이 따로 단체장들만 하는 방이 있고 일부러 내가 찾지 않으면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정책을 아는 사람은 몇 없어요.

실제 참석하는 사람이 없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그 전에 보편은 하나재단이나 그런데서 공지를 띄워요 한 번씩. 근데 솔직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간 되면 참석할래?’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몰라요.

H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지역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매주 방문 수업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의사소통 시 큰 장애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대화를 기피하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이

들이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향말로 대화할 수 있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건 모르겠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3년 4년 이렇게 다녀 봐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게 뭘 소리인가 들어도 웃지도 않고 일없지만 여기 사람들하고 모이게 되면은 한번쯤 웃어대고 우스갯소리도 해보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하고는 웃는 일이 없고. 웃어도 난 뭘 말인지 모르겠고. 그니까 구태여 웃을 생각도 없고 거기에 무슨 내용인가 알고 싶지도 않고 ...

전에 진짜 하나재단에서나 모집한다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하니까 다들 안 가요. 두음법칙에 대해서 사실 지금처럼 교육시키고 하는 데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진짜 강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모두 좋다고 다 하더라고요.

H4.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맞춤법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할 때 북한 이탈주민의 문법 이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 남북한어 성경을 대조해서 학습할 때 두음법칙 규정이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한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때 즐겁게 공부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북한어와 남한어를 대조하여 학습할 때 학습자 스스로 차이를 발견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세부항목에 대한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고 나니까 ... 알고 보면 간단한데 모르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한에서는 낱말을 말하는 대로 쓰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은 한자 그대로 쓰는데 남한은 말하는 대로 쓰는 거 같아요.

우리 북한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머리에 좀 들어가요. 그리고 남한 말에는 아무튼 어려워요. 그래도 모르던 것도 배우고 알아 나니까 머리에 좀 들어갔어요. 좋았어요.

2) 다음에도 교회에서 어문규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배우고 싶은 어문규범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이야기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관심뿐만 아니라 언어 적응 교육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배우고 싶은 영역으로는 외래어나 사이시옷 등 남북한어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들에 대해 응답하였다.

예, 배우고 싶습니다. 좋죠. 앞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또 오셔서 배워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오늘 기분 없다 이 말을 자주 써요. 아무래도 외래어가 어려워요. 우리는 ‘고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옷을 다 넣더라고요. 우리는 ‘해님’, ‘해빛’이라고 해요.

5. 결론

지금까지 남북한어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을 구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맞춤법 세부항목을 프레이터(Prator)의 문법의 난이도를 적용한 결과, 북한어에서는 하나이던 규칙이 남한어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가장 어려운 항목은 두음법칙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조사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제시된 예시어보다 성경에서 출현하는 어휘를 더 쉽게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한어 성경에서 두음법칙 관련 어휘를 추출하고 전문가 협의의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친숙하고 쉬운 교육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셋째,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위계적 구성의 두음법칙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소리대로’의 원리인 1단계(제10항 불임1, 제11항 불임1, 제12항 불임1),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인 2단계(제10항, 제11항, 제12항)와 3단계(제10항 불임2, 제11항 불임1 다만, 제11항 불임4, 제12항 불임2)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출신 교회에서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으로 나누어 총 9회기 수업을 하였다. 실험집단은 남북한어 성

경을 활용한 교육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대조집단은 두음법칙 원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문법의 이해도, 표기, 발음 양상에 대한 사전-사후점수의 t-test 검증과 초점집단면담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두음법칙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도, 표기, 발음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 두음법칙 교육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의사소통 시 장애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한다. 특히 남한에서 이름의 성씨가 바뀐 현상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두음법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학습자들이 두음법칙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오해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남북한어 성경을 대조하여 교육한 실험집단의 경우, 원리 중심 교육을 한 대조집단보다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고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출판한 『공동개정』과 이를 북한의 문화어 맞춤법에 맞게 교정하여 평양에서 출간한 성경을 다시 출간한 『조선어 련대기 성경』(2008)의 남북한어 대조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성경 텍스트에서 남북한 어휘 대응을 통한 이형동의어 및 동형동의어의 어휘를 찾고, 두음법칙 세부규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할 때 학습자들이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어 성경과 북한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성경을 활용하여 교육할 때 그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같은 고향말을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함께 신앙교육의 효과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태이며, 정보공유의 부재와 경제적인 이유로 실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어를 배우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회와 연계하여 언어적응 교육을 실행한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교회와 연계하여 성경을 활용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효과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두음법칙 항목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이며, 향후 성경을 활용한 실제적인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북한이탈주민, 남북한어 성경, 한글 맞춤법 원리, 두음법칙 위계화, 한국어교육.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and North Korean Bible, Principles of Korean orthography, Initial Law hierarchy, Korean Language Education.

(투고 일자: 2024년 8월 23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조선어 런대기 성경』, 서울: 서울유에스에이, 2008.
- 구본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2008), 195-232.
-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층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국어교육연구』 76 (2021), 97-136.
- 구본관, 신명선,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2011), 261-297.
- 구현정 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서울: 국립국어원, 200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동아, 1999.
- 김혜윤, 한정범,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과정 기초 설계를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118 (2019), 165-191.
- 김흥기, “지식경영에 있어서 지식의 표현과 메타지식의 역할”, 『산업공학』 13 (2000), 10-16.
-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맞춤법』, 2017.
- 모홍윌, “중국인 학습자를 통해서 본 문화교육의 위계화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 (2020), 133-156.
-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8 (2011), 353-376.
- 박덕유, 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 —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5 (2019), 162-200.
- 박이석,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25 (2015), 1-21.
- 박종선 외,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6.
- 배준영, “대구지역 새터민의 언어적응 양상 연구: 음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 신명선 외,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집필 지침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0.
- 우인혜, “북한이탈주민 교재 보완을 위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9 (2018), 111-141.
- 이안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 27 (2020), 211-236.
- 이호영,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서울: 국립국어원, 2009.
- 임순희, 성민주, 이승엽,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서울: 북한

인권정보센터, 2023.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콘텐츠연구』 36 (2021), 353-3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 규범집』, 2010.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 신철자법』, 1948.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 센터 초기집중교육 연계 방안”, 『현대북한연구』 21 (2018), 84-125.

조위수 외,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4 (2019), 179-205.

Banathy, B. H., Trager, B. C., and Waddle, C. D.,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A. Valdman, 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Deng, S.,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량 표현 교육 위계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Ghoris, T. L.,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6 (2007), 203-205.

Jin, X., “한국어 교육용 음운규칙 내용 선정 및 위계화 연구: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Lado, R.,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Lederman, S. A., and Paxton, A., “Maternal Reporting of Prepregnancy Weight and Birth Outcome: Consistency and Completeness Compared with the Clinical Record”,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2:2 (1998), 123-126.

Prator, C., *Hierarchy of Difficulty*,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7.

<Abstract>

**Effectiveness of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Bible:
Focusing on the Initial Law**

An-Yong Lee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esigning and applying an educational plan for the Initial Law using the North and South Korean Bibles to enhance the vocabular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the following steps. First, an educational vocabulary list was selected by extracting vocabulary related to the Initial Law from the North Korean Bible and conducting a basic survey. Second, an educational plan for the Initial Law was devised,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Korean orthography using the Bible. Third, a total of nine classes were conducted by dividing 20 North Korean participants from local churches into an experimental and a comparison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educated using the North-South Korean Bible,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educated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Korean orthography in South and North Korea. Fourth,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was verifi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is experiment confirmed that it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vocabulary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cerning detailed items of the Initial Law. Second, in the c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using the Bible, the average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mparison group.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 centered on the principle of Korean orthography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effective,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score was higher when using the South Korean-North Korean contrast Bible. Third,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hen using the North Korean Bible, learners showed interest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In addition,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can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example, in South Korea, there was a confusion of identity

about the phenomenon that the last name changed from ‘리’ to ‘이’, but the misunderstanding was resolved after education. Although language adaptation education is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s a policy, it is still insufficient, and practical participation has not been mad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although North Korean defectors try to learn the South Korean language, practical opportunities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it c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if language adaptation education is implemented in connection with a church from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originated. Futur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norms education programs can be expected.

An Analysis of the Tense Usage of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and Its Implications

Manse Rim*

1. Introduction

The verbal aspect theory has been widely accepted among scholars and is considered useful for interpreting various New Testament texts. While recent studies on verbal aspect have shed light on the author's choice of tense, offering theories and grammatical perspectives that differ from traditional approaches,¹⁾ relatively fe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non-indicative mood of the Greek verbs.²⁾ One possible reason for this is that applying verbal aspect theory to non-indicative verbs is significantly more complex and even problematic.

This paper explores the question of why the author chooses different tenses when using verbs in the non-indicative moods. As a test ca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tense usage of the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in

* Ph.D. in New Testament and Christian Origins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Adjunct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and Full-time Pastor at Namseoul Church in Seoul. rim.manse@gmail.com.

1) See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eter Lang, 1989);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7).

2) C. R. Campbell, *Verbal Aspect and Non-Indicative Verbs: Further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9).

the Septuagint (LXX), the New Testament, *Philo*, and *Josephus*. Specifically, I will attempt to explicate differences in the tense usage of κρίνω in the non-indicative moods, focusing on the author's choice of tense and the semantic values of the term, while seeking to understand how non-indicative verb κρίνω should be interpreted. The verb κρίνω is common in the Greco-Roman context, yet it often carries significant theological implications, particularly in reference to final judgment in the LXX and New Testament texts.

To this end, I will consider 'verbal aspect'³⁾ and *Aktionsart*⁴⁾ — namely, 'lexical aspect'⁵⁾ — in connection with four distinctive categories: states, activities, accomplishments, and achievements, in light of their contextual factors. In my analysis, out of a total of 140 occurrences, the verb κρίνω in the non-indicative is employed 41 times in the imperative, 72 in the infinitive, and 27 in the subjunctive.⁶⁾ Most instances appear in either the aorist or present tense, while the perfect tense is quite rare (only three occurrences). As we analyze the non-indicative forms of κρίνω below, it should be noted, first, that in terms of aspectual values, while the spatial value of 'remoteness and proximity'

3) In terms of aspectual values, the aorist tense has to do basically with the spatial value of 'remoteness', the present tense with 'proximity', and the perfect tense with 'heightened proximity'.

4) For the difference between verbal aspect, C. R. Campbell states:

Verbal aspect refers to the manner in which verbs are used to view an action or state. An author/speaker will portray an event either from the inside, as though it is seen as unfolding (imperfective aspect), or from the outside, as though it is seen as a whole (perfective aspect). In contrast to aspect, *Aktionsart* refers to procedu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ways in which verbs behave in particular settings, according to lexeme and a variety of contextual factors. Aspect is regarded as a semantic category, inherent to the grammatical nature of the verb, while *Aktionsart* is a pragmatic category *Aktionsart* (C. R. Campbell, *Verbal Aspect*, 6).

5) See Z. Vendler, "Verbs and Times", *PhR* 66 (1957), 143-160; C. J. Thompson,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s i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3-80.

6) The usage of non-indicative forms of κρίνω in the LXX, NT, *Philo*, and *Josephus* searched in Accordance 12:

		LXX Rahlfs			NTG ²⁸			<i>Philo</i>			<i>Josephus</i>			Total
Tense		Aor	Pres	Perf	Aor	Pres	Perf	Aor	Pres	Perf	Aor	Pres	Perf	-
Mood	Imperative	25	2	0	5	6	0	1	0	0	2	0	0	41
	Infinitive	10	16	0	4	9	0	0	7	1	7	16	2	72
	Subjunctive	9	1	0	8	2	0	4	0	0	3	(2)	0	27(29)

or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spect’ is critical in the indicative mood,⁷⁾ κρίνω in the non-indicative moods is more closely related to categories of ‘general and specific instruction’⁸⁾ and their pragmatic implicatures, and second, that in terms of lexical aspect, κρίνω, both transitive and intransitive, should be considered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according to Vendler’s taxonomy: (1) activities [+durativity: “I judge” or “I criticize”]; (2) accomplishments [+durativity and +telicity: “He has judged until today”]; or (3) achievements [+telicity: “He was judged at a court”].⁹⁾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tense usage of κρίνω in the imperative mood first, then in the infinitive mood, and finally in the subjunctive mood. I will then summarize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nd conclude by pointing out som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how verbal aspect theory should be applied when interpreting non-indicative Greek verbs.

2. Imperative of κρίνω

2.1. Aorist Tense

The usage of the aorist imperative κρίνω can be semantically divided into four main categories: (1) “to judge” in a judicial setting;¹⁰⁾ (2) “to make a decision/to consider” without a judicial sense;¹¹⁾ (3) “to dispute/to plead” with a passive form (e.g., κρίθητε);¹²⁾ and (4) “to interpret”.¹³⁾

With regard to verbal aspect, the aorist imperative signifies specific commands in particular situations that possibly fit the perfective aspect.¹⁴⁾ For instance,

7) C. R. Campbell, *Verbal Aspect*, 6-7.

8) As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is closely related to the author’s tense usage in the imperative mood, the aorist tense is typically chosen for specific situations, as it conveys a perfective aspect, whereas the present tense is used for general or axiomatic situations, as it implies an imperfective aspect.

9) Z. Vendler, “Verbs and Times”, 143-160; C. J. Thompson, “What is Aspect?”, 49.

10) Deu 1:16; 2Ch 24:22; 1Ma 7:42; Psa 5:11; 7:9; 9:20 (passive); 25:1; 34:24; 42:1; 53:3; 81:3, 8; 118:154; Hos 13:10; Zec 7:9; 8:16; Isa 1:17; Jer 21:12; Eze 7:14; Joh 18:31.

11) Isa 5:3; Ode 10:3; Act 4:19; Rom 14:13; 1Co 10:15; 11:13; *Ant.* 4.191; *Life* 430; *Spec.* 3.54.

12) Job 35:14; Hos 2:4; Mic 6:1.

13) Dan 2:6.

14) K. L. McKay, “Aspect in Imperative Constructions in New Testament Greek”, *Novum*

commands in the NT occur in specific contexts: “Pilate said to them, ‘Take him yourselves and judge (κρίνατε) him according to your law’” (Joh 18:31a); “Let us therefore no longer judge (κρίνωμεν) one another, but rather consider (κρίνατε) this, that is, not to put an obstacle or stumbling block before your brothers and sisters” (Rom 14:13); “I speak as to sensible people. Consider (κρίνατε) for yourselves what I say” (1Co 10:15); “Consider (κρίνατε) for yourselves. Is it proper for a woman to pray to God with her head unveiled?” (1Co 11:13).

In John 18:31, the aorist imperative κρίνω is clearly used in a judicial context. Other examples, however, pertain to food disputation (τοῦτο) in Romans 14:13, an idolatry issue (ὁ φημι) in 1 Corinthians 10:15, and women’s head-covering debate in 1 Corinthians 11:13, which are far from a juridical setting. Nonetheless, whether the context involves judicial judgment or not, most of them exhibit telicity, as they refer to specific situations. Particularly in Romans 14:13, the author employs the aorist imperative κρίνατε in verse 13b for a specific action, while using the present tense subjunctive κρίνωμεν in verse 13a, where no telicity is implied, which will be discussed shortly.

In terms of lexical aspect, most instances of κρίνω (1) – especially in the Septuagint – occur in judicial contexts, though these settings are often imaginative rather than literal courtrooms. Similarly, in category (3), the passive form κρίθητε is frequently accompanied by prepositions such as πρὸς or ἐναντίον, implying a juridical scenario without necessarily involving an actual courtroom. These instances often lack explicit object, but the implied parties include God (Job 35:14), a mother (Hos 2:4), or mountains (Mic 6:1).

The semantic meaning of the aorist imperative κρίνω, however, is not determined by the lexeme alone, but by contextual factors and pragmatic situations. For example, in Deuteronomy 1:16 (“Judge righteously between man, brother, and his resident alien”), the command carries no positive or negative connotation in and of itself. In contrast, phrases like κρίνόν με, Κύριε (or ὁ θεός) in several psalms (e.g., Psa 5:11; 7:9; 25:1; 34:24; 42:1; 53:3; 118:154) take on a positive connotation, often translated as “vindicate me” or “save me”, reflecting the speaker’s petition. Similarly, in Psalms 82:3 (“Judge [κρίνατε] to the weak and the orphan” [LXX Psa 81:3]), the NRSV fittingly renders κρίνατε here as

Testamentum 27 (1985), 201-226, at 207;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92; C. R. Campbell, *Verbal Aspect*, 84-86.

“give justice”. Here, “judge” in Psalms 82:3 denotes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context of the royal governance. Other biblical instances can be more or less understood in the same way (e.g., Zec 7:9; 8:16; Isa 1:17; Jer 21:12).

Conversely, some instances embrace a negative connotation, implying punishment or destruction for the recipient: “Rise up, O LORD! Do not let man prevail. Let the nations be judged (κριθήτωσαν) before you” (Psa 9:20); “Rise up, O God, judge (κρίνον) the earth; for your will take possession of all the nations!” (LXX Psa 81:8; Psa 82:8); “Judge (κρίνον) him [Nicanor] according to his wickedness.” (1Ma 7:42)

2.2. Present Tense

The meaning of the present imperative κρίνω can be categorized as: (1) “to judge” primarily in a judicial context;¹⁵⁾ and (2) “to criticize/to condemn” mainly in a social context.¹⁶⁾

The present tense, which encodes imperfective aspect, expresses a general instruction, often used without any given contexts.¹⁷⁾ This is evident in Proverbs, where the present imperative κρίνω appears exclusively in the LXX: “Open your mouth to the word of God and judge (κρίνω) all soundly; open your mouth and judge (κρίνω) righteously but defend the poor and the weak.” (Pro 31:8-9)

In addition, “do not criticize” (μὴ κρίνετε) in the taxonomy (2), which employs the present imperative, lacks specific boundaries or contexts (e.g., Mat 7:1; Luk 6:37). This usage entails ‘gnomic’ or ‘iterative *Aktionsart*’. In Romans 14:3, likewise, Paul talks about a principle in general terms, although the text is situated within a particular context (i.e., a food dispute). In other cases, there are direct object, such as τις or τι within specific situations, but these still convey general commands, since the direct object implies generality. For instance, “Therefore do not let anyone criticize you about food and drink, or about a matter of festival, new moon festival, or sabbaths.” (Col 2:16)

All these instances nicely fall into activity category [+durativity, -telicity], denoting ongoing or repeated activities without specific contextual boundaries.¹⁸⁾

15) Pro 31:8, 9.

16) Mat 7:1; Luk 6:37; Joh 7:24(x2); Rom 14:3; 1Co 4:5; Col 2:16.

17) W. G. Morrice, “Translating the Greek Imperative”, *Bible Translator* 24 (1973), 129-134, at 129-130;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70, 91.

However, the final meaning of the present imperative of κρίνω is not determined solely by its aspectual features, but depends heavily on pragmatic and contextual factors. Some challenging cases include John 7:24 and 1 Corinthians 4:5: “Do not judge (κρίνετε) according to appearance, but judge (κρίνετε) with the righteous judgment” (Joh 7:24); “Thus do not judge (κρίνετε) before the time until the Lord comes” (1Co 4:5). Although these examples are, strictly speaking, not dicta or principles per se, they should be understood as conveying general opinions with continuous or iterative *Aktionsart* in view.

2.3. Summary

The verb κρίνω in the imperative mood appears only in the aorist tense and present tense. In the imperative mood, the use of tense does not primarily convey *temporality*, but it is instead associated with perfective or imperfective aspect embedded with pragmatic implicature in context. As such, it follows, for the most part,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proposed by W. G. Morrice, K. L. McKay, S. E. Porter, and C. R. Campbell. According to this principle, one can expect the author’s tense usage where the aorist tense would be used in the specific situation, or the present tense shall be employed in the general situation as an axiom or maxim. What is more, while the basic semantic meaning of the verb κρίνω is “to judge”, “to consider”, “to dispute”, “to criticize”, its meaning can extend to “to vindicate”, “to save”, “to condemn”, and “to give justice”, depending upon its *Aktionsart* and contextual factors.

3. Infinitive of κρίνω

3.1. Aorist Tense

The meaning of the aorist infinitive κρίνω can be lexically sorted into three groups: (1) “to judge” in a judicial setting;¹⁹⁾ (2) “to dispute/to go to court” with passive form κριθῆναι in a judicial sense;²⁰⁾ (3) “to make a decision/to

18) K. L. McKay, “Aspect in Imperative Constructions”, 208.

19) 1Ch 16:33; Psa 9:39(10:18); 95:13; 97:9; Pro 31:5; Epj 63; 1Pe 4:5; War 5.386; 6.284.

20) Ecc 6:10(passive); Job 9:3(passive); Mat 5:40(passive); Act 25:9; Rev 11:18.

consider”,²¹⁾ and (4) “to interpret”.²²⁾

The aorist infinitive semantically encodes perfective aspect, presenting an undefined and summary viewpoint.²³⁾ If this is the case, then the aorist infinitive of κρίνω is more likely to be used in specific situations, although this is not an absolute rule. For instance, in several biblical texts (Gen 19:19; 2Ma 13:13; 15:17; 1Pe 4:5; Act 25:9) and all of *Josephus* texts (*Ant.* 3.201; 9.65; 10.272; 13.79; 13.224; *War* 5.386; 6.284), the aorist infinitive κρίνω appears in clearly defined contexts.

Nonetheless, several other biblical texts lack situational contexts, as their authors seem to speak in aphorisms or general principles (1Ch 16:33; Psalms 9:39[10:18]; 95:13; 97:9; Pro 31:5; Ecc 6:10; Job 9:3; Epj 63; Mat 5:40; Rev 11:18). For instance, “... so that they would never be able to judge (κρίναι) the weak correctly (Pro 31:5); “... and they will not be able to dispute (τοῦ κριθῆναι) with the one who is stronger than him” (Ecc 6:10c); “If whoever wants to go to court (κριθῆναι) with you to take your tunic, give up your garment to him” (Mat 5:40). These examples, among others, unmistakably reflect proverbial wisdom or maxims, where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does not adequately account for the tense differences.

Other factors may affect the tense usage of the infinitive κρίνω, such as, temporality, verbal constructions, unreality, and direct/indirect speech.²⁴⁾ In the case of Proverbs 31:5 and Ecclesiastes 6:10, for instance, the texts convey impossibility, strongly implying irrealis. By contrast, Matthew 5:40 does not depict an unrealistic situation. Instead, it might refer to the distant future, aligning with “the mild degree of remoteness” inherent to perfective aspect.²⁵⁾

Grammatically, further, most occurrences of the aorist infinitive κρίνω appear in the [verb + infinitive] construction as complements.²⁶⁾ As C. R. Campbell

21) 2Ma 13:13; 15:17; *Ant.* 3.201; 13.79; 13.224.

22) *Ant.* 10.272.

23)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95.

24) C. R. Campbell, *Verbal Aspect*, 101-120. For example, Toshikazu Foley posits that substantial use, complements, indirect discourse, catenative constructions, appositional/ expository, purpose or result, and command are key elements to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translating the infinitive verbs in light of aspectual features. See T. S. Foley, *Biblical Translation in Chinese and Greek Verbal Aspect in Theory and Practice*, Linguistic Biblical Studies 1 (Leiden: Brill, 2009), 208-218; cf. P. Stork, *The Aspectual Usage of the Dynamic Infinitive in Herodotus* (Groningen: Bourma, 1982).

25) C. R. Campbell, *Verbal Aspect*, 115.

notes, “aorist infinitival usage is often determined by its function within certain constructions that are predisposed to it.”²⁷⁾ So, these verbal infinitival constructions yield various semantic nuances. For example, [ἔρχομαι / ἦκω / θέλω / βούλομαι + infinitive] has (a) ingressive *Aktionsart*, referring to the starting point of a judgment, or (b) summary *Aktionsart*, reflecting a final decision. In addition, the verbal constellation ἔχοντι κρίναι ζώντας καὶ νεκρούς in 1 Peter 4:5 expresses an inherent endpoint implying eschatological judgment in terms of summary or completeness.

3.2. Present Tense

The usage of the present infinitive κρίνω can be semantically classified as follows: (1) “to judge” in a judicial and social setting;²⁸⁾ and (2) “to dispute/to go to court” with the passive form κριθῆναι in a judicial sense;²⁹⁾ and (3) “to rule justly/to give justice” in a broader social and administrative setting.³⁰⁾

Concerning verbal aspect, the present infinitive semantically encodes the imperfective aspect, offering an unfolding/internal viewpoint.³¹⁾ R. W. Klund observes that the present infinitive is often determined by lexical and/or syntactical constraints.³²⁾ Consequently, as in the aorist, most cases of the present infinitive fall in either (1) verbal constructions, or (2) prepositional phrases.³³⁾ This pattern helps explain why certain verbs, such as μέλλω, and prepositional phrases, such as [ἐν τῷ + infinitive], tend to take the present infinitive. In terms of *Aktionsart*, these constructions imply either ingressive

26) E.g., ἔρχομαι + inf (1Ch 16:33; 2Ma 13:13; Psa 95:13; possibly, Rev 11:18), ἦκω + inf (Psa 97:9), δύναιμαι + inf (2Ma 15:17; Pro 31:5; Ecc 6:10; Epj 63), προσέχω + inf (Psa 9:39), βούλομαι + inf (Job 9:3), θέλω + inf (Mat 5:40; Act 25:9), and ἔχω + inf (1Pe 4:5).

27) C. R. Campbell, *Verbal Aspect*, 110.

28) Gen 19:9; Exo 18:13; 1Ma 9:73; Psa 50:6; Pro 29:7; Sir 45:26; Lam 3:36; Sus 53; Joh 8:26; Act 17:31; Rom 3:4; 1Co 5:12; 2Ti 4:1.

29) Jdg 4:5; 21:22; Psa 108:7; Act 25:10, 20; 1Co 6:1; Jam 2:12.

30) Rut 1:1; 1Ki 3:9; 2Ch 19:8; Psa 71:2; Sir 4:9.

31)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72-73.

32) R. W. Klund, “The Use of the Infinitive of Purpose in the New Testament”, M.Th.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94), 15.

33) E.g., (1) verb + infinitive constructions: δύναιμαι + inf (1Ki 3:9), ἔχω + inf (Joh 8:26), μέλλω + inf (Act 17:31; 2Ti 4:1; Jam 2:12), δεῖ + inf (Act 25:10), βούλομαι + inf (Act 25:20), τοιμᾶω + inf (1Co 6:1); and (2) preposition + infinitive constructions: ἐν τῷ + inf (Rut 1:1; Psa 50:6; 108:7; Sir 4:9; Lam 3:36; Rom 3:4).

action (especially with verb μέλλω) or iterative action (particularly with ἐν τῷ phrase): “Because he set the day on which he is about to judge (μέλλει κρίνειν) the world by righteousness” (Act 17:31); “When the judges ruled (ἐν τῷ κρίνειν), there was a famine” (Rut 1:1).

What is more, the imperfective aspect can be used with verbs that indicate repetition to describe an ongoing situation.³⁴⁾ Regardless of the verbal or prepositional construction, the authors employ the present infinitive when contextual cues suggest iterativity in the case of type (3). For example, in 1 Kings 3:9, the present infinitive κρίνειν is chosen because it implies ongoing action without a defined endpoint, hence the translation “to rule justly”. Similarly, LXX Psalms 71:1-2 illustrates this well, where the author uses κρίνειν to describe the king’s social and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context of royal governance: “Give the king your justice (τὸ κρίμα σου), O God, and your righteousness to the king’s son. May he judge (κρίνειν) your people with righteousness, and the poor of yours with justice to the people.” These examples show ongoing activities rather than a one-time court judgment.

A more intricate case arises in the dialogue between Festus and Paul in Acts 25:9-10, where the passive infinitive form of κρίνω is used in two different tenses: the aorist in verse 9 and the present in verse 10:

Festus: θέλεις ... περὶ τούτων κριθῆναι[aor] ἐπ’ ἐμοῦ;

Do you want ... to go to court concerning these matters upon me? (Act 25:9)

Paul: ἐπὶ τοῦ βήματος Καίσαρος ἐστὼς εἰμί οὗ με δεῖ κρίνεσθαι[pres].

I will be standing before Caesar’s tribunal, where I must dispute (Act 25:10)

Although both usages share the same lexical feature and context, the author’s choice of different tenses in immediate context raises questions. Two possible explanations can be proposed: First, lexical preference: it might be suggested that δεῖ tends to take the present infinitive in the biblical texts, *Philo*, and *Josephus*. However, this is unlikely, as δεῖ frequently takes the aorist infinitive as well. Second, viewpoint: a more plausible explanation lies in the author’s

34) C. J. Thompson, “What is Aspect?”, 65; On a more detailed discussion on the lexical sense of κρίνω, see Y. Lee, “Judging or Rul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The Sense of κρίνω in Matthew 19:28”, *The Bible Translator* 66 (2015), 138-150.

deliberate choice of viewpoint. In the context of Paul's trial, Paul is directly involved in this affair, whereas Festus is not. Thus, the aorist infinitive (κριθῆναι) indicates Festus's external, detached perspective, encoding a perfective aspect. In contrast, the present infinitive (κρίνεσθαι) highlights Paul's internal, active involvement, encoding an imperfective aspect. This distinction underscores the nuanced use of aspect to convey differing perspectives within the narratives.

3.3. Perfect Tense

The passive perfect infinitive κεκρίσθαι occurred only once in *Philo* and twice in *Josephus*. The usage of the perfect infinitive κρίνω can be either (1) "to judge" in a judicial setting³⁵⁾ or (2) "to consider" in a social setting.³⁶⁾

The verbal constellations with the passive, as illustrated in *Philo's Mut.* 141 and *Josephus' Ant.* 4.217 and *Life* 237, have no explicit telicity.³⁷⁾ My translation of these texts is as follows: " ... supposing that it is best to have been considered (κεκρίσθαι) by the correct word" (*Mut.* 141); "For otherwise God would seem to be despised and weaker than those to whom assign the sentence (ψηφον, lit. voting-pebble), out of fear of power, to be judged (κεκρίσθαι)" (*Ant.* 4.217); " ... so that the ones who recognized that I have been considered (κεκρίσθαι) an enemy by the Galileans might reckon themselves" (*Life* 237).

Given the rarity of this form, it is more complicated than other tenses to explicate why the author chooses the perfect tense in each case. However, the basic semantic value of the imperfective aspect is evident in connection with its pragmatic implicature. The verbal constructions suggest that the temporal procedure can be understood from the context as involving a stative *Aktionsart* (generic state) in the sense that the subject is "to have been considered" up to the point when it was written. Additionally, the perfect infinitive κεκρίσθαι in *Life* 237 is employed in a juridical context. Contextually, *Josephus* points to the judge who executes an incorrect judgment out for fear. In this case, the semantic value of κεκρίσθαι is negative, and thus it can be translated into "have been

35) *Ant.* 4.217.

36) *Mut.* 141; *Life* 237.

37) cf. C. J. Thompson, "What is Aspect?", 57-58.

condemned”.

3.4. Summary

The verb κρίνω in the infinitive mood is deployed with aorist, present, and perfect tenses. After analyzing several texts, it remains a vexed question as to why the author chooses different tenses for the infinitive κρίνω. A few remarks can be made: First, as a compliment, the tense of the infinitive κρίνω is often determined by the main verb and its verbal construction (e.g., μέλλω, ἄρχω plus infinitive). Second, it is also frequently determined by the prepositional construction (e.g., ἐν τῷ plus infinitive). Third, contextual cues and *Aktionsarten* are much more crucial than in the case of imperative in deciding its tenses. Fourth, in terms of aspectual feature, direct or indirect speech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its viewpoint within the narratives. Fifth, given the paucity of the perfect infinitive κρίνω, the goal of providing a coherent account for the author’s choice of the perfect tense seems elusive. Nevertheless, temporality, aspectual and lexical factors, and contextual cues could be keys to understanding the tense usage.

4. Subjunctive of κρίνω

4.1. Aorist Tense

There are five lexical meanings of the aorist subjunctive κρίνω: (1) “to judge”;³⁸⁾ (2) “to dispute/to go to court”;³⁹⁾ (3) “to decide”;⁴⁰⁾ (4) “to rule”;⁴¹⁾ and (5) “to criticize/to condemn”.⁴²⁾ The aorist subjunctive of κρίνω is mostly used in the [μὴ, ἵνα, ἕως + subjunctive] forms in dependent clauses. Statistically, the authors of biblical texts, *Philo*, and *Josephus* prefer the aorist (24 times) in the subjunctive mood over the present (3 times). What complicates the matter is

38) Deu 25:1; Sir 35:23; Eze 35:11; *War* 6.134; Joh 3:17; 8:16; 12:47; 2Th 2:12; Jam 5:9; 1Pe 4:6.

39) Psa 36:33; Isa 43:26.

40) 1Es 3:9; 6:22; 2Ma 15:21; *Legum.* 1.99; *Her.* 7; *Spec.* 4:173; *Praem.* 87; *Ant.* 4.34.

41) 2Ch 1:11.

42) Mat 7:1; Luk 6:37; *War* 1.622.

identifying the form of the active and middle present subjunctive κρίνω, which is identical to that of the aorist. In other words, only the passive aorist subjunctive κρίνω is distinguishable in its grammatical form.

While the subjunctives typically “play a rhetorically supportive role”, as J. T. Reed suggests,⁴³⁾ the perfective aspect generally represents an external viewpoint germane to the specific situations.⁴⁴⁾ When the usage of κρίνω means “to judge” in a specific situation, it nicely fits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Let us see some examples in the Septuagint: “If there is lawsuit among peoples, let them come to the court, they may judge (κρίνωσιν), and give justice to the righteous and condemnation to the ungodly” (Deu 25:1); “... but ask yourself wisdom and understanding, in order that you may rule (κρίνῃς) my people, upon whom I have made you king” (2Ch 1:11). There are more examples in the NT: “... in order that all who do not trust in the truth but take delight in unrighteousness will be condemned (ἵνα κριθῶσιν)” (2Th 2:12); “For this reason, the gospel was proclaimed to the dead, so that they might be condemned (ἵνα κριθῶσιν) according to peoples by flesh, but may live according to God by spirit” (1Pe 4:6). The tense of κρίνω in all of these texts takes the aorist situated within a juridical setting, although the specific situations vary.

Some cases can be accounted for by other factors, such as a grammatical construction. For example, the preposition ἕως almost always takes the aorist subjunctive, and “never the present.”⁴⁵⁾ Sirach 35:23 is a good example: “... until he judges (ἕως κρίνῃ) the case of his people and will make them rejoice in his mercy.”

Three instances in John’s Gospel are more complex because the tense of κρίνω here can be taken both as the aorist and the present. In my view, it should reasonably be considered that κρίνω in John 3:17 and 12:47 is the aorist, since the specific context refers to the final judgment which cannot be repetitive: “Therefore,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ἵνα κρίνῃ) the world, but in order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Joh 3:17); “If anyone hears my words but does not keep them, I will not condemn (κρίνω) him

43) J. T. Reed,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s from Discourse Analysis”, S. E. Porter and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Sup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86.

44) C. R. Campbell, *Verbal Aspect*, 56.

45) Ibid., 59.

because I came not to condemn (ὅνα κρίνω)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Joh 12:47). The semantic value of κρίνω means “to judge” or “to condemn” in stark contrast to “to save” (σώζω). In these texts, Jesus is described as the agent of eschatological judge and savior in the context of the final judgment. On the other hand, κρίνω in John 8:16 should be taken as the present, since the action of “judging” in the conditional clause has no specific boundaries or contexts: “But even if I judge (ἐὰν κρίνω), my judgment is true because I am not alone, but I and the Father who sent me” (Joh 8:16).

More problematic are the cases of Matthew 7:1, Luke 6:37, and James 5:9, where the aorist tense seems inappropriate for describing the general situation: “Do not criticize, so that you might not be criticized (ὅνα μὴ κριθῇτε)” (Mat 7:1); “Do not criticize, then you will never be criticized (οὐ μὴ κριθῇτε)” (Luk 6:37); “Beloved brothers, do not complain against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be judged (ὅνα μὴ κριθῇτε)” (Jam 5:9). On this matter, Campbell’s comment is quite helpful: “It is probable that the reason for which the aorist subjunctive — and not the present — is employed in emphatic future negative construction is that perfective aspect suits the portrayal of future events that will not occur.”⁴⁶⁾

Additionally, M. Aubrey’s analysis sheds light on this phrase. According to Aubrey, the prohibition “DO NOT STRAT X” in a complex construction requires the combination of the perfective aspect and the subjunctive mood in a general situation.⁴⁷⁾ If this is the case, the sentence “... in order that you may not be criticized” in Matthew 7:1, Luke 6:37, and James 5:9 can be translated as “... in order that they may not start to criticize you.” Of course, this is just one possible way to understand it.

4.2. Present Tense

The meaning of the present subjunctive κρίνω is: (1) “to judge”⁴⁸⁾ and (2) “to criticize/to condemn”.⁴⁹⁾ The present subjunctives of κρίνω are found in only

46) Ibid., 58.

47) M. Aubrey, “Greek Prohibition”,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486-538, at 534-535.

48) Wis 9:3; Joh 8:16.

49) Rom 14:13.

three places (Wis 9:3; Joh 8:16; Rom 14:13).

In the LXX, the only instance of the usage of the present subjunctive κρίνω is Wisdom 9:3, where it is well suited to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It thus serves as an axiom in a general situation: “... in order to administer the world by holiness and righteousness and to judge the judgment (ἵνα ... κρίσιν κρίνῃ) by the uprightness of soul.” The context speaks of the cosmic reign of God, and his right judgment is portrayed as the royal mandate for ruling regarded as a general principle. In addition, there are two instances in the NT: one is John 8:16 discussed above, and the other is Romans 14:13.

The prohibition “Do not judge” in Romans 14:13 fits with the imperfective aspect, denoting that it is an ongoing action without boundaries. However, another explanation is available. Based on Aubrey’s argument, ἔτι in the prohibition Μηκέτι κρίνωμεν in Romans 14:13 suggests that this element follows the “STOP DOING X” category, which requires the imperfective aspect, even though it is not the imperative but the subjunctive.⁵⁰⁾ If this is the case, Romans 14:13 can be translated as follows: “Let us therefore stop judging (κρίνωμεν) one another any longer, but rather consider (κρίνατε) this, that is, not to put an obstacle or stumbling block” (Rom 14:13). This translation implies a situation where the Christ-followers in Rome had already criticized one another, which was probably one of the problems therein.

4.3. Summary

For the most part, the subjunctive κρίνω takes the aorist tense, which is often used in a specific situation. Given the specific legal context, the aorist tense is aptly suited with the perfective aspect, combined with its *Aktionsart*. As in the case of the infinitive, certain prepositions require the aorist tense (e.g., ἕως), providing the boundaries of its semantic value. The aorist tense used in Matthew 7:1; Luke 6:37; James 5:9 might be explained by “emphatic future negative construction” which requires the perfective aspect, or, compatibly, by “DO NOT STRAT X” prohibition offered by Aubrey. Aubrey’s “STOP DOING X” prohibition also casts light on another possible interpretation of Romans 14:13.

50) M. Aubrey, “Greek Prohibition”, 534.

5. Conclusion

As we have examined the non-indicative tense usage of κρίνω in the LXX, the NT, *Philo*, and *Josephus*, it is reasonable to state that the aspectual and lexical elements significantly affect the author's tense choice. The tenses of the non-indicative κρίνω are not just determined by temporality and viewpoint, but also by verbal and prepositional constructions, contextual cues, and pragmatic implicatures.

In the case of the imperative,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provides a fairly coherent explanation for understanding the author's use of the aorist and present tenses. For example, when κρίνω denotes "to judge" in a specific situation (telicity), such as a judicial context, one can expect the author to employ the aorist tense. By contrast, when κρίνω indicates "to criticize" in a general situation (atelicity), such as a maxim or proverb, one can expect the author to use the present tense. This cannot be an absolute rule, however, since there are more complicated cases that are not fully explained by this rule. For the most part, while in the case of the subjunctive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can also be applied not without various exceptions, the infinitive seems not to follow this explanation.

In terms of the semantic value of the verb κρίνω, it is also reasonable to state that the meaning of κρίνω in the non-indicative mood is more closely related to its *Aksionsart* and contextual cues than its viewpoint. For instance, one can expect the author to choose the present tense for "to rule", since the term has an ongoing semantic value (durativity). The specific contexts and pragmatic implicatures strongly determine the semantic value of κρίνω, rendering various glosses, such as "judge", "criticize", "consider", "dispute", "interpret", "to condemn", "to save", "to vindicate", "to give justice", and "to rule justly."

For further study, while recent studies on verbal aspect, suggested by Thompson, Aubrey, among others, offer fresh insights into alternative ways to interpret the author's choice of tense and semantic values, other factors, such as prominence, genre, author's writing habits, and translation technique (particularly in the LXX), should be considered as they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ciding the tense of κρίνω in the non-indicative mood.

An Analysis of the Tense Usage of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and Its Implications / Manse Rim 231

<Keywords>

κρίνω, non-indicative mood, verbal aspect, lexical aspect, *Aktionsart*.

(투고 일자: 2024년 12월 18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8일)

<References>

- Aubrey, M., "Greek Prohibition",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486-538.
- Campbell, C. R.,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Campbell, C. R., *Verbal Aspect and Non-Indicative Verbs: Further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9.
- Campbell, C. R.,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7.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Foley, T. S., *Biblical Translation in Chinese and Greek Verbal Aspect in Theory and Practice. Linguistic Biblical Studies 1*, Leiden: Brill, 2009.
- Klund, R. W., "The Use of the Infinitive of Purpose in the New Testament", M.Th. Thesi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94.
- Lee, Y., "Judging or Ruling the Twelve Tribes of Isreal? The Sense of Κρίνω in Matthew 19.28", *The Bible Translator* 66 (2015), 138-150.
- McKay, K. L., "Aspect in Imperative Constructions in New Testament Greek", *Novum Testamentum* 27 (1985), 201-226.
- Porter, S. E.,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eter Lang, 1989.
- Reed, J. T.,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s from Discourse Analysis", S. E. Porter and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Sup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5-101.
- Stork, P., *The Aspectual Usage of the Dynamic Infinitive in Herodotus*, Groningen: Bourma, 1982.
- Thompson, C. J.,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s i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3-80.
- Vendler, Z., "Verbs and Times", *PhR* 66 (1957), 143-160.

<Abstract>

**An Analysis of the Tense Usage of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and Its Implications**

Manse Rim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The verbal aspect theory has been widely accepted among New Testament scholars and is considered a useful tool for interpreting various New Testament texts. While recent studies on verbal aspect have shed light on the author's choice of tense, offering theories and grammatical perspectives that differ from traditional approaches, relatively fe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non-indicative mood of the Greek verbs. One possible reason for this is that applying verbal aspect theory to non-indicative verbs is significantly more complex and even problematic. This paper explores the question of why the author chooses different tenses when using verbs in the non-indicative moods. As a test case, this research analyzes the tense usage of the non-indicative moods of the Greek verb κρίνω in the Septuagint (LXX), the New Testament, *Philo*, and *Josephus*. Specif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explicate differences in the tense usage of κρίνω in the non-indicative moods, focusing on the author's choice of tense and the semantic values of the term, while seeking to understand how non-indicative verb κρίνω should be interpreted. Additionally, in this research, 'verbal aspect' and *Aktionsart* — namely, 'lexical aspect' — should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four distinctive categories: states, activities, accomplishments, and achievements, in light of their contextual factors. Thus, the tense usage of κρίνω is explored in the imperative mood first, then in the infinitive mood, and finally in the subjunctive mood.

Based on this in-depth analysi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aspectual and lexical elements significantly affect the author's tense choice. The tenses of the non-indicative κρίνω are not just determined by temporality and viewpoint, but also by verbal and prepositional constructions, contextual cues, and pragmatic implicatur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imperative,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provides a fairly coherent explanation for understanding the author's use of the aorist and present tenses, although this cannot be an absolute

rule. While in the case of the subjunctive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 can also be applied not without various exceptions, the infinitive seems not to follow this explanation. What is more, regarding the semantic value of the verb κρίνω, the paper proposes that the meaning of κρίνω in the non-indicative mood is more closely related to its *Aksionsart* and contextual cues than its viewpoint. For instance, one can expect the author to choose the present tense for “to rule”, since the term has an ongoing semantic value (durativity). Likewise, the specific contexts and pragmatic implicatures strongly determine the semantic value of κρίνω, thereby rendering various glosses, such as “judge”, “criticize”, “consider”, “dispute”, “interpret”, “to condemn”, “to save”, “to vindicate”, “to give justice”, and “to rule justly”.

A Mystery Divergently Interpreted: Revelation 13:18 in Victorinus of Poetovio'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Jonathon Lookadoo*

1. Introduction

Despite the recent interest in the works of Victorinus of Poetovio, the Pannonian bishop remains an important but underexplored figure in the late third century. The importance of Victorinus stems from what he wrote, what he might have written, and what later editors added to his work. Explorations of Victorinus's writings have moved forward in the last three decades due in large part to the work of Martine Dulaey, whose monograph on Victorinus and edition of his writings in *Sources Chrétiennes* have made possible a slew of recent work.¹⁾ William Weinrich has since translated Victorinus'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into English,²⁾ while Roger Gryson has completed a critical edition of Victorinus's works that builds expertly on Dulaey's foundation.³⁾ Slightly

* Ph.D. in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Otago. Associate Professor at th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jonathon.lookadoo@puts.ac.kr. This article has been generously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th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025.

1) M. Dulaey, *Victorin de Poetovio: Premier exégète latin*, 2 vols. (Paris: Institute d'études augustiniennes, 1993); M. Dulaey, *Victorin de Poetovio: Sur l'Apocalypse et autres écrits*, SC 423 (Paris: Cerf, 1997).

2) W. C. Weinrich, *Latin Commentaries on Revelation*, Ancient Christian Text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1), 1-22.

3) R. Gryson, *Victorini Poetovionensis opera quae supersunt: Explanatio in Apocalypsin una cum recensione Hieronymi, Tractatus de fabrica mundi, Fragmentum de vita Christi*, CCSL 5 (Turnhout: Brepols, 2017).

further afield, Jonathan Armstrong has proposed that the Muratorian Fragment may stem from Victorinus's pen.⁴⁾ This persistent interest in Victorinus's work occurs in full knowledge of both the fluid state of the commentary text contained in medieval manuscripts and the esteem in which his commentary was held by late antique readers. Victorinus's commentary was edited by Jerome at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and exists in additional recensions that date from the fifth century and later. Moreover, these recensions were known, read, and incorporated by late antique and medieval authors, sometimes at great risk to their own authorial projects.⁵⁾ For example, the Florentine recension of *Liber genealogus* 616-619 incorporated readings from the recensions of Victorinus's *Commentarius* even when Victorinus's reading of Revelation 13:18 (666) does not match the text of Revelation 13:18 used by the author of *Liber* (616).⁶⁾ Such willingness to quote from the recensions of Victorinus's *Commentarius* even when these quotations created difficulty for a later author indicate the high regard in which his commentary was held.

This essay likewise recognizes Victorinus's importance for late antique commentaries on Revelation by turning its attention to a single textual variant within the manuscript tradition of Victorinus's commentary, namely, that of his commentary on Revelation 13:18.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readings at this juncture (Victorinus, *Comm. apoc.* 13.3) has been recognized in earlier scholarship. Victorinus includes no names in his third-century interpretation of the riddle, while the later recensions offer possible solutions that fit an isophenic interpretation of 666.⁷⁾ Moving beyond an acknowledgement of the

4) J. J. Armstrong, "Victorinus of Pettau as the Author of the Canon Muratori", VC 62 (2008), 1-34. See also R. D. Heaton, *The Shepherd of Hermas as Scriptura Non Grata: From Popularity in Early Christianity to Exclusion from the New Testament Canon* (Lanham: Lexington, 2023), 94-104. For additional analysis of recent debates about the Muratorian Fragment, see C. K. Rothschild, *The Muratorian Fragment: Text, Translation, Commentary*, STAC 132 (Tübingen: Mohr Siebeck, 2022), 73-79.

5) On the reception of Victorinus's commentary within other commentaries on the New Testament Apocalypse, see R. Gryson, "Les commentaires patristiques latins de l'Apocalypse",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28 (1997), 305-337, 484-502, here 312, 319, 324, 330, 332, 336, 485, 490, 492, 494.

6) See the text in T. Mommsen, *Chronica Minora Saec. IV. V. VI. VIII*, MGH 9 (Berlin: Weidmann, 1892), 194-195.

7) *Isophephy* refers to the practice of adding up the numerical value of letters in a word or words into a single sum. A good example can be found in *Sib. Or.* 1.327-329 in which the author alludes to Jesus (Ἰησοῦς) with the number 888. The sum of the letters I(10) + H (8) + Σ(200) +

differences in transmission, however, this essay draws from New Testament scholarship to explore how Victorinus and the authors of the later recensions operate with different hermeneutical assumptions regarding the social situations presumed by the riddle in Revelation 13:18. Craig Koester has argu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ddle posed by the number in Revelation 13:18 differs depending on how one understands the purpose of the riddle.⁸⁾ He suggests that riddles were used in antiquity to challenge readers and hearers to connect what they already knew with what the speaker said.⁹⁾ Yet riddles might also occlude information from the eyes of the unknowing, particularly if the speaker gave insufficient information. When this social context is brought into view, some riddles are given with enough information to solve them, while other riddles are designed to remain mysterious. This essay argues that Victorinus understands the numerical riddle in Revelation 13:18 as occluding the precise name of the beast from readers. For Victorinus, then, the number remains mysterious. On the other hand, his more expansive editors employ an alternative strategy to interpret the passage because they believe that enough information has been given to solve the riddle. Both strategies may trace their roots to an ambiguity in Irenaeus's prior treatment of Revelation 13:18 in *Adversus Haereses*.

2. Victorinus'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Victorinus's third-century commentary on Revelation is the earliest surviving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Apocalypse.¹⁰⁾ The commentary was likely

O(70) + Y(400) + Σ(200) is 888. *Isophephy* is thus related to and may often be synonymous with *gematria*. On numbers in early Christianity, see further F. Bovon, "Names and Numbers in Early Christianity", *NTS* 47:3 (2001), 267-288.

8) C. R. Koester, "The Number of the Beast in Revelation 13 in Light of Papyri, Graffiti, and Inscriptions", *Journal of Early Christian History* 6:3 (2016), 1-21; C. R. Koeste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38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605. For C. R. Koester, the author of Revelation offers enough information to be able to solve the riddle. "The literary description of the beast gives readers the clues needed to theorise that its name has some connection to Nero" (C. R. Koester, "The Number of the Beast in Revelation 13 in Light of Papyri, Graffiti, and Inscriptions", 10).

9) E.g. *Greek Anthology* 14.20, 135; *Sib. Or.* 1.324-329; 5.1-51.

10) Of course, "earliest surviving" need not mean that it was the first such commentary on Revelation. Irenaeus is purported to have written a commentary. Jerome (*Vir. ill.* 9) reports that

written when Gallienus was emperor, perhaps between 258-260.¹¹⁾ Victorinus understands the Apocalypse less as a prophetic book and more as a recapitulation of scripture in which the risen Christ perfectly reveals the meaning of scripture to the church.¹²⁾ As such, he stands in the theological line of Irenaeus. Victorinus treats all scripture as unified. Scripture speaks with a single voice because God is the one whose word scripture ultimately is. The New Testament Apocalypse recapitulates all scripture and is thus central to Victorinus's treatment.¹³⁾ Revelation employs multiple visions and images. Instead of reading Revelation as a successive progression, Victorinus interprets related motifs presented repeatedly. "The order of things said should not be looked at" (*nec aspiciendus ordo dictorum*; Victorinus, *Comm. Apoc.* 8.2). Rather, the reiteration of similar imagery completes and complements earlier images by enabling the Spirit to return to the same events for the sake of readers. As a result, Victorinus is a stylistically efficient commentator who does not feel bound to comment on every section of the Apocalypse. For example, after commenting on the seven seals and trumpets in Revelation 6:1-8:1 and 8:6-9:21, he does not offer detailed comments on the seven bowls in Revelation 16:1-21

Justin and Irenaeus interpreted (*interpretatur*) Revelation, although the form of this interpretation is unknown. Both Eusebius and Jerome attribute a work on John's Apocalypse to Melito of Sardis (Eusebius, *Hist. eccl.* 4.26.2; Jerome, *Vir. ill.* 24). While nothing survives of these purported works, Hippolytus of Rome wrote a work entitled *Apology for the Apocalypse and Gospel of John* that argued both Revelation and the Gospel of John were written by the same author. The work survives in fragments that were published by Pierre Prigent. See P. Prigent, "Hippolyte: commentateur de l'Apocalypse", *Theologische Zeitschrift* 28 (1972), 391-412; P. Prigent and R. Stehly, "Les fragments du De Apocalypsi d'Hippolyte", *Theologische Zeitschrift* 29 (1973), 313-333.

11) On the dates of Victorinus's life, see A. v. Harnack, *Geschich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bis auf Eusebius*, vol. 2, part 2 (Leipzig: Hinrichs, 1904), 426-428; J. Haussleiter, "Victorinus von Pettau", *Realenzyklopädie für protestantische Theologie und Kirche*, 3rd ed., vol. 20 (Leipzig: Hinrichs, 1908), 614-615; J. Zeiller, *Les origines chrétiennes dans les provinces danubiennes de l'Empire romain* (Paris: Boccard, 1918), 65-67. On the date of the commentary, see A. v. Harnack, *Geschich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bis auf Eusebius*, 427; M. Dulaey, *Victorin de Poetovio: Premier exégète latin*, 219-221; M. Dulaey, *Victorin de Poetovio: Sur l'Apocalypse et autres écrits*, 15.

12) M. Dulaey, *Victorin de Poetovio: Sur l'Apocalypse et autres écrits*, 29-30.

13) Victorinus stands in the same line as Irenaeus, who likewise reads Revelation as a recapitulation of certain biblical themes. See further D. J. Bingham, "Apocalyptic and Social Identity in the Second Century: Irenaeus's Reading of John's Apocalypse", J. A. Draper, N. D. Pardee, and S. J. Wilhite, eds., *The Teaching of These Words: Intertextuality, Social Identity and Early Christianity: Essays in Honor of Clayton N. Jefford*, BAC 16 (Leiden: Brill, 2024), 363.

(Victorinus, *Comm. Apoc.* 8.2).

Although scripture speaks with a unified voice, it is veiled and only opened by Christ himself. Victorinus's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is key to his understanding on this point. The two-edged sword (*gladium bis acutum*) that proceeds from the Son of Man's mouth (Rev 1:16) represents the Law of Moses and the gospel. Jesus grants knowledge of both the Law and gospel (Victorinus, *Comm. Apoc.* 1.4). When commenting on the ability that the Lion of Judah alone possesses to unseal the scrolls (Rev 5:1-5), Victorinus exegetes the meaning of the Apocalypse by declaring that Jesus alone can enlighten scripture for readers.¹⁴⁾ Reading Revelation 5 in dialogue with Exodus 34:33, Victorinus argues that even Moses recognized this reality and thus came down from Sinai with a veil over his face. Jesus lifts the veil on Moses's Law (Victorinus, *Comm. Apoc.* 5.2).¹⁵⁾ Exegetes are thus called to follow the images of scripture as Jesus interprets them. Because Jesus unravels the mystery of scriptural imagery, scripture can transcend the temporal boundaries of past, present, and future. Victorinus's reading of the Apocalypse acknowledges the future orientation of some prophecy, notably the millennium in Revelation 20, but he perceives the book to be of direct relevance to the readers of his commentary. While Revelation is the culmination of prophecy, it is also the recapitulation of all scripture and thereby addresses Victorinus's third-century audience directly.¹⁶⁾

When Victorinus comes to the beast of the sea (Rev 13:1-10), he acknowledges a future orientation to this prophecy while beginning his interpretation with reference to past emperors. After outlining the Roman emperors from the chaotic year of 69 through the time of Domitian, during whose reign Victorinus dates the composition of the Apocalypse,¹⁷⁾ he identifies

14) W. C. Weinrich, *Latin Commentaries on Revelation*, xxiii.

15) Readers may notice similarities to Paul's interpretation of Moses's veil in 2 Cor 3:13-16.

16) Thus, the letters in Rev chs. 2-3 are understood to be written to seven types of saints within the church. K. Berger understands Victorinus's treatment of the 144,000 similarly when he notices Victorinus's description of them as virginal (*virgineus*) in body and tongue (Victorinus, *Comm. Apoc.* 20.1). K. Berger (*Leih mir deine Flügel, Engel: Die Apokalypse im Leben der Kirche* [Freiburg: Herder, 2018], 215) asserts that Victorinus identifies the 144,000 as virgins because they will live on Zion, which is a virgin or bridal mountain.

17) Victorinus's reading of the emperors provides his interpretation of the seven heads or mountains in Rev 17:9-11. Victorinus mentions Otho, Vitellius, Galba, Vespasian, Titus, Domitian. Nerva is the emperor who is to come, while Nero is the eighth head and thus to be identified as the beast.

the beast as Nero by interpreting the beast of the sea alongside the beast on which Babylon sits in Revelation 17:9-11 (*Comm. Apoc.* 13.1-2).¹⁸⁾ In support of this reading, Victorinus understands the mortal blow that was healed (Rev 13:3) as a reference to Nero's suicide. The beast's subsequent resuscitation is then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a Nero *redivivus* myth.¹⁹⁾ Victorinus thus makes clear that the beast of the sea represents Nero. As he nears the end of this section of his commentary, Victorinus appeals to the number in Revelation 13:18. Although he believes that Nero's persecuting activities will remain true to his character, he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Nero may be known by an alternative name when he comes again. Since it is possible that Nero will return as antichrist under a different name, "the Holy Spirit says, 'His number is 666.' He will fulfill this number according to Greek letters" (*ait Spiritus Sanctus: Numerus illius est DCLXVI; ad literam grecam hunc numerum explebit*; Victorinus, *Comm. Apoc.* 13.3). Victorinus provides no further guidance as to what 666 might refer.

Victorinus's treatment of the number indicates that he believes there is a correct answer to the riddle posed by the number in Revelation 13:18. The answer to the riddle is to be found in the Greek letters with which Revelation was composed. Victorinus may even allude to isophephy as the means by which the name is to be determined, even though he does not explicitly say it. Victorinus has identified the beast as Nero *redivivus* on account of other statements in Revelation 13:3 and 17:8-11. There is, then,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o the beast is. However, Victorinus does not attempt to answer the riddle posed by the number 666. If the text of Dulaey is accepted, the reason is due to the possibility that the name of Nero *redivivus* may change, even if his actions do not.²⁰⁾ A secondary reason may be that Victorinus here follows his

18) M. Kusio (*The Antichrist Tradition in Antiquity*, WUNT 2.532 [Tübingen: Mohr Siebeck, 2020], 139 n. 512) associates Victorinus's identification with other interpreters who perceive the antichrist in terms that are anti-Roman and anti-imperial.

19) On the myth of Nero *redivivus*, see D. E. Aune, *Revelation 6-16*, WBC 52B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737-740; J. Malitz, *Nero*, A. Brown, trans. (Malden: Blackwell, 2005), 109-113; T. Witulski, *Die Johannesoffenbarung und Kaiser Hadrian: Studien zur Datierung der neutestamentlichen Apokalypse*, FRLANT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206-218; A. Y. Collins, *The Combat Myth in the Book of Revelation*, Harvard Dissertations in Religion 9 (Missoula: Scholars, 1976), 176-184. See also *Asc. Isa.* 4.2; Commodianus, *Instr.* 1.41.7-8; *Sib. Or.* 4.138-139; Suetonius, *Nero*, 57.

20) Victorinus introduces the number of the beast in relation to the Neronic antichrist by claiming

own advice from earlier in the commentary. While Victorinus seeks understanding, he recognizes the danger of false prophecy (*pseudeoprophetia*; Victorinus, *Comm. Apoc.* 8.2).²¹⁾ Victorinus may not guess at the name, then, to ensure the continued veracity of his prophecy. Thus, while the Holy Spirit has revealed the number and the means by which the mystery will be solved, its meaning remains opaque to Victorinus. The information required to answer the riddle is not given in the text. Accordingly, he does not solve the puzzle but anticipates it will be discovered by later readers who will solve it when the antichrist is revealed.

3. The Recensions of Victorinus'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Late in the fourth century, Victorinus's commentary eventually came to the attention of Jerome by means of an interlocutor named Anatolius, who raised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Apocalypse and its meaning in dialogue with Victorinus's work.²²⁾ Jerome claims to have edited Victorinus's commentary quickly to return the commentary promptly to his associate. He writes, "I did not want to delay" (*nolui differre*; Jerome, *Prol. Victorinus, Comm. Apoc.*). His primary alterations are to be found with regard to Victorinus's millenarianism and are thus limited to the commentary on Revelation 20-21.²³⁾ Dulaey dates Jerome's recension to the spring of 398 CE, although a date any time in the late fourth century or the first decade of the fifth century would suffice for this essay.²⁴⁾

that the name may change (*nomine mutato*) but that the actions will not change (*actu immutato*). However, words regarding the immutability of the antichrist's actions are placed in brackets in M. Dulaey's edition, indicating that the words are not found in Ms. A but are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Jerome's recension. See further M. Dulaey, *Victorin de Poetovio: Sur l'Apocalypse et autres écrits*, 44, 108.

21) Victorinus thus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trumpets and bowls may represent multiple things and does not feel obliged to choose (Victorinus, *Comm. Apoc.* 8.2).

22) See the text in M. Dulaey, *Victorin de Poetovio: Sur l'Apocalypse et autres écrits*, 124-125.

23) M. Dulaey ("Jérôme 'éditeur' du Commentaire sur l'Apocalypse de Victorin de Poetovio", *Revue des Études Augustiniennes* 37 [1991], 199-236) argues convincingly that J. Haussleiter overestimated the degree to which Jerome changed Victorinus's underlying commentary.

24) For further discussion, see M. Dulaey, "Jérôme 'éditeur' du Commentaire sur l'Apocalypse de Victorin de Poetovio", 203-207; R. Gryson, *Victorini Poetovionensis opera quae supersunt*:

Jerome's recension has not survived untouched. Subsequent attempts to edit the commentary were made in late antiquity. In his 1916 edition, Johannes Haussleiter divided these attempts into three recensions, which have continued to be utilized by later scholarship.²⁵⁾ The earliest recension is Y (upsilon). Due to the additional interpretation given to Revelation 13:18 that will soon be discussed, this recension should be dated to a time when Gaiseric was active in North Africa as king of the Vandals as well as when Procopius Anthemius was the western Roman emperor. Since Anthemius was emperor from 467-472 CE and Gaiseric died in 477, a date around 470 is plausible for the reworking of Jerome's adaptation in Y. It is more difficult to determine precisely when the recension in manuscript family Φ (phi) was made. Houghton's estimate of 500 CE for the appearance of Φ will suit well for this note.²⁶⁾ The final manuscript family that Haussleiter proposed is designated as S. It is both the latest and the longest of the three. It may be dated to a time in the early medieval period, perhaps around 700 CE.²⁷⁾ Although there is good reason to think that the order in which these recensions were made has been correctly identified, the dates of these recensions are difficult to determine with certainty. Nevertheless, these estimates offer a useful approximation as to when the variants in Victorinus's commentary on Revelation 13:18 entered the manuscript tradition.

The recensions take a hermeneutical approach to the number of the beast that differs from Victorinus's third-century commentary. Whereas Victorinus did not offer a possible solution to the riddle of the number in Revelation 13:18, the recensions suggest names whose letters would come to 666 by means of isophephy. While the recensions share with Victorinus a belief that the number must be calculated with reference to Greek letters, Y proposes that the answer to the riddle is to be found in the names of Anthemius (Ἀντεμιος) or Gaiseric (Γαισηρικός). Both names add up to 666 when written in Greek, and the manuscripts of Y typically spell this out in detail.²⁸⁾ Φ appeals to a more

Explanatio in Apocalypsin una cum recensione Hieronymi, Tractatus de fabrica mundi, Fragmentum de vita Christi, 45-49.

25) J. Haussleiter, *Victorini Episcopi Petavionensis Opera*, CSEL 49 (Vienna: Tempsky, 1916), xxiv-xxv.

26) H. A. G. Houghton, *The Latin New Testament: A Guide to Its Early History, Texts, and Manuscrip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182.

27) *Ibid.*, 182.

28) ANTEMOS (A [1] N [50] T [300] E [5] M [40] O [70] Σ [200]); ΓΕΝΣΗΡΙΚΟΣ (Γ [3] Ε [5] Ν

traditional answer to the riddle when it suggests Teitan (Τειτάν).²⁹⁾ Φ then adds further clarification. Τειτάν is known to the Gentiles (*gentiles*) as Sol Phoebus. An equivalent name in Latin is also offered that likewise adds up to 666: Diclux.³⁰⁾ S demonstrates itself to be the latest recension by incorporating the readings of both Y and Φ into its explanation of Revelation 13:18. The name Τειτάν is given first, followed by the corresponding Latin name from Φ, Diclux. At this point, S incorporates the names found in Y: Ἀντεμος and Γεισήρικος. While additional minor variants may be found within the three manuscript families, the names hold true in the majority of witnesses in each family.³¹⁾

Although each of the interpretive additions are worthy of study on their own terms, comparison with Victorinus's earlier and sparser treatment of the riddle allows two significant conclusions to be drawn. First, the recensions follow Victorinus in his belief that the solution to the riddle is to be found by calculating the name of the beast with reference to Greek letters. Although, the recensions are, like Victorinus's earlier commentary, composed in Latin, they nevertheless acknowledge the interpretive significance of Revelation's composition in Greek when they solve the riddle in Revelation 13:18. Second, the insertion of names in the recensions departs from both Victorinus's original commentary and, most likely, from Jerome's recension in 398. In addition to a preface and epilogue, Jerome's alterations to Victorinus's commentary focused primarily on his millenarianism.³²⁾ Thus, the Bishop of Poetovio's interpretation

[50] Σ [200] H [7] P [100] I [10] K [20] O [70] Σ [200]). The collocation of these names provides strong evidence for the date of this recension. See M. Dulaey, "Jérôme 'éditeur' du Commentaire sur l'Apocalypse de Victorin de Poetovio", 218; H. A. G. Houghton, *The Latin New Testament: A Guide to Its Early History, Texts, and Manuscripts*, 182.

29) TEITAN (T [300] E [5] I [10] T [300] A [1] N [50]). For earlier uses of this name, see Irenaeus, *Haer.* 5.30.3; Hippolytus, *Antichr.* 50. See also R. Gryson, "Les commentaires patristiques latins de l'Apocalypse", 309.

30) DICLVX (D [500] I [1] C [100] L [50] V [5] X [10]).

31) One example of a particularly noteworthy exception can be found in Ms. W (Madrid, Real Academia, Emilianese 80), which M. Dulaey ("Jérôme 'éditeur' du Commentaire sur l'Apocalypse de Victorin de Poetovio", 230 n. 144) says includes the long ending of S even though the manuscript generally aligns with Φ. Gryson ("Les commentaires patristiques latins de l'Apocalypse", 310) notes that Ms. O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Ff IV 31) does not add any names to its interpretation of Rev 13:18.

32) M. Dulaey, "Jérôme 'éditeur' du Commentaire sur l'Apocalypse de Victorin de Poetovio", 199-236. On chiliasm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see C. E. Hill, *Regnum Caelorum: Patterns of Millennial Thought in Early Christianit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1), 11-73.

of 666 is unlikely to have concerned his fourth-century editor. The authors of later recensions, however, appear to have perceived a lack in Victorinus's commentary when they found it without any attempt at a solution. Anthemius and Gaiseric would have provided timely interpretive possibilities in the fifth-century western Roman Empire, while Teitan and Diclux could claim, to varying degrees, historical precedents in the works of Irenaeus and Hippolytus.

4. Differing Social Contexts and their Irenaean Origins

Victorinus and the later editors of the hieronymic recensions differ in how they understand the social situation that supports their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13:18. While some riddles are proffered in order to hide information, other riddles are put forward with enough information that the riddler expects the reader to solve it. For Victorinus, the riddle of 666 cannot be solved. He gleans only the rules for the solution from the Apocalypse. Although Victorinus identifies the beast, whom he also calls the Antichrist, as Nero, he does not do so on the basis of Revelation 13:18 but of Revelation 17:9-11 as well as Revelation 13:1, 3 and Daniel 7:8 (Victorinus, *Comm. apoc.* 13.2-3). While some recent interpreters of Revelation 13:18 have also found a reference to Nero,³³⁾ Victorinus interprets the riddle with an acknowledgement that the name may be changed when the Antichrist comes.³⁴⁾ When it comes to the numerical riddle posed by 666, then, Victorinus writes as if he does not think there is enough information available for it to be solved. His choice not to offer any further

33) E.g. D. E. Aune, *Revelation 6-16*, 770-771; R. Bauckham, "Nero and the Beast", R. Bauckham, e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384-452; W. Bousset, *Die Offenbarung Johannis*,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6), 372-373; R. H. Charles, *The Revelation of St. John*, 2 vols, ICC (Edinburgh: T&T Clark, 1920), 1.367; H.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NT (Regensburg: Pustet, 1997), 315-316; H. Giesen, "Das Römische Reich im Spiegel der Johannes-Apokalypse", *ANRW* 26:3 (1996), 2580-2582; C. R. Koeste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604-606; C. R. Koester, "The Number of the Beast in Revelation 13 in Light of Papyri, Graffiti, and Inscriptions", 9-11; C. C. Rowland, "The Book of Revelatio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2 (Nashville: Abingdon, 1998), 659; H. B. Swete, *The Apocalypse of St John: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Indices* (London: MacMillan, 1906), 172-173.

34) *Qui tamen licet mutato <et actu immutato> veniat* (Victorinus, *Comm. apoc.* 13.3).

interpretive advice beyond alluding to the Greek alphabet is most easily explained if he reckons the riddle is unknowable. Since the riddle cannot be solved, there is no need to make further attempts at a solution.

The recensions assume a different social situation in which the riddle of 666 should be interpreted. On such readings, interpreters of both Revelation and Victorinus found solutions that they hoped were in line with the number's meaning in the New Testament Apocalypse. Likely written during the late-fifth century, Y offers a contemporizing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13:18 in which living or recently deceased political figures are the answer to the number. Φ offers a spiritualized interpretation of the riddle in which semi-mythical figures answer the problem posed by 666. S, perhaps in an attempt not to miss a possible solution, accumulates all four names into a single interpretation. What all recensions have in common, however, is an underlying belief that the author of Revelation left enough information in the text for readers to solve the mystery of Revelation 13:18, even if they must acknowledge that these proposals are provisional.

The origins of this hermeneutical ambiguity can be pressed further. Both Victorinus and the authors of the later recensions of his commentary could claim to be writing in the Irenaeian tradition when it comes to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number 666. Victorinus could claim to be following the admonitions from Irenaeus against attributing a specific name to the number. When Irenaeus offered guidance about how to interpret the number in Revelation 13:18, he warned against certainty regarding the name signified by the number.³⁵ These warnings are especially forceful against those who are certain of the wrong number, that is, 616 (Irenaeus, *Haer.* 5.30.1).³⁶ However, Irenaeus urged even those who knew the correct number to wait for events to unfold that will fulfill eschatological prophecies. Only at that time woul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and name become clear (*Haer.* 5.30.2). Irenaeus considered it safer for his readers to wait for the fulfillment of prophecy

35) D. J. Bingham ("Apocalyptic and Social Identity in the Second Century", 348 n. 25) rightly attributes Irenaeus's guarded comments on Rev 13:18 to his belief that Valentinian interpreters had impiously gone too far in their interpretation of numbers in scripture.

36) For more on the context in which Irenaeus's treatment of the number occurs within Book 5, see A. Rousseau, L. Doutreleau, and C. Mercier, *Irénée de Lyon: Contres les hérésies, Livre V*, SC 152 (Paris: Cerf, 1969), 183-186.

rather than to surmise wrongly about a matter that is likely to remain unsolved (*Haer.* 5.30.3). Whether consciously or not, Victorinus at least implicitly follows Irenaeus in his belief that the number of the beast should be calculated with reference to the Greek letters contained in the number (Irenaeus, *Haer.* 5.30.1; Victorinus, *Comm. apoc.* 13.3). Since Victorinus goes no further in offering suggestions for what those solutions might be, he could make a reasonable claim to have followed Irenaeus's warnings against attempting solutions to a riddle that remains unknown.

Despite Irenaeus's warnings against such proposed solutions, he proposes names that could potentially serve as solutions to the riddle posed by 666. He offers three names: Euanthas (Εὐάνθας), Lateinos (Λατεῖνος), and Teitan (Τειτάν; Irenaeus, *Haer.* 5.30.3). When the value of the Greek letters is calculated isophepically, each Irenaeian suggestion adds up to 666. The editors of the later recensions of Victorinus's commentary could thus make an equally legitimate claim to be following the interpretive practices set out by Irenaeus in *Adversus Haereses*. By offering names as solutions to the riddle, they are following a practice inaugurated by Irenaeus and continued by Hippolytus (*Antichr.* 50). The link between Irenaeus and the recensions of Victorinus's commentary is particularly clear in Φ and S because of the presence of Teitan as a potential solution to the riddle. Yet Y as well as the other names included in Φ and S might also claim Irenaeian support for their attempts to solve the riddle. They could claim to have simply updated Irenaeus's second-century surmises to fit their late antique context. The link to Irenaeus may be clearest in the case of Φ and S with their choice of Teitan as one possible name for the antichrist. However, Y likewise illustrates the ongoing significance of Irenaeus's treatment of the number in late antiquity by proposing an answer to the riddle solved in the same mode but with names relevant to fifth-century North Africa. When they assume that the apocalypse presents sufficient information to solve the riddle of Revelation 13:18, the recensions thus provide a late-antique alternative to Victorinus's earlier mode of Irenaeian exegesis.

Having drawn attention to the diversity of treatments of Revelation 13:18 in the various recensions of Victorinus of Poetovio'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this essay has also highlighted how Victorinus and the editors of his later recension operated with different underlying hermeneutical suppositions

regarding the social context of the riddle surrounding 666. The divergence in how to interpret the mystery set out by 666 is evident elsewhere in the interpretive tradition, notably in Book 5 of Irenaeus's *Adversus Haereses*. Despite the divergent ways of treating the "solvability" of the riddle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interpreters of late antiquity increasingly interpret the riddle within a social context in which the riddle can be solved.³⁷⁾ However, the alternative ways of treating the number within the Victorinian tradition appears more sharply because they result in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verse within commentaries that are attributed to the same author.

<Keywords>

Hermeneutics, Recensions, Revelation, Social Context, Victorinus of Poetovio, 666.

(투고 일자: 2025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1일)

37) To be sure, these late antique interpreters did not agree on what the solution to Rev 13:18 is. Yet their increasing attempts at solutions suggest agreement in the belief that a solution can be reached. See further Tyconius, *Comm. Apoc.* 13.18; *Liber genealogus* 614-620; Oecumenius, *Comm. Apoc.* 8.4-5; Andreas of Caesarea, *Comm. Apoc.* 38.145.

<References>

- Armstrong, J. J., “Victorinus of Pettau as the Author of the Canon Muratori”, *VC* 62 (2008), 1-34.
- Aune, D. E., *Revelation 6-16*, WBC 52B,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 Bauckham, R., “Nero and the Beast”, R. Bauckham, e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384-452.
- Berger, K., *Leih mir deine Flügel, Engel: Die Apokalypse im Leben der Kirche*, Freiburg: Herder, 2018.
- Bingham, D. J., “Apocalyptic and Social Identity in the Second Century: Irenaeus’s Reading of John’s Apocalypse”, J. A. Draper, N. D. Pardee, and S. J. Wilhite, eds., *The Teaching of These Words: Intertextuality, Social Identity and Early Christianity: Essays in Honor of Clayton N. Jefford*, BAC 16, Leiden: Brill, 2024, 341-371.
- Bousset, W., *Die Offenbarung Johannis*,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6.
- Bovon, F., “Names and Numbers in Early Christianity”, *NTS* 47:3 (2001), 267-288.
- Charles, R. H., *The Revelation of St. John*, 2 vols, ICC, Edinburgh: T&T Clark, 1920.
- Collins, A. Y., *The Combat Myth in the Book of Revelation*, Harvard Dissertations in Religion 9, Missoula: Scholars, 1976.
- Dulaey, M., “Jérôme ‘éditeur’ du Commentaire sur l’Apocalypse de Victorin de Poetovio”, *Revue des Études Augustiniennes* 37 (1991), 199-236.
- Dulaey, M., *Victorin de Poetovio: Premier exégète latin*, 2 vols., Paris: Institute d’études augustiniennes, 1993.
- Dulaey, M., *Victorin de Poetovio: Sur l’Apocalypse et autres écrits*, SC 423, Paris: Cerf, 1997.
- Giesen, H., “Das römische Reich im Spiegel der Johannes-Apokalypse”, W. Haase, ed., *ANRW* 26:3, 2501-2614, Part 2, *Principat* 26.2, Berlin: De Gruyter, 1995.
- Giesen, H.,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NT, Regensburg: Pustet, 1997.
- Gryson, R., “Les commentaires patristiques latins de l’Apocalypse”,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28 (1997), 305-337, 484-502.
- Gryson, R., *Victorini Poetovionensis opera quae supersunt: Explanatio in Apocalypsin una cum recensione Hieronymi, Tractatus de fabrica mundi, Fragmentum de vita Christi*, CCSL 5, Turnhout: Brepols, 2017.
- Harnack, A. v., *Geschich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bis auf Eusebius*, vol. 2, part

- 2, Leipzig: Hinrichs, 1904.
- Haussleiter, J., *Victorini Episcopi Petavionensis Opera*, CSEL 49, Vienna: Tempsky, 1916.
- Haussleiter, J., “Victorinus von Pettau”, *Realenzyklopädie für protestantische Theologie und Kirche*, 3rd ed., vol. 20, Leipzig: Hinrichs, 1908, 614-619.
- Heaton, R. D., *The Shepherd of Hermas as Scriptura Non Grata: From Popularity in Early Christianity to Exclusion from the New Testament Canon*, Lanham: Lexington, 2023.
- Hill, C. E., *Regnum Caelorum: Patterns of Millennial Thought in Early Christianit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1.
- Houghton, H. A. G., *The Latin New Testament: A Guide to Its Early History, Texts, and Manuscrip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Koester, C. 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38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Koester, C. R., “The Number of the Beast in Revelation 13 in Light of Papyri, Graffiti, and Inscriptions”, *Journal of Early Christian History* 6:3 (2016), 1-21.
- Kusio, M., *The Antichrist Tradition in Antiquity*, WUNT 2.532, Tübingen: Mohr Siebeck, 2020.
- Malitz, T., *Nero*, A. Brown, trans., Malden: Blackwell, 2005.
- Mommsen, T., *Chronica Minora Saec. IV. V. VI. VIII*, MGH 9, Berlin: Weidmann, 1892.
- Prigent, P., “Hippolyte: commentateur de l’Apocalypse”, *Theologische Zeitschrift* 28 (1972), 391-412.
- Prigent, P. and Stehly, R., “Les fragments du De Apocalypsi d’Hippolyte”, *Theologische Zeitschrift* 29 (1973), 313-333.
- Rothschild, C. K., *The Muratorian Fragment: Text, Translation, Commentary*, STAC 132, Tübingen: Mohr Siebeck, 2022.
- Rousseau, A., Doutreleau, L., and Mercier, C., *Irénée de Lyon: Contres les hérésies*, Livre V, SC 152, Paris: Cerf, 1969.
- Rowland, C. C., “The Book of Revelatio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2, Nashville: Abingdon, 1998, 501-743.
- Swete, H. B., *The Apocalypse of St John: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Indices*, London: MacMillan, 1906.
- Weinrich, W. C., *Latin Commentaries on Revelation*, Ancient Christian Text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1.

Witulski, T., *Die Johannesoffenbarung und Kaiser Hadrian: Studien zur Datierung der neutestamentlichen Apokalypse*, FRLANT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Zeiller, J., *Les origines chrétiennes dans les provinces danubiennes de l'Empire romain*, Paris: Boccard, 1918.

<Abstract>

**A Mystery Divergently Interpreted:
Revelation 13:18 in
Victorinus of Poetovio'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Jonathon Lookado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Writing in the second half of the third century, the writings of Victorinus of Poetovio have been a site of renewed scholarly interest. Recent editions, monographs, and articles have enabled fresh reflection on what Victorinus wrote, what he might have written, and what later editors added to his work. Although scholars have long recognized divergent treatments of Revelation 13:18 within manuscripts of Victorinus of Poetovio's *Commentarius in Apocalypsin*, less work has been done to consider the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This essay sheds light on different hermeneutical approaches used by Victorinus and the editors who added to his interpretation of the number of the beast. For the third-century Victorinus, the beast in Revelation 13 represents Nero *redivivus*. However, the social context of the riddle posed by 666 requires an acknowledgement that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name. While the beast's identity as Nero is clear, the solution to the riddle remains hidden to readers. Several editions of Victorinus's works exist in the manuscript tradition, dating from the end of the fourth through approximately the eighth centuries. Later recensions of Victorinus's *Commentarius* exhibit another means of interpretation by introducing names that add up to 666 when calculated isophepically. The solution to the riddle for later editors was thus clear because readers had enough information to solve it. These divergent interpretive pathways stem from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he social context of the riddle. One interpretive avenue perceives the riddle in Revelation 13:18 to be written in order to hide information, while the other understands it to reveal information to readers who truly understand it. These divergent approaches to the riddle may be traced to earlier interpretations of Revelation 13:18, such as Book 5 of Irenaeus's *Adversus Haereses*. However, the manuscripts of Victorinus's *Commentarius* provide a striking example because they result in dual

interpretive strategies being attributed to a single author.

<번역 논문>

신약성서 그리스어의 규칙 및 불규칙 변수 질문

더글러스 에스테스(Douglas Estes)*

한철흠 번역**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는 질문이 가득하다. 질문(의문문)은 모든 인간 언어의 보편적 특징에 해당하는 근본적 발화 유형이다. 질문은 인간의 독특한 표시이기도 하다. 많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소리를 내거나 심지어 말할 수 있어도, 질문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¹⁾ 구문론만을 고려하면, 질문의 기본 형태는 네 개다.²⁾ 어찌면 대화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질문은 변수 질문(variable question)일 것이다. 변수 질문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문 변수 단어(interrogative variable word)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³⁾ 화자(話者)는 종종 정보(은연중에 필요하거나 부족함을 인정하는)를 요청하기 위하여 변수 질문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화자는 청자(聽者)가 변수 x

*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New College of Florida 종교학 교수. douglasesstes@gmail.com. Douglas Estes, “Regular and Irregular Variable Questions in New Testament Greek”, *The Bible Translator* 72:3 (2021), 351-363.

**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scratch@kbtus.ac.kr.

- 1) H. B. Sarses, *Language and Human N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35, 175.
- 2) D. Estes, *Questions and Rhetoric in the Greek New Testament: An Essential Reference Resource for Exegesis* (Grand Rapids: Zondervan, 2017), 93. 언어학자들은 0과 11 사이의 개수를 지지하면서, 정확한 개수에 대해 논쟁한다. D. Estes, *The Questions of Jesus in John: Logic, Rhetoric and Persuasive Discourse*,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15 (Leiden: Brill, 2013), 44.
- 3) 헤크(F. Heck, *On Pied-Piping: Wh-Movement and Beyond*,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98 [Berlin: Mouton de Gruyter, 2008], 1-5)는 이 현상에 대한 더 나은 설명 중의 하나를 제시한다.

를 위한 질문을 “해결하리라” 기대한다. 예를 들면,

- (1) 몇 시인가? (그 시간이 x 이다.)
- (2) 누가 와이엇을 데리러 갈 것인가? (x 가 와이엇을 데리러 갈 것이다.)
- (3) 나딘은 왜 그 책을 썼는가? (나딘은 x 때문에 그 책을 썼다.)
- (4) Πόσους ἄρτους ἔχετε; — 마태복음 15:34 (너희는 몇 개의 떡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x 개의] 떡을 가지고 있다.)
- (5) Ποῦ σοφός; — 고린도전서 1:20상반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지혜 있는 자가 [x 장소에] 있다.)

각각의 표본 질문에서, 의문 변수 단어(예를 들면, “누가” 혹은 “몇 개의”)는 독자가 변수 x 를 해결해야 함을 나타낸다. 각각의 경우에, 의문 변수 단어의 의미론은 어떤 성격의 대답이 기대되는지 독자에게 암시한다. “누가 와이엇을 데리러 갈 것인가?”라고 물은 사람은, 숫자나 이유나 소네트 시 등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함을 독자에게 한정해 준다. 그러나 독자는 이것이 대답을 찾는 질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해, 발화의 정보 구조와 결합한 구문론(변수 단어의 포함)은 이러한 기대를 독자/청자에게 전달한다.

규칙 변수 질문

영어에서 대부분의 의문 변수 단어는 “wh” 글자로 시작하므로, 언어학자들은 종종 이 단어들을 “wh-단어”라고 부르고, 이 형태의 질문을 “wh-질문”이라고 부른다.⁴⁾ 이것에 관해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인도-유럽 언어도 거의 전부 같은 글자/소리 — 각각의 다른 언어에 존재하는 같은 글자/소리는 아니지만 — 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변수 질문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어 언어학자들은 이 형태의 질문을 “w-질문”이라고⁵⁾ 부른다. 왜냐하면 질문의 의문문 불변화사(particle) 대부분이 “w” 즉 /v/로 시작하기 때문이다.⁶⁾ 라틴어의 경우에는 “qu-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qu” 글자로 시작하는 의문 변수 단어들이 우세하기 때문이다.⁷⁾ 고대 그리스어

4) 예를 들면, who(누구), what(무엇), when(언제), where(어디에서), why(왜). How(어떻게)는 이 용어의 예외이다. Which(어떤 것)와 whether(~인지)는 특별한 종류의 wh-단어이지만, who나 what 등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5) [역주] 독일어 알파벳 w의 이름은 “베(ve:)”이고 음가는 /v/이다.

6) wann(언제), wie(어떻게), warum(왜), wo(어디에), wer(누구), was(무엇)를 포함함.

에는 π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어의 의문 변수 단어 대부분이 “ π ”글자로 시작하기 때문이다.⁸⁾ 인도-유럽 언어에 걸쳐 나타나는 이러한 일치는 조금 알려지거나 연구되는 공통성이다. 언급한 언어들 외에 몇 언어만 말하자면, 이 현상은 네덜란드어, 아일랜드어, 힌디어, 편자브어, 우르두어, 덴마크어, 포르투갈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스어의 고전-이전, 동(東)이오니아 방언이 변수 질문을 만들기 위해 k-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처럼,⁹⁾ 사실 이 현상은 인도-유럽 어족의 근간에 흐른다.

변수 단어로 형성되는 질문에 관해 언어학적으로 똑같이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인도-유럽 언어(예를 들면 영어, 독일어, 알바니아어, 덴마크어, 불가리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에서 이 형태의 질문을 하면, wh-단어/구가 예상(규범) 위치에서 의문절의 맨 앞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문 변수가 절의 앞으로 이동하는 이 현상을 wh-전향(前向) (혹은 wh-이동, 혹은 때때로 좌측-이동)이라고 부른다. 변수 질문에서 wh-단어가 전향하지 않고 예상 위치에 남아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wh-제자리(in situ)라고 부른다(힌디어, 편자브어 같은 일부 인도-유럽 언어 및 한국어, 일본어, 표준 중국어[Mandarin], 키쿠유어 같은 많은 비(非)인도-유럽 언어에서 흔한 특징임).¹⁰⁾ 따라서 변수 질문 구문론의 두 가지 기본 선택은 wh-전향과 wh-제자리이다.¹¹⁾

많은 자연 언어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엄격하게 따르지만, 물

7) quis(누구), quid(무엇), quando(언제), quomodo(어떻게), quot(몇), quantus(얼마)를 포함함. cur(왜)와 ubi(어디)는 예외임.

8) ποῦ(어디에), πῶς(어떻게), πότε(언제), πόθεν(어디로부터), ποῖος(어떤), πόσος(얼마), ποταπός(어떤 종류의), ποσάκις(몇 번)를 포함함. 주요한 예외는 τίς(누구)이다. 고전 그리스어에도 ποῖ(어디로), πότερος(둘 중의 어떤), πηλίκος(얼마나 큰), πῇ(어떻게)가 있다.

9) D. G. Miller, *Ancient Greek Dialects and Early Authors: Introduction to the Dialect Mixture in Homer, with Notes on Lyric and Herodotus* (Berlin: De Gruyter, 2014), 179-180.

10) 이 짧은 각주에서 나는 단문 wh-질문을 언급할 뿐이다. 영어처럼 wh-전향을 하는 일부 언어는, 그 유명한 복문/중문 wh-질문의 경우처럼, 여전히 wh-제자리 경우를 보인다(예를 들면, G. Grewendorf, “Multiple Wh-Fronting”, *Linguistic Inquiry* 32 [2001], 87-122). 더구나 힌디어와 같은 인도-유럽어의 wh-제자리 경우는 중국어 같은 비인도-유럽어의 wh-제자리 경우와 다르게 기능한다. V. Dayal, *Locality in WH Quantification: Questions and Relative Clauses in Hindi*,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62 (Dordrecht: Kluwer, 1996), 3.

11) O. Zavitevich-Beaulac, “On Wh-Movement and the Nature of Wh-Phrases: Case Re-Examined”, *Journal of Theoretical Linguistics* 2 (2005), 75. 나는 언어 연구에서 wh-제자리가 wh-전향보다 더 모호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참조, L. L. S. Cheng, “Wh-in-situ”, *Glot International* 7:4 (2003), 105. 세이블(J. Sabel, “Partial Wh-Movement and the Typology of Wh-Questions”, U. Lutz, G. Müller, and A. von Stechow, eds., *Wh-Scope Marking*, *Linguistik Aktuell* 37 [Amsterdam: Benjamins, 2000], 409)은 어떤 언어들에서는 그것이 단 두 개의 선택보다 더 복잡하다고 언급한다.

론 각각의 개별 언어에서 사용 중에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¹²⁾ 영어가 굴절이 심한 언어가 아니고 명료성을 위해 엄격한 어순을 지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어에서 wh-전향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wh-전향은 상당히 많은 다른 굴절어(많은 인도-유럽 언어를 포함하는)뿐만 아니라 독일어에서도 일어난다. 이제 우리는 헬레니즘 그리스어(Hellenistic Greek) π -단어들의 현상을 다룬다. 헬레니즘 기간의 그리스어가 정보 구조에 있어 비교적 유연하다면, 우리는 저자들이 변수 질문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유연성 — 일부는 π -전향이고 일부는 π -제자리이거나, 어쩌면 대부분은 π -제자리이고 가끔 π -전향(혹은 그 반대)이거나 — 을 보이리라 기대할 것이다. 정보 구조가 유연하다면, 우리는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 일어나는 π -단어의 전향이 일관성 없게 적용되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고대 그리스어의 질문 형성을 알게 되면, 그 언어의 사용자들이 의문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헬레니즘 그리스어와 관련해, 우리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시험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는 약 980개의 직접 질문이 있다.¹³⁾ 이 중에 538개는 변수 질문이다(약 55퍼센트). 538개의 직접 변수 질문 중에서 506개는 전향된 의문 변수 단어를 포함한다. 정확히 말해, 이 506개는 의문 변수의 예상된 좌측 이동을 보여 주는 구문론 구조를 포함한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다양한 장르와 저자를 모두 고려하면, π -전향 직접 질문은 매우 일관되게 나타난다(약 94퍼센트). 이 비율이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변수 질문은 영어 같은 엄격한 어순 언어의 엄격성에 근접하는 정보 구조를 지닌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몇 개의 예를 살펴보자.

(6) τίς γάρ σε διακρίνει; (누가 네 안에서 다른 것을 보느냐?¹⁴⁾)

고린도전서 4:7상반에서, π -단어인 τίς(누가)는 발화의 앞에 나온다. 신약성서의 그리스어가 π -제자리라면, 화자는 σε γάρ διακρίνει τίς;라고 질문할(수 있을) 것이다.

12) 영어에서 wh-전향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좋은 예는 반향 질문(echo question)이다. D. Estes, *The Questions of Jesus in John*, 136-138.

13) D. Estes, *Questions and Rhetoric in the Greek New Testament*, 25.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직접 질문을 정확히 찾아내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 논문의 모든 수치는 추정치로 여겨야 한다.

14) 다른 설명이 없으면, 이 예들의 번역은 NRS를 따른다.

- (7) Ἐν ποίᾳ ἐξουσίᾳ ταῦτα ποιεῖς;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

마가복음 11:28상반에서 π -단어인 ποίᾳ는 사실상 첫 번째 단어는 아니지만 발화의 앞에 나온다. 의문구(句)인 Ἐν ποίᾳ ἐξουσίᾳ(무슨 권위로)가 있기 때문이다.¹⁵⁾ 신약성서의 그리스어가 π -제자리라면, 질문은 ταῦτα ποιεῖς ποίᾳ ἐξουσίᾳ;처럼 되었을 것이다.

- (8) Πόσους ἄρτους ἔχετε; (How many loaves have you?, 너희는 몇 개의 떡을 가지고 있느냐?)

- (9) Πόσους ἔχετε ἄρτους; (How many loaves do you have?, 너희는 몇 개의 떡을 가지고 있느냐?)

(8)번과 (9)번은 각각 마가복음 6:38과 마가복음 8:5의 특이한 경우를 보여 준다. (8)번과 (9)번 모두 같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이유 없이 다른 어순을 보인다. 그렇지만 어순이 다르더라도 π -단어는 일관되게 전면에 위치하고 예상대로 좌측 이동을 유지한다.

- (10) Τί ἐμοὶ καὶ σοὶ γῶναι; (여자여, 그것이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4에서 예수는 질문하기 위해 사회적(phatic) 언어를 사용한다(막 5:7 및 눅 8:28과 비교하라). 그러나 여기에서도 관용 표현은 여전히 π -전향 방식을 따른다. 사회적 표현은 반드시 문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좌측 이동의 존재는 정보 구조의 엄격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표현은 의미론적 예상을 위반하는 만큼 기본적인 구문론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π -전향은 헬레니즘 그리스어의 완벽하게 암호화된 특징이다.¹⁶⁾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헬레니즘 그리스어의 화자와 청자는 질문에서

15) Wh-이동의 구(句) 양상에 관해 도나티(C. Donati, "On Wh-Head Movement", L. L. S. Cheng and N. Corver, eds., *Wh-Movement: Moving On*, Current Studies in Linguistics 42 [Cambridge: MIT Press, 2006], 21-46)를 참조하라.

16) 이와 마찬가지로, π -전향은 신약성서 이전 그리스어의 완벽하게 암호화된 특징으로 보인다. 호머(기원전 약 8세기), 소포클레스(기원전 5세기), 플라톤(기원전 5-4세기), 유딧서(칠십인역)(기원전 2세기)에서 선별된 부분들을 분석하면, π -전향이 표준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오디세이 1.170의 답화에는 네 개의 변수 질문이 있는데 모두 전향이 나타난다. τίς πόθεν εἰς ἀνδρῶν; πόθι τοι πόλις ἥδ' ἐστὶν τοκῆς; ὁποῖός τ' ἐπὶ νηὸς ἀφίκεο· πῶς δέ σε ναῦται ἤγαγον εἰς Ἰθάκην; τίνες ἔμμεναι εὐζετόωντο; “너는 누구며, 너는 어디 출신

π -전향이 일어나리라 예상하며, 질문자는 두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변수 질문의 의문문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π -단어의 포함 및 π -단어의 좌측 이동. 이것은 또한 π -제자리 정보 구조를 이용하는 질문을 만나는 일이 혼치 않음을 의미한다. 청자나 독자가 질문처럼 보이지만 π -전향을 하지 않는 발화를 만나면, 이것은 항상 불규칙 구문의 변수 질문이다.

불규칙 변수 질문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약 94퍼센트의 의문 변수 단어가 전향한다면, 이 규칙의 예외들 —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분명한 좌측 이동이 없는 약 6퍼센트의 질문들 —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예외들로 인해 두 가지 주요한 질문이 생긴다. 첫째로, 헬레니즘 그리스어는 의문문 변수 단어의 좌측 이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문법에 맞는가? 문법에 맞는다면, 그러한 불규칙 구문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문법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한 문제는 전달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복음서나 서신서를 구성할 만큼 그리스어가 유창한 저자(편집자, 번역자)는 문법에 문제가 있는 문장을 빠르게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질문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가? 이 질문들이 예외이고, 단지 문법에 어긋나는 발화가 아니면, 번역가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번역할 때 이 예외들을 설명하여야 한다.

스티븐 룬게(S. E. Runge)가 설명하듯이, “선택은 의미를 함축한다.”¹⁷⁾ 그러므로 저자가 규칙 문법을 위반하기로 — 예를 들면 변수 질문의 불규칙 형태를 사용하기로 — 선택할 때마다, 이 선택은 의미를 함축한다. 이 예외들의 각각의 경우에 저자는 π -전향이 아니라 π -제자리 질문을 만든다.¹⁸⁾ 그렇지만 이 현상을 일종의 전위(轉位)로 설명하는 것 — 다른 단어나 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단어나 구에 의해 π -단어의 위치가 바뀐다고 보는 것 — 도 가능하다. (영어처럼) wh-단어를 명백하게 좌측 이동시키는 엄격한 어

이나? 너의 부모는 누구냐? 너는 어떤 종류의 배를 여기에 가져왔느냐? 너의 선원들은 어떻게 너를 이타카로 안내하였으며, 너의 선원들은 얼마나 되느냐?” Homer, *The Essential Odyssey*, S. Lombardo, trans. and ed. (Indianapolis: Hackett, 2007), 6.

17) S.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Practical Introduction for Teaching and Exegesis*, Lexham Bible Reference Series (Peabody: Hendrickson, 2010), 5-7.

18) π -단어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단어나 구가 그것의 위치를 바꾸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순의 언어에서조차도, wh-제자리 즉 의도적으로 위치를 바꾼 질문이 문법적으로 옳은(혹은 어찌면 사회적 기대 때문에 문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어 화자는 (12)번 대신에 (11)번을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11) You want to go **where**? (너희는 어디에 가고 싶니?)

(12)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에 너희는 가고 싶니?)

여기에서 화자는 청중에게 의미심장한 화용론(話用論)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wh-제자리를 유지한다. 이 상황에서 화자는 절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11)번에서 강조점을 만들어 낸다.¹⁹⁾ 이와 대조적으로 (12)번은 wh-단어가 규범적 위치에 있을 때 문장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비록 영어가 엄격한 어순을 지키고, wh-이동이 영어의 완벽하게 암호화된 특징이지만, (11)번은 여전히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옳게 여겨진다. 이것은 구문론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화용론이 구문론에 개입한 탓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불규칙한 약 6퍼센트의 변수 질문 중에, 불규칙에 관한 두 가지 일반적인 유형 혹은 설명이 있다.²⁰⁾ 두 경우 모두 발화의 정보 구조는 의문문의 기본 구문론을 능가한다. 비록 이것은 헬레니즘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겠지만, 현대 번역가들이 그것을 항상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불규칙 변수 질문 두 종류는 (가) 비난적 *ού*(너는)의 발생 및 (나) 강조 표시의 두 이유로 인한 전위의 결과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불규칙 변수 질문 대부분이 내러티브 부분에 있지만(약 75퍼센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일반적인 질문 대부분 역시 내러티브 부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약 70퍼센트). 더구나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수사적 부분에는 (가) 비난적 *ού*와 (나) 강조 표시의 예들이 들어 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불규칙 변수 질문들이 대개 문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일부 예외가 있지만) 것이다.

변수 질문에서 불규칙의 첫 번째 유형은 비난적 *ού*이다. 이 경우에 질문

19)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and Stoughton, 1914), 417-418을 참조하라.

20) 상이한 π -단어들의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없어 보인다. π -단어들의 백분율을 분석해 보면, 불규칙 변수 질문들과 규칙 변수 질문들은 비슷하다. 예를 들면,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변수 질문의 약 66퍼센트는 *τίς*(누구)를 사용한다. 이와 비교해,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불규칙 질문의 약 78퍼센트는 *τίς*(누구)를 사용한다. 이 증가는 *Σὺ τίς εἶ;*(네가 누구냐?)라는 사회적 질문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다.

자는 인칭 대명사 *σύ*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질문의 정보 구조를 방해한다. *σύ*를 의문절의 앞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강조 표시를 위해 그 단어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이다.²¹⁾ 그러한 이동의 화용론적 목적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담화의 나머지 부분에서 질문의 목표를 분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비난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불규칙 변수 질문 중 대략 44퍼센트는 이 유형에 해당한다. 사도행전 19:15는 한 예이다.

(13) Τὸν [μέν] Ἰησοῦν γινώσκω καὶ τὸν Παῦλον ἐπίσταμαι, ὑμεῖς δὲ τίνες ἐστέ;

마치 변수 질문이 규칙적인 것처럼 이것을 번역한 영어 번역이 많다. 예를 들면, ESV에서는 이 발화를 “Jesus I know, and Paul I recognize, but who are you?(예수를 내가 알고, 바울을 내가 알아보지만, 누구냐 너희는?)”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번역은 문법의 불규칙성도, 그것이 강조하는 바도 설명하지 못한다.²²⁾ 질문자가 *σύ*(여기에서는 *ὑμεῖς*)를 강조해서 사용하는 점을 표시하려면, 번역에서 대명사는 두드러진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Jesus I know, and Paul I recognize, but **you** are who?(예수를 내가 알고, 바울을 내가 알아보지만, **너희**는 누구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더구나 로버트슨(A. T. Robertson)²³⁾이 옳다면, wh-제자리 전위는 사실상 절의 말미 가까이 있는 *τίνες*를 강조한다. “Jesus I know, and Paul I recognize, but you are **who**?(예수를 내가 알고, 바울을 내가 알아보지만, 너희는 **누구냐**?)” 어느 경우이든(*ὑμεῖς*를 강조하든 *τίνες*를 강조하든, 둘 다 강조하든), 이 불규칙 변수 질문을 규칙 변수 질문으로 번역하면, 질문의 구문론으로 인한 뚜렷한 표현에 맞추어진 수사적 초점이 흐려진다.

비난적 *σύ*에 작용하는 또 다른 역학이 있다.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 이 불규칙의 많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발화이다. 예를 들면,

(14) Σὺ τίς εἶ; (요 8:25상)

21) 두드러짐과 강조에 관해 S.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269-273을 참조하라.

22) 이 절이 규칙이라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을 것이다. Τὸν [μέν] Ἰησοῦν γινώσκω καὶ τὸν Παῦλον ἐπίσταμαι, **τίνες δὲ ὑμεῖς ἐστέ**; 그러나 사회적 용법이 아마도 이것을 배제할 것이다(그러나 칠십인역 창 27:18을 참조하라).

23)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417-418.

이 질문(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이문들)은 요한복음 1:19; 8:25상반; 21:12; 로마서 9:20상반; 14:4; 야고보서 4:12에 나온다. 성서 문헌 밖의 다른 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어 신약성서 밖에서는 칠십인역의 욥기 35:2 및 예레미야 4:30에 비슷한 방식으로 나온다.²⁴⁾ 카라구니스(C. C. Caragounis)²⁵⁾에 따르면, 그리스어의 진화는 수사적 $\sigma\upsilon$ 를 위하여 준비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화와 변증이, 질문과 진술에서 대화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sigma\upsilon$ 의 사용을 장려하였다.²⁶⁾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특정한 질문들의 불규칙성을 단지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이 질문들은 항상 $\sigma\upsilon$ 의 정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의미론적이고 화용론적인 효과를 — 비난으로서 — 끌어냈다. 가장 규범적인 형태로 (14), 그 질문은 그리스어 신약성서 시대에 이미 사회적 발화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규칙적 구문론은 아니지만, 화자들은 한 사람을 골라내고 확인하기 위하여 일상 대화에서 그것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청자는 정체에 대한 비난/요청의 수사적 효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형태의 변수 질문은 사실상 π -제자리가 아니라 π -전향일 수도 있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호칭과 비난의 $\sigma\upsilon$ 는 π -단어보다 더 강한 좌측 이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 질문들이 사실상 불규칙이 아님을 의미할 것이다.²⁷⁾

이 형태의 질문(14)이 사회적 기대 때문에 표준화되었다면, 번역은 더 힘들어진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25상반(14)을 단지 “Who are you?(누구나 너는?)”로 번역하는 영어 번역이 많다(ESV, NIV, NRS).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은 불규칙 구문론 및 구어체로의 진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일부 영어 방언에서, 회화체 표현인 “You’re **who**?(너는 **누구나**?)”는 질문에 암시된 날카로움과 비난적 어조를 더 정확히 포착할지도 모른다.

24) D. Estes, “Unasked Questions in the Gospel of John: Narrative, Rhetoric, and Hypothetical Discourse”, B. J. Koet and A. L. H. M. van Wieringen eds., *Asking Questions in Biblical Text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Leuven: Peeters, 2022), 229-246. 그러나 놀랍게도 칠십인역의 창 27:18(ὁ δὲ εἶπων Ἰδοὺ ἐγώ, **τίς εἶ σὺ**, τέκνον), 창 27:32(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Ἰσαὰκ ὁ πατὴρ αὐτοῦ **τίς εἶ σὺ**), 룻 3:9(εἶπεν δὲ **τίς εἶ σὺ**)는 그렇지 않다. 이 구절들의 질문은 규칙적이기 때문이다.

25)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Grand Rapids: Baker, 2006), 438-442.

26) 혹은, 문법학자 아폴로니우스 디스콜루스(서기 약 2세기)의 책에서 논의된, 강조의 호격 $\sigma\upsilon$ 일 수도 있다. G. S. Jones, “Studies in the Grammatical Theory of Apollonius Dyscolus”, Ph.D. Dissertation (Durham University, 1967).

27) 이것은 신약성서 그리스어에서 π -단어가 부정의 불변화사보다 더 강한 좌측 이동을 보이는 방식(예를 들면, 마 16:11; 막 7:5), 혹은 영어에서 접속사가 wh-단어보다 더 강한 좌측 이동을 보이는 방식과 비슷하다.

변수 질문에서 불규칙의 두 번째 유형은 강조 표시이다. 수사적 $\sigma\acute{\upsilon}$ 이상으로, 화용론적 두드러짐을 위한 단어와 구의 전위는, π -전향 규범이 무시됨에 따라, 불규칙성을 더 뚜렷하게 만든다. 이 경우에, 질문자는 질문의 명사(주어나 목적어)를 전위시킴으로써 질문의 정보 구조를 방해한다. 이 단어들을 의문절의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강조 표시를 위해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다.²⁸⁾ 그러나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좌측으로 전위된 $\sigma\acute{\upsilon}$ 보다 더 예상 밖이다. 그러한 이동의 화용론적 목적은 청자를 위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며, 의미심장하고 기억할 만한 수사적 절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약 56퍼센트의 불규칙 변수 질문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것의 한 예는 마태복음 17:25하반이다.

(15) οἱ βασιλεῖς τῆς γῆς ἀπὸ τίνων λαμβάνουσιν τέλη ἢ κῆνσον;
(세상의 왕들은 누구에게서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마치 변수 질문이 규칙적인 것처럼 이것을 번역한 영어 번역이 또한 많다. 예를 들면, ESV에서는 이 발화를 “From whom do kings of the earth take toll or tax?(누구에게서 세상의 왕들은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번역은 문법의 불규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질문자는 “세상의 왕들은(οἱ βασιλεῖς τῆς γῆς)”이라는 구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은 청자가 잠시 멈추고 그 개념을 수사학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언어학적 전략은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때 특별히 유용하다.²⁹⁾ 다시 말해, 세금 걷는 자들은 베드로에게 질문하고(마 17:24),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뵈는 때 아마도 그 세금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마 17:25). 예수는 베드로에게 세금에 관해 질문하는 대신에 왕들과 과세 문제로 전환한다. 왕들을 강조하는 예수의 초점을 표시하려면, 그 구는 번역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The kings of the earth — from whom do they take toll or tax?(세상의 왕들 — 누구에게서 그들은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³⁰⁾ 좌측 전위를 통해 절의 말미 근처를 더 강조할 수도 있는 비난적 $\sigma\acute{\upsilon}$ 의 불규칙과 달리, 강조 표시를 위해 전위된 구의 어색함으로 인해 청자는 전향

28) 두드러짐과 강조에 관해 S.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269-273을 참조하라.

29) *Ibid.*, 290-291.

30) 현대 영어 번역 중에 NIV 번역만이 마 21:25상반과 계 7:13 같은 구절에서 이것을 잘 포착하지만, 눅 17:17과 요 12:38하반 같은 구절에서는 기회를 놓친다.

된 명사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게 된다. “**The kings of the earth** — from whom do they take toll or tax?(**세상의 왕들** — 누구에게서 그들은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이 많은 불규칙의 예는 화자가 추가로 검토하고 칭찬하기 위해 제시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전위시킨다. “세상의 왕들”(마 17:25하), “그 아홉”(눅 17:17), “부활 때에 그 아내”(눅 20:33),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벧전 4:18), “흰 옷 입은 이들”(계 7:13). 다른 예들은 특이한 대상들이다. “요한의 침례”(마 21:25상), “이 [현재] 시기”(눅 12:56), “주의 팔”(요 12:38하). 따라서 이 불규칙 변수 질문들을 규칙 변수 질문으로 번역하면 질문의 구문론과 정보 구조로 인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수사적 초점이 흐려진다.

변수 질문에서 구를 두드러지게 표시하려는 화자나 저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는 누가복음 16:11-12에 나오는 예수의 이중 질문에도 나타난다.³¹⁾ 이 일련의 질문은 중간 담화 위치에 나오는 두 개의 평행 질문(둘 다 조건절로 도입되는 변수 질문이다)으로 구성된다.³²⁾ 예수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16) [εἰ ...], τὸ ἀληθινὸν τίς ὑμῖν πιστεύσει;

[만일 ...], 참된 것을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눅 16:11)

(17) [καὶ εἰ ...], τὸ ὑμέτερον τίς ὑμῖν δώσει;

[그리고 만일 ...], 너희의 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눅 16:12)

이것이 수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예수가 두 의문절에서 같은 방식으로 질문 형성의 구문론 규칙을 파괴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한 목적은 질문의 대상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논증을 더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함이다(두 평행 절은 결구[結句]반복[epistrophe] 및 음성일치[paromoiosis]를 보인다). 변수 질문의 구문론 자체는 어색하지만, 예수는 구를 꽤 멋지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 불규칙성을 숨긴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ESV에서는 이 발화를 “If then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o you the true riches?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았

31) 이중 질문의 형성과 수사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보려면, D. Estes, *Questions and Rhetoric in the Greek New Testaments*, 318-323을 참조하라.

32) Ibid., 311-316.

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으로 번역한다. 불규칙 문법과 수사적 효력을 보이려면 다음과 비슷하게 번역해야 한다.

Then if in unrighteous wealth you haven't been faithful,
True wealth — who will commend you?
And if in the stuff of others you haven't been faithful,
Your stuff — who will grant you?

불의한 재물에 너희가 신실하지 않았다면,
참된 재물을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남의 물건에 너희가 신실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물건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경우에 변수 질문의 의도적 이중 불규칙성으로 인해 그리스어 신약성서 변수 질문의 전반적인 규칙성이 부가적으로 입증된다.

향후 연구에 미칠 영향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시험 사례로 사용하면, 헬레니즘 그리스어는 규칙적으로 π -전향을 하는 언어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영어와 독일어 같은 다른 많은 현대 인도-유럽어와 비슷하다. 변수 질문에 관한 한, 그리스어는 질문을 위한 정보 구조를 엄격하게 지킨다. 그리스어는 이 엄격성을 드물게 (약 6퍼센트) 위반할 뿐이지만,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발화의 전위 특성이 의문 변수 단어의 좌측 이동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변수 질문의 규칙성 — 불규칙 변수 질문의 존재와 더불어 — 은 향후 연구의 두 영역을 제안한다. 첫째는 변수 질문들의 불규칙성의 의미를 정교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변수 질문들의 규칙성이 헬레니즘 그리스어의 어순과 정보 구조라는 더 큰 문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첫째로, 본 연구는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인 변수 질문의 이해와 번역을 위한 일반적 테두리를 제시하지만, 불규칙 변수 질문의 조건을 만드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조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일부 질문자들이 비난적 $\sigma\upsilon$ 구조에 적합할 법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질문자는 정확한 구문을 위하여 이 구조를 피한다(예를 들면, 칠십인역 룻 3:9).³³⁾ 이러

33) 어쩌면 룻기의 그리스어 번역자는 보아스의 혹독한 어조를 피하고 싶었으며, 그래서 질

한 “예외의 예외”는 수사적이거나 사회적 이유 때문일 수 있으나, 그러한 논의는 번역보다는 해석에 더 적합하다.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대명사 — 예를 들면, ἐγώ(나는, 행 11:17) 혹은 οὗτος(이것은, 요 6:9) — 가 수사적 οὗ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알려진 바 없다. 끝으로, 좌측 전위로 강조되는 명사 중 소수는 목적격(혹은 다른 격)을 사용하지만(행 8:33), 대부분 왜 주격에서 나타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마 17:25상).

둘째로, 언어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어의 어순이라는 난제를 완전히 —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만큼 — 풀지 못했다.³⁴⁾ 그것은 풀기 쉬운 난제가 아니며, 그 결과 그 문제는 가끔 관심을 받았을 뿐이다.³⁵⁾ 헬레니즘 그리스어 같은 언어의 평균 문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실제 단어 순서 선택 중에 매우 적은 비율만이 그 문장을 문법적으로 옳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난다.³⁶⁾ 이것은 사어(死語)를 해독하는 현대 독자들의 새로운 관심사가 아니다. 순서(τάξις)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어가 모국어였던 개인들이 표현한, 고대 수사학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³⁷⁾ 이러한 관심은 π -전향의 세부 사항 — 예를 들면, 그리스어가 파이 파이핑(pied-piping) 단어,³⁸⁾ 부분적 π -전향, π -일치 경우를 보이는가 — 을 미세 조정하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변수 질문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 인하여 번역가가 알게 되는 사실은 적어도 일부 영역에서 신약성서 그리스어의 어순은 매우 규칙적이며, 많은 사람이 종종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덜 ‘자유롭다’”는 것이다.³⁹⁾

문의 규범적 형태를 따라, “누구”와 “너는”의 강조점을 줄인 τίς εἶ σὺ;(누구나 너는?, Who are you?)라고 번역했을지도 모른다.

34) E. van Emde Boas and L. Huitink, “Syntax”, E. J. Bakker, ed., *A Companion to the Ancient Greek Language*, Blackwell Companions to the Ancient World (Malden: Wiley-Blackwell, 2010), 148-149를 참고하라.

35) S. E. Porter, “Word Order and Clause Structure in New Testament Greek: An Unexplored Area of Greek Linguistics Using Philippians as a Test Case”, *Filologia Neotestamentaria* 6 (1993), 177-205.

36) R. S. Cervin, “A Critique of Timothy Friberg’s Dissertation: New Testament Greek Word Order in Light of Discourse Considerations”, *Journal of Translation and Textlinguistics* 6 (1993), 57-58.

37) C. C. de Jonge, “From Demetrius to Dik: Ancient and Modern Views on Greek and Latin Word Order”, R. J. Allan and M. Buijs, eds., *The Language of Literature: Linguistic Approaches to Classical Texts*, Amsterdam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13 (Leiden: Brill, 2007), 214.

38) “파이 파이핑(pied-piping)은 초점을 받는 표현이 그것의 구 전체를 초점 위치로 옮기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39) A. W. Pitts, “Greek Word Order and Clause 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of Some New Testament Corpora”, S. E. Porter and A. W. Pitts, eds., *The Language of the New Testament*:

결론적으로, 변수 질문 규칙성의 가장 중요한 함축적 의미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번역과 해석에 미칠 미래의 영향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wh-단어를 전향시키는 현대 언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는 신약성서 그리스어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확실히 예상하고, 규칙 변수 질문을 항상 wh-전향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동시에 규칙성의 효력 때문에, 번역가는 불규칙 변수 질문을(마치 규칙 변수 질문처럼) 전향된 wh-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규칙 형태를 규칙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의문 변수 단어들의 규칙성이 일관적이라면,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소수의 불규칙 변수 질문을 만든 이들은 틀림없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기록된 발화의 의도된 화용론 — 수사적 효력과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는 — 에 대한 지식은 번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제어>(Keywords)

의문문, 질문, 그리스어, 신약성서, π -질문, wh-질문, π -이동, wh-이동, π -전향(前向), wh-전향, 변수 질문, 정보 구조, 어순.

interrogative, question, Greek, New Testament, π -question, wh-question, π -movement, wh-movement, π -fronting, wh-fronting, variable questions, information structure, word order.

(투고 일자: 2025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 Caragounis, C. C.,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Grand Rapids: Baker, 2006.
- Cervin, R. S., “A Critique of Timothy Friberg’s Dissertation: New Testament Greek Word Order in Light of Discourse Considerations”, *Journal of Translation and Textlinguistics* 6 (1993), 56-85.
- Cheng, L. L. S., “Wh-in-situ”, *Glott International* 7:4 (2003), 103-109.
- Dayal, V., *Locality in WH Quantification: Questions and Relative Clauses in Hindi*,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62, Dordrecht: Kluwer, 1996.
- de Jonge, C. C., “From Demetrius to Dik: Ancient and Modern Views on Greek and Latin Word Order”, R. J. Allan and M. Buijs, eds., *The Language of Literature: Linguistic Approaches to Classical Texts*, Amsterdam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13, Leiden: Brill, 2007, 211-232.
- Donati, C., “On Wh-Head Movement”, L. L. S. Cheng and N. Corver, eds., *Wh-Movement: Moving On*, Current Studies in Linguistics 42, Cambridge: MIT Press, 2006, 21-46.
- Estes, D., *Questions and Rhetoric in the Greek New Testament: An Essential Reference Resource for Exegesis*, Grand Rapids: Zondervan, 2017.
- Estes, D., *The Questions of Jesus in John: Logic, Rhetoric and Persuasive Discourse*,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15, Leiden: Brill, 2013.
- Estes, D., “Unasked Questions in the Gospel of John: Narrative, Rhetoric, and Hypothetical Discourse”, A. L. H. M. van Wieringen and B. J. Koet, eds., *Asking Questions in Biblical Text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Leuven: Peeters, 2022, 229-246.
- Grewendorf, G., “Multiple Wh-Fronting”, *Linguistic Inquiry* 32 (2001), 87-122.
- Heck, F., *On Pied-Piping: Wh-Movement and Beyond*,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98, Berlin: Mouton de Gruyter, 2008.
- Homer, *The Essential Odyssey*, S. Lombardo, trans. and ed., Indianapolis: Hackett, 2007.
- Jones, G. S., “Studies in the Grammatical Theory of Apollonius Dyscolus”, Ph.D. Dissertation, Durham University, 1967.
- Miller, D. G., *Ancient Greek Dialects and Early Authors: Introduction to the Dialect Mixture in Homer, with Notes on Lyric and Herodotus*, Berlin: De Gruyter, 2014.
- Pitts, A. W., “Greek Word Order and Clause 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of

- Some New Testament Corpora”, S. E. Porter and A. W. Pitts, eds., *The Language of the New Testament: Context, History, and Development*, Linguistic Biblical Studies 6, Leiden: Brill, 2013, 311-346.
- Porter, S. E., “Word Order and Clause Structure in New Testament Greek: An Unexplored Area of Greek Linguistics Using Philippians as a Test Case”, *Filologia Neotestamentaria* 6 (1993), 177-205.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and Stoughton, 1914.
- Runge, S. 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Practical Introduction for Teaching and Exegesis*, Lexham Bible Reference Series, Peabody: Hendrickson, 2010.
- Sabel, J., “Partial *Wh*-Movement and the Typology of *Wh*-Questions”, U. Lutz, G. Müller, and A. von Stechow, eds., *Wh-Scope Marking*, Linguistik Aktuell 37, Amsterdam: Benjamins, 2000, 409-446.
- Sarles, H. B., *Language and Human N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 van Emde Boas, E. and Huitink, L., “Syntax”, E. J. Bakker, ed., *A Companion to the Ancient Greek Language*, Blackwell Companions to the Ancient World, Malden: Wiley-Blackwell, 2010, 134-150.
- Zavitnevich-Beaulac, O., “On *Wh*-Movement and the Nature of *Wh*-Phrases: Case Re-Examined”, *Journal of Theoretical Linguistics* 2 (2005), 75-100.

<약어>(Abbreviations)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2001, 2016)
GNB	Good News Bible (1994)
GNT	Greek New Testament
IE	Indo-European
LXX	Septuagint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1978, 2011)
NR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초록>

신약성서 그리스어의 규칙 및 불규칙 변수 질문

헬레니즘 그리스어(Hellenistic Greek)에서 직접 화법에 나타나는 변수 질문의 형성은 놀랍도록 규칙적이다. 그러나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보이는 표준 규칙에는 몇 개의 예외가 있다. 이 예외들은 수사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며, 이 의문문들의 정보 구조와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규칙을 따르는 질문들 — 그리고 예외들 — 모두 신약성서 그리스어 어순의 규칙성을 잘 보여 준다.

<서평>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정중호,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안교성*

1. 서론

구약성서학자인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정중호 교수가 은퇴를 즈음한 2022년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이하 본서)를 출간했다. 한국교회는 성경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경기독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이고, 성경의 역사 특히 성경 번역사는 성서신학과 한국교회사의 핵심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성경 역사 혹은 성경 번역사는 연구 소외 분야 중 하나였고, 통사적 시도는 매우 부족했으며, 더구나 천주교와 개신교를 망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의 출간은 성경 번역사, 성서신학,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첫째, 저자는 구약성서학자인 동시에 아시아기독교학자이다. 저자는 기존의 한국 성경 번역사가 개신교 성경 번역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추세를 교정하고자, 한국 성경 번역사에 대한 논의를 천주교, 나아가 아시아기독교 선교 초기로 소급함으로써, 균형 잡힌 한국 성경 번역사를 구성하려고 했다.¹⁾ 그리고 저자는 성경 번역을 성경 수용, 번역, 해석이라는 맥락 속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kyosahn@hanmail.net.

1) 다음 논문도 성경 번역의 역사를 아시아기독교 초기로 소급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경 번역은 천주교 성경 번역을 제외한 개신교 성경 번역만을 다룬다. 이효림, “중(中)·한(韓) 성서 번역의 역사와 십계명(출 20:1-17) 번역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2018).

에서 접근했다. 둘째, 저자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대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²⁾ 그는 먼저 시대별 연구 논문들을 출간했고, 그 결과를 집대성하여 본서를 출간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저자의 평생 연구 특히 연구 성숙기의 성과가 집대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라는 제목부터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도발적이다. 본서는 성경 번역의 기원과 성경 번역의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본서는 한국 성경 번역의 역사가 개신교 중심으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150년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300년에 달한다는 주장을 천명했다. 이런 주장은 본서의 목적에도 드러난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본 저서의 목적은 존 로스(J. Ross)가 번역한 1882년(1882년, sic.)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그리고 1898년 구약의 『시편촬요』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이미 성경이 한국 땅에 들어왔으며 번역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역사를 추적하여, 1900년 이전 한국 성경 번역과 해석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것이다.”³⁾

둘째, 선교 과정에서 천주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교리서 번역을 먼저 시도하고, 개신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번역을 먼저 시도한다는 통념이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성경 번역사는 주로 개신교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 번역사는 성경을 낱권이나 전서를 기준으로 하면 개신교가 천주교에 앞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경의 일부를 기준으로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천주교는 1977년에서야 비로소 에큐메니컬 성경인 『공동번역』을 통해 첫 번째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의 일부는 18세기 말부터 번역되기 시작했다. 저자가 본서의 부제를 ‘번역의 역사’가 아닌 ‘번역과 해석의 역사’라고 붙인 것도 성경전서가 아닌 성경의 일부를 주목할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추정된다.

여하튼 본서의 출간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는 본서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든 않든 간에, 본서가 던진 두 가지 질문 즉 한국의 성경 번역의 기원과 범위라는 질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정중호, “고려시대 기독교”, 『신학사상』 160 (2013), 109-130;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19:4 (2013), 318-347;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0:2 (2014), 12-40;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1:2 (2015), 65-90; “한문성경기(漢文聖經期)와 성경 해석”, 『신학사상』 165 (2014), 91-126; “19세기 구약성경 번역과 해석의 역사 - 『고경』(『고성경』)과 『성교감략』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68 (2015), 7-41; “17-18세기 한국 선교와 지해문학: 『칠극』, 『기인십편』, 『성경직희』를 중심으로”, 『선교와신학』 39 (2016), 297-326.

3)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12.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본서의 머리말에도 나온다.

2. 『한국 성경 300년』 내용과 분석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곧 제1부 성경 수용의 여명기, 제2부 17-18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 제3부 19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이다. 간단히 말해, 제2부는 천주교의 초기 성경 번역 역사를 다루고, 제3부는 19세기의 천주교 및 개신교의 성경 번역 역사를 다룬다. 따라서 본서는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천주교 및 개신교의 성경 번역 역사는 다루지 않는다. 본서가 한국교회 성경 역사 혹은 한국교회 성경 번역사의 통사적 시도를 한 연구물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를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사적 성격에서 볼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20세기 이후의 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다. 장차 저자에 의해서든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든 최근까지 포함한 한국 성경 번역사에 관한 통사가 나올 필요가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든 간에 본서는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편 제2부와 제3부의 성경 번역 역사를 기독교 초기 특히 아시아기독교 초기와 연결하기 위하여, 제1부는 성경 수용에 대해서 다룬다. 제1부는 제목 그대로 ‘성경 번역과 해석’의 시기라기보다는 ‘성경 수용’의 시기이다.

본서와 본서에서 다루는 문서들의 역사적 좌표를 잡기 위해, 먼저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사를 간단하게 개관하자. 한국교회의 경우, 사료로 입증할 수 있는 성경 번역사는 천주교로부터 시작된다. 크게 말해, 천주교 이전의 아시아기독교(혹은 경교)의 성경 번역사는 추정 수준에 머문다. 이성우에 의하면,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는 크게 4시기로 나뉜다. 제1기 『성경직해광익』부터 『사사성경』 전까지(1784-1909), 제2기 『사사성경』부터 『복음성서』까지(1909-1948), 제3기 선종완 신부의 구약성서 번역부터 『공동번역 성서』까지(1958-1977), 제4기 『200주년 신약성서』에서 『신약성서 새번역』까지(1974-2002)이다.⁴⁾ 2005년에 『성경』이 완간되었으니, 시기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신교의 성경 번역사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학계의 공감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예수성교누가복음 전서』부터 『성경전서』까지(1882-1911), 제2기 『새번역신약』부터 『공동』까지(1967-1977), 제3기 『공동』부터 『새한글』까지(1977-2024)이다.

4) 이성우, “한국인의 주체 의식과 성서 번역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성서 번역사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5 (2003), 33-60.

2.1. 서론

저자는 서론에서 본서의 목적뿐 아니라, 본서의 핵심적 관점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다. 본서가 이 시각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은 4가지로, “한문 번역 성서의 특별한 의미”⁵⁾, “교리서를 포함한 신앙서적과 다양한 서학서(西學書)에 부분적으로 포함된 성경 내용이 있다”⁶⁾, “만주 간도지역을 역사적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⁷⁾, “한국인 네트워크”⁸⁾ 등이다.

저자는 첫째 시각에서 동아시아가 일종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임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이런 시각에서 교회사, 선교 역사, 성경 번역을 포함한 문서 번역사를 연구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각은 학계의 공감대가 있는 시각이다.

둘째 시각은 성경 번역을 성경의 전서나 날권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경의 일부도 중시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은 저자의 기본 시각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 토대하여, 저자는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를 천주교가 처음으로 성경의 날권을 번역한 『사사성경』 이전으로 소급시킨다. 따라서 천주교 문서 번역사에서 중요한 『성경직해광익』과 『사사성경』 사이의 많은 문서를 연구하고 소개하였다.

셋째 시각은 한국의 범위 특히 한국인의 범위라는 문제를 성경 번역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만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만주 관련 연구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 연구 소외 분야이기에 아직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조심스럽다. 저자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담한 주장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사료에 근거한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자는 만주에 거주한 한국인의 선교적 역할, 한국의 성경 번역사와의 관련 등을 언급하고⁹⁾, 특히 뵈와로(Louis Antoine de Poirot, 1735-1813, 뵈아로, 賀淸泰) 신부에 의해 번역된 만주어 성경 이외에 한문 번역 성경을 한국인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내의 정약종이 『주교요지』에서 자세한 성경 지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구약성경을 읽었을 가능성까지 언급한다.¹⁰⁾ 그러나 저자도 언급했듯이 뵈와로의 만주어 성경과 한문 성경이 필사본으로 존재했기에, 만주 거주 한국인

5)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8.

6) Ibid., 19.

7) Ibid., 20.

8) Ibid., 22.

9) Ibid.

10) Ibid., 137.

이 ㅼ와로의 만주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을 접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들이 이 필사본을 취득하고 더구나 만주어까지 익혀 만주어 성경을 해독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¹¹⁾

넷째 시각은 새로운 교회사 혹은 기독교사 담론으로 대두된 ‘세계기독교사[학]’가 강조하는 시각이다. 이것 또한 학계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시각이다. 앞으로 이런 시각에 의해서 성경 번역사를 비롯한 아시아기독교사가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민족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인종, 국경, 언어를 포함한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고, 따라서 성경 번역도 이런 광범위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선교 역사에서 문서 선교의 역사는 선교가 먼저 이뤄진 선교지의 성과가 후속 선교지에서 활용되는 데 착안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2. 제1부

제1부는 본격적인 성경 번역사라기보다는 성경 수용사요 일종의 기독교 전래사이다. 저자는 성경 번역이 이뤄지기 이전에 이미 한국과 기독교의 조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1부는 경교와 천주교의 도래에 대해서 다루는데, 간략한 아시아기독교사적인 성격을 지닌다.

경교는 고려시대 이전과 고려시대로 양분해서 다뤄진다. 저자는 고려시대 이전에 대해서는 당대(唐代)에 한국과 일본에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선시대 문헌이 경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소개한다.¹²⁾ 경교는 원대(元代)에는 에리케운(야리가온) 등으로 불리는데, 에리케운(야리가온)이 경교만 가리키는지 혹은 경교와 천주교를 모두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최근 여러 학설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 본서 포함 —, 에리케운(야리가온)을 주로 중국 역사서를 토대로 복 혹은 복음이란 의미와 연결하는 학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에리케운(야리가온)의 어원을 몽골의 ‘거룩한’이란 뜻을 지닌 ‘아리온’(아리온의 몽골고어는 아리곤)으로 연결하는 입장도 있다.¹³⁾ 이런 해석에 따르면, 에리케운(야리가온)은 결국 ‘거룩한[것]’ 즉 ‘종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경교든 천주교든 모두를 가리

11) 설련(薛蓮), “만주어 『신약전서』 - 중국 대련도서관 소장본 -”, 송강호 역, 「성경원문연구」 30 (2012), 249-262.

12) 중국의 경교 문서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 책을 볼 것. M. Nicolini-Zani, *The Luminous Way to the East: Texts and History of the First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3) 이 점을 상기시켜 준 김봉춘 박사(몽골국립대학교 박사)에게 감사한다.

킬 가능성이 있다.¹⁴⁾

또한 저자는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한몽관계를 통해서 정동행성 평장정사로 부임하여 고려의 노예제도를 개선하려 했던 활리길사 등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¹⁵⁾ 그러나 아쉽게도 제1부가 다루는 시기의 한국과 기독교(경교와 천주교 모두)의 조우는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아직까지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추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전반적으로 말해, 제1부는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부는 아시아기독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다루기보다는 차라리 성경 번역사의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2부와 제3부를 확대했다면 더 나았으리라고 여겨진다.

한편 천주교에 있어서, 저자는 천주교의 기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생적 신앙공동체 기원설이 아니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진왜란 세스페데스 신부 도래설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성경 번역사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교회의 기원과 선교의 기원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연관된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역사신학적 해석이 필요한데,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선교의 목적 및 실효성 그리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세스페데스 신부 도래설은 국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1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칭기즈 칸에 관한 것들이라서 굳이 언급한다. 하나는 칭기즈 칸의 이름을 어원분석하면서, 칭기즈 칸=칭+기즈+칸으로 나누고 기즈가 기독교 이름이기에 칭기즈 칸이라는 이름도 기독교 이름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참신한 주장이라서 근거를 제시했으면 한다.¹⁶⁾ 다른 하나는 칭기즈 칸과 기독교 종족으로 알려진 케레이트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칭기즈 칸을 케레이트족 양자 혹은 출신이라고 하는데¹⁷⁾, 양자나 출신이 아니라 동맹 관계이다.¹⁸⁾ 따라서 칭기즈 칸이 기독교화되기보다는 기독교가 칭기즈 칸의 종교 정책에 지휘를

14) 관련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중국천주교 역사를 평생 연구해 온 서양자도 야리가온이 경교와 천주교를 모두 가리킨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연,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펴낸 서양자 수녀”, 『가톨릭신문』 2023.11.1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311140220019> (2025.01.30.). 또한 다음 책을 볼 것. 서양자,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서울: 순교의맥, 2023).

15) 조원, “원제국의 법제와 고려의 수용 양상”, 남종국 외,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명의 교류: 아비뇽에서 개경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304-306. 이 글은 활리길사를 ‘고르기스’로 표기한다.

16)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55-56.

17) Ibid., 55, 69.

18) 이 점 역시 『몽골비사』 2권 69를 통해 재확인해준 김봉춘 박사에게 감사한다.

받게 된다. 몽골 왕족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칭기즈 칸이 아니라 기독교 종족을 모친으로 둔 그의 후손들이다.

2.3. 제2부

제2부는 17-18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을 다루면서, 시대적 배경,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과 한국인의 저술, 성경 번역과 해석(구약성경, 외경, 신약성경)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사실상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제2부는 한국 성경 번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위해서 먼저 중국의 한역서학서 번역사를 다룬다. 최근에는 인근 선교지의 선교 성과의 상호 영향에 착안하여, 국가별 역사 연구를 넘어서 권역별 역사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가령 동아시아의 천주교 선교 역사를 연구한 로스(A. C. Ross)는 해당 국가들을 동시에 조망하는 공관적(synoptic) 시각을 강조한 바 있다.¹⁹⁾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선교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려면 중국교회사와 일본교회사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저자가 한국 성경 번역사의 배경이 되는 중국의 한역서학서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다루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제공하기에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역서학서와 한국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본서와 관련하여 중국 서학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서학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곧 서학(西學)과 서학의 일부로 서양종교에 관련된 서교(西敎)이다.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은 후자에 있다. 후자는 일반 대중(혹은 초신자)을 대상으로 한 변증적 기능을 지닌 변증서적과 신자를 대상으로 한 목회적 기능을 지닌 종교서적으로 나눌 수 있다. 변증서적은 일반 서학과 서교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고, 따라서 변증서적은 연구자에 따라 종종 다른 범주에 배당되기도 한다. 한편 종교서적은 성경과 신앙생활과 관련된 신앙서적으로 나눌 수 있다. 신앙서적은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범주에 속한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 본격적인 성경 번역은 후대에 이뤄지지만, 신앙서적을 위해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은 복음서 번역이 불가피하다. 한국 천주교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직해광익』도 복음서 번역과 직접 관련 있다.

19) A. C. Ross, *A Vision Betrayed: the Jesuits in Japan and China 1542-1742* (Maryknoll: Orbis, 1994).

둘째, 천주교의 성경 번역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적어도 성경 번역의 목적이 성경 번역 자체가 아니라 신앙서적 특히 교리서적을 위한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천주교는 성경을 교도권을 통해서 가르치고 접하게 하기 때문에, 개신교와 달리 성경 본문만을 번역하지 않고 주를 다는 경우가 많다. 한국 천주교가 성경이 주 없이 번역되었다는 이유로 주 달린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도 했다. 따라서 천주교의 성경 번역에 있어서,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경(經)과 해설에 해당하는 잠(箴)을 구분하는 구분법이 중요한 구조를 이룬다.²⁰⁾ 저자는 잠을 다루지만, 경과 잠의 구분법은 소개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중국한역서학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지면 상으로나 서평 성격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부록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부록 1>은 천주교의 성경 번역(보다 광범위한 문서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학징의』의 부록인 ‘요화사서소화기’(妖畵邪書燒火記)에 나타난 문서 목록을 최근 완간된 조광의 『역주 사학징의』를 이용하여 전부 소개한다.²¹⁾ <부록 1>은 요화사서소화기에 따라 출처 순서대로 소개하되, 한글본과 한문본(*가 달린 문서)을 구별한다. <부록 2>는 ‘요화사서소화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최중복이 그의 논문에서 해당 문서들을 한글본과 한문본으로 나누고, 한글본과 한문본을 각각 문서 성격에 따라 분류한 표를 소개한다.²²⁾ <부록 2>는 한글본은 성서, 전례서, 성사서, 기도서, 신심묵상서, 교리서, 성인 등 전기, 기타로 나누고, 한문본은 성서, 전례서, 기도서, 신심묵상서, 교리서, 성인전기, 기타로 나눈다. <부록 3>은 최근 발간된 서학 문서를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자료집의 목차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중국한역서학서 및 관련 실학서적을 소개한다.²³⁾ <부록 3>은 총서, 종교, 과학, 지도(1권), 종교, 과학(2권), 논저, 논설(3권), 논저, 논설(4권), 문집(5-1권), 연행록, 백과전서(5-2권), 문집(6권) 등으로 분류된다. 대략 이 세 가지 부록을 이용하면, 저자가 소개하는 문서의 성격과 역사적 좌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 서원모, “『성경직해』(聖經直解)의 성경해석과 교부·고전 문헌 인용 양상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69 (2024), 143-186; 서원모, 광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 『天主降生言行紀略』, 『天主降生聖經直解』와 『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 (2017), 115-157.

21) 조광, 『역주 사학징의 I』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1); 『역주 사학징의 II』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2022).

22) 최중복,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 ‘요화사서소화기’에 기록된 천주교 서적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5).

2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파주: 경인문화사, 2020).

이제 제2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저자는 제1장 시대적 배경에 이어서, 제2장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과 한국인의 저술에 집중한다. 이 부분이 제2부의 핵심이다. 먼저 ‘한문성경, 만주어 성경, 한글 성경’ 부분에서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 따라 한문성경을 접하는 것을 ‘한문성경기’로 명명하고, 1900년까지로 설정한다.²⁴⁾ 따라서 한문성경이 한국기독교 초기에 영향을 미쳤기에,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한문 성경이 대두된 것도 설명한다.²⁵⁾ 그리고 한문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음, 구결, 언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²⁶⁾ 이것은 본서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만주어 성경에 대해서는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저자는 출간되지 않은 필사본 『만주어 구약성경』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송강호에 의하면 만주어 성경은 『신약전서』가 간행되었다.²⁷⁾ 저자는 한글 성경은 초기에 번역도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출간이나 배포 등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필사와 암송을 통해서 보급되었음을 강조했다.²⁸⁾ 이것도 본서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과 ‘한국인의 저술’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중국한역서학을 소개하는데, 바셋역본도 소개한다. 바셋역본은 모리슨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바셋역본이 한국교회 성경 번역에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자는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 즉 서교 문서로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을 비롯하여 바셋역본에 이르기까지 총 22개를 소개한다.²⁹⁾ 관련 연구에 의하면, 당시 소개된 천주교 서적은 약 50개에 이른다.³⁰⁾ 저자가 소개하는 22개 문서 중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은 『성경직해』와 『성경광익』 이외에 5개였

24)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12.

25) Ibid., 117.

26) Ibid., 118-126.

27) 설련, “만주어 『신약전서』 - 중국 대련도서관 소장본 -”.

28)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37-142.

29) 『성경직해』와 『성경광익』, 『칠극』, 『천주강생언행기략』, 『성영속해』, 『천주실록』, 『천주성교십계직전』, 『기인십구』, 『기인십편』, 『교요서론』, 『수진일과』, 『지도자증』, 『성세주요』, 『삼산논학기』, 『주제군징』, 『주교연기』, 『영언여작』, 『직방외기』, 『기기도설』, 『교우론』과 『이십오언』, 『바셋역본』 등이다. 분류는 20개로 했지만, 1번과 19번에 각각 2권씩을 소개하여 총 22개가 된다.

30) 배현숙, “17-8세기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교회사연구』 3 (1981), 3-45; 원재연, “18세기 후반 북경 천주당을 통한 천주교 서적의 조선 전래와 신앙공동체의 성립”, 『동양한문학연구』 30 (2010), 53-81; 최중복,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안종찬,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전례기도생활: 전례서와 기도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6). 최중복의 논문은 89쪽에서 배현숙의 연구를 토대로 도표를 제공한다.

고, 나머지는 대부분 번역되지 않았기에 한문 서적을 통해 내용만 전해졌을 뿐이다.³¹⁾ 저자가 이 부분에서 번역과 수용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저자의 논리의 흐름을 쫓아가는데 다소 혼란을 경험한다.

저자는 한국교회는 수용과 번역에 있어서 독자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가령 한국천주교는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을 합해 『성경직해광익』이라는 역본을 만들었다.³²⁾ 또한 한국인의 저술로 『주교요지』, 『십계명가』와 ‘천주공경가’를 소개한다. 한국인의 저술 중에서 그동안 이벽의 『성교요지』가 널리 알려지고 연구도 많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위조문헌설이 나왔는데, 다행히 본서는 『성교요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³³⁾

제3-5장은 각기 구약성경, 외경, 신약성경의 번역과 해석을 소개한다. 저자는 제3-5장에서 성서신학자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경 번역에 대해 심도 깊고도 다양하게 연구를 추진했다. 이 부분은 특히 저자의 기여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은 히브리성서 전통에 따라 삼분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한역서학서와 한글 번역은 역시 『성경직해광익』이다. 『성경직해광익』은 『성경직해』 번역본과 『성경광익』 번역본을 편집하여 합본한 것으로 이해해 왔고, 최근에는 다른 책도 추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요화사서소화기에는 『성경직해』, 『성경광익』과 더불어 『성경직해광익』이 아닌 『성경광익직해』가 나온다. 『성경광익직해』와 『성경직해광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자는 『성경광익』이 앞서고 주가 되고, 후자는 『성경직해』가 앞서고 주가 되는 등 차이는 있으나 동일선상에 있다는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역주 사학정의』를 내놓은 조광은 전자와 후자는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하튼 『성경직해광익』은 그 자체가 널리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핵심적인 신앙서적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 『성경직해』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성경직해』가 번역 출간 배포된 것을 1784년 이후 한국천주교의 교회 성장과 연결시키면서³⁴⁾, 성경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31) 저자가 『성경직해』와 『성경광익』 이외에 부분적으로나마 번역되었다고 밝힌 것은 『성영속해』, 『[천주성교]십계진전』, 『교요서론』, 『수진일과』, 『성세추요』이다.

32) 원순옥, “『성경직해』의 특수 어휘 연구”, 『한국말글학』 30 (2013), 121-142; 조현범, “한글 활판본 『성경직해』에 나타난 번역상의 특징”, 『장서각』 42 (2019), 270-301; 박인희, “『성경직해광익』과 초기 한국 기독교의 공동체적 전망”, 『성경원문연구』 50 (2022), 234-260.

33) 김현우, 김석주,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는 위조문헌인가?”, 『기독교사상』 729 (2019), 21-31.

34)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47.

2.4. 제3부

제3부는 19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을 다루는데, 구성은 제2부와 동일하다. 즉 시대적 배경, 한국에서 수용한 기독교 서적과 한국인의 저술, 그리고 성경 번역과 해석 등 3부분이다. 19세기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모두 성경 번역에 나섰다 때문에, 성경 번역과 해석은 다시 천주교의 성경 번역과 해석, 개신교의 성경 번역과 해석으로 나뉜다.

저자는 시대적 배경에서 주문모 신부와 유방제 신부 등 선교사를 소개한다. 주문모 신부는 문서 번역에 기여했고, 유방제 신부는 한국인의 성직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신학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다.³⁵⁾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주문모 선교사가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문서 번역을 강하게 추진했다는 설도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다룰 만한 주제이다. 저자는 천주교의 성경 번역에서 『고경』, 『고성경』, 『성교감략』, 『천주성교례규(틴주성교례규)』를 다뤘다. 기존에는 최초의 본격적인 성경인 『사사성경』이 주목을 받았다. 『사사성경』은 4복음서를 번역한 성경인데, 추후에 사도행전이 추가 번역되었다. 그런데 본서는 성경의 전서나 낱권 번역보다 성경의 일부 번역을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고경』, 『고성경』, 『성교감략』, 『천주성교례규』를 부각시켰다. 『고경』과 『고성경』은 거의 동일한 필사본이지만, 몇 가지 차이도 보인다.³⁶⁾ 저자는 『고성경』이 더욱 읽기 편한 번역을 했다는 점에서 『고경』의 후대본으로 이해한다. 『성교감략』은 신구약 주요 대목을 뽑은 것으로, 한문본은 1866년 작성되었고, 한글본은 1883년에 간행되었다.³⁷⁾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교감략』은 성경 이외에 교회사도 수록되었다는 것이다.³⁸⁾

특히 저자는 구약학자로서 구약 번역에 관심을 보였다. 『고경』은 창세기를 다루고, 『천주성교례규』에 시편이 번역된 것을 강조한다. 『천주성교례규』는 신앙서적 중에서도 예식서였다. 『고경』은 번역자 미상으로, 소유자는 리샤르를 거쳐 뫼텔 주교에 이르렀는데, 리샤르의 이력을 볼 때, 로스 번역이 이뤄지기 이전에 만주나 중국 거주 한국인이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³⁹⁾ 그런데 저자는 『고경』의 번역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35) 오근,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임명으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3), 67.

36)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339.

37) Ibid., 344.

38) Ibid., 397.

39) Ibid., 338.

소개한다. 즉 『고경』이 노아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종차별적 해석도 보이고 한국을 언급하는 민족주의적 성향도 보였다.⁴⁰⁾ 이에 대한 저자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가나안이 웃었으므로 책망하였는데 그로 인해 흑인이 노예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아시아와 ‘조선’이 언급되었는데 조선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라 하였다.”⁴¹⁾ 단 지파를 한국인과 연결하는 대중적 해석이 회자된 적이 있는데, 이미 『고경』부터 인류의 조상과 한국인을 연결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현지인의 수용, 번역, 해석에 나타난 토착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개신교의 경우는, 성경 번역도 이뤄졌지만, 신앙서적 번역 가운데 성경의 부분적 번역도 동시에 이뤄졌다. 저자는 선행한 천주교의 성경 번역이 개신교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시사한다.⁴²⁾ 저자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로스를 언급한다.⁴³⁾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만주어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 한문을 배웠다는 사실이다. 한글로 신약성경을 번역한 로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만주는 한국의 역사적 영토이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친연성이 있는 만주어 번역과 만주어 기독교 서적이 한국 성경 번역과 해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⁴⁴⁾ 물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사료를 통한 입증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이 만주어 성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만주어를 습득하고, 만주어 성경을 취득하고, 구체적인 활용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로스는 성경 번역에서 원본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이유에서(한국인 번역자와의 소통을 위해 서도) 한문 성경을 사용했는데, 굳이 만주어 성경을 이용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 선교사가 몽골어 성경 번역에 참여했고, 몽골어와 만주어는 언어학적으로 유사하고 만주가 몽골 문자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만주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한글 성경 번역 연구에 새 장이 열릴 것이다.⁴⁵⁾

40) Ibid., 343.

41) Ibid.

42) Ibid., 333.

43) Ibid.

44) Ibid.

45) 만주어 성경 이외에 만주어 그리스도교 문헌에 대해 소개한 최근 연구서로는 다음을 볼 것. 송강호, 『만주어 그리스도교 문헌 연구』(서울: 지식과교양, 2023). 본서는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NRF-2018S1A5A2A03039195) 성과물로, 연구과제명은 “19세기 중국어성경번역이 동북아시아 성경 번역과 문화와 언어생활에 끼친 영향”이다. 몽골어 및 만주어 성경 번역에 대한 한국인의 연구는 다음을 볼 것.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

그리고 저자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번역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용어 비교를 하는데, 인명과 지명을 비교한다.⁴⁶⁾ 천주교 문서는 『고경』과 『성교감략』, 개신교 문서는 『구약공부』(존스), 『회보』(아펜젤러), 『구약』(개신교 번역본)을 활용한다. 인명과 지명이 성경 번역 등 문서 번역에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학적 내용이 담긴 용어도 비교했다라면 더욱 광범위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쉽다.

이 밖에도 『천주성교례규』의 시편과 피터스의 『시편촬요』와 개신교 성경인 『시편』(1906년)을 비교하면서, 천주교의 성경 번역이 개신교에 영향을 미친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저자가 제기하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 번역상 관계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는 천주교의 신약 번역에 대해서 『사사성경』의 전 단계인 각 복음서 부분 번역을 언급한다. 곧 「성경마두」, 「성경말구누가」, 「성경요한」, 「성경수난」 등이다.⁴⁷⁾ 그리고 『성경직해광익』, 『성경직해』, 『개역개정』을 비교하는 대담한 시도를 하면서, 천주교의 성경 번역이 개신교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친 것을 다시금 시사한다.

이후에는 저자는 선교사와 동역한 한국인 번역자의 면모를 통해서, 그리고 천주교의 중국한역서학서(특히 서교 문서)에 해당하는 개신교의 선교 문서들을 분석하면서, 개신교의 성경 번역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것은 『구약공부』, 『의경문답』, 『성경도설』, 『위원입교인규도』, 『인가귀도』,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시편촬요』, 『구약촬요(舊約撮要)』, 『조만민광(照萬民光)』, 『신약전서』(1900년) 등이다. 중국 성경과 한글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밝혀낸다. 특히 한글 성경이 인명, 지명 등에 옆줄을 사용하는 것 등을 지적한다.⁴⁸⁾ 결론적으로 저자는 로스의 번역도 이수정의 번역도 넓게는 이전의 번역 전통과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의 번역 전통, 국내의 천주교 번역 전통, 국내의 개신교 번역 전통이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골성서공회본」으로, 「성경원문연구」 42 (2018), 90-114;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들, 전문성 대(對) 대중성-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 (πρεσβύτερος)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96-219.

46)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352-354.

47) Ibid., 389.

48) Ibid., 415.

3. 결론

저자는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을 수용, 번역, 해석이라는 광범위한 틀 안에서 통사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의 역사를 초기로, 적어도 천주교로 소급하였다. 그리고 성서신학자와 아시아기독교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귀한 연구물을 내놓았다. 다만 이 책이 사전에 작성된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작성된 것과 달리 대중성과 전문성의 사이에 놓인 측면이 있고, 내용상 중복도 나타났다. 여하튼 한국교회에 있어서 성경 역사 혹은 성경 번역사의 통사가 필요한 마당에 이정표가 되는 책이 될 것이다.

본서는 최근에 간행되었지만, 오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적극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성경 번역학, 아시아기독교사학, 양자를 아우르는 통섭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장차 이런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한 2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성경 번역에, 특히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 번역에 적극 참여한 내용을 담은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사가 출간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로서 현지의 성경 번역에 참여한 지도 꽤 세월이 흘렀다. 그 분야에도 본서는 귀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평자는 이 서평을 빌어 성경 번역학을 진일보하는 일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 성경 번역은 경전 번역으로 눈을 돌리면, 국내에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세계종교는 물론이고 동학/천도교 등 민속종교의 경전 번역과도 연관될 수 있다. 특히 경전 번역에 있어서 한글 활용은 비단 기독교만의 일이 아니다. 또한 세계 학계를 돌아봐도, 번역에 소극적이던 라마불교, 이슬람교도 다양한 번역 작업에 나서고 있다. 장차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의 전통이 이어지고, 세계 경전 번역학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Keywords)

한글 성경, 천주교, 개신교, 번역, 수용, 해석.

Korean Bible, Catholics, Protestants, Translation, Reception, Interpretation.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현우, 김석주,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는 위조문헌인가?”, 「기독교사상」 729 (2019), 21-31.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파주: 경인문화사, 2020.
- 박인희, “『성경직해광익』과 초기 한국 기독교의 공동체적 전망”, 「성경원문연구」 50 (2022), 234-260.
- 배현숙, “17·8세기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교회사연구」 3 (1981), 3-45.
- 서양자,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서울: 순교의맥, 2023.
- 서원모, “『성경직해』(聖經直解)의 성경해석과 교부·고전 문헌 인용 양상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69 (2024), 143-186.
- 서원모, 곽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 『天主降生言行紀略』, 『天主降生聖經直解』와 『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 (2017), 115-157.
- 설련(薛蓮), “만주어 『신약전서』 - 중국 대련 도서관 소장본 -”, 송강호 역, 「성경원문연구」 30 (2012), 249-262.
- 송강호, 『만주어 그리스도교 문헌 연구』 서울: 지식과교양, 2023.
- 안교성,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들, 전문성 대(對) 대중성-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 (πρεσβύτερος)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96-219.
-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골성서공회본」으로”, 「성경원문연구」 42 (2018), 90-114.
- 안종찬,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전례기도생활: 전례서와 기도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6.
- 오근,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임명으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3.
- 원순옥, “『성경직해』의 특수 어휘 연구”, 「한국말글학」 30 (2013), 121-142.
- 원재연, “18세기 후반 북경 천주당을 통한 천주교 서적의 조선 전래와 신앙공동체의 성립”, 「동양한문학연구」 30 (2010), 53-81.
- 이성우, “한국인의 주체 의식과 성서 번역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성서 번역사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5 (2003), 33-60.
- 이주연,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펴낸 서양자 수녀”, 「가톨릭신문」 2023.11.1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311140220019> (2025. 01.30.).
- 이효림, “중(中)·한(韓) 성서 번역의 역사와 십계명(출 20:1-17) 번역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2018.

- 정중호, “17-18세기 한국 선교와 지혜문학: 『칠극』, 『기인십편』, 『성경직해』를 중심으로”, 『선교와신학』 39 (2016), 297-326.
- 정중호,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19:4 (2013), 318-347.
- 정중호,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0:2 (2014), 12-40.
- 정중호, “19세기 구약성경 번역과 해석의 역사 - 『고경』(『고성경』)과 『성교감략』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68 (2015), 7-41.
- 정중호,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1:2 (2015), 65-90.
- 정중호, “고려시대 기독교”, 『신학사상』 160 (2013), 109-130.
- 정중호, “한문성경기(漢文聖經期)와 성경 해석”, 『신학사상』 165 (2014), 91-126.
- 조광, 『역주 사학징의 I』,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1.
- 조광, 『역주 사학징의 II』,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2022.
- 조원, “원제국의 법제와 고려의 수용 양상”, 남중국 외,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명의 교류: 아비뇽에서 개경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304-306.
- 조현범, “한글 활판본 『성경직해』에 나타난 번역상의 특징”, 『장서각』 42 (2019), 270-301.
- 최중복,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 ‘요화사서소화기’에 기록된 천주교 서적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5.
- Nicolini-Zani, M., *The Luminous Way to the East: Texts and History of the First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 Ross, A. C., *A Vision Betrayed: the Jesuits in Japan and China 1542-1742*, Maryknoll: Orbis, 1994.

<Abstract>

**Book Review - *300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n Bible:
Histor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ong Ho Chong,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2022)**

Kyo Seong Ahn
(Presbyterian University)

In general,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has been assumed to begin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Protestant missionaries, together with Korean coworkers, commenced to agonize themselves in translating the Bible into Korean language, which is famous for defying acquisition by foreigners. However, this new book entitled ‘300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n Bible: Histor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tempts to overturn the established theory that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kept pace with that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nstead, the author argues that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needs to extend back over the centuries, at least to the 17th or 18th century, in order to include the hitherto neglected Catholic effort to translate the Bible. In fact, the Protestants aimed at translating the Bible itself, whether books or the whole of the Bible, as a prioritized missionary work. Meanwhile, the Catholics targeted translating Chinese Christian books and writing Korean apologetic and devotional books, and thus they translated Biblical verses or paragraphs, not books or the whole of the Bible, only when necessary for literary mission. In short, Catholic Bible translation took place mainly i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rather than intentional translation.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Catholic missionaries and the Korean self-evangelized believers read, memorized, and interpreted the Chinese Bible which they understood thoroughly capitalizing the benefit of the Sino-culture Sphere in Northeast Asia, and that they translated the portion of the Bible into Korean language when they translated and wrote Catholic literature.

In this context,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wider perspective ranging from appropriating, translating, interpreting, and writing, not limiting itself to Bible

translation proper only. The author introduces widely the Chinese books which the Korean Christians used, the Korean books which they wrote, and the Bible which they translated. In particular, the author, a renowned Old Testament scholar, explains how the Korean Christian writers interpreted the Bible in their literary works, which is the author's main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n Bible translation. Interestingly, the legacy of the Catholic translation has been inherited by next-generation Catholics as well as Protestants in the 19th century. Another book on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whether by the author or another, is to be published, which will also deal with the 20th century, when Protestant translation mission reached its peak.

<부록 1> 사학정의 요화사서소화기 목록

(서적명은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하여 5개씩 배열했다.)

조광, 『역주 사학정의 II』, 286-310을 참조.

2. 요사한 그림과 사학 서적을 태워 버린 기록 (목록 중 서적 및 문건 위주, 물건 및 제목 불명 문건과 낱장 문건은 생략, *표는 한문서적)

1) 한신애([韓]新愛)의 집에 파묻혀 있다가 압수된 사학 서적
*제송초, *수진일과, *미사, *성경일과[한문본에 한글 주석], 교요서론, 주교요지, *노릉좌명일기, 고해요리, 성경직해, *성경광익, 성경광익직해, 성교천설, *적죄정규, *묵상, *묵상지장, 묵상지장, *규잠, *삼문답부십계, *규람, 기유청장역후등언서(己酉靑粧曆後謄諺書; 책 제목이 아니라, 기유년 역서 안쪽에 베껴 쓴 푸른색 표지의 한글책이란 의미)
예미사규정, 성모시해명도회규인, 오상경규정, 성녀간디다, 주년참예주일고정규정, 요리문답.

2) 포도청이 한신애의 집에서 압수해 온 문서
*성호경, 사경언등(邪徑諺謄; 책 제목이 아니라, 한글책들을 끈으로 묶은 것이란 의미).

3) 도화동 여인 홍씨 집을 뒤져서 가져온 책자
*천주교, 조선종인, 성인열품도문, 범례, 예수성탄참례, 오배례, 예수성호, 바라기리, 주년참례.

4)-7), 10), 12), 15) 해당 사항 없어 생략

8) 정광수(鄭光受)의 집에서 압수해 온 물건 기록
*사서수진(邪書袖珍; 책 제목이 아니라, 수진일과 3권이 하나의 책갑 안에 있다는 의미).

9) 최경문(崔景門)의 집에 숨겨 둔 사학 서적
요리문답(제목이 한문이나, 한글서적), *주년참례.

11) 윤현(尹鉉)의 집 방구들 속에서 발굴해 가져온 요사한 초상과 사학서적에 관한 기록

*성경광익, *칠극, 예비, 성세추요, 요리문답,
천주교요, 성표덕서, 고해요리, *일과초, *교요서론,
*성경직해, 성교천설, *수난시말, 성표례리, 봉재후,
성사승전, 예수성탄, 성모매괴, 묵상지장, 예수수난도문,
성경직해, 천신도문, 묵상제의, 성녀위도리아, 성교일과,
천주십계, 보미사주교, 송경전어, 여수성탄[예수성탄, sic.], 침례단,
*소원편, 경성희례, 주년침례주일공경, 성사칠적, 수난시말,
천주성교일과, 성모매괴경, 성심규정, 고해성찬, 지기돈은,
성모염주묵상, 성종도, 전상, 성교칠설, 성모시해,
긴요, 성년광익, 경언, 성녀테레사[성녀테레사, sic.], 공경규정[공경규경,
공경규정은 추정],
향수보본명성, 연옥도문, 죄인지충일기, 묵상식양, 공경예수성심,
성도예례[성도예의, sic.], 성녀아가다, 제서침례[제성침례, sic.; 저성침
례], 성종도보, 향야소성영송[향례주성영송, 향야소성영송은 추정],
십이면, 신공요범, *구역서중등사서(舊曆書中謄邪書; 책 제목이 아니라,
옛 달력에 베껴 쓴 사학 서적이란 의미), 아요상제, 태환술,
예수도문, 사상난, *명도회규, *당판소책(唐板小冊; 책 제목이 아니라, 중
국에서 찍어낸 소책자라는 의미), *묵상지장,
*천주성교일과, *요리문답, *성호경, *사말론, *여리살레,
*성안덕록, *일과규정략, *청성호도문, *묵상, *성모매괴경,
*법언, *진복직지, *주보성인단인출소지(主保聖人單印出小紙; 책 제목
이 아니라 주보성인단을 찍어낸 작은 종이란 의미), *환희, *단일.

13) 군기시 앞(군기사 앞, sic., 軍器寺前) 김희인의 집에서 수색하여 가져
온 사악한 그림과 요사한 책의 목록

성해예의, 묵상지장서, 성모매괴경, 예수성탄[예수성탄, sic.], 예수수난도문,
성경광익, 공경일과, 이에 왕하심[이에 왕호심, 추정], 요리문답, 성녀아가다,
성예수성호, 성부마리아[聖婦瑪利亞], 성체문답, 천주성교도문, 언교,
성교일과, 유시마리가, 언문등서건기(諺文謄書件記; 책 제목이 아니라,
한글로 베껴 쓴 문서 목록이란 의미).

- 14) 조조이[曹召史, sic.; 조소리[曹召吏]?, 이두 문자] 집에서 수색해 가져온 물건
언등사경(諺騰邪經; 한글로 쓴 사학 경문).

<부록 2> 최중복의 사학징의, 요화사서소화기 분류

최중복, 논문 중 「표 8」과 「표 9」

(「표 8」과 「표 9」의 서적명 중 오류는 <부록 1>과 비교할 것)

- 「표 8」 1801년 당시 형조에 압수(押收)된 한글본 교회서적 (총 83종, sic.; 85종)
성서(3): 성경직해, 성경광익, 성경광익직해,
전례서(11): 예미사규정, 보미사주교, 주년침례, 주년침례주일, 주년침례
주일공경,
예수성탄, 예수성탄침례, 봉제후, 제성침례, 침례단,
수난시말,
성사서(6): 성사칠적, 성교칠설, 성체문답, 고해요리, 고해성찬,
성사승전,
기도서(19): 성교일과, 천주성교일과, 공경일과, 십이면, 오배례,
예수성호, 성예수성호, 천주십계, 성모매괴경, 성모매괴/천주
성도문[10번 번호 중복],
예수도문, 예수수난도문, 천신도문, 성인열품도문, 연옥도문,
향예수성영송, 조선종인, 송경권어, 오상경규정,
신심묵상서(14): 묵상지장, 묵상지장서, 묵상제의, 묵상식양, 긴요,
신공요범, 사상난, 공경예수성심, 성심규정, 성모염주묵상,
경언, 공경규경, 향수보본명성, 예비,
교리서(5): 교요서론, 천주교요, 성세추요, 주교요지, 요리문답,
성인 등 전기(14): 성년광익, 성부마리아, 성종도, 성종도보, 성녀간가다,
성녀더리사, 성녀아가다, 성녀위도리아, 성회례의, 성도예리,
성표덕서, 성표례리, 성모시해/유시마리가[13번 번호
중복], 죄인지충일기,
기타(11): 명도회규인, 성교천설, 경성회례, 대기도은, 바라기리,
아요상제, 태환술, 이에왕호심, 전상, 언교,
범예.

「표 9」 1801년에 압수(押收)된 한문(漢文) 천주교서적 (총 37종)
성서(3): 聖經直解, 聖經廣益, 聖經日課,
전례서(5): 彌撒, 與理撒禮, 周年瞻禮, 瞻禮日記錄, 受難始末,
기도서(11): 天主聖敎日課, 日課規程略, 袖珍日課, 日課抄, 諸頌初,
聖號經, 請聖號禱文, 十誡, 聖母玫瑰經, 歡喜,
端一,
신심묵상서(7): 默想指掌, 滌罪正規, 七克, 眞福直指, 溯源編,
四末論, 默想,
교리서(4): 天主教, 要理問答, 三問答, 敎要序論,
성인전기(3): 聖安德助, 主保聖人單, 老楞佐命日記,
기타(4): 明道會規, 法言, 閨箴(규감, sic.; 규잠), 閨賢上(규현상, sic.; 규람
(閨覽) 상[권]).

<부록 3> 조선시대 서학 자료 목록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참조

권호명: 1

총서 - 천학초함(天學初函),

종교 - 교우론(交友論), 교요서론(敎要序論), 동유교육(童幼敎育), 기인십
편(畸人十篇), 변학유독(辨學遺牘),

사말진론(四末眞論), 삼산논학기(三山論學紀), 서유이목자(西儒
耳目資), 성년광익(聖年廣益), 성교절요(聖敎切要),

수진일과(袖珍日課), 서학범(西學凡), 영언여작(靈言蠡勺), 영혼도
체설(靈魂道體說), 이십오언(二十五言),

주교연기(主教緣起), 주제군징(主制羣徵), 제가서학(齊家西學), 진
도자증(眞道自證), 진복직지(眞福直指),

진정서상(進呈書像), 천주성교백문답(天主聖敎百問答), 천주성교
십계직전(天主聖敎十誡直註), 척죄정규(滌罪正規), 천주실의(天
主實義),

칠극(七克),

과학 - 곤여도설(坤輿圖說), 공제격치(空際格致), 어제올려정의속편(律呂
正義續編), 직방외기(職方外記), 천문략(天問略),

지도 - 17세기 예수회 선교사 저작 지도류(地圖類) 개관.

권호명 : 2

종교 - 만물진원(萬物眞原), 성경직해(聖經直解), 성세추요(盛世芻蕘), 역이충언(逆耳忠言), 천신회과(天神會課),
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
과학 - 기하원본(幾何原本), 건곤체역(乾坤體義), 동문산지(同文算指), 수리정온(數理精蘊), 숭정역서(崇禎曆書),
신제영대의상지(新製靈臺儀象志), 역상고성(曆象考成), 역상고성후편(曆象考成後編), 원서기기도설록최(遠西奇器圖說錄最), 태서수법(泰西水法),
태서인신설개(泰西人身說概),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

권호명 : 3

논저 - 기해일기★, 돈와서학변(遯窩西學辨), 벽위편(關衛編)-이기경, 벽위편(關衛編)-이만채★, 사학징의(邪學懲義),
상재상서(上宰相書)★, 성교요지(聖敎要旨), 이학집변(異學集辨)★, 자책스살꾸지(자책스슬꾸지), 정속신편(正俗新編)★,
주교요지, 지구전요(地球典要)★, 천학문답(天學問答),
논설 - 벽사변증기의(關邪辨證記疑)★, 벽사론변(關邪錄辨), 벽이단설(關異端說), 양학변(洋學辨), 양화(洋禍),
우기답인지어(又記答人之語), 증의요지(證疑要旨), 진도자증증의(眞道自證證疑), 척사교변증설(斥邪教辨證說).
★된 자료는 서(序), 발(跋)을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권호명 : 4

논저 - 가학벽이연원록(家學關異淵源錄)★, 벽위신편(關衛新編), 성기운화(星氣運化), 시헌기요(時憲紀要), 역학이십사도총해(易學二十四圖總解),
원도고(原道攷)★, 의기집설(儀器輯說), 의상리수(儀象理數), 척사론(斥邪論)★, 척사설(斥邪說)★,
추보속해(推步續解), 추보첩례(推步捷例), 현상신법세초유휘(玄象新法細草類彙),
논설 - 성세추요증의(盛世芻蕘證疑), 안순암천학혹문변의(安順菴天學或問辨疑), 운교문답(雲橋問答), 천학교(天學考), 천학문답(天學問答),

천학설문(天學設問).

권호명 : 5-1

문집 - 가오고략(嘉梧藁略), 간옹집(艮翁集), 강재집(剛齋集), 강한집(江漢集), 고산집(鼓山集),
공백당집(拱白堂集), 과재유고(過齋遺稿), 과재집(果齋集), 극원유고(屨園遺稿), 근와집(近窩集),
금릉집(金陵集), 나산집(蘿山集), 남당집(南塘集), 도곡집(陶谷集), 동계집(東谿集),
동림집(東林集), 만각재집(晩覺齋集), 무명자집(無名子集), 성재집(省齋集), 성호전집(星湖全集),
순암집(順菴集), 여와집(餘窩集), 연암집(燕巖集), 일암집(一菴集), 청천집(靑泉集),
홍재전서(弘齋全書), 회병집(晦屏集).

권호명 : 5-2

연행록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갑인연행별록(甲寅燕行錄別錄),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 계산기정(薊山紀程),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북원록(北轅錄), 연원직지(燕輦直指), 연행기(燕行紀), 연행기사(燕行記事), 연행록(燕行錄)-김순협,
연행록(燕行錄)-김정중, 연행일기(燕行日記)-김창업, 연행일기(燕行日記)-이항익, 열하기유(熱河紀遊), 유연고(游燕藁),
음빙행정력(飲氷行程曆),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일암연기(一庵燕記), 임자연행잡지(壬子燕行雜識),
백과전서 - 성호사설(星湖僊說), 임하필기(林下筆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지수염필(智水沾筆),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호명 : 6

문집 - 구라철사금자보(歐邏鐵絲琴字譜), 노주집(老洲集), 매산잡지(梅山雜集), 매산집(梅山集), 명곡집(明谷集),
번암집(樊巖集),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봉서집(鳳棲集), 비례준(脾禮準), 사고(私稿),
서포연보(西浦年譜), 선구제(先句齋), 소재집(疎齋集), 시헌기요

(時憲紀要),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유계집(柳溪集), 이계집(耳溪集), 이재난고(頤齋亂藁), 이재유고
(頤齋遺藁), 좌소산인집(左蘇山人集),
주영편(晝永編), 표암집(豹菴集), 흠영(欽英).

「성경원문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원고 모집 규정

1.1.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성경원문연구」(이하 ‘본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과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1.2. 원고 주제 및 범위

- (1) 본지에 게재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성경 원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 ② 성경 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논문
- (2)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여러 주제를 다루는 논문을 게재한다.
 - ①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와 같은 성서 원어를 비롯하여, 고대역과 관련된 기타 여러 주변 언어들에 관한 논문
 - ② 성서해석, 성서사본, 성서번역, 성서본문사, 성서번역사 등에 관한 논문
 - ③ 한국어 성경 번역에 관한 연구를 다루는 논문
 - ④ 성경 원문 및 번역과 관련된 학제 간의 연구 논문
- (3) 본지에 투고하는 논문들에는 본지에 게재된 선행 연구 및 기타 선행 연구들을 반드시 언급한다.
- (4) 한글 혹은 외국어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하였던 논문은 본지에 실을 수 없다.
- (5) 정식 논문은 아닐지라도 편집위원회가 「성경원문연구」의 주제와 범위에 맞다고 판단하는 원고는 번역 논문, 서평, 자료로 실을 수 있다.

1.3. 분량

- (1) 제출 원고는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여 논문은 100쪽, 서평은 30쪽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다만 ‘책 소개’ 성격의 서평일 경우 소개할 내용의 분량에 따라 100쪽 내외까지 허용하기로 하다.
- (2) 원고 분량이 규정 분량인 100~150쪽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을 받아야 한다.
- (3) 외국어 초록은 400 words 가량이 되게 하되 원고 분량에 가산하지 않는다.

1.4. 구성 요소

투고 논문은 다음의 5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논문
- (2) 각주 및 참고문헌 목록
- (3) 외국어 초록(abstract)
- (4) 한국어 주제어(keyword) 5개
- (5) 외국어 주제어(keyword) 5개

1.5. 제출 방식과 제출 기한

(1) 원고는 한국어 문서 작성기인 hwp 프로그램 파일로 작성한다. 단, 외국어로 쓰는 논문은 MS Word 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hwp(영문 원고는 doc)와 pdf 컴퓨터 파일을 「성경원문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주소: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에 제출한다.

(3)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자 이름과 필자의 참고문헌 정보를 *** 또는 ‘저자정보삭제’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4) 논문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된 논문은 정기간행일(매년 4월 30일, 10월 30일) 90일 전까지 접수하여 온라인 논문 심사 시스템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정기간행일 30일 전에 심사를 완료한다.

(5) 논문 제출자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아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헌 유사도를 검사하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 파일을 받아서, <성경원문연구>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member/loginForm.kci?returnUrl=check/login.jsp>

(6) 논문 투고 방법

①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회원 가입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 화면 중앙 ‘회원가입’ 클릭
→ 약관동의 > 필수입력 항목 기재 > 가입신청 > 완료

② 논문투고 : 상단 메뉴 ‘투고자’ 클릭

→ 접수 중인 학술지 클릭 > ‘논문투고하기’ 클릭 > 필수입력항목 기재 > 제출

(7) 「성경원문연구」 논문 제출 기한

① 투고 마감일: 1월 31일, 7월 31일

② 논문 형식: 「성경원문연구」 투고 규정을 따른다.

1.6. 제출된 논문의 관리와 심사

(1) 논문의 분량, 논문의 양식 등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3) 심사 후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논문 수정 요구서’를 통보하고, 수정된 후 재심사한다.

1.7. 저작권

(1) 본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과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에 귀속된다.

(2) 대한성서공회는 게재된 논문, 번역 논문, 서평, 자료에 대한 원고료로 필자에게 200자 원고지 1매당 5,000원을 지불한다. 이는 최대 100매까지만 해당된다. 한국연구재단이나 학교를 포함한 다른 기관의 지원금을 받은 논문은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공동 저자의 경우 해당 원고료를 저자의 수만큼 나누어 제공한다.

(3) 투고자는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를 대한성서공회에 이양한다.

(4)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투고와 함께 ‘양식 2’에 포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1.8. 제출처

(1) 일반 우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우편번호 06734

(2) 전자우편 주소: ibtr@bskorea.or.kr

(3) 전화: 02-2103-8783, 8784, 8785

2. 원고 작성 규정

표제지, 본문, 참고문헌, 초록으로 구성된다.

2.1. 표제지

2.1.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표제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표제지에는 ① 한글 및 영문 제목(영문 제목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성경 원어를 표기할 때는 영문 음역을 반드시 병기한다), ② 한글 및 영문 저자 이름, ③ 소속기관, 직위, 전공분야, ④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 전자우편 주소) 등을 적는다. 제출한 표제지는 본지에 게재시에 다음 항목에 따라 표기된다.

2.1.2. 논문 제목의 표기

(1) 논문 제목의 표기: 15 pt, 조선굵은명조, 자간 1, 장평 108, 행간 150

부제의 표기: 12 pt, 조선굵은명조, 자간 1, 장평 108, 행간 150

행을 바꾸어, —를 부제 앞뒤에 붙여 표기한다. 외국어 논문의 부제는 콜론(:)을 사용한다.

예시)

언더우드의 초기 한국어 성서 번역에 대한 고찰

—『누가복음』(1895)을 중심으로—

(2) 원고의 종류가 서평인 경우에는, <서평>(10.5 pt, 휴먼명조) 왼쪽 상단에 적어주고, 책제목(15 pt) 다음 행에 원괄호를 하고 저자, 출판사항(10.5 pt, 조선굵은명조, 자간 1, 장평 108, 중앙정렬)을 적어준다.

예시)

<서평>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T. Wilt 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2.1.3. 저자의 표기

본지에 저자 사항을 수록할 때에는 지정한 글자 크기(11 pt, 휴먼명조, 장평 100)에 따라 제목 다음에 저자명을 기록하며, 저자 관련사항(최종 학위, 전공분야, 소속 직위, 전자우편)은 각주란에 표기한다.

예시)

윤철원*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cwyoona@stu.ac.kr.

2.1.4. 공동 저자의 표기

공동 연구 논문인 경우에는 공동 저자명을 차례로 병기하되 연구에 끼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1저자, 제2저자(계속될 때에 추가) 순으로 기록하며, 연구에 끼친 기여도가 동일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록한다.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시) 김창주*, 소형근**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qimchangjoo@naver.com.

** Rheinischen Friedrich-Wilhelms-University Bon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bonnso@hanmail.net.

2.1.5. 번역자의 표기

번역자(11 pt)는 저자 다음 행에 기록하고 번역자 관련 사항은 각주 처리한다.

예시) 폴 엘링워드*

윤철원 역**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컨설턴트 역임.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cwyoona@stu.ac.kr.

2.2. 본문 작성

2.2.1. 용지 설정

편집용지 설정: (사용자정의) 폭 170, 길이 246.9

여백주기: 위 15, 아래 12.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2.5

2.2.2. 본문 및 각주 글자체

본문: 10.5 pt, 논문 전체에 “글꼴에 어울리는 빈칸” 설정

한글 휴먼명조, 자간 0, 장평 100, 행간 150, 문단 시작 때 들여쓰기 10 pt

영문 Times New Roman, 자간 0, 장평 100, 행간 150, 문단 시작 때 들여쓰기 10 pt

각주: 8.5 pt, “행간에 맞는 띄어쓰기” 설정

휴먼명조, 자간 0, 장평 100, 행간 135, 좌우 여백 0, 내어쓰기 10 pt

2.2.3. 본문 속의 인용문

(1) 인용구나 인용절 혹은 인용문을 본문에 이어서 삽입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인용문임을 표시한다.

(2) 본문과 구분하여 인용문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백(인덴션)을 좌우로 20 pt(한글 2자)씩 부여하여 인용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글자는 본문 10.5 pt보다 1 pt 작은 9.5 pt 로 쓰되, 문단 시작 시에 10 pt 들여쓰기로 한다.

인용부호는 사용하지 않고, 인용문 단락의 위 아래로 1행씩을 삽입하여 인용문임을 표시한다.

(3) 인용문 안에서 강조할 때에는 한글은 볼드체로 하며, 외국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① 인용부호를 사용한 경우

예시)

위 예문에서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구체적인 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들’을 붙여야만 한다.

② 여백을 사용한 경우

예시)

그러나 일찍이 드보는 안식일을 시장 풍습과 연결시킨 적이 있다. (10.5 pt)

안식일 제도는 오히려 거의 전 세계적인 휴일-축제-시장 풍습에서 잘 설명된다. 그런 풍습에서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다시 오는 장날이나 휴일이나 축제일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옛날 로마인들은 9일마다 ‘눈디내’(nundinae, 九日場)라는 장날 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중국 남서부의 롤로스-여인들은 6일마다 빨래와 바느질을 쉬었다. 이런 휴일 선택의 동기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동기가 있고, 이렇게 삽입될 휴일들은 자연히 일정한 규정과 금지령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9.5 pt)

이 관찰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안식일을 이해하는데 크게 유용하다.

2.2.4. 내용 구분

개요 번호는 1. 1.1. 1.1.1. (1)(2) ①② 의 순으로 매긴다. 글자 크기는 1.은 12 pt이며, 1.1.은 11 pt이고 나머지 개요 번호는 본문과 같은 10.5 pt이다. 고딕체로 표기한다.

2.2.5. 표 / 그림 / 부록 표기

(1) “<표 번호> 제목”, “<그림 번호> 제목”, “<부록 번호> 제목”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여, 표와 그림의 상단에 삽입한다. 출처는 표와 그림의 하단에 “출처: …”라고 표기한다.

예시)

<표 1> 컨스펙터스에 의한 장서 분석표

<그림 1> 시장분석 밴 다이어그램

<부록 1> 미국국회도서관 분류표

출처: 김주수, 이희배, 『가족관계학』 (서울: 학연사, 1986), 43.

(2) 서양 문헌의 경우에는 “Table no. Title”, “Figure no. Title”, “Appendix no. Title”로 표기한다.

예시)

Table 1. Comparison of test letters in the Senior scrolls and selected British Library scrolls

Figure 1. Senior scroll 8

Appendix 1. Price list

(3) 여러 페이지에 걸쳐 표가 계속될 경우 표 위에 “<표 번호> 계속”을 넣어 준다.

2.2.6. 본문에서의 문헌 표기 관련 부호

(1) 동서의 단행본, 전집은 『』로 표시하고, 학술지, 신문, 잡지는 「」로 표시하고, 개별논문 및 작품은 “”으로 표시한다.

(2) 양서의 단행본, 전집, 학술지, 신문, 잡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개별논문 및 작품은 “”으로 표시한다.

(3) 한글 성서 번역본은 『』으로 표시하고 성서의 각 책명은 “”로 표시한다.

예시)

단행본, 전집

동서 『』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양서 이탤릭체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학술지, 신문, 잡지

동서 「」 「神學思想」

양서 이탤릭체 *Soundings*

개별 논문 및 작품

동서 “” “예수와 조선”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양서 “ ”	“Social Organization of Peasant Poverty in Biblical Israel”
성서	『성경전서 새번역』 “야고보서”

2.2.7. 본문에서의 각종 부호

(1) 강조 부호 ‘ ’

예시)

‘모세의 노래’(신 31:30; 32:44)

‘him’으로 받지 않고,

(2) 콜론(:), 세미콜론(;):은 앞 단어에 붙이고, 한 칸 띄고 뒷 단어를 쓴다.

(3) 한국말에서는 원괄호의 정보는 부속 정보이므로, 원괄호는 띄지 않고 앞 단어에 붙여서 표기한다.

예시)

그의 아버지 존 언더우드도 헌신적인 성품을 지닌 기독교인이었다(언. 29).

혹은 “나는 검어서 예쁘다(I am black and beautiful)”처럼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경우 큰 따옴표를 “나는 검어서 예쁘다”(I am black and beautiful)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아텔포이(형제들)”와 “아텔포이”(형제들)

→ 둘 다 가능하다.

(4) 본문 안에서 특히 해당문헌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를 사용한다. 문헌 앞에 나오는 //는 그 문헌과 같다는 표현이고, //가 없이 표현된 문장은 그 문헌에서 인용하였다는 표현이다.

예시)

샌더스(Sanders)는 더 모르(De Moor)를 따라서 ‘계단식 농경지(terrace)’로 번역하고 있다(//HALOT)

→ HALOT과 같다는 표현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경작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BDB, HALOT)

→ HALOT에서 인용하였다는 표현

2.2.8. 외국인명 / 외국지명 / 외국고유명사 표기

외국의 인명, 지명,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며 원어는 괄호 안에 부기한 다. 원어의 첫 표기 이후 표기 시에 한글만 표기할 수 있다. 본문 및 각주에서 같이 적용된다.

예시)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논의를 번역 이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유진 나이다(E. A. Nida)의 전통적인 이론과 비교하며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그들은 유진 나이다의 번역 이론에 대해서 …….

투르나이젠(E. Thurneysen)과 아담스(J. E. Adams)와 샤펜백(J. Scharfenberg)의 목회상담 이론은…….

2.2.9. 고대어 / 고전어 표기

(1)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는 원어를 사용한다. 음역을 할 경우 아래의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의 음역 원칙을 따른다.

(2) 기타 고전어는 음역을 하되 음역 원칙은 따로 정한다.

(3) 한글로 음역을 할 경우에는 ‘한글 음역(원어)’ 형식으로 표기하고 로마자 음역을 할 경우에는 ‘원어(로마자 음역)’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시)

히브리어 ‘바님(בָּנִים)’과 그리스어 ‘휘오이(ῥῆοι)’

히브리어 ‘משׁה(Mosheh)’와 그리스어 ‘Μωσῆς(Moses)’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음역 원칙

(1)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는 문장 전체나 구절, 혹은 단어를 인용할 때 음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모음을 첨가하지 않은 자음만 사용하되 경우에 따라서 모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음을 첨가해도 좋다. 그러나 편집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그 모음을 생략할 수도 있다). 필자가 위 언어의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원고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폰트와 음역은 한글 문자표 입력 ‘한글 문자표’에서(Ctrl+F10을 동시에 누른다) 로마자 음역은 ‘영어-라틴어’란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각각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폰트란에서 사용한다.

(2) 음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히브리어 음역

a. 자음

כ) ’(x(b) ɣ(g) ʔ(d) ʔ(h) ʔ(w) ʔ(z) ʔ(h) ʔ(t) ʔ(y) ʔ(k) ʔ(l)

ʔ(m) ʔ(n) ʔ(s) ʔ) ’(p(p) ʔ(s) ʔ(q) ʔ(r) ʔ(ś) ʔ(š) ʔ(t)

주의: b d g k p t가 모음 다음에 위치하여 마찰음화(spirantization)된 음가는 표시하지 않는다. 만일 논의가 필요할 경우, 밑줄을 그어 b d g k p t로 표시한

다. 중점표시(dāgeš forte)는 자음을 중복하여 표시한다(예, *hammelek*). 일반적으로 발음이 되는 단어 마지막에 위치하는 ן(h)안에 점을 첨가하는 ‘마픽’(mappig)은 표시하지 않는다.

b. 모음

a(pataḥ), ā(qāmeṣ), â(단어 마지막에 쓰인 qāmeṣ hē), e(sēgōl), ē(šērê), ê(단어 마지막과 중간에 쓰인 šērê yōd와 중간 sēgōl yōd), i(단모음 ḥîreq), î(단어 중간 혹은 마지막에 쓰인 ḥîreq yōd), o(qāmeṣ ḥātûp), ô(hōlem), ô(hōlem), u(단모음 qibbûṣ), ū(장모음 qibbûṣ), û(šûreq). hē나 ’āleph이 ‘마테르 렉치오니스’(mater lectionis, 직역: “읽기[를 도와주는] 어머니[와 같은 글자]”)로 사용되는 경우, 이 두 자음을 음역할 수 있다. 기원후 11세기 마소라 학자들이 전통적인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발음하기 위하여 모음을 첨가할 때, 이미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모음을 발음하기 위하여 ן(h), ו(w), י(y)를 모음 표시 문자로 사용하였다. 모음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이 자음들을 ‘마테르 렉치오니스’라고 한다. 다음은 모음의 명칭, 형태, 그리고 음역이다.

모음 명칭		마테르ֿ와 함께	마테르ֿ와 함께	마테르ֿ와 함께 (단어 마지막에만)
pataḥ	ּ ba	x	x	x
qāmeṣ	ּ bā 혹은 bo	ּֿ bâ	x	ּֿ bāh
ḥîreq	ּ bi	ּֿ bî	x	x
šērê	ּ bē	ּֿ bē	x	ּֿ bēh
sēgōl	ּ be	ּֿ bē	x	ּֿ beh
hōlem	ּ bō	x	ּֿ bō	ּֿ bōh
qibbûṣ	ּ bu	x	ּֿ bū	x
šewâ	ּ bē			

단어 마지막에 위치한 자음 ḥ를 발음하기 위해 첨가되는 ‘삼입 파타흐’(furtive pataḥ)는 ‘파타흐’(pataḥ)로 처리한다(예, rūaḥ). 강세 표시 이동으로 발생된 축소된 모음은 ă ĕ ŏ (šewâ와 hāteṣ sēgōl은 구분하지 않는다)로 표시한

다. 단모음은 o(w), u(w), i(v)로 표시한다. 강세표시는 표시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강세는 예음 부호(acute accent)를, 제이 강세는 억음 부호(grave accent)를 사용한다. 마캅(maqṣēp)은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② 아랍어 음역

아랍어 음역은 위에서 언급한 히브리어 음역 방식을 따른다. 단, 아랍어 šērê와 hōlem은 종종 장음 표시가 아니다.

③ 그리스어 음역

θ는 th, φ는 ph, χ는 ch, ψ는 ps, η는 ē, ω는 ō로, ‘기음’(rough breathing)은 h, ν는 y로 표시한다. 아래에 기입하는 이오타는 모음 밑에 세디유로 표시한다.

2.2.10. 성서 구절 표기

(1) 본문에서 성서의 서명을 전부 표기하거나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예시) 『표준』 초판 역시 전통을 따라…….

새로 번역된 『성경전서 새번역』(2001)에서는…….

(2) 우리말 성서 번역본, 외국어 성서 번역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정한 약어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한글 성경 번역 계보도> 참고:

http://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2_3_4.

한글

약어	번역본
『개역한글』: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
『공동』:	『공동번역 성서』(1977)
『새번역신약』:	『신약전서 새번역』(1967)
『표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
『개역개정』: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공동개정』: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
『새번역』:	『성경전서 새번역』(2001)(『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2001]을 2004년에 개칭함)
『새한글』:	『새한글성경』(2024)

영어

약어	번역본	약어	번역본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NEB	New English Bible (1961)
BBE	The Bible in Basic English (1949/1964)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1979)
CEV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5)	NJB	The New Jerusalem Bible (1985)
DBY	The Darby Bible (1884/1890)	NKJ	New King James Version (1982)
DRA	The Douay-Rheims (1899) Amer. Ed.	NLT	New Living Translation (1996)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2001/2016)	NR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GNB	Good News Bible (1976)	PNT	Bishop's New Testament (1595)
GNV	Geneva (1599)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JB	Jeusalem Bible (1966)	TNT	Tyndale New Testament (1594)
JPS	Jewish Publication Society OT (1917)	TNK	Jewish Publication Society Tanakh (1985)
KJV	King James Version (1611/1769)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 (1862/1898)
NAB	The New American Bible (1970)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60/1971)		

히브리어

약어	번역본	약어	번역본
BHK	Biblia Hebraica (Rud. Kittel)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Q	Biblia Hebraica Quinta	HNT	Salkinson-Ginsburg Hebrew NT

아람어

약어	번역본
TAR	Targumim

그리스어

약어	번역본	약어	번역본
GNT ⁵	Greek New Testament (5th, UBS)	THGNT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2017)
NTG ²⁸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Nestle-Aland)	WHO	Westcott and Hort NT
LXX	Septuaginta		

라틴어

약어	번역본
VUL	Latin Vulgate

독일어

약어	번역본	약어	번역본
BB	BasisBibel (2012)	HRD	Die Bibel. Herder-Übersetzung
BGS	Bibel in gerechter Sprache (2011)		Revidierte Fassung (2005)
BR	Die Schrift. 4 vols. Martin Buber, Franz Rosenzweig (1954, 1955, 1958, 1962)	LB	Luther Bibel (2017)
		NGÜ	Neue Genfer Übersetzung (2011)
EIN	Einheitsübersetzung (2016)	ZB	Zürcher Bibel (2007)

프랑스어

약어	번역본	약어	번역본
BDS	La Bible du Semeur (2000)	NEG	Nouvelle Edition Geneve (1979)
BFC	French Bible en français courant (1997)	PDV	La Bible. Parole de Vie (2000)
FBJ	French Bible Jerusalem (1973)	S21	La Bible Second 21 (2007)
LSG	French Louis Segond (1910)	TOB	French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 (1988)
NBS	Nouvelle Bible Segond (2002)		

(3) 한글 성서의 날권 책명은 번역본에서 정하는 약어표에 따라 표기한다.
『공동』과 『공동개정』의 경우에는 앞의 두 글자를 약어로 한다.

〈『개역개정판』의 날권 책명 약어표〉

구약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창세기	창	역대하	대하	다니엘	단
출애굽기	출	에스라	스	호세아	호
레위기	레	느헤미야	느	요엘	욥
민수기	민	에스더	에	아모스	암
신명기	신	욥기	욥	오바다	옵
여호수아	수	시편	시	요나	욘
사사기	삿	잠언	잠	미가	미
룻기	룻	전도서	전	나훔	나
사무엘상	삼상	아가	아	하박국	합
사무엘하	삼하	이사야	사	스마냐	습
열왕기상	왕상	예레미야	렘	학개	학
열왕기하	왕하	예레미야애가	애	스가랴	스
역대상	대상	에스겔	겔	말라기	말

신약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마태복음	마	에베소서	엡	히브리서	히
마가복음	막	빌립고서	빌	야고보서	약
누가복음	눅	골로새서	골	베드로전서	벧전
요한복음	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베드로후서	벧후
사도행전	행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요한1서	요일
로마서	롬	디모데전서	딤햄	요한2서	요이
고린도전서	고전	디모데후서	딤후	요한3서	요삼
고린도후서	고후	디도서	딤햄	유다서	유
갈라디아서	갈	빌레몬	몬	요한계시록	계

(4) 영어 성서의 낱권 책명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정한 약어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영어 성서의 낱권 책명 약어표〉

구약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Genesis	Gen	2 Chronicles	2Ch	Daniel	Dan
Exodus	Exo	Ezra	Ezr	Hosea	Hos
Leviticus	Lev	Nehemiah	Neh	Joel	Joe
Numbers	Num	Esther	Est	Amos	Amo
Deuteronomy	Deu	Job	Job	Obadiah	Oba
Joshua	Jos	Psalms	Psa	Jonah	Jon
Judges	Jdg	Proverbs	Pro	Micah	Mic
Ruth	Rut	Ecclesiastes	Ecc	Nahum	Nah
1 Samuel	1Sa	Song of Solomon	Sol	Habakkuk	Hab
2 Samuel	2Sa	Isaiah	Isa	Zephaniah	Zep
1 Kings	1Ki	Jeremiah	Jer	Haggai	Hag
2 Kings	2Ki	Lamentations	Lam	Zechariah	Zec
1 Chronicles	1Ch	Ezekiel	Eze	Malachi	Mal

신약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Matthew	Mat	Ephesians	Eph	Hebrews	Heb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Mark	Mar	Philippians	Phi	James	Jam
Luke	Luk	Colossians	Col	1 Peter	1Pe
John	Joh	1 Thessalonians	1Th	2 Peter	2Pe
Acts	Act	2 Thessalonians	2Th	1 John	1Jo
Romans	Rom	1 Timothy	1Ti	2 John	2Jo
1 Corinthians	1Co	2 Timothy	2Ti	3 John	3Jo
2 Corinthians	2Co	Titus	Tit	Jude	Jud
Galatians	Gal	Philemon	Phm	Revelation	Rev

외경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1 Esdras	1Es	Sip	Sip	Laodiceans	Lao
Judith	Jdt	Psalms of Solomon	Pss	4 Esdras	4Es
Tobit	Tob	Baruch	Bar	Esther (Greek)	Esg
1 Maccabees	1Ma	Epistle of Jeremiah	Epj	Joshua (A)	Jsa
2 Maccabees	2Ma	Susanna	Sus	Judges (A)	Jda
3 Maccabees	3Ma	Bel	Bel	Tobit (S)	Tbs
4 Maccabees	4Ma	Prayer of Azariah	Pra	Susanna (TH)	Sut
Odes	Ode	Daniel (Greek)	Dng	Daniel (TH)	Dat
Wisdom	Wis	Prayer of Manasseh	Prm	Bel (TH)	Bet
Sirach	Sir	Psalms(151)	Psx		

(5) 동서의 표기 형식은 책명의 약어 장:절, 장:절-절, 장:절상, 장:절하, 장:절이하이며, 양서의 표기 형식은 책명의 약어 장:절, 장:절-절, 장:절a, 장:절b, 장:절ff이다. 성서 구절 여러 개를 같이 나열할 경우, 같은 장에서 절은 쉼표(,)로 연결하며, 낱권 성서명이나 장이 달라질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시)

동서 『개역개정』 창 1:1; 『개역개정』 창 1:1-13; 『개역개정』 창 1:1상;
『개역개정』 창 1:1하; 『개역개정』 창 1:1이하

양서 CEV Gen 1:1; Gen 1:1-13; Gen 1:1a; Gen 1:1b; Gen 1:1ff

성서구절 나열 시에 창 1:1, 2-5; 사 1:2; Mat 1:1

(6) 사역은 여백(인덴션)을 주어 표기한다.

예시)

윌트(Wilt)가 번역한 성서 구절이다.

목자를 떠난 어린 양
 사냥하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날 구해주세요.
 저들이
 내 목구멍을 넓게 벌려 마구 찢어버리려 하네요.

...

2.2.11. 주의 표기

(1) 주는 각주(footnote)를 사용하며, 각주번호만을 내어쓰기 10 pt를 적용하여, 1), 2) 등으로 표기한다.

(2) 각주 표기에 있어서 원자료에 나와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간결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의 문헌 표기 부호를 따른다. 페이지 표기 시에 쪽, p., pp. 등의 표시 없이 페이지 숫자로만 표시한다.

(4) 원괄호 앞에서는 띄어서 적는다.

그 외의 표기는 아래의 각주의 예시에 따른다.

2.2.12. 각주의 예시

(1) 단행본

① 동서의 경우에는 『 』을 사용하고 양서의 경우에는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②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3인까지는 모두 기재한다.

③ 4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명에 동서는 외, 양서는 et al.(u.a.)을 표기하여 공동저작임을 알린다.

④ 표기 부호는 동서는 쉼표(,), 양서는 A and B(2인), A, B, and C(3인)로 한다.

예시)

동서: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저자가 1인인 경우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123.

김정우, 『시편 89편: 그 본문과 주석』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2),

102-122.

저자가 2-3인인 경우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5.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문옥표 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서울: 청년사, 2003), 33.

양서: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저자가 1인인 경우

G. A. Knight, *The Song of Moses: A Theological Quarry* (Grand Rapids: Eerdmans, 1995), 50.

저자가 2인 경우

D. B. Sandy and R. L. Giese, Jr.,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A Guide to Interpreting the Literary Genres of the Old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J. P. Louw and 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56.

저자가 3인인 경우

W. Gesenius, J. Strong, and S. P. Tregelles,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65.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C. J. Ellicott, et al.,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2) 번역서

① 번역자명을 서명 다음에 표기한다.

예시)

동서: 저자, 『서명』, 번역자명 역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L. H. 언더우드, 『상투의 나라』, 신복룡, 최수근 역 (서울: 집문당, 1999), 24.

양서: 저자, 서명, 번역자명, trans.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 2, J. E. Turner, trans. (New York: Harper & Row, 1963), 567-569.

② 번역서의 원서 사항을 밝히고자 할 경우 ‘번역서; 원서 사항’으로 표기한다.

예시)

번역서에 저자 이름은 번역하지 않고 원저자 이름이 실려 있는 경우

M. Dibelius, 『목회서신』, 박익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95;
Die Pastoralbriefe, IBC (Tübingen: J. C. B. Mohr, 1966).

번역서에 저자 이름을 번역하여 실고 있는 경우

M. 디벨리우스, 『목회서신』, 박익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95; M. Dibelius, *Die Pastoralbriefe*, IBC (Tübingen: J. C. B. Mohr, 1966).

(3) 편집 책

동서의 경우에는 편, 영어의 경우에는 ed., comp., eds.(2인 이상)로 표기한다. 기타 다른 외국어는 영어에 준하는 약어를 사용한다. 독일어 편집 책의 경우 hrsg. 등으로 표기한다.

예시)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56.

J. P. Louw and 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58.

(4) 학위논문

“”으로 학위논문 명을 표기한다. 동서의 경우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신학박사학위논문 등으로 표기하며 양서의 경우 Ph.D. Dissertation, Th.M. Dissertation, Th.D. Dissertation, D.Min.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시)

전혜영,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8), 23-35.

S. Burkes, “Death in Qoheleth and Egyptian Biographies of the Late Peri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97), 1-3.

(5) 정기간행물 기사

① 정기간행물의 권, volume 표시는 번호만 기재한다.

② 하위번호(호, number)를 부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권:호로 표기한다.

다.

③ 정기간행물의 출판년도는 괄호 안에 표기하며, 그 외의 계절 표시 등은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경우 출판 월도 밝힌다.

④ 잡지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용부호(“ ”)와 쉼표(,)가 같이 표기될 경우 “ ”,으로 표기한다. 인용부호안에 다른 부호(?, ! 등)로 끝날 경우에는 쉼표는 생략한다. 인용부호 안에서 ‘ ’로 끝난 경우에는 쉼표를 한다.

예시)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9 (2000. 10.), 150-161.

M. A. Chaney, “Whose Sour Grapes? The Addressees of Isaiah 5:1-7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Semeia* 87 (1999), 105-122.

C. L. Blomberg, “The Superiority of TNIV in Hebrews”, *The Bible Translator* 55:3 (2004), 310-318.

(6) 일간지

동서의 경우에는 「」으로 표기하고 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김석년, “두 가지면 충분하다”, 「국민일보」 2004. 12. 26.

M. Messara, “Iraq Baghda”, *Korean Times* 2004. 12. 27., 45.

(7) 편집된 책 속의 글

편집된 책 속의 글은 “ ”로 표기하되, 표기 형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

동서: 저자, “기사명”, 편집자명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장석정, “이사야 7:10-17에 관한 연구”,王大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16-131.

양서: 저자, “기사명”, 편집자명, ed.,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M. A. Chaney, “Bitter Bounty: The Dynamics of Political Economy Critiqued by the Eighth-Century Prophets”, R. L. Stivers, ed., *Reformed Faith and Economic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15-30.

(8) 웹사이트 인용

저자, 제목, 웹사이트 주소, 검색 일자 순으로 기록하되, 표기 부호는 예시

에 따른다.

예시)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http://www.bskorea.or.kr> (2016. 3. 30.).

(9) 바로 앞의 인용

① Ibid로 표기한다.

예시)

12)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150-161.

13) Ibid.

62) J. Ratzinger, *Theologische Prinzipienlehre*, 263-281.

63) Ibid., 274-275.

② 바로 앞의 인용의 경우라도, 다음 각주에 그 인용 문헌 이외에 다른 인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같은 인용의 반복으로 처리한다.

예시)

11) W. Rudolph, *Jeremia*, 3rd. ed.,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Erste Reihe* 12 (Tübingen: J. C. B. Mohr, 1968), 2에서 번역한 *Geschichte Jeremias*도 마찬가지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W. Rudolph, *Jeremia*, 2; S. Herrmann, *Jeremia*,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1; R. P. Carroll, *Jeremiah*,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6), 89.

(10) 같은 인용의 반복

저자, 서명, 페이지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 부호는 예시에 따른다.

예시)

단행본

김정우, 『시편 89편: 그 본문과 주석』, 87.

E. S. Fiorenza, *In Memory of Her*, 43-48.

정기간행물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150-161.

M. A. Chaney, “Whose Sour Grapes? The Addressees of Isaiah 5:1-7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105-122.

(11) 심포지엄과 회의록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 “발표 논문” (개최지: 심포지엄 명, 날짜), 페이지.

예시)

김홍우, “한국정치의 탈사사회를 위한 제언” (크리스천 아카데미 연구 모임 “삶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모임”, 1999. 5. 8.), 1.

小川晴久, “퇴계의 理의 현대적 번역과 실천” (퇴계의 삶과 철학 그리고 미래, 17차 퇴계 국제 학술회의, 2001. 10. 15.-10. 17.), 413.

R. Hodgson, “Norms in New Media Bible Translation” (Triennial Translation Workshop paper, 2000. 6. 21.), 5.

“Liturgiam Authenticam: On the Use of Vernacular Languages in the Publication of the Books of the Roman Liturgy” (Rome: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2001).

(12) 총서사항은 정자로 기록한다.

예시)

E. Käsemann, 『로마서』, 국제성서주석 34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M. Tate, *Psalms 51-100*, WBC (Dallas: Word Books, 1990), 261-262, 264.

(13) 각주 하나에 여러 개의 문헌을 표기할 때, 한글 문헌과 외국어 문헌 구별 없이 인용 문헌 간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시)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9 (2000), 150-161; M. A. Chaney, “Whose Sour Grapes? The Addressees of Isaiah 5:1-7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Semeia* 87 (1999), 105-122, 135-150.

(14) 같은 항목이 반복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단, 연도와 페이지가 2개 이상일 때 쉼표(,)로 연결한다.

예시)

출판사와 출판지

H. G. Liddell,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New York: At the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출판년과 페이지

L. H. 언더우드, 『언더우드-한국에 온 첫 선교사』, 이만열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0, 1999), 60-62.

J. P. Louw, et al.,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 1, xxiv, 118, 125-135.

(15) 원래 출판년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 양서는 “연도; org. ed. 연도”로 표기하고, 동서는 “연도; 원출판년 연도”로 표기한다.

예시)

E. C. Stanton and Revising Committee, *The Woman's Bible*, 2 vols. (Seattle: Coalition Task Force on Women and Religion, 1974; org. ed. 1895-1899).

『新譯 新舊約全書』, 奇一 역 (서울: 한국이공사, 1986; 원출판년 1925).

(16) 각주에서는 한글 자료도 쉽표를 인용부호 밖에 넣어준다.

예시)

최만자, “한국 그리스도교 여성의 경험에서 본 성서 해석”, 『성서와 여성 신학』, 여성신학사상 제2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43-144.

(17) 판차 사항

서명, 역자(편집자) 사항 다음에 1st ed., 2nd ed., 3rd ed., 4th ed. 등으로 표기한다.

예시)

A.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8) 참조

투고자의 재량에 맡긴다. 가능한 한 “참조”를 앞에 표기한다.

예시)

참조, A. Bonora, “Alleanza”, *Nuovo Dizionario di Teologia Biblica* (Tonrino: Edizioni Paoline, 1988), 21.

(19) 재인용

원본의 서지사항과 재인용한 책의 서지사항을 표기하고, “에서 재인용”을 덧붙인다. 원본의 서지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재인용한 책의 서지사항과 “에서 재인용”으로 표기한다. 원본 서지사항과 재인용한 책의 서지사항의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넣는다.

예시)

W. Barclay, *The New Testament*, vol. 1, 314; D. C. Arichea, “Taking Theology Seriously in the Translation Task”, R. Omanson, ed., *Discover the Bible*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1), 240에서 재인용.

W. Bauer, *Wb*, 590; K. H. Rengstorf, *Th Wb* 7, 267; Sietzmann; Schlatter; Schnackenburg, “Apostles”, 293에서는 유니아를 ‘사도들 중에서 탁월한 사도’로 보고 있다; E. 케제만, 『로마서』,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國際聖書註釋 34 (서울: 韓國神學研究所, 1982), 666

에서재인용.

(20) 학자들이 익히 알고 있어서 약어로 표기해도 대부분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예시)

CAD A, 250^b

ABD 150 r.17

BDB, 205

HALOT 2, 233

(21) 신학사전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저자, “기사명”, 편집자명, ed.,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예시)

C. J. Labus, “קרא”, E. Jenni, hrsg.,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ol. I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666-667.

(22) 전자매체본(e-book)

① 단행본의 전자매체본은 종이책의 출판년과 전자매체본의 출판년을 모두 표기하고, 웹사이트 주소와 검색일자를 적는다. 웹사이트 주소를 대신하여 DOI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 양서의 경우 “accessed from”으로 검색일자와 웹사이트 주소를 적는다.

예시)

동서: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전자매체본/또는 사용한 기기의 이름, 전자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웹사이트 주소(검색일자).

R. 프리츠,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3[전자매체본, 2016]), 30-40, <http://www.aladin.co.kr/>(2017. 11. 28.).

양서: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e-book/또는 사용한 기기의 이름, 전자출판년]),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accessed 검색일자 from 웹사이트 주소.

J. Barton and J. Muddiman, eds., *The Gospels*, The Oxford Bible Commentary (Oxford: OUP, 2001[e-book, 2010]), 84, accessed 2 March 2018 from EBSCO.

② 정기간행물의 전자매체본은 웹사이트 주소와 검색일자를 적는다. 웹사이트 주소를 대신하여 DOI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 양서의 경우 “accessed from”으로 검색일자와 웹사이트 주소를 적는다.

예시)

김창주, “출애굽 초기 경로와 지명 토포보기 — 므돌, 바알스본, 비하히룻 —”, 「성경원문연구」 35 (2014), 7-26, <http://www.bskorea.or.kr/>(2017. 11. 28.).

김창주, “출애굽 초기 경로와 지명 토포보기 — 므돌, 바알스본, 비하히룻 —”, 「성경원문연구」 35 (2014), 7-26, <https://doi.org/10.28977/jbtr.2014.10.35.7>(2017.11.28.).

J. D. Beaton, “Finding Justice in Ancient Israelite Law: A Survey of the Legal System of the Israelites during the Post-Exodus, Pre-Exilic Perio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1:2 (2016), 139-142, accessed 28 September 2017 from <http://jot.sagepub.com/>.

③ 인용한 페이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페이지를 대신하여 해당 장(chapter)을 적을 수 있다.

예시)

G. D. Fee, *Jesus the Lord according to Paul the Apostle: A Concise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Kindle version, 2018]), chap.3, accessed 2 March 2018 from <https://www.amazon.com/>.

2.3. 참고문헌

본문과 연결하여 수록하지 않고 독립적인 페이지로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휴면명조, 10.5 pt)이란 제목을 표기하고, 문헌들을 나열한다. 영어 논문인 경우에는 <References>라고 표기한다.

2.3.1. 배열 순서

- (1) 배열 순서는 성서 및 기타 원전, 동서, 양서 순으로 한다.
- (2) 동서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 양서는 저자명의 알파벳으로 나열한다.
- (3)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3.2. 표기 형식

(1) 참고문헌의 내용은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항으로 나누어지며, 각 항목은 쉼표로 구분한다.

(2) 출판사항은 괄호 없이 표기한다.

(3) 4자(40 pt) 내어쓰기로 한다.

(4) 양서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 이름의 순으로 기록하며, 성 다음에 쉼표를 찍는다.

(5) 모든 종류의 문헌의 표기는 출판사항, 양서의 저자명, 4자 내어쓰기를 제외하고는 각주와 동일하다.

예시)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서울: 쿰란출판사, 2002.

Metzger, B. M.,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3.3. 참고문헌의 예시

(1) 동일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경우, 서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저자는 반복 기술한다.

예시)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9 (2000), 137-166.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에 성천창기가 존재했는가”, 『구약논단』 10 (2001), 65-84.

(2) 공동저자의 표기

예시)

동서

저자가 3인인 경우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문옥표 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서울: 청년사, 2003.

양서

저자가 2인인 경우

Louw, J. P. and Nida, 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Sandy, D. B. and Giese, Jr., R. L.,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A Guide*

to Interpreting the Literary Genres of the Old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저자가 3인인 경우

Gesenius, W., Strong, J., and Tregelles, S. P.,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Ellicott, C. J., et al.,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3) 편집책

예시)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Louw, J. P. and Nida, 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4) 번역서

예시)

언더우드, L. H., 『상투의 나라』, 신복룡, 최수근 역주, 서울: 집문당, 1999.

Rainey, A. F., “엘-아마르나 서신 가나안어에 비추어 본 고대 히브리어의 접두형 활용”, 박미섭 역, *Hermeneia Today* 20 (2002), 48-69.

Van der Leeuw, G.,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 2, J. E. Turner, trans., New York: Harper & Row, 1963.

(5) 편집된 책 속의 글

예시)

장석정, “이사야 7:10-17에 관한 연구”,王大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16-131.

Gordis, R., “Studies in the Book of Amos”, S. A. Baron and J. E. Barzilay, eds., *American Academy for Jewish Research: Jubilee Volume (1928-29/ 1978-79)*, New York: American Academy for Jewish Research, 1980, 50.

(6) 정기간행물 기사

예시)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9 (2000), 150-161.

Blomberg, C. L., “The Superiority of TNIV in Hebrews”, *The Bible Translator* 55:3 (2004), 310-318.

Chaney, M. A., “Whose Sour Grapes? The Addressees of Isaiah 5:1-7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Semeia* 87 (1999), 105-122.

(7) 학위논문

학교와 출판년을 괄호 없이 표기한다.

예시)

전혜영,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1988.

Burkes, S., “Death in Qoheleth and Egyptian Biographies of the Late Peri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97.

(8) 성서

성서, 역자,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한다.

예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J. 로스, J. 매킨타이어 역, 심양: 문광서원, 1882.

(9) 판차 표기

예시)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 총서사항

예시)

Käsemann, E., 『로마서』, 국제성서주석 34,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Tate, M., *Psalms 51-100*, WBC, Dallas: Word Books, 1990, 261-262.

(11) 전자매체본(e-book)

예시)

단행본의 경우

프리츠, R.,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3(전자매체본, 2016), 30-40, <http://www.aladin.co.kr/>.

Fee, G. D., *Jesus the Lord according to Paul the Apostle: A Concise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Kindle version, 2018), chap.3, accessed 2 March 2018 from <https://www.amazon.com/>.

정기간행물의 경우

김창주, “출애굽 초기 경로와 지명 토포아보기 — 므돌, 바알스본, 비하히롯 —”, 「성경원문연구」 35 (2014), 7-26, <http://www.bskorea.or.kr/>.

Beaton, J. D., “Finding Justice in Ancient Israelite Law: A Survey of the Legal System of the Israelites during the Post-Exodus, Pre-Exilic Perio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1:2 (2016), 139-142, accessed 28 September 2017 from <http://jot.sagepub.com/>.

2.4. 초록 및 키워드

2.4.1. 초록

- (1) 200자 원고지 4-5매 내외(A4 1쪽 내외)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2) 제목은 12 pt, 부제는 11 pt, 저자는 11 pt, 본문은 10.5 pt로 하며 다른 것은 본문과 동일하다.
- (3) “<Abstract>” (10.5 pt, 휴먼명조)를 용지 왼쪽 상단에 표기한다.
- (4) 저자 이름 다음 행에 소속기관을 원괄호로 표기한다.

예시)

Taek-Joo Woo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2.4.2. 주제어(Keywords)

“<주제어>(Keywords)” (10.5 pt, 휴먼명조)라고 쓰고, 중요 단어 5개 항목 (10.5 pt, 휴먼명조)을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한다. 본문 뒤에 첨가한다.

제정 2005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6월 9일
개정 2017년 10월 26일
개정 2018년 3월 10일
개정 2018년 10월 30일
개정 2019년 4월 17일
개정 2020년 2월 17일
개정 2021년 2월 19일

개정 2021년 11월 12일

개정 2024년 1월 29일

「성경원문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성경원문연구」가 전문학술지로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간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 심사, 인쇄, 발송의 전 과정)

투고한 논문들을 심사하여 인쇄한 뒤 발송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성경번역연구소에서는 국내외 성서학회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 투고 안내를 공지한다. 이 때 ‘연구 윤리 서약 및 논문 게재 신청서’ 서식 파일(양식 1)을 함께 보내며, 같은 내용을 대한성서공회 누리집에도 공지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 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 요약문,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주제어)이 미비할 경우 수정을 요청한다.

(3)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취합된 논문 목록을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을 소장과 위원장이 의논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양식 3: 원고 심사 의뢰서). 번역 논문, 서평, 자료의 경우에는 1인의 심사위원을 둔다.

(5) 심사 평가서(양식 4~7)가 수합된 후 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인터넷 상으로도 회의를 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하기로 한 논문은 성경번역연구소의 편집 담당 직원들의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제3조 (심사자 선정 및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

- (1) 투고 논문의 심사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온 학자로, 위 제2조 (4)항에서 정한 대로 심사를 의뢰한다.
- (2)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위원회 외부 학자가 심사를 한다.
- (3) 심사 평가서가 들어오면 논문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4조 (비밀 준수)

심사자는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투고자나 다른 심사자를 비롯하여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 기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자는 정한 기일 내에 원고 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 심사)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논문 체제, 각주, 참고문헌, 논문요약(abstract), 주제어(keyword), 약자표, 음역 등이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 수정을 지시한다.

(2) (내용 심사)

아래의 10개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 ① 성경 원문 연구와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기여도
- ② 논문 주제 및 연구 범위의 적절성
- ③ 제목과 목차의 적절성
-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⑤ 논리적 구성도와 결론의 합당성
- ⑥ 표현의 적합성 및 문장의 명료성
- ⑦ 인용의 적합성과 국내 선행 연구 인용(KCI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
- ⑧ 영문 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 ⑨ 투고 규정에 따른 논문 작성 체제의 준수 여부
- ⑩ 논문의 완성도

(3) (종합 평가)

개별 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 가’(90점 이상), ‘부분 수정 후 게

재’(89-76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75-61점), ‘게재 불가’(60점 이하)로 평가한다.

(4) (그 외 원고 심사)

번역 논문, 서평, 자료는 심사 평가서 양식 5~7과 같이 평가한다.

제6조 (심사 판정)

(1)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논문은 당해호에 투고자가 부분 수정을 한 후에 게재한다.

(3)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논문은 당해호에 게재를 불허하고, 차호 심사 기간 중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5) 3인의 심사 중 ‘게재 가’와 ‘부분 수정 후 게재’가 함께 있을 경우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한다.

(6) ‘게재 가’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불가’의 판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한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복사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된 논문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불가’의 평가를 한 심사자 중 1인이 추가로 ‘게재 가’로 재확인할 경우에 게재한다.

(7) 다만, 1인의 평가만이 ‘게재 불가’인 경우에도 그 사유가 명백하여 논문 성립이 불가능한 사유가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8) 번역 논문, 서평, 자료는 1인 심사자를 두고 편집위원회가 그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게재 가’로 최종 평가된 논문은 ‘게재 예정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제8조 (수정 준수 의무)

(1)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 요청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심사자의 제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투고자가 심사자의 제안을

수령하여 수정하면 수정을 요청한 심사자의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심의 없이 게재한다.

(2)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차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논문과 함께 본인의 논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설명은 심사자에게 논문과 함께 제공된다. 재심사를 통해 ‘게재 가’ 또는 ‘부분 수정 후 게재’를 받아야만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논문 재심사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차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절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정 2005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6월 9일

개정 2017년 3월 14일

개정 2017년 4월 14일

개정 2018년 8월 24일

개정 2020년 8월 28일

개정 2021년 11월 12일

개정 2024년 1월 29일

<양식 1>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회 귀하

Email: ibtr@bskorea.or.kr (전화: 02-2103-8783)

「성경원문연구」 연구 윤리 서약 및 논문 게재 신청서

한글성명		영문성명	
전 공	(이 논문을 심사받고 싶은 전공분야를 기입함)		
소속기관		직위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한글제목			
영문제목			
<p>위 제목의 논문을 「성경원문연구」에 투고하면서, 「성경원문연구」 연구 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숙지하여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p> <p>(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였고 (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p> <p>(4)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였고, 제4조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인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와, ‘부당한 중복게재’, ‘이중 투고’ 등을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이에 위 논문을 심사한 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신청일: 신청자: (인)</p> <p>(※ 전자우편 발송 시 날인 생략)</p>			

<양식 2>

저작권 이양 동의서

(재)대한성서공회 귀하

논문제목 :

필자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이 논문은 필자의 창의적인 논문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 다. 필자는 본 논문이 귀 대한성서공회 발행의 학술잡지 「성경원문연구」에 게재될 경우, 필자는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를 대한성서공회에 이양하겠습니다. 이 저작권에는 전자 출판과 인터넷 게시가 포함됩니다. 필자는 이후에 다른 논문을 작성할 때에 이 논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20

(서명)

(위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투고하는 논문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3>

「성경원문연구」 원고 심사 의뢰서

_____ 귀하

다음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오니 수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심사 항목별 평가 기준 해당란에 점수를 적어 주시고 심사 소견을 작성하신 후 종합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제목: _____

년 월 일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장

<양식 4>

「성경원문연구」 투고 논문 심사 평가서

* 논문 제목:

1. 논문 평가 내용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점수	심사 소견 요약
1. 성경 원문 연구와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기여도	15점		
2. 논문 주제 및 연구 범위의 적절성	10점		
3. 제목과 목차의 적절성	10점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10점		
5. 논리적 구성도와 결론의 합당성	10점		
6. 표현의 적합성 및 문장의 명료성	10점		
7. 인용의 적합성과 국내 선행 연구 인용(KCI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	10점		
8. 영문 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10점		
9. 투고 규정에 따른 논문 작성 체제의 준수 여부	10점		
10. 논문의 완성도	5점		
총점	100점		

2. 구체적 심사 소견 (수정 사항)

3. 종합 판정:

- () 게재 가 (90점 이상)
- () 부분 수정 후 게재 (89-76점)
-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75-61점)
- () 게재 불가 (60점 이하)

 년 월 일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양식 5>

「성경원문연구」 투고 번역 논문 심사 평가서

* 번역 논문 제목:

1. 번역 논문 평가 내용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점수	심사 소견 요약
1. 원문 이해의 정확성	10점		
2. 번역의 정확성	10점		
3. 한국어 표현의 적합성	10점		
4. 문장의 명료성	10점		
5. 투고 규정에 따른 체제의 준수 여부	10점		
총점	50점		

2. 구체적 심사 소견 (수정 사항)

3. 종합 판정:

- () 게재 가 (45점 이상)
- () 부분 수정 후 게재 (44-38점)
-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37-31점)
- () 게재 불가 (30점 이하)

 년 월 일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양식 6>

「성경원문연구」 투고 서평 심사 평가서

* 서평 도서 제목:

1. 서평 평가 내용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점수	심사 소견 요약
1. 서평 대상 도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소개	10점		
2. 서평 대상 도서에 대한 적절한 평가	10점		
3. 성경 원문 연구나 성경 번역에 대한 기여도	10점		
4. 표현의 적합성 및 문장의 명료성	10점		
5. 투고 규정에 따른 체제의 준수 여부	10점		
총점	50점		

2. 구체적 심사 소견 (수정 사항)

3. 종합 판정:

- () 게재 가 (45점 이상)
- () 부분 수정 후 게재 (44-38점)
-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37-31점)
- () 게재 불가 (30점 이하)

 년 월 일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양식 7>

「성경원문연구」 투고 자료 심사 평가서

* 자료 제목:

1. 자료 평가 내용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점수	심사 소견 요약
1. 주제 및 연구 범위의 적절성	10점		
2. 자료적 가치	10점		
3. 성경 원문 연구나 성경 번역에 대한 기여도	10점		
4. 표현의 적합성 및 문장의 명료성	10점		
5. 자료의 완성도	10점		
총점	50점		

2. 구체적 심사 소견 (수정 사항)

3. 종합 판정:

- () 게재 가 (45점 이상)
- () 부분 수정 후 게재 (44-38점)
-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37-31점)
- () 게재 불가 (30점 이하)

 년 월 일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성경원문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성경원문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성경원문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2) 전문 지식을 학계와 교회 및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4)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함.
- (5) 지속적인 연구 윤리 교육에 참여

제4조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와 발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이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표절>

- (1)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지도 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중 투고>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판단)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 연구 윤리 지침이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공의,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개별 판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 (2) 정직한 실수
- (3)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들

제7조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때에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연구 논문 등을 작성할 때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
- (2)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나 업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1)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인 “상세 결과 확인서”를 논문과 함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올린다.

(2)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유사도 수치가 현저히 높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문헌 간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을 의뢰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배정할 때,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제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의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위원장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위원장은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의 부정행위를 규제 및 조치하기 위하여 조사와 심의가 필요한 때에 조사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 윤리 위반 검증, 검증 결과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로 대한성서공회 사장이 임명한다. 조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중 3인 이상이 성경원문연구 연구위원회 바깥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도록 한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중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4인 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4조 (조사위원의 기피, 제척, 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위원회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제16조 (조사위원회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 판정에서 제25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사위원회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위원회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성경번역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에 직접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하되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제보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24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1)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

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25조 (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 (1) 경고
- (2) 논문 불인정
- (3) 일정기간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4)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2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재심의)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경우,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8조 (비밀 엄수)

조사위원회는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 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으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역시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조사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정 2007년 10월 30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6년 6월 21일

개정 2017년 4월 14일
개정 2018년 4월 25일
개정 2020년 2월 21일



새한글성경

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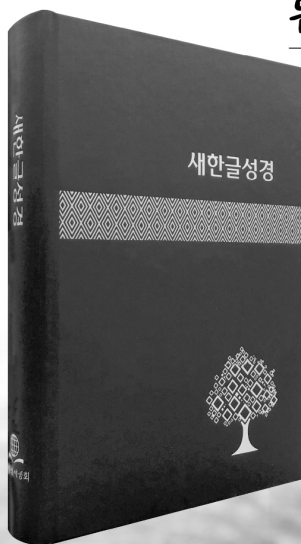
카톡에서 대한성서공회 채널 추가하세요 +

공인역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출간**

원문에 더 가깝게, 읽기는 더 쉽게



원문의 구조, 어원, 어순을 살린 번역
문학 장르에 따른 다채로운 문체

쉽고 간결한 문장
다양한 높임법
새롭고 참신한 어휘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

교회 전통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감감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시편 23장 4절 중에서-

★ **공인역** 성경 :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발간한 성경으로, 12년 동안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여러 단계를 거쳐 번역을 완료한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구입 문의 반포부 02-2103-8847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 채영삼(위원장, 충청)

유은걸(서기, 충청)

김정훈(부산)

김충연(서울)

박형대(경기)

배희숙(서울)

이영미(경기)

이용호(서울)

이윤경(서울)

주기철(부산)

한철흠(충청)

황선우(서울)

Jörg Frey(스위스)

Julie Faith Parker(미국)

Willem van Peursen(네덜란드)

Jean-François Racine(미국)

Kristin Weingart(독일)

【안내】

1. 「성경원문연구」는 반년간(4월/10월)으로 발행되는 성서학 전문 학술지입니다.

2. 본지에 실린 논문들은 대한성서공회의 의견이 아니라 각 필자들의 의견입니다.

3. 논문을 투고하실 분은 「성경원문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입 방법

(1) 대한성서공회(2층)에서 1권 10,000원에 판매합니다(각 210부 한정판).

(2) 인터넷 주문: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에서
주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신 후 연락을 주시면
원하는 책을 우송해 드립니다(송료 1권 2,800원, 2~4권 3,300원).

- 계좌번호: 수협 033-08-000013

- 예 금 주: 대한성서공회

- 전화번호: 02-2103-8785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5.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 ‘성경번역연구소’를 방문하시면
「성경원문연구」 지난 호 논문과 원고 투고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